

서유기

西遊記 · 오승은 100회본

제4권 (제31회 ~ 제40회)

오승은 (吳承恩, 약 1500-1582)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5-26

책 정보

원전

오승은 『서유기(西遊記)』 世德堂本(1592년 명대), 10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西遊記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
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6

번역 정책

- 인명·지명은 한국 한자음(孫悟空 → 손오공, 玄奘 → 현장)
- 별칭·법명·도호는 본명으로 통일(美猴王 → 손오공, 八戒 → 저팔계, 三藏 → 당승)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卻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한편", 詩曰/偈曰 → 시·계송 형식 유지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31회 — 저팔계가 의기로 손오공을 자극하고, 손행자가 지혜로 요괴를 굴복시키다	5
제32회 — 평정산 공조가 소식을 전하고, 연화동 목모가 재앙을 만나다	36
제33회 — 사악한 도가 참된 성품을 미혹하고, 원신이 본심을 돕다.	66
제34회 — 마왕이 교묘한 계책으로 마음의 원숭이를 가두고, 대성께서 날아오르다	92
제35회 — 사악한 무리가 위세를 떨쳐 바른 성품을 속이고, 마음의 원숭이가 보물을 얻어 요마를 굴복시키다	117
제36회 — 마음의 원숭이가 제자리를 찾아 온갖 인연이 굴복하고, 곁길을 깨뜨리니 밝은 달이 드러나다	141
제37회 — 귀왕이 밤에 당삼장을 알현하고, 손오공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영아를 인도하다	170
제38회 — 아이가 어머니에게 물어 사악함과 바름을 알고, 금목이 현묘함을 참구하여 가짜와 진짜를 보다	197
제39회 — 한 알의 단사가 하늘에서 얻어지고, 삼 년 전의 주인이 세상에 태어나다	225
제40회 — 아기가 노닐며 선심을 어지럽히고, 원숭이와 말의 싸움이 칼날이 되다	253

제31회 — 저팔계가 의기로 손오공을 자극하고, 손행자가 지혜로 요괴를 굴복시킨다

豬八戒義激猴王 孫行者智降妖怪

의리로써 형제의 정을 맺고, 법은 본래의 성품으로 돌아가느니라. 금(金)이 순응하고 목(木)이 길들여져 정과를 이루고, 마음의 원숭이(심원)와 나무 어머니(목모)가 만나 단원을 이루도다. 함께 극락세계에 오르고, 함께 불이(不二)의 법문에 이르느니라. 경전은 수행의 총체적인 길이며, 부처는 자기 자신의 원신(元神)에 짝하느니라. 형과 아우가 만나 세 가지 뜻을 이루고, 요괴와 마귀의 빛깔은 오행에 응하느니라. 육문(여섯 감각의 문)의 집착을 끊어내면, 곧 대퇴음천으로 나아가리라.

한편, 저팔계는 원숭이 떼에게 붙잡혀 끌려가게 되었다. 원숭이들은 저팔계를 어깨에 들쳐메고 이리저리 잡아당기며 그가 입고 있던 도포

를 갈가리 찢어 놓았다. 저팔계는 입속으로 투덜투덜 중얼거렸다. "에휴, 이제 다 끝났구나. 가서 한바탕 피 터지게 싸우게 생겼네."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손오공이 바위 절벽 위에 앉아 있다가 호통을 쳤다. "이 거 자루처럼 속이 빈 멍청한 놈아! 그냥 가기만 할 것이지, 어찌 감히 나를 욕하느냐?"

저팔계가 바닥에 납죽 엎드려 말했다. "형님, 제가 언제 형님을 욕했다고 그러십니까? 만약 정말 욕했다면 제 혀를 뽑아버리겠습니다. 저는 그저 형님이 안 가시겠다면, 저 혼자라도 가서 스승님께 소식을 전하려 했을 뿐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형님께 욕을 하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네가 어떻게 나를 속이겠느냐? 내가 왼쪽 귀를 위로 쫓긋 당기면 삼십삼천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다 들리고, 오른쪽 귀를 아래로 당기면 십대 염라대왕과 판관들이 장부 계산하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데, 네가 길을 가며 나를 욕한 것을 내가 어찌 못 들겠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형님, 형님이 워낙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분이랴, 분명 또 무슨 괴물로 변신해서 저를 몰래 엿듣고 계실 줄 알았습니다."

손오공이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얘들아, 굵은 몽둥이를 골라 오너라! 먼저 저놈의 발목(복사뼈)을 스무 대 때려주고, 그다음엔 등짝을 스무 대 후려쳐라. 그리고 나서 내가 직접 철봉을 휘둘러 저놈을 배웅해 주마!"

저팔계는 겁에 질려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다. "형님, 제발 스승님 얼굴을 봐서라도 저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손오공이 비아냥거렸다. "우리 스승님이 참으로 인자하고 의로운 분이시긴 하지."

저팔계가 다시 애원했다. "형님, 스승님 체면이 안 된다면 바다의 관음보살님 면목을 봐서라도 제발 살려주십시오!"

손오공이 보살에 관한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조금 움직였는지 말했다. "이보게, 네가 그렇게 말하니 일단 때리지는 않으나. 하지만 나를 속이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라. 당승이 어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나를 달래려고만 하는 거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형님, 딱히 어려운 일은 없고 정말 형님이 보고 싶어서 왔지요."

손오공이 욕을 하며 말했다. "이 매를 버는 녀석 같으니라고, 어찌 자꾸 나를 놀려먹으려 드느냐? 이 몸은 비록 몸은 수렴동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경전을 구하러 가는 스님을 좇고 있다. 스승님은 걸음마다 난관에 부딪히고 곳곳에 재앙이 닥치고 있으니, 내 매를 맞기 싫거든 어서 빨리 사실대로 말해라."

저팔계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다. "형님, 정말 형님을 모셔가려고 숨긴 것이지 속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눈치가 빠르실 줄이야! 제발 때리지 마시고,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됐다, 일어나서 말해라."

원숭이들이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자, 저팔계는 벌떡 일어나며 양 옆을 두리번거렸다. 손오공이 물었다. "뭘 그렇게 두리번거리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길이 넓고 탁 트였는지 보려는 겁니다. 그래야 도망가기 좋으니까요."

손오공이 쏘아붙였다. "어디로 도망가겠다는 거냐? 네가 사흘을 먼 저 가더라도, 이 몸이 가진 재주로 반드시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 어서 말해라! 내 성질을 건드리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형님이 돌아가신 뒤에 저랑 사오정이 스승님을 모시고 길을 떠났거든요. 그러다 흑송림을 만났는데, 스승님께서 말에서 내려 저더러 공양물을 구해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멀리 가기 싫은 데다 근처에 집도 한 채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 해서 풀숲에서 잠깐 잠을 청했죠. 그런데 사오정이 스승님과 헤어진 뒤에 저를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형님도 아시다시피 스승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성미가 아니시잖아요? 혼자 숲속을 거닐며 경치를 구경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다 숲을 벗어나니 황금 보탑이 빛을 내뿜고 있는 게 보여서, 스승님은 그저 절인 줄로만 아셨대요. 그런데 뜻밖에도 탑 아래에 황포 괴라는 요괴가 있어서 스승님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나중에 저랑 사오정이 뒤늦게 찾아가 보니, 백마랑 짐 보따리만 덩그러니 있고 스승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동굴 입구까지 쫓아가서 그 괴물 놈과 싸워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스승님은 동굴 안에 갇혀 계셨는데, 다행히 구원자가 나

타났어요. 알고 보니 보상국 국왕의 셋째 공주님이었는데, 그 요괴에게 납치당한 상태였거든요. 공주님이 편지를 써서 스승님 편에 보내는 바람에, 겨우 손을 써서 스승님을 풀어드릴 수 있었죠. 보상국에 도착해서 그 편지를 전했더니, 국왕이 스승님께 요괴를 물리치고 공주님을 되찾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더라고요. 형님, 그런데 그 노스님이 요괴를 잡을 수 있겠어요? 저희 둘이 다시 가서 싸워봤지만, 그놈의 신통력이 어찌나 대단한지 사오정까지 잡아 가버렸단 말이에요. 저는 싸움에 밀려 도망쳐 나와 풀숲에 숨어 있었고요. 그 요괴 놈은 잘생긴 선비로 변신해서 궁궐로 들어가 국왕과 친척 행세를 하더니, 스승님을 호랑이로 변하게 해버렸어요. 그래도 다행히 백룡마가 밤중에 용의 본모습을 드러내어 스승님을 찾아 나섰는데, 스승님을 찾지는 못하고 오히려 은안전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요괴를 마주쳤대요. 백룡마가 궁녀로 변신해서 술을 따르고 칼춤을 추며 기회를 봐서 그놈을 베려 했는데, 오히려 요괴가 쏜 만당홍(붉은 불꽃 탄환)에 말 다리만 다치고 말았죠. 바로 그놈 때문에 제가 형님을 모시러 온 거예요. 사오정이 그러더라고요. '형님은 인의가 넘치는 군자시니, 예전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반드시 오셔서 스승님의 난관을 구해줄 분이다'라고요. 제발 형님, '하루라도 스승님이면 평생 아버지와 같다'는 그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스승님을 좀 구해주세요!"

손오공이 말했다. "이 멍청한 녀석아! 내가 떠나기 전에 입이 닳도록 당부했잖아. '만약 요괴가 스승님을 붙잡으면, 나를 큰사형이라고 말해라'라고 말이야. 그런데 왜 내 얘기를 안 한 거야?"

저팔계는 속으로 피를 내며 생각했다. '좋아, 일부러 자극해서 오공 형님을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그러고는 짐짓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형님, 말씀 안 하셨으면 차라리 나왔을 텐데요. 형님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놈이 아주 난리가 났거든요."

손오공이 물었다. "뭐라고 하던데?"

저팔계가 대답했다.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요괴 놈아, 무례하게 굴지 말고 우리 스승님을 해치지 마라! 나에게서는 손행자라는 큰사형이 있는데, 신통력이 아주 뛰어나서 요괴를 아주 잘 잡는다. 그분이 오시면 네놈은 시체도 못 찾을 줄 알아라!'라고요. 그랬더니 그 괴물이 듣고는 더 화가 나서 이렇게 욕을 하더군요. '손행자 같은 게 대체 누구길래 내가 겁을 먹겠느냐? 그놈이 만약 오기만 해봐라!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발라낸 다음, 살을 찢고 심장을 먹어 치워버릴 테다! 원숭이라 몸집이 작더라도 아주 잘게 다져서 기름에 튀겨 먹어주마!'"

이 말을 들은 손오공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머리를 굽적이며 날뛰기 시작했다. "어떤 놈이 감히 나를 그렇게 욕해?"

저팔계가 달래며 말했다. "형님, 진정하세요. 그 황포괴라는 놈이 그렇게 욕을 하길래, 일부러 형님께 들려드린 거예요."

손오공이 외쳤다. "아우야, 일어나거라! 내가 안 갈 수가 없겠구나. 요괴가 감히 나를 욕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내가 같이 가주마. 내가 오백 년 전에 천계에서 대소동을 일으켰을 때, 하늘의 신장들이 나를 보지만 하면 모두 허리를 굽히고 '대성님'이라 부르며 깎듯이 대했거늘, 이 요괴 놈은 무례하게도 뒤에서 내 욕을 하다니! 가서

그놈을 붙잡아 갈갈이 찢어버리고, 나를 욕한 죄를 반드시 갚아주리라! 복수를 끝내고 바로 돌아오겠다!"

저팔계가 맞장구를 쳤다. "형님, 맞습니다! 어서 가서 요괴를 잡고 복수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돌아오실지 말지는 형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손오공은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 동굴 안으로 들어간 뒤, 요괴의 옷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비단 도포를 가지런히 정돈하고 호랑이 가죽 치마를 단단히 묶은 다음, 철봉을 쥐고 곧장 문밖으로 나왔다. 그러자 당황한 원숭이 무리가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대성 할아버지,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저희 같은 녀석들을 데리고 몇 년이라도 여기서 함께 놀아주시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놈들아,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내가 당승을 보필하는 일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손오공이 당승의 제자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 그놈이 나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에 들러 편히 쉬며 놀다 가라고 나를 보내준 것이나 다름없다. 다만 지금은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너희는 집안 살림을 잘 지키고 제때에 버드나무를 심고 소나무를 가꾸며 게을리하지 말고 보살펴야 한다. 내가 다시 당승을 보필하여 경전을 가져가 동토로 돌아간 뒤, 공을 세우고 나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 너희와 함께 즐겁게 놀아주마."

원숭이들은 모두 명을 받들었다.

손오공은 저팔계와 손을 잡고 구름을 타고 동굴을 떠났다. 동양의 넓은 바다를 지나 서쪽 해안에 이르러 구름 위에 멈춰 선 손오공이 말했다.

"형제여, 자네는 여기서 잠시 쉬고 있게. 나는 바다에 들어가 몸을 좀 깨끗이 씻고 오겠네."

그러자 저팔계가 물었다.

"길을 가는데 뭐가 그리 급하다고 몸을 씻는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자네가 뭘 알겠나. 내가 돌아온 뒤로 며칠 동안 요괴들과 엉겨 붙어 지냈더니 몸에서 요괴의 기운이 좀 배었던 말일세. 스승님은 워낙 깔끔한 분이랴 혹시라도 내가 더러워 보여 싫어하실까 걱정되네."

그제야 저팔계는 손오공이 다른 뜻 없이 진심으로 스승을 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는 토를 달지 않았다.

잠시 몸을 씻고 다시 구름을 타고 서쪽으로 나아가니, 저 멀리 금빛 탑이 빛을 내뿜고 있었다. 저팔계가 보고 말했다. "저기 황포괴의 집 아니에요? 사오정이 아직 저 집에 있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너는 공중에 떠 있어라. 나는 내려가서 저 문 앞이 어떤지 살펴보고 요괴와 맞설 준비를 하겠다." 저팔계가 말했다. "가지 마세요, 요괴는 집에 없을 거예요." 손오공이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한다."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내려가 파월동 입구로 곧장 달려가 살폈다. 그곳에는 어린아이 둘

이 구부러진 막대기를 휘두르며 공놀이를 하거나 구멍에 공을 넣으며 놀고 있었다. 한 아이는 열 살쯤 되어 보였고, 다른 아이는 여덟아홉 살쯤 되어 보였다. 아이들이 한창 놀고 있을 때 손오공이 달려들어, 그 아이들이 어느 집 자식인지는 상관하지 않고 덩석 낚아채서 끌고 왔다. 아이들은 갑작스러운 일에 깜짝 놀라 울며불며 욕설을 섞어 소리를 질러댔다. 이 소란에 파월동의 작은 요괴들이 놀라 공주에게 급히 달려가 보고했다. “마님, 어떤 사람이 나타나 두 공자님을 낚아채 갔나 봅니다!” 알고 보니 그 두 아이는 공주와 황포괴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다.

공주는 그 말을 듣고 급히 동굴 밖으로 달려 나왔다. 그러자 손오공이 두 아이를 손에 들고 높은 절벽 위에 서서, 금방이라도 아래로 내던질 듯한 기세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겁에 질린 공주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이보시오, 당신과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어찌하여 내 아들을 잡아간 것이요?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니, 만약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생긴다면 결코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요!”

손오공이 말했다.

“나를 모르느냐? 나는 당승의 첫째 제자인 손오공이다. 네 동굴 안에 내 사제인 사오정이 갇혀 있으니, 가서 그를 풀어주어라. 그러면 내가 이 두 아이를 돌려주겠다. 이렇게 둘을 주고 하나를 얻는 것이니, 오히려 네게 이득 아니냐?”

그 말을 들은 공주는 급히 동굴 안으로 달려 들어가 문을 지키던 요괴들을 호통쳐 물러나게 한 뒤, 직접 손을 써서 사오정을 풀어주었다. 사오정이 말했다.

“공주님, 저를 풀어주지 마십시오. 혹여 그 괴물이 돌아와 사람을 찾다가 공주님께 화를 입힐까 걱정됩니다.”

공주가 대답했다.

“스님, 스님은 저의 은인이십니다. 저를 위해 편지를 대신 써주어 목숨을 구해주셨으니, 저도 마음을 써서 스님을 풀어드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동굴 밖에 스님의 큰사형인 손오공이 나타나 스님을 풀어주라고 하니 어찌하겠습니까.”

"아이고!"

사오정은 '손오공'이라는 세 글자를 듣자마자, 마치 머리 위로 제호(醍醐, 정제된 우유)를 부어 주고 마음에 감로(단 이슬)가 스며드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온몸에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차올랐으니, 이는 마치 길에서 금덩어리나 옥을 주운 것과 다름없었다. 사오정은 옷을 매만지며 서둘러 문밖으로 달려 나와 손오공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다.

"형님,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신 듯합니다! 제발 저를 좀 구해주시시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사화상 녀석아, 스승님이 긴고주(머리테 조이는 주문)를 외우실 때 네가 옆에서 좀 거들어 줄 수는 없었느냐? 입만 살아서 스승님을 지키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어찌하여 서역으로 가는 길은 팽개치고 여기서 이려고 웅크리고 있는 게냐?"

사오정이 대답했다.

"형님, 더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은 묻지 않는 것이 군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이미 패배한 장수와 같으니 용맹을 떠벌릴 처지가 못 됩니다. 그저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제야 사오정은 몸을 날려 바위 절벽 위로 뛰어올랐다.

한편, 저팔계가 공중에 멈춰 서 있다가 사오정이 동굴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곧장 구름을 타고 내려가며 소리쳤다. "사 형제, 마음 단단히 먹게, 마음 단단히 먹어!"

사오정이 그를 보고 물었다. "둘째 형님,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저팔계가 대답했다. "어제 싸움에서 지고 밤중에 성안으로 들어갔다 가 백마를 만났네. 스승님이 황포괴의 술법에 걸려 호랑이로 변했다는 소식을 들었지 뭐야. 그래서 백마와 상의해서 손오공 형님을 모셔 오라고 부탁했네."

손오공이 말했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한가하게 수다 떨 시간 없다. 이 아이들을 하나씩 안고 얼른 보상국 성안으로 들어가서 요괴를 유인해라.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놈을 때려잡을 테니."

사오정이 물었다. "형님, 어떻게 유인해야 합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너희 둘이 구름을 타고 금란전 위로 올라가거라. 웅고 그름 따지지 말고, 그 아이들을 백옥 계단 앞으로 확 내동댕이쳐 버려. 누가 너희가 누구냐고 물으면, 황포괴 요괴의 아들들인데 우리가 잡아 왔다고 말해라. 요괴가 그 소리를 들으면 분명히 달려올 테니, 나는 굳이 성안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만약 성안에서 싸우게 되면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지고 흙먼지가 날릴 텐데, 그러면 조정의 관리들과 백성들이 놀라 아주 난리가 날 게다."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은 일만 벌이고는 늘 저희를 곤경에 빠뜨리시는군요."

손오공이 되물었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곤경에 빠뜨린다는 거냐?"

저팔계가 말했다. "이 아이들은 형님이 잡아 왔으니 이미 겁에 질려 울음소리조차 안 나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분명히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계단 아래로 던져 고깃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면, 요괴가 쫓아와서 가만히 놓아두겠습니까? 분명 우리 둘에게 목숨값을 내놓으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형님은 오히려 아무 책임도 없는 깨끗한 사람이 되고, 증인조차 형님을 가리키지 않을 테니, 이거야말로 저희를 곤경에 빠뜨리는 게 아니고 뭐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만약 요괴가 너희를 붙잡으려 하면, 너희 둘은 싸우면서 이쪽으로 끌고 오너라. 여기는 싸울 수 있는 넓은 벌판이 있으니, 내가 여기서 기다리며 놈을 상대하겠다."

사오정이 맞장구를 쳤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위세를 떨치며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다.

손오공이 곧 석벽 아래로 뛰어내려 공주의 문 앞에 이르렀다. 그러자 공주가 꾸짖으며 말했다. "이 스님은 어찌 이리 신의가 없소? 내 아이를 놓아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스님의 사제는 풀어주고 내 아이만 남겨두다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다시 우리 문 앞에 나타난 것이오?"

손오공이 짐짓 웃으며 달렸다. "공주님,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공주님께서 이곳에 계신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이제 아드님을 데리고 외조부님을 뵈러 가야지요."

공주가 대답했다. "스님, 무례하게 굴지 마시오. 내 남편인 황포괴 낭군은 여느 사람들과는 격이 다르단 말이오. 만약 내 아이를 겁주거나 해치기라도 한다면,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공주님, 사람이 천지 사이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어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공주가 말했다. "그건 나도 아는 바요."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여인인 공주께서 무엇을 안단 말씀입니까?"

공주가 대꾸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궁궐에서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자랐소. 옛 글에 이르기를, ‘세상의 수많은 죄 가운데 불효만큼 큰 죄는 없다’라고 했음을 기억하고 있소.”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공주님이야말로 바로 불효를 저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낳아 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길러 주셨으니, 부모님의 고생과 슬픔이 참으로 크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효도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자 모든 선행의 바탕입니다. 그런데 어찌 요괴에게 몸을 맡긴 채 부모님을 그리워할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불효가 아니라면 무엇이 불효겠습니까?”

손오공의 정론을 들은 공주는 한동안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지더니,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러다 참지 못하고 울먹이며 말했다. “스님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내가 어찌 부모님을 그리워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요괴가 나를 속여 이곳에 가두어 버렸고, 감시가 워낙 삼엄하여 발걸음조차 마음대로 땔 수 없었습니다. 길은 멀고 산은 험하여 소식을 전할 사람도 없으니, 차라리 목숨을 끊고 싶다가도 혹여 부모님께서 내가 도망친 줄 알고 오해하실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어찌 할 도리가 없어 겨우 목숨만 붙이고 있으니, 참으로 천지간의 큰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말을 마친 공주는 눈물을 샘처럼 쏟아냈다.

손오공이 말했다. “공주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팔계에게 듣기로, 공주님께서 편지를 보내 제 스승님의 목숨을 구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편지에도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더군요

요. 이 손오공이 직접 와서 저 요괴 놈을 잡아버리고, 공주님을 모시고 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서 좋은 짝을 만나 부모님을 모시며 평생 행복하게 사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공주가 말했다. “스님, 죽고 싶어 환장했나 보군요. 어제 스님의 두 사제는 그렇게 용맹한 장사들이었는데도 저 황포괴 낭군을 이기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뼈만 앙상하고 살집이라곤 하나도 없는, 꼭 게처럼 뼈가 겹으로 다 드러난 것 같은 스님이 대체 무슨 재주가 있다고 요괴를 잡겠다고 큰소리를 치는 건가요?”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공주님께서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시군요. 속담에 ‘거품은 커 보여도 무게는 나가지 않고, 작은 저울이라도 천 근을 누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제들의 덩치는 커 보여도 쓸모가 없어요. 걷기만 해도 바람을 맞고, 옷 입으려면 천이 한 가득 들고, 속은 텅 비어 실속이 없으며, 허리도 약하고 먹기만 해도 살로 가지 않지요. 하지만 저 손오공은 몸집은 작아도 아주 묵직한 맛이 있습니다.”

공주가 다시 물었다. “정말로 재주가 있긴 한가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제 재주를 아직 못 보셔서 그렇습니다. 요괴를 잡고 괴물을 굴복시키는 데는 제가 아주 일가견이 있지요.”

공주가 말했다. “절 속이는 건 아니겠지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요괴를 잡을 줄 안다면, 대체 그놈을 어떻게 잡으려는 건가요?”

손오공이 말했다. “일단 이 앞에서는 좀 비켜 계십시오. 그놈이 나타났을 때 제가 손을 쓰기 불편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공주님께서 그놈과 정이 너무 깊어 차마 떠나보내지 못할까 봐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공주가 말했다. “제가 그를 왜 못 떠나보낸단 말입니까? 그저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뿐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와 십삼 년이나 부부로 지내셨는데 어찌 정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그놈을 만나면 장난치지 않고 몽둥이로 치면 치는 대로, 주먹으로 치면 치는 대로 아주 호되게 때려눕힐 겁니다. 그래야 공주님을 궁으로 모셔갈 수 있으니까요.”

공주는 과연 손오공의 말대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몸을 숨겼다. 공주로서의 인연도 여기까지였던 탓인지, 마침 손오공이 이곳에 나타난 것이다.

손오공은 공주를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는, 몸을 흔들여 공주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했다. 그러고는 다시 동굴로 돌아가 요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한편, 저팔계와 사오정은 두 아이를 보상국 성안으로 가져가 백옥 계단 위로 내던져 버렸다. 가련하게도 아이들은 마치 고기떡처럼 짓이겨져, 선혈이 낭자하게 흐르고 뼈마디가 산산조각이 났다. 이 광경을 본 조정의 관리들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하늘에서 사람 둘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저팔계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저 아이들은 황포괴 요괴의 자식들이다! 이 저팔계와 사오정 형제가 잡아 온 것이다!"

황포괴는 아직 은안전에 머물며 술기운에 취해 잠들어 있었다. 한창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데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황포괴가 몸을 뒤척이며 고개를 들어보니, 구름 위에서 저팔계와 사오정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요괴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팔계라면 그러려니 하겠다면, 사오정은 내가 집에 잡아두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단 말인가? 내 아내가 그를 순순히 놓아주었을 리도 없고, 내 아이들이 그에게 잡혔을 리도 없는데 말이다. 이건 분명 저팔계가 내가 밖으로 나가 싸우지 못하도록 꾀를 부리는 것이로구나. 저놈이 내뱉는 말을 그대로 믿고 나갔다가는 큰코다치겠어. 아이고, 술기운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만약 저놈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기라도 한다면 내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수법도 다 간파당하고 말 것이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내 아들이 맞는지, 내 아이들이 맞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저놈들과 상대해도 늦지 않겠다.'

이 요괴는 국왕이 있는 곳까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산과 숲을 가로질러 곧장 동굴로 돌아가 상황을 살피러 갔다.

이쯤 되니 조정에서도 그가 요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원래 그는 밤중에 궁녀 한 명을 잡아먹었고, 나머지 열일곱 명은 목숨을 건져 달아났다. 이들이 오경(새벽녘)에 국왕에게 그간의 일을 낱낱이

아뢰니, 국왕은 더욱 그가 요괴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게다가 그가 예고도 없이 사라진 것 또한 요괴라는 증거로 보였다. 이에 국왕은 여러 관리에게 명하여, 그 가짜 호랑이를 엄중히 감시하게 했다.

한편, 요괴가 동굴 입구로 돌아왔다. 손오공은 그가 오는 것을 보고 피를 내어 그를 속이기로 했다. 손오공은 눈을 질끈 감고 비틀거리더니, 마치 비가 쏟아지듯 눈물을 펄펄 흘리며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동굴 안이 떠나가라 통곡하기 시작했다.

요괴가 그 모습을 보고 어찌 알아채겠는가. 급히 다가가 그녀를 꺼안으며 물었다. "부인, 무슨 일이기에 이토록 슬퍼하고 있소?"

손오공은 거짓말을 지어내고 꾸며낸 말을 늘어놓으며, 눈물을 그렇게 흘린 채 말했다. "여보, 예부터 '남자는 아내가 없으면 재물을 지킬 주인이 없고,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 몸을 기댈 곳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어제 친척을 만나러 조정에 가신 뒤로 어찌하여 돌아오지 않으시는 건가요? 오늘 아침에는 저팔계가 사오정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아이 둘을 강제로 빼앗아 갔어요. 제가 애원하며 말렸지만 듣지도 않았답니다. 아이들을 조정으로 데려가 외조부님께 인사시키겠다고 하더니, 반나절이 지나도록 아이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소식조차 없고 당신은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 제가 어찌 이 슬픔을 견딜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요괴는 속에서 불길이 치밀어 오르며 크게 외쳤다. "그 아이들이 정말 내 아들들이란 말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럼요, 저팔계가 몽둥이를 휘둘러 빼앗아 갔단 말입니다."

요괴는 화가 나서 날뛰며 말했다. “됐다, 됐어! 내 자식이 저놈에게 맞아 죽었으니 이제 살아날 길은 없구나. 그놈 대신 저 스님을 잡아다가 내 아들의 목숨값으로 복수를 해야겠다. 부인, 그만 울어요. 지금 마음이 어떠요? 어서 몸을 좀 추려보시오.” 행자가 말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저 아이가 너무 가엾어 마음이 아파 울 뿐입니다.” 요괴가 말했다. “괜찮소, 어서 일어나시오. 여기 보물이 하나 있으니, 아픈 곳에 대고 살짝 문지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질 것이요. 다만 조심해야 하오. 엄지손가락으로 튕기면 안 되오. 만약 엄지로 튕겨버리면 내 본 모습이 드러나 버리니까 말ियो.”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속으로 비웃으며 생각했다. ‘이 요괴 녀석, 제법 솔직하군. 형벌을 쓰지도 않고 제 발로 보물을 바치다니. 저놈이 보물을 꺼내면 내가 손가락으로 튕겨서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마.’ 요괴는 손오공을 데리고 동굴 깊숙하고 밀폐된 곳까지 들어갔다. 그러더니 입에서 보물 하나를 뱉어냈는데, 그것은 달걀만 한 크기의 영롱한 사리 모양 내단이었다. 손오공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좋은 물건이로구나! 이 내단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오래 수행하고, 몇 년 동안 고난을 겪으며, 음양의 기운을 몇 번이나 조화시켜 이 사리 같은 내단을 완성했을까. 오늘 참으로 인연이 깊어 이 늙은 원숭이를 만났구나.’ 손오공은 내단을 건네받았다. 그러고는 아픈 곳이 어디냐고 묻지도 않고, 일부러 아픈 곳을 만지는 척하다가 손가락으로 툭 튕겨버렸다. 요괴는 깜짝 놀라 손을 뻗어 낚아채려 했다. 하지만 손오공이 얼마나 영리하고 재빠른지, 그 보물을 단숨에 입안으로 꿀꺽 삼켜버렸다. 요괴가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으나, 손

오공이 한 손으로 막아내며 얼굴을 한 번 쓱 문지르자 본모습이 드러났다. 손오공이 외쳤다. “요괴 녀석, 무례하게 굴지 마라!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아라!”

요괴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외쳤다. "아니, 여보! 당신 왜 그런 몰골을 하고 나타난 거요?"

손오공이 욱을 퍼부으며 말했다. "이 고약한 괴물 녀석! 누가 네 마누라라는 거냐? 네 조상도 못 알아볼 정도로 눈이 멀었구나!"

그러자 요괴가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다. "어라, 당신 왠지 낯이 익은데?"

손오공이 대꾸했다. "일단 때리지는 않을 테니, 다시 한번 잘 봐라."

요괴가 말했다. "낯은 익지만 도무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구나. 당신 대체 누구냐? 어디서 온 놈이야? 내 마누라를 어디에 가둬두고 우리 집 보물을 훔치러 온 거냐? 정말 무례하고 가증스럽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너는 정말 나를 모르는구나. 나는 당승의 첫째 제자, 손오공이라 한다. 나는 네 500년 전 조상님이나 다름없단 말이다!"

요괴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당승을 붙잡았을 때는 저팔계와 사오정이라는 제자 둘뿐인 줄 알았지, 성이 손씨라는 놈은 들어본 적도 없다. 어디서 온 괴물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와서 나를 속이려 들다니!"

손오공이 말했다. "내가 그 둘과 함께 온 게 아니다. 스승님이 평소 요괴를 때려잡는 내 버릇을 보고, 내가 너무 살생을 많이 한다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를 쫓아내셨기에 함께 길을 걷지 못한 것뿐이다. 네놈이 네 조상 이름도 모르는 게 당연하지!"

요괴가 비아냥거렸다. "참으로 대단한 놈이로구나! 스승님한테 쫓겨났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나타난 거냐?"

손오공이 외쳤다. "이 고약한 놈아! '하루 스승이면 평생 아버지와 같다'는 말도 모르느냐? '부자 사이에는 밤을 넘기는 원한이 없다'고 했다. 내가 내 스승님을 해쳤으니 내가 구하러 오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스승님을 해친 것도 모자라 앞뒤로 나를 욕하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요괴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내가 언제 너를 욕했다고 그러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저팔계가 그렇게 말하더구나."

요괴가 말했다. "그놈 말은 믿지 마라. 저팔계 그놈은 입만 살아서 아주 교묘하게 말을 잘하는 놈이니, 어찌 그 말을 듣느냐?"

손오공이 말을 잘랐다.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워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왔는데, 손님을 이렇게 홀대해서야 되겠느냐? 술과 안주는 없더라도 대접할 머리는 있으니, 어서 머리를 내밀어라! 이 몸이 몽둥이로 한 대 후려쳐 차 대접을 대신해 주마!"

요괴는 매를 맞는다는 소리에 오히려 허허 웃으며 큰소리로 웃었다. "손오공, 네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매를 때리겠다고 나를 따라 들어올 게 아니었다. 여기 내 수하에 요괴가 백여 마리는 더 있으니, 네놈이 아무리 손이 많다 한들 내 문밖으로 나가기는 틀렸다!"

손오공이 말했다. "헛소리 마라! 백 명은커녕 수천, 수만 명이 온다 해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때려줄 것이다. 내 몽둥이는 헛방이 없으니, 오늘 네놈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겠다!"

그 요괴는 말을 듣자마자 급히 명령을 내려, 산 앞뒤에 있는 요괴들과 동굴 안팎의 괴물들을 모조리 불러 모았다. 요괴들은 각자 무기를 들고 나타나 삼사 층의 문을 겹겹이 막아 서며 길을 차단했다. 이를 본 손오공은 마음속으로 무척 기뻐하며 양손에 여의봉을 쥐고 크게 외쳤다. "변신!" 손오공은 순식간에 머리 셋에 팔 여섯 개를 가진 모습으로 변했다. 그리고 금고봉을 휘둘러 세 개의 금고봉으로 만들었다. 여섯 개의 팔로 세 개의 몽둥이를 휘두르며 돌진하는 모습은 마치 굶주린 호랑이가 양 떼 속에 뛰어들고, 매가 닭장에 들이닥친 것과 같았다. 가련한 요괴들은 머리가 가루가 되도록 얻어맞거나, 피가 물처럼 흐를 정도로 굶히고 베였다. 손오공은 마치 아무도 없는 곳을 다니듯 거침없이 요괴들을 쓸어버렸다. 결국 요괴 중 하나만 겨우 살아남아 문밖으로 달려 나오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못된 원숭이 놈아, 정말 지독하구나! 어찌 감히 남의 집 문턱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느냐?" 손오공이 재빨리 고개를 돌려 손짓하며 말했다. "이리 와라, 이리 와! 너를 쓰러뜨려야 내 공이 될 것 아니냐." 요괴는 보검을 치켜들고 달려들었고, 손오

공은 철봉을 뽑아 정면으로 맞섰다. 산 정상에서는 구름과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시로 이르되,

대성(손오공)의 신통력은 높고, 요괴의 재주 또한 대단하구나. 한쪽은 철봉을 가로로 휘두르고, 다른 한쪽은 강철 칼을 비스듬히 치켜드네. 칼이 번쩍일 때마다 붉은 노을이 빛나고, 봉이 가볍게 움직일 때마다 채운이 흩날리네. 머리 위를 오가며 수없이 뒤엎키고, 몸을 돌려가며 몇 번이고 맞붙네. 한 명은 바람을 타고 얼굴을 바꾸고, 한 명은 땅에 서서 몸을 흔드네. 한쪽은 불꽃 같은 눈을 부라리며 원숭이 팔을 뺀고, 다른 한쪽은 번뜩이는 눈으로 호랑이 허리를 꺾네. 서로 오가며 격렬히 맞붙으니, 칼과 봉이 부딪쳐 사정을 봐주지 않네. 원숭이 왕은 병법에 따라 철봉을 휘두르고, 요괴는 지락을 써서 강철 칼을 휘두르네. 한쪽은 마귀의 수단에 익숙한 요괴의 우두머리요, 한쪽은 당승을 지키려 법력을 펼치는 영웅이라. 맹렬한 원숭이 왕은 더욱 맹렬해지고, 용맹한 요괴는 더욱 용맹해지네. 삶과 죽음도 잊은 채 하늘 위에서 싸우는 것은, 모두 당승을 위해 부처님께 공덕을 쌓으려 함이라.

두 사람이 쇠에서 예순 합가량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손오공은 속으로 내심 기뻐하며 생각했다. ‘이 고약한 놈, 칼숨씨가 제법이라 내 여의봉을 잘 막아내는구나. 내가 일부러 빈틈을 보여준다면 저놈이 알아챌 수 있을까?’

손오공은 양손으로 봉을 높이 치켜들어 ‘고담마’의 자세를 취했다. 요괴는 그것이 함정인 줄도 모르고 빈틈이 보였다 싶자, 보검을 휘두르

며 곧장 아래쪽 세 군대를 향해 베어 왔다. 그러자 손오공은 급히 몸을 돌려 ‘대중평’의 초식으로 요괴의 칼을 쳐낸 뒤, 곧바로 ‘엽저투도’의 자세를 취해 요괴의 머리 위로 봉을 내리쳤다. 한 방에 요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몰아붙인 것이다.

손오공이 급히 봉을 거두고 주위를 살폈으나 요괴는 간데없었다. 손오공이 깜짝 놀라 말했다. “이놈 봐라, 제대로 한 대 맞지도 않았는데 벌써 도망을 가버리다니! 정말로 맞아 죽었다면 피라도 좀 튀었을 텐데, 어찌 흔적조차 하나 없는 거지? 분명 도망친 게 틀림없어.”

손오공은 급히 몸을 날려 구름 위로 올라가 주위를 살폈지만, 사방 어디에도 움직임이 없었다. “내 눈이 어디를 보든 놓치는 법이 없는데, 어찌 저리도 매끄럽게 빠져나간단 말인가? 아하, 이제 알겠군. 저 요괴가 나를 좀 안다고 했던 걸 보니, 필시 평범한 괴물이 아니라 천계에서 내려온 신선일 것이 분명해!”

손오공은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철봉을 움켜쥔 채 공중제비를 돌며 단숨에 남천문까지 날아갔다. 남천문을 지키던 방, 유, 구, 필, 장, 도, 등, 신 등 수많은 신선은 당황하여 허리를 굽히고 뒷짐을 진 채 감히 가로막지도 못했다. 손오공은 그들을 지나 천문 안으로 들이닥쳐 통명전 아래까지 거침없이 달려갔다.

마침 그곳에 있던 장, 갈, 허, 구 네 명의 대천사가 물었다. "대성께서는 어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손오공이 대답했다. "내가 당승을 모시고 보상국에 갔다가, 어떤 요괴가 나라의 공주를 속이고 우리 스승님을 해치기에 나와 한판 붙었소.

그런데 싸우던 도중에 그 괴물이 홀연히 사라져 버렸단 말이오. 생각건대 그놈은 필시 평범한 요괴가 아니라 천계의 신선 중 하나일 것이오. 그래서 어떤 요괴 신선이 멋대로 빠져나갔는지 조사하러 왔소!"

천사들이 이 말을 듣고 즉시 영소전으로 올라가 옥황상제에게 보고했다. 조사해 보니 구요성관, 십이원진, 동서남북 중앙의 오두성, 은하수의 별들, 오악과 사도, 그리고 하늘의 모든 신성한 존재들은 모두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며, 감히 자리를 비운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두우궁 밖의 이십팔수(별자리)를 살펴보니, 순서가 뒤바뀌어 스물일곱 자리만 있을 뿐, 규성만 홀로 빠져 있었다.

천사들이 돌아와 보고했다. "규목랑이 하계로 내려갔습니다."

옥황상제가 물었다. "그가 자리를 비운 지 얼마나 되었느냐?"

천사가 답했다. "사묘(卯)를 네 번 채우지 못했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출근 점호를 하는데, 벌써 열세 날이 지났습니다."

옥황상제가 말했다. "천계에서의 열세 날이면 하계에서는 이미 열세 해가 흐른 것이로구나."

옥황상제는 즉시 해당 부서에 명하여 그를 다시 천계로 압송하라고 명령했다.

스물일곱 별의 신관들이 옥황상제의 명을 받들고 남천문을 나서서, 각자 주문을 외우며 규성을 불러냈다. 그가 어디에 숨어 있었는지 아는가? 그는 본래 손오공이 천계에서 난동을 부릴 때 겁에 질려 도망쳤던

신장 중 하나였다. 그는 어느 산골짜기에 몸을 숨긴 채 재앙을 피하고 있었는데, 물안개가 요괴의 구름을 가리고 있어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신관들이 주문을 외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겨우 머리를 내밀어 무리를 따라 천계로 올라갔다. 그러다 남천문에서 손오공에게 가로막혀 싸움이 날 뻔했으나, 다행히 다른 별들이 말려 옥황상제 앞으로 압송되었다.

괴물은 허리춤에서 금패를 꺼내 전각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자복했다. 옥황상제가 물었다. "규목랑아, 천계에는 끝없이 아름다운 경치가 가득한데, 그것을 누리지 않고 어찌하여 멋대로 하계로 내려가 있느냐?"

규성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만세, 신의 죽을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상국의 국왕과 공주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본래 피향전에서 향을 관리하던 옥녀였으나, 저와 사사로이 정을 통하고 싶어했습니다. 저는 천계의 아름다운 경치를 더럽힐까 두려워, 그녀가 속세의 삶을 갈망하여 먼저 하계로 내려가 황궁 안에서 태어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가 전생의 인연을 저버리지 못하고 요괴로 변해 명산을 차지하고, 그녀를 동굴로 잡아들여 13년 동안 부부로 지내온 것입니다. '한 모금 마시고 한 번 쪼는 것도 모두 정해진 운명이라더니', 결국 오늘 손오공에게 이곳에서 들키고 말았습니다."

옥황상제는 그 말을 듣고 금패를 거두어들이며 명했다. "너를 도솔궁으로 좌천시켜 태상노군 밑에서 불을 때게 하리라. 봉록은 주되 직책은 맡기지 않을 것이며, 나중에 공을 세우면 다시 복직시켜 줄 것이나, 공을 세우지 못하면 죄를 더 무겁게 물을 것이다."

손오공은 옥황상제가 이토록 너그럽게 처결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위를 향해 크게 소리를 질러 인사를 올리고는 여러 신선에게 말했다.

"자, 여러분!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웃으며 말했다.

"저 원숭이는 여전하군요. 괴물을 물리쳐 준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그저 큰 소리로 인사나 하고 물러나다니 참으로 세속적입니다."

옥황상제가 말했다.

"그저 저놈이 사고를 치지 않고 천계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손오공은 상서로운 빛을 타고 내려가 완자산 파월동으로 곧장 날아갔다. 그는 그곳에서 공주를 찾아내어, 속세의 인연을 그리워하여 하계로 내려와 요괴를 거두었다는 사정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때 허공에서 저팔계와 사오정이 커다란 목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사형! 요괴가 있어요! 우리도 몇 마리 잡게 남겨줘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요괴들은 이미 다 없었다." 그러자 사오정이 말했다. "요괴를 다 없앴으니 이제 아무 걱정 없겠군요. 공주님을 궁궐로 모셔갑시다. 다들 눈을 감으세요. 저희가 축지법을 써서 움직이겠습니다."

공주는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바람 소리가 들리자마자 곧장 성안으로 달려갔고, 세 사람은 공주를 모시고 금란전으로 향했다. 공주는 아

버지인 국왕과 어머니인 왕후에게 절을 올리고 자매들도 만났다. 조정의 관리들도 모두 나와 공주를 뵈었다. 공주가 입을 열어 말했다.

“손 장로님의 법력이 끝이 없어 황포괴를 항복시키고 저를 구하여 나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국왕이 물었다.

“황포괴라는 자가 대체 어떤 요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폐하의 사위가 될 자는 천계의 구성이요, 공주님은 향을 모시던 옥녀였습니다. 속세의 인연을 그리워하여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전생의 인연이 깊어 이런 부부의 연이 맺어진 모양입니다. 제가 천계로 올라가 옥황상제님께 이 사실을 보고하니, 상제께서 조사해 보시고는 그가 죄를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하계에서의 13일은 곧 13년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천계에서의 하루가 하계에서는 1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상제께서 관할하는 별자리 신들에게 명하여 그를 천계로 불러들인 뒤, 도술궁으로 좌천시켜 공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 공주님을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국왕은 손오공의 은덕에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어서 가서 네 스승을 찾아보아라.”

세 사람은 보상국의 보전을 내려와 관리들과 함께 조정 방으로 가서 철장을 들어 올리고, 호랑이로 변한 삼장법사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

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호랑이로 보였으나, 손오공의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다. 알고 보니 삼장법사는 요술에 걸려 몸을 움직일 수 없었을 뿐, 마음은 또렷하여 상황을 다 알고 있었으나 입과 눈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참으로 훌륭한 스님께서서 어찌 이런 흥측한 모습으로 변하셨습니까? 저보고 악행을 저지른다며 쫓아내시더니, 마음은 선을 향하면서 어찌면 이런 몰골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자 저팔계가 거들었다. "형님, 스승님을 구하는 데 집중하세요. 왜 자꾸 놀려대기만 하십니까?"

손오공이 대꾸했다. "너는 매사에 일을 부추기는, 스승님이 아끼는 잘난 제자 아니냐? 네가 구하지 못해서 나를 찾아온 것 아니냐? 원래 말해두건대, 요괴를 물리치고 나를 욕한 원수까지 갚고 나면 바로 돌아갈 것이다."

사오정이 곁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했다. "형님, 옛말에 '스님의 얼굴이 아니더라도 부처님의 얼굴을 보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형님께서 여기까지 오셨으니 부디 스승님을 구해주십시오. 저희 힘으로 구할 수 있었다면 감히 형님을 멀리서 모셔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손오공이 손을 내밀어 사오정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내가 어찌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느냐? 어서 물을 가져오너라."

저팔계가 번개처럼 역사로 달려가 짐과 말들을 챙겨오더니, 자금 발우를 꺼내 물을 반쯤 담아 손오공에게 건넸다. 손오공은 물을 받아 들

고 진언을 외우더니, 호랑이의 머리 위로 물을 뿜었다. 그러자 요술이 풀리고 호랑이의 기운이 사라졌다.

삼장법사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니, 그제야 손오공임을 알아보고는 그를 부축하며 물었다. "오공아, 어디 갔다 오는 길이나?"

사오정이 곁에서 시중을 들며, 손오공이 요괴를 물리치고 공주를 구했으며, 호랑이로 변했던 스승을 구해 다시 조정으로 돌아온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삼장법사는 고마운 마음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착한 제자야, 정말 네 덕분이다. 모두 네 덕분이야. 이번 일이 끝나면 어서 서방으로 가서 불도를 닦고, 곧장 동토로 돌아가 당나라 임금님께 네 공로가 제일이라고 꼭 고하거라."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그저 스승님께 서 그 주문(긴고주)만 외우지 않으신다면, 그 두터운 정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말을 들은 보상국 국왕은 제자 네 사람에게도 거둬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리고는 정성껏 소박한 잔치를 준비하여 동각에서 크게 베풀었다. 스승과 제자들은 국왕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별 인사를 고하고 다시 서쪽으로 길을 떠났다. 국왕은 수많은 관리들을 거느리고 멀리까지 배웅을 나갔다.

시로 이르되, "임금은 보물 같은 궁전으로 돌아가 나라를 다스리고,
승려는 뇌음사로 떠나 부처님을 친견하도다."

결국 이 뒤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언제쯤 서천에 도착하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32회 — 평정산 공조가 소식을 전하 고, 연화동 목모가 재앙을 만나다

平頂山功曹傳信 蓮花洞木母逢災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승이 다시 손오공을 얻은 뒤, 스승과 제자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함께 서천을 향해 나아갔다. 보상국에서 공주를 구한 뒤, 임금과 신하들의 배웅을 받으며 성 밖 서쪽으로 나왔다. 길을 가는 동안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시며, 밤에는 머물고 새벽에는 길을 떠나기를 반복하며 끝없이 나아갔다. 그러다 마침 삼춘(三春)의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 시절의 풍경은 이러했다.

가벼운 바람에 버들가지 푸르게 휘날리니 실타래처럼 부드럽고, 아름다운 경치는 참으로 시 한 수를 읊기에 부족함이 없다. 새들은 지저귀며 봄을 재촉하고, 따스한 햇살 아래 꽃들이 만발하여 온 땅에 향기가 가득하다. 정원에는 쌍제비가 날아드니 바로 봄을 즐기는 때로다. 변화한 거리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모여 악기 소리에 맞춰 춤을 추고, 풀을 뜯으며 놀거나 술잔을 주고받으며 즐거워한다.

스승과 제자들이 경치를 감상하며 길을 가던 중, 또 다른 산이 앞길을 가로막았다. 당승이 말했다. "제자들아, 조심하거라. 앞의 산이 높으니 호랑이나 이리 같은 맹수가 나타날까 걱정이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출가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입에 담으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오소 화상이 말씀하신 《심경》의 구절을 기억하시나요?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두려움도 없고, 뒤틀린 망상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저 '마음속의 때를 닦아내고 귀가의 먼지를 씻어내어,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받지 않아야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이 손오공이 있는 한, 설령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해도 아무 일 없도록 지켜드릴 테니 호랑이나 이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당승은 말머리를 돌리며 시를 읊었다.

"예전에 어명을 받들어 장안을 떠날 때, 오직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마음뿐이었네. 사리국 금상에는 채색이 빛나고, 불탑 안에는 옥빛이 어른거리네. 천하를 뒤지며 이름 없는 물줄기를 찾아다니고, 인간 세상의 온갖 산을 다 헤맸건만. 겹겹이 쌓인 물결과 안개를 따라 쫓아가니, 내 몸은 언제쯤이나 편히 쉴 수 있을까?"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허허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몸이 편해지는 게 뭐 그리 어렵습니까? 나중에 공덕을 다 쌓고 나면 모든 인연은 끊어지고 모든 법은 공(空)해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겠습니까?"

당승은 그 말을 듣고 근심을 잊은 채 즐거운 마음을 가졌다. 그는 말의 고삐를 당겨 은빛 말을 몰고, 굴레를 다독이며 옥룡처럼 힘차게 나아갔다.

스승과 제자들이 산에 오르니, 지형이 매우 험하고 가파른 것이 실로 아찔했다. 산세가 참으로 장관이었다.

높고 높은 험준한 고개에는 깎아지른 듯한 봉우리가 솟아 있고, 굽이치는 깊은 계곡 아래에서는 물뱀이 몸을 뒤틀는 듯한 소리가 쏘아 하고 들려왔으며, 외로이 솟은 가파른 절벽 옆으로는 호랑이가 꼬리를 치며 숲을 헤치고 나오는 듯한 모습이 보였다. 고개를 들어 위를 보니 산봉우리가 푸른 하늘을 뚫을 듯 솟아 있었고, 눈을 돌려 아래를 보니 골짜기가 끝없이 깊어 마치 푸른 하늘과 맞닿은 듯했다. 위로 올라갈 때는 마치 사다리나 의자를 딛고 오르는 듯하고, 아래로 내려갈 때는 마치 구덩이나 참호를 지나는 듯했다. 참으로 기괴한 봉우리와 고개였으며, 과연 뽀족하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이어지는 곳이었다.

이 험한 고개 위에서는 약초를 캐는 사람도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망설이고, 깎아지른 절벽 앞에서는 나무를 하는 사람도 한 걸음 떼기가 어려웠다. 들짐승들은 제멋대로 날뛰고 영리한 토끼와 산소는 마치 진을 친 듯 도처에 깔려 있었다. 산이 너무 높아 해와 별조차 가려지니, 때마침 요괴와 늑대들이 출몰하는 시기였다. 풀이 우거진 오솔길은 말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어지러운데, 어찌 뇌음사(雷音寺)에 이르러 부처님(佛王)을 뵈 수 있겠는가?

당승이 말을 멈추고 산세를 살피는데, 마침 길이 험한 곳에 이르니
녹사파 언덕 위에 나무꾼 한 명이 서 있었다. 그의 차림새가 어떠한지
말해 주겠다.

낡은 푸른색 펠트 모자를 머리에 쓰고, 거친 무명 옷을 입고 있었다.
푸른 모자는 햇볕과 연기를 가려주기에 충분하고, 무명 옷은 편안하여
근심을 잊게 하니 참으로 보기 드문 차림이라. 잘 갈아진 강철 도끼를
손에 들고, 마른 나무를 베어 단단히 묶어 짊어지네. 처마 끝에는 봄기
운이 완연하여 사계절의 온기가 넘실거리고, 몸 밖으로는 한가로운 정
취가 흘러,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담담하고 여유롭구나. 늙어서 그저
흐르는 대로 살아갈 뿐이니, 명예나 치욕이 무슨 상관이겠는가?

그 나무꾼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언덕 앞에서 썩은 나무를 베고 있는데, 동쪽에서 오시는 스님을 문
득 만났네. 도끼를 멈추고 숲 밖으로 나와, 바위 절벽을 향해 급히 걸어
갔다네.

나무꾼은 당승을 향해 엄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서쪽으로 가시
는 스님, 잠시 멈춰 서 보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산에는 아
주 사나운 독마(毒魔) 무리가 살고 있는데, 스님처럼 이리저리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괴물들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당승은 혼비백산하여 겁에 질린 나머지 말 안장 위에
서 몸조차 가누지 못했다. 그는 급히 고개를 돌려 제자들을 향해 다급
히 불렀다. "저 나무꾼의 말을 들어보아라. 이 산에 사나운 독마가 있
다고 하는구나. 누가 가서 자세히 물어봐 줄 사람이 없겠느냐?"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스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가서 무슨 일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손행자는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산을 올라가더니, 나무꾼을 향해 "형님!" 하고 크게 소리치며 인사를 건넸다. 나무꾼이 예의를 갖추며 대답했다. "스님들, 무슨 연유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손행자가 말했다. "형님께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동토에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저기 말에 타고 있는 분이 제 스승님인데, 겁이 좀 많으십니다. 방금 형님께서 무시무시한 독마(毒魔)와 괴물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여쭙러 왔습니다. 그 마물은 얼마나 오래된 놈입니까? 괴물은 또 얼마나 째밥이 찬 놈인가요? 세력이 아주 큰 놈입니까, 아니면 이제 막 나타난 애송이입니까? 형님께서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야 제가 산신령님과 토지신께 말씀드려 그놈을 당장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나무꾼은 그 말을 듣고 하늘을 우러러 크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 참으로 능청스러운 스님이구려!"

손행자가 대꾸했다. "능청스럽다니요, 저는 지금 아주 진지하게 사실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꾼이 말했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어찌 감히 그놈을 치워버리겠다는 말을 하십니까?"

손행자가 말했다. "형님은 왜 그놈의 위세만 세워주며 헛소리로 길을 막고 소식을 전하십니까? 혹시 그놈과 친척이라도 됩니까? 친척이 아니라면 이웃이거나, 이웃이 아니라면 친구라도 되는 모양이지요?"

나무꾼이 웃으며 말했다. "이 능글맞은 스님 같으니, 참으로 말이 안 통하는군요. 나는 좋은 뜻으로, 길을 갈 때 낮이나 밤이나 조심하라고 특별히 알려주러 온 것뿐인데, 오히려 나를 몰아세우다니요. 내가 요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를 줄 아십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놈을 어찌 치운다는 말입니까? 대체 어디로 보낸단 말입니까?"

손행자가 말했다. "만약 하늘의 마물이라면 옥황제께 넘길 것이요, 땅의 마물이라면 토지 관청에 넘길 것입니다. 서쪽의 것은 부처님께, 동쪽의 것은 성인께, 북쪽의 것은 진무신께, 남쪽의 것은 화덕신께 맡길 것입니다. 교룡의 정령이라면 바다의 주인에게, 귀신이라면 염라대왕에게 보낼 것입니다. 저마다 다스리는 영역과 방향이 있는 법이지요. 이 손오공은 어디를 가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공문 한 장만 딱 써서 보내면, 그놈은 밤새도록 혼비백산하며 도망가게 될 겁니다."

나무꾼은 멈추지 않고 허허거리며 비웃듯 말했다. "이 허풍쟁이 스님을 보니, 아마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부적이나 주문 같은 법술을 좀 배웠나 본데, 그런 건 귀신이나 쫓을 뿐이지 이런 독한 괴물은 만나본 적도 없을 게요." 손오공이 물었다. "그 괴물이 얼마나 독하기에 그렇소?" 나무꾼이 대답했다. "이 산길을 따라 육백 리쯤 가면 평정산이라는 곳이 나오오. 그 산속에 연화동이라는 동굴이 있는데, 거기 두 마리 마왕이 살고 있지요. 그놈들은 스님들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잡

아 가두려 하고, 이름과 성씨를 다 조사해서 당승을 잡아먹으려 혈안이 되어 있소. 다른 곳에서 왔으면 몰라도, 하필 ‘당(唐)’나라에서 왔으니 살아서 돌아가기는 글렀소.” 손오공이 말했다. “우리가 바로 당나라에서 왔소.” 나무꾼이 말했다. “그놈들이 딱 당신들을 잡아먹으려던 참이구려.” 손오공이 말했다. “이런, 이런! 그런데 그놈들이 대체 어떤 식으로 잡아먹는다는 말ियो?” 나무꾼이 되물었다. “어떤 식으로 먹고 싶다는 말ियो?” 손오공이 대꾸했다. “머리부터 먹어준다면 그나마 재미라도 있겠지만, 발부터 먹기 시작하면 아주 골치 아파질 텐데 말ियो.” 나무꾼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머리부터 먹는다는 건 뭐고, 발부터 먹는다는 건 또 무슨 소리요?” 손오공이 설명했다. “아직 안 겪어보셔서 모르시는구려. 머리부터 먹는다면 한입에 덩석 물어버릴 테니, 그 뒤에 어떻게 묶든 삶든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 아픈 줄도 모를 것이요. 하지만 발부터 먹기 시작해서 다리뼈를 삶아먹고 허벅지를 씹어 돌리다가 허리뼈까지 도달할 때까지 내가 아직 안 죽고 버틴다면, 온몸이 갈가리 찢기며 고통을 겪지 않겠소? 그래서 골치 아프다는 말ियो.” 나무꾼이 말했다. “스님, 그놈들이 그렇게 공을 들일 여유가 있겠소? 그저 스님을 붙잡아 바구니에 가둬놓고 통째로 찢어 먹고 말 것이요.”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거야 오히려 더 좋고말고요. 아픈 건 그리 아프지도 않고, 그저 답답한 기운이나 좀 받으면 그만이겠구려.” 나무꾼이 경고했다. “스님, 입만 놀리지 마시오. 그 요괴들은 몸에 다섯 가지 보물을 지니고 있어서 신통력이 엄청나게 넓고 강하단 말ियो. 설령 당신이 하늘을 떠받치는 옥기둥이나 바다를 가로지르는 금들보 같은 대단한 영웅이라 해도, 당나라 스님을 무사히 데려가려면 몇 번은 정신이 아득해질(혼절할) 만큼 혼이 날 것이요.” 손오공이 물었다. “얼마나 정신이 아득해진다는 말ियो?” 나무꾼이 말했다. “서너 번은 정신을 잃

을 정도일 거요.” 손오공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별일 아니구려, 별일 아니야. 우리는 일 년에도 칠팔백 번은 정신이 아득해지곤 하는데, 고작 서너 번쯤이야 금방 지나가고 말 것이오.”

손오공은 전혀 두려운 기색 없이 오로지 당승을 지키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나무꾼을 뒤로하고 성큼성큼 걸어가 산비탈 말머리 앞까지 다가와 말했다.

"스승님, 별일 아닙니다. 요괴가 한두 마리 있을지는 몰라도, 여기 사람들이 워낙 겁이 많아서 유난을 떠는 거예요. 제가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어서 가시죠, 가세요."

당승은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을 놓은 채 다시 길을 재촉했다. 한참을 가다 보니 아까 보았던 나무꾼이 온데간데없었다. 당승이 물었다.

"소식을 전해주던 그 나무꾼은 왜 벌써 사라졌느냐?"

그러자 저팔계가 대답했다.

"우리가 운이 없어서 귀신이라도 만난 모양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아마 땀감을 찾으러 숲속으로 들어갔겠지. 내가 한번 찾아볼게."

"좋아, 대성! 눈을 크게 뜨고 화안금정으로 산 너머 고개 너머를 살살이 훑어보았지만,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문득 고개를

들어 구름 위를 보니 일직공조가 있었다. 손오공은 즉시 구름을 타고 쫓아가 '이 맹랑한 귀신 같으니라고!'라며 몇 마디 욕설을 퍼부었다.

'할 말이 있으면 곧장 말할 것이지, 왜 그렇게 변신해서 나를 놀래키는 거냐?'

겉에 질린 일직공조가 예를 갖추며 말했다. '대성, 소식을 늦게 전해 죄송합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 요괴는 정말로神通력이 광대하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니 대성께서 부디 기민하게 움직여 스승님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만약 조금이라도 소홀히 했다가는 서천까지 가는 길은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일직공조를 물러가게 한 뒤, 그 내용을 마음 속에 깊이 새기며 구름을 타고 곧장 산으로 향했다. 산에 도착해 보니 당승이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옹기종기 모여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손오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일직공조가 한 말을 스승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워낙 겁이 많으시니 분명 울음을 터뜨리실 거야.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그냥 스승님을 모시고 길을 가다가는, 흔히 말하듯 '늬에 처음 들어와 깊이를 모르는 격'이 될 수도 있어. 만약 요괴에게 홀랑 잡혀가기라도 하면 결국 나만 고생하게 될 텐데. 우선 저팔계 녀석을 좀 살펴봐야겠다. 저 녀석을 앞세워 요괴와 한판 붙게 해 보자고. 만약 저 녀석이 이긴다면 공을 세운 셈이 될 테고, 만약 실력이 부족해 요괴에게 잡혀간다면, 그때 가서 내가 구하러 가면 되지. 그러면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손오공은 혼자 이런 계산을 하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팔계 녀석이 게으름을 피우며 나서지 않으려 할까 봐 걱정이네. 스승님은 또 제자 편만 드시려 할 테니, 내가 직접 저 녀석을 단단히 채찍질해서라도 나서게 만들어야겠다.'

장하다, 대성이어! 그가 거짓 시늉을 부려 눈을 한 번 비비고 또 비비니 눈물이 조금 배어 나왔다. 그는 스승을 맞아 곧장 앞으로 걸어갔다. 그 모습을 본 저팔계가 얼른 소리쳤다.

"사오정, 짐 좀 내려놓고 짐 꾸러미 좀 가져와 봐. 우리 둘이 나눠 들고."

사오정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둘째 형님, 뭘 나눈다는 말씀이세요?"

저팔계가 말을 이었다.

"나눠서 가자는 거지! 너는 다시 유사하로 돌아가 요괴 노릇이나 하고, 이 저팔계는 고로장으로 돌아가 내 마누라나 만나야겠다. 백마는 팔아치우고 관짝이나 하나 사서 스승님 마지막 길을 모셔드리자고. 다들 흩어져서 각자 갈 길 가자, 서천은 무슨 서천이야?"

말 위에서 이 소리를 들은 당승이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이 미련한 녀석아, 한창 길을 가고 있는데 왜 또 헛소리를 하느냐?"

저팔계가 맞받아쳤다.

"스승님 아드님이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손오공이 울면서 오는 것 좀 보세요. 저놈이 어떤 놈입니까? 하늘을 뚫고 땅을 파헤치고, 도끼로 찍고 불로 지저도 겁내지 않으며, 끓는 기름 솥에 들어가도 끄떡없는 용맹한 장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렇게 근심 가득한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며 오고 있으니, 분명 저 산세가 험하고 요괴가 사나운 게 틀림없습니다. 우리처럼 나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길 가겠습니까?"

당승이 말했다.

"헛소리는 그만두거라. 내가 직접 물어보고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마."

당승이 손오공에게 물었다.

"오공아,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와서 말할 것이지, 왜 혼자서 끽대느냐? 얼굴이 왜 그렇게 울보처럼 퉁퉁 부었느냐? 나를 놀리려고 그러는 게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 방금 소식을 전해준 분은 일직공조라는 신선이었습니다. 요괴가 워낙 사나워서 이곳은 지나가기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정말 산은 높고 길은 험해서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으니, 차라리 다른 날에 다시 오자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당승은 겁이 나 몸서리를 치며 손오공의 옷자락을 붙들고 말했다.

"제자야, 우리가 이미 길을 절반이나 왔는데, 어찌하여 물러나자는 말을 하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제가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요괴는 많은데 힘은 부족하고, 우리끼리만 있으니 너무 외롭고 위태로울까 봐 그렇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쇠뿔치라 한들, 용광로에 들어간다고 못을 몇 개나 만 들어내겠습니까?'"

당승이 말했다.

"제자야, 네 말도 일리가 있구나. 정말 혼자서는 힘들겠지. 방법에 이르기를 '적은 수가 많은 수를 당해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여기 저팔계와 사오정이 있지 않느냐? 모두 내 제자들이니 네가 마음대로 부리고 명령하거라. 장수를 호위하는 병사처럼 힘을 합쳐 산길을 깨끗이 치우고 나를 인도해 산을 넘는다면, 그것이 바로 다 함께 성불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손오공이 이렇게 능청을 떨자, 당승은 그저 몇 마디 말을 던질 뿐이었다. 손오공은 당승을 돌아보며 말했다. "스승님, 이 산을 무사히 넘어가려면 저팔계가 제 말 두 가지만 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겨우 삼할이라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 말을 듣지 않는다면 제 손을 대신할 수도 없을 테니, 절반도 무사히 지나가지 못할 겁니다."

저팔계가 말했다. "사형, 그냥 가지 말자고요. 괜히 나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당승이 말했다. "제자야, 네 사형에게 무엇을 시키려는지 한번 물어 보아라."

저팔계는 정말로 손오공에게 물었다. "형님, 저에게 무엇을 시키시려고요?"

손오공이 말했다. "첫 번째는 스승님을 모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산을 순찰하는 것이다."

저팔계가 대꾸했다. "스승님을 모시는 건 앉아 있는 것이고, 산을 순찰하는 건 걷는 것 아닙니까? 설마 나더러 앉았다가 조금 걷고, 또 걷다가 조금 앉으라는 말씀은 아니겠지요? 양쪽을 어떻게 다 살핀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라는 게 아니라, 그중 하나만 말으면 된다는 뜻이다."

저팔계가 다시 웃으며 말했다. "그거야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스승님을 모시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산을 순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먼저 나에게 좀 알려주어야 상황에 맞춰서 제대로 해낼 것 아닙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을 모신다는 건, 스승님이 뒷일을 보실 때 곁에서 수발을 들고, 스승님이 걸으실 때는 부축해 드리며, 스승님이

공양하실 때는 탁발을 해 음식을 얻어 오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스승님이 조금이라도 배가 고프시면 네가 매를 맞아야 하고, 얼굴빛이 조금이라도 누레지시면 네가 매를 맞아야 하며, 몸이 조금이라도 야위시면 네가 매를 맞아야 한다."

저팔계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수발을 들고 부축하는 거야 괜찮습니다. 몸에서 떨어지지 않고 짐을 지고 다니는 것도 그럭저럭 할 만하겠지요. 하지만 만약 저더러 마을에 가서 공양을 구해오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 서천 길에서 사람들이 저를 경전 구하러 가는 스님으로 보겠습니까? 그저 산에서 튀어나온, 덩치만 좀 큰 돼지 한 마리로 보고는, 사람들이 쇠스랑이며 빗자루를 들고 달려들어 이 늙은 돼지를 에워싼 뒤, 집에 잡아다가 설 쇠는 고기로 절여 버릴 텐데, 그럼 저는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그럼 그냥 산이나 순찰하러 가라."

저팔계가 물었다. "산 순찰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이 산에 들어가서 요괴가 얼마나 있는지, 무슨 산이고 무슨 동굴인지 알아봐라. 그래야 우리가 지나갈 수 있다."

저팔계가 말했다. "그거라면 식은 죽 먹기지요. 이 늙은 돼지가 순찰을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저팔계는 옷을 추스르고 쇠스랑을 곳곳이 세운 채, 위풍당당하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기세등등하게 큰길로 달려 나갔다.

옆에 있던 손오공이 그 모습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히히거리며 비웃었다. 당승이 꾸짖었다. “이 말썽꾸러기 원숭이 같으니라고! 형제들을 아끼는 마음은커녕 시기하는 마음만 가득하구나. 저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아침하는 말로 요리조리 사람을 놀려먹으면서, 순찰은 가기는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비웃기만 하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비웃는 게 아니라, 웃음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저팔계가 저러고 가는 걸 보세요. 분명 순찰은커녕 요괴를 마주칠까 봐 겁이 나서 숨을 곳이나 찾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는 적당히 거짓말을 지어내서 우리를 속이려 들겠지요.”

당승이 물었다. “네가 어찌 저 아이를 그렇게 잘 아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제 짐작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못 믿겠으면 제가 따라가서 지켜보겠습니다. 요괴를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부처님을 섬기는 정성이 있는지 말입니다.”

당승이 말했다. “그래, 좋다. 하지만 가서 저 아이를 너무 괴롭히지는 말거라.”

손오공은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곧장 산비탈로 달려가 몸을 획 흔들더니 작은 여치 한 마리로 변신했다. 몸이 아주 가벼워진 손오공은 다음과 같이 묘사될 만큼 민첩했다.

“얇은 날개로 힘들이지 않고 바람을 가르고, 허리는 바늘처럼 가늘고 날렵하네. 풀숲과 꽃 그늘 사이를 누비는 모습이 유성처럼 빠르구나

나. 눈은 반짝이며 빛나고, 소리는 아주 작고 가냘프네. 수많은 곤충 중에서도 작고 우아하며 영리하니, 한가로운 날 숲속에 숨어 있으면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도 도무지 보이지 않는구나.”

손오공은 ‘잉잉’ 소리를 내며 날아가 저팔계의 귓등 바로 뒤, 머리털 뿌리 근처에 딱 달라붙었다. 저팔계는 그저 걷는 데만 정신이 팔려 몸에 누가 붙었는지 꿈에도 몰랐다. 손오공이 7~8리쯤 따라가다가 슬쩍 떨어져 나와 당승 쪽을 향해 손짓 발짓을 하며 욕을 해댔다.

“나약하기 짝이 없는 스님에, 비겁한 손오공, 얼굴만 허연 사오정까지! 다들 저기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나 저팔계만 불러내서 이 고생을 시키다니! 다 같이 경전을 구하러 가서 성불하겠단데, 왜 하필 나한테 순찰을 맡긴단 말이야? 하하하! 요괴가 있으면 알아서 피하면 될 것을, 오히려 나더러 찾아가라니 정말 재수 없군. 그냥 어디 가서 잠이나 자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서 대충 순찰했다고 둘러대고 넘어가야지.”

저팔계는 운 좋게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며 갈퀴를 챙겨 다시 길을 나섰다. 그러다 산골짜기에 붉은 풀이 우거진 언덕을 발견하고는 그 안으로 쑥 들어갔다. 그는 갈퀴를 땅에 깔고 그 위에 털썩 누워 허리를 쭉 펴며 말했다. “아, 좋다! 그 잘난 손오공이라 해도 나만큼 편하게 쉬지는 못할걸!”

사실 손오공은 저팔계의 귓가에 붙어 모든 말을 다 듣고 있었다. 손오공은 참지 못하고 펄쩍 뛰어올라 저팔계의 엉덩이를 한 대 툭 건드렸다. 그러고는 몸을 휙 돌려 딱따구리로 변신했다.

시로 이르되, "붉은 부리는 뽕족하고 매끄러우며, 초록빛 깃털은 곱고 눈부시다. 강철 같은 발톱은 못처럼 날카롭구나. 배가 고파도 숲이 고요하니 상관없으리라. 썩어 문드러진 고목을 가장 좋아하고, 외로이 서 있는 늙은 나무는 싫어하네. 둥근 눈은 영리하기 그지없고, 나무 쪼는 소리는 듣기에 참 좋구나."

이 딱따구리는 크기가 그리 크지도 작지도 않아 무게를 달아보면 겨우 백 그램에서 이백 그램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붉은 구리색 부리에 검은 철색 발을 가진 딱따구리가 파닥거리며 날아 내려왔다. 마침 저팔계는 머리를 처박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딱따구리가 날아와 저팔계의 입술을 부리로 짹 쪼아버렸다.

그 멍청이는 깜짝 놀라 허겁지겁 일어나며 입으로 정신없이 외쳐댔다. “요괴다, 요괴야! 요괴가 내 입을 창으로 찔렀어! 아유, 입이 너무 아파!” 손을 뻗어 만져보니 정말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다. 그는 투덜거렸다. “아이고, 나한테 무슨 좋은 일도 없는데 입술이 왜 이렇게 붉게 물든 거야?” 그는 피 묻은 손을 바라보며 입을 웅얼거리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으나,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요괴가 없다니, 그럼 대체 누가 내 입을 찌른 거지?”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보니, 알고 보니 딱따구리 한 마리가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멍청이는 이를 갈며 욕을 퍼부었다. “이 망할 놈의 새 같으니라고! 필마온(말 관리하는 하급 관리) 놈이 나를 괴롭히더니, 너까지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제 알겠다. 저놈이 나를 사람으로 안 보고, 내 입을 그냥 벌레가 사는 썩은 나무둥치 정도로 생각해서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쪼아

덴 게 분명해. 에이, 그냥 입을 품에 넣고 자야겠다.” 그러고는 그 멍청이는 다시 드러누워 잠을 청했다.

그때 손오공이 다시 날아와 이번에는 그의 귓볼 뒤쪽을 콧 쪼았다. 멍청이는 또 깜짝 놀라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 망할 놈의 새가 정말 사람을 지독하게도 괴롭히는구나! 필시 여기가 이놈의 등지인가 보군.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는데 내가 자리를 차지할까 봐 저러는 게 틀림없어. 됐어, 됐어. 더는 신경 안 써.” 그는 갈퀴를 챙겨 들고는 붉은 풀 언덕(紅草坡)을 벗어나 다시 길을 찾아 떠났다. 손오공은 이 꼴이 어찌나 우스운지 배를 잡고 웃어댔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 멍청한 녀석, 눈을 부릅뜨고 있으면서 자기 식구도 못 알아보는구나!”

손오공은 몸을 한 번 흔들며 다시 변신하더니, 이번에도 작은 매미(蟪蛄)로 변해 저팔계의 귀 뒤에 딱 붙어 떨어질 줄을 몰랐다. 저팔계는 깊은 산속으로 또 4, 5리쯤 더 들어갔다. 그러다 산골짜기에서 탁자만 한 크기의 네모난 청석 세 덩이를 발견했다. 저팔계는 갈퀴를 내려놓고는 돌을 향해 큰절을 올리며 인사를 했다.

손오공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비웃었다. '저 멍청이 좀 보게. 돌이 사람도 아니고, 말도 못 하고, 답례를 할 리도 없는데 대체 왜 절을 하고 난리람? 정말 앞뒤 안 맞는 짓을 하는구나.'

알고 보니 저팔계는 당승과 사오정, 손오공 세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 데서 돌을 상대로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저팔계가 말했다.

"이번에 돌아가서 스승님을 뵙고 요괴가 있냐고 물으시면, 그냥 요괴가 있다고 말씀드려야지. 만약 무슨 산이냐고 물으시면, 진흙으로

빚었는지, 흙으로 만들었는지, 주석을 부었는지, 구리를 주조했는지, 밀가루를 찌서 만들었는지, 종이를 발라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 건지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할 거야. 그러니 그냥 돌산이라고 해야겠다. 무슨 동굴이냐고 물으셔도 그냥 돌동굴이라고 하고, 문이 어때냐고 물으시면 못을 박은 철문이라고 해야지. 안이 얼마나 깊냐고 물으시면 그냥 세 층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만약 살살이 뒤져보며 문에 박힌 못이 몇 개냐고 물으시면, 이 늙은 돼지가 너무 급하게 오느라 제대로 기억이 안 난다고 얼버무려야겠다. 이렇게 꾸며내 놓으면 그 필마온(弼馬溫, 손오공의 옛 직책) 녀석도 속아 넘어갈 테지."

저팔계는 이렇게 계획을 다 세우고는 갈퀴를 끌며 제 갈 길을 갔다.

하지만 손오공은 귀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하나하나 똑똑히 다 듣고 있었다. 손오공은 저팔계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얼른 두 날개를 펼쳐 먼저 돌아가 본래 모습으로 나타나 스승을 뵈었다.

당승이 말했다. "오공아, 네가 왔구나. 그런데 왜 저팔계는 돌아오지 않느냐?"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놈은 지금 어디선가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어요. 곧 올 겁니다."

그러자 당승이 말했다. "그놈은 귀가 눈을 가릴 정도로 둔하고 어리석은 놈인데, 무슨 거짓말을 지어낸단 말이나? 또 네가 무슨 헛소리를 지어내어 그놈 탓을 하는 게냐."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은 참으로 제자 편만 드시는군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손오공은 저팔계가 풀숲에 파고들어 자다가 딱따구리에게 쪼여 잠에서 깨자, 바위를 향해 절을 하며 돌산이니, 돌동굴이니, 철잎 문이니, 요괴가 나타났다는 식의 거짓말을 미리 꾸며내던 모습을 전부 다 알고 있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어리숙한 녀석이 다가왔다. 저팔계는 자기가 지어낸 거짓말을 잊어버릴까 겁이 났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입속으로 중얼중얼 되뇌고 있었다. 손오공이 그 모습을 보고 호통을 쳤다.

"이 멍청아, 뭘 그렇게 중얼거려?"

저팔계는 귀를 쫑긋 세우고 살피며 물었다.

"내가 목적지에 도착한 거야?"

저팔계가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자, 당승이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제자야, 고생 많았구나."

저팔계가 대답했다.

"그럼요. 길을 걷는 사람이나 산을 타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제일 고생하는 법이죠."

당승이 물었다.

"요괴는 없었느냐?"

저팔계가 맞장구를 쳤다.

"있고말고요, 요괴가 아주 떼거지로 있어요!"

당승이 다시 물었다.

"어떻게 너를 보내라고 하더냐?"

저팔계가 말을 이었다.

"그 요괴들이 저더러 돼지 조상님에, 돼지 외할아버지라 부르면서 맛있는 국물에 채소 요리까지 대접해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를 산 너머로 보내주려고 잔치까지 벌여준답니다."

손오공이 비웃으며 말했다.

"풀숲에서 잠이나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 모양이구나."

그 말을 들은 저팔계는 겁에 질려 몸이 움츠러들며 외쳤다.

"아이고, 형님! 제가 잠을 잤는지 어떻게 알아요?"

손오공이 성큼 다가와 저팔계를 덥석 붙잡았다.

"이리 와 봐, 내가 좀 물어보자."

저팔계는 또 겁이 나 벌벌 떨며 말했다.

"그냥 물어보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잡아당기세요?"

손오공이 물었다.

"저기가 무슨 산이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돌산이에요."

"동굴은 어땠고?"

"돌동굴이고요."

"문은?"

"못이 박힌 철문이에요."

"안은 얼마나 깊더냐?"

"안으로 들어가면 세 층이나 돼요."

손오공이 말을 잘랐다.

"됐어, 더 말할 필요 없다. 뒷부분은 내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스승님이 못 믿으실까 봐 내가 대신 말해줄게."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참나, 가보지도 않은 주제에 뭘 안다고 나 대신 말을 해요?"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문 위에 못이 몇 개나 박혀 있는지, 이 늙은 돼지가 마음이 급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라고 하면 되겠지? 어때?"

저팔계는 깜짝 놀라 황급히 무릎을 꿇었다. 손오공이 덧붙였다.

"돌을 향해 절을 올리면서, 마치 우리 세 사람이 요괴와 문답을 주고 받는 것처럼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거짓말을 다 지어내서 저 비마온(손오공의 옛 직함)을 속여야지'라고 말하는 거야. 어때?"

저팔계는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애원했다.

"형님, 제발요! 제가 산을 순찰하러 갈 테니, 제발 따라오지만 마세요!"

손오공이 욱을 하며 꾸짖었다. "이 쓸모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이렇게 중요한 곳에서 산을 순찰하라고 보냈더니 잠만 자고 있어? 딱따구리가 쪼아서 깨우지 않으면 계속 잠만 잤을 것 아니냐. 그러다 깨어나서 또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으니, 일을 다 망치게 생겼구나! 어서 이리 와, 매 다섯 대를 맞고 정신을 차려야겠다."

저팔계는 겁에 질려 소리쳤다. "그 무거운 쇠몽둥이로 때리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근육이 다 끊어질 거예요. 다섯 대나 맞으면 정말 죽고 만다니까요!"

손오공이 말했다. "맞는 게 무서우면 왜 거짓말을 해서 일을 그르치느냐?"

저팔계가 애원했다. "형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신 안 그럴게요."

손오공이 대꾸했다.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럼 세 대만 맞자."

저팔계가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형님! 반 대도 못 견딘단 말이에요!"

어찌할 바를 모르던 저팔계는 스승인 당승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말했다. "스승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당승이 말했다. "오공이 네가 거짓말을 했다고 할 때 나는 믿지 않았는데, 정말로 그랬다니 매를 맞는 게 당연하구나. 하지만 지금은 산을 넘어야 해서 일손이 부족하니, 오공아,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산을 넘고 나면 그때 다시 때리도록 하자."

손오공이 말했다. "옛말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큰 효도'라고 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때리지 말라고 하시니 이번에는 용서해 주겠습니다. 가서 다시 산을 순찰하거라. 만약 또 거짓말을 해서 일을 망친다면, 그때는 단 한 대도 봐주지 않겠다."

그 어리석은 놈은 어쩔 수 없이 몸을 일으켜 다시 길을 떠났다. 큰길로 달려가는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싹터 괴물이라도 나타날 듯 불안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손오공이 변신해서 뒤를 쫓아오는

게 아닌가 싶어, 무엇이랄도 보이기만 하면 손오공이 변한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칠팔 리쯤 더 갔을까, 호랑이 한 마리가 산비탈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그는 겁도 없이 쇠갈퀴를 치켜들며 외쳤다. "형님, 거짓말하는 거 들으러 오셨소? 이번에는 절대로 안 지어낼 테니 걱정 마시오!"

다시 길을 가는데, 이번에는 산바람이 몹시 거세게 불어닥쳤다.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마른 나무 한 그루가 뿌리째 뽑혀 굴러와 그의 발치에 멈춰 섰다. 그는 또다시 발을 동동 구르고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아이고, 형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행자가 이제는 거짓말을 안 하겠다더니, 이번에는 또 무슨 나무로 변해서 나를 치려는 겁니까?"

앞으로 좀 더 나아가니, 이번에는 목이 하얀 까마귀 한 마리가 나타나 머리 위에서 '까악까악' 소리를 내며 몇 번을 울어댔다. 그는 또다시 투덜거렸다. "형님, 부끄러운 줄도 모르시네! 내가 안 지어낸다고 했더니, 이번에는 까마귀로 변해서 왜 이러시는 거요?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알고 보니 이번에는 손오공이 그를 따라가지도 않았는데, 저팔계 혼자 겁에 질려 엉뚱한 의심을 하며 난리를 피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가는 곳마다 손오공이 자신을 뒤따른다고 의심해 마지않았다. 이 어리석은 놈이 놀라며 의심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접어두기로 한다.

한편, 그 산의 이름은 평정산이고, 그 동굴의 이름은 연화동이다. 동굴 안에는 두 요괴가 살고 있었는데, 한 명은 금각대왕이라 불리고 다른 한 명은 은각대왕이라 불렸다.

금각대왕이 자리에 앉아 은각대왕에게 물었다. "동생, 우리가 산을 순찰한 지 얼마나 됐지?" 은각대왕이 대답했다. "보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동생, 오늘 나랑 같이 순찰 좀 나가자꾸나." 은각대왕이 되물었다. "오늘 순찰은 왜 나가려고 하십니까?" 금각대왕이 말했다. "자네는 모르는 모양인데, 최근 들은 소식에 의하면 동토의 당나라에서 당승이라는 어제(御弟, 임금의 동생)를 서천으로 보내 부처님께 절을 올리게 했다더군. 손행자, 저팔계, 사오정, 그리고 말 한 마리까지 총 네 명과 말 한 마리가 함께 움직인다네. 자네가 가서 그놈들을 찾아내 나에게 잡아 오게나."

은각대왕이 말했다. "사람을 잡아먹는 게 우리 일인데, 대충 아무나 잡아먹으면 되지요. 그 스님이라는 사람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알아서 가게 둥시다." 금각대왕이 타박하며 말했다. "자네는 아무것도 모르는군. 내가 예전에 천계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네. 당승은 금선장로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몸이라네. 열 번의 생을 수행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 정기가 조금도 새어나가지 않았으니, 누군가 그 고기를 먹으면 수명이 늘어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더군."

은각대왕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만약 그 고기를 먹고 수명이 늘어나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왜 앉아서 수행하고, 왜 공을 세우려 애쓰며, 왜 용과 호랑이를 기르고 암수 짝을 맞춰가며

수련했겠습니까? 당장 가서 그놈을 잡아먹어야겠습니다. 제가 가서 잡아 오겠습니다!" 금각대왕이 만류했다. "동생, 성미가 급하긴. 너무 서두르지 말게. 자네가 문밖을 나섰다가 앞뒤 가리지 않고 아무 스님이나 잡아 왔는데, 만약 그자가 당승이 아니라면 어떡하겠나? 내 그놈들의 생김새를 기억하고 있으니, 스승과 제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 형체를 만들어 두었네. 이걸 가져가서 스님을 만나거든 이 그림과 대조해 보며 확인해 보게나."

그러고는 누구누구가 어떤 이름인지 하나하나 일러주었다. 은각대왕은 그림과 이름을 모두 받아 들고는 즉시 동굴을 나서서, 부하 요괴 서른 명을 거느리고 산을 순찰하기 시작했다.

한편, 저팔계는 워낙 운이 사납게도 마침 가던 길에 요괴 무리와 딱 마주치고 말았다. 요괴들이 앞을 가로막으며 호통을 쳤다. "어디서 온 놈들이냐?" 저팔계가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귀를 쫓긋 세우고 살펴보니, 눈앞에 있는 이들이 요괴라는 것을 깨닫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저팔계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내가 불경을 구하러 가는 스님이라고 말하면, 그대로 잡혀가겠구나.' 그래서 그저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라고만 둘러댔다. 그러자 요괴 하나가 대왕에게 보고했다. "대왕님, 그저 길을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서른 명의 요괴 중에는 저팔계를 알아보는 놈도 있었고, 모르는 놈도 있었다. 그때 옆에서 지시받은 말을 듣고 있던 요괴 하나가 말했다. "대왕님, 저 스님은 그림 속에 있는 저팔계와 아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고는 영신도(影神圖)를 걸어 올리라고 했다. 그림을 본 저팔계는 깜짝 놀라며 속으로 외쳤다. '어쩐지 요새 기운이 없더라니, 저놈들이 내 모습을 그려서 가져간 것이었구나!' 부

하 요괴가 창끝으로 그림을 들어 올리자, 은각대왕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백마를 타고 있는 자가 당승이고, 털북숭이 얼굴을 한 저놈이 손오공이다.” 저팔계는 그 소리를 듣고 속으로 중얼중얼 빌기 시작했다. ‘성황님, 거기에 제가 없으면 그만이지요. (무사히 빠져나가게만 해주시면) 돼지머리에 삼생(三牲) 제물과 청초(淸醪) 스물네 몫을 바치겠습니다.’ 그는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연신 소원을 빌었다. 그 요괴가 다시 말을 이었다. “검고 키가 큰 저놈은 사오정이고, 입이 크고 귀가 긴 저놈이 저팔계다.”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저팔계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입을 품속에 쑥 집어넣어 숨겨버렸다. 그러자 요괴가 소리쳤다. “스님, 입을 내밀어라!” 저팔계가 대답했다. “태어날 때부터 병이 있어서 입이 안 나옵니다.” 요괴가 명령하자 부하 요괴가 갈고리를 가져와 저팔계의 입을 억지로 끄집어냈다. 저팔계는 겁에 질려 입을 쑥 내밀며 투덜거렸다. “아이고, 그냥 보잘것없는 모양일 뿐입니다. 자, 여기 있지 않습니까? 보고 싶으면 그냥 보면 될 것을, 왜 갈고리까지 써서 사람을 괴롭힙니까?”

요괴는 저팔계인 것을 알아보고 보도를 획 뽑아 들더니 앞으로 달려들어 베어 왔다. 저팔계는 쇠갈퀴를 들어 막아내며 말했다. “이놈아, 어디서 버릇없이 구느냐! 이 갈퀴 맛 좀 봐라!” 요괴가 비웃으며 말했다. “이 중놈은 길 가다 머리를 깎은 놈이로구나.” 그러자 저팔계가 대꾸했다. “이놈, 제법 영리하구나! 네가 어떻게 이 몸이 길 가다 출가한 것을 알았느냐?” 요괴가 말했다. “네가 그 갈퀴를 쓰는 걸 보니, 분명한 발을 일구던 놈이 갈퀴를 훔쳐 달아난 것이 틀림없다!” 저팔계가 외쳤다. “이놈아, 네가 내 갈퀴를 뭘 안다고 그러느냐! 이건 땅이나 파는 갈퀴와는 차원이 다르다. 잘 들어라!

거대한 이빨처럼 용의 발톱같이 단단하고, 금칠을 입혔으니 호랑이 형상 같구나. 적을 만나면 찬바람을 휘두르며 쏟아붓고, 맞붙어 싸울 때는 불꽃이 일어난다. 당승의 앞길에 놓인 장애물을 없애주고, 서천 가는 길의 요괴들을 때려잡는구나. 휘두르면 안개와 노을이 해와 달을 가리고, 한 번 움직이면 먹구름이 별들을 어둡게 만든다. 태산을 무너 뜨리니 호랑이도 겁을 먹고, 바다를 뒤엎으니 늙은 용도 놀라 자빠진다. 네놈이 아무리 수단이 좋다 한들, 이 갈퀴로 구멍을 아홉 개는 내주마!”

요괴가 이 말을 듣고 어찌 가만히 있겠는가. 칠성검을 휘두르며 저 팔계와 실력을 겨루어 산속에서 스무 합을 주고받았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저팔계가 독기를 품고 죽기 살기로 맞서자, 요괴는 귀를 찢룩거리고 침을 튀기며 갈퀴를 휘두르는 저팔계의 기세에 내심 겁이 났다. 요괴는 얼른 뒤를 돌아 부하 요괴들에게 소리쳤다. “모두 함께 덤벼라!”

한 명씩 상대한다면 그나마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부하 요괴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자 저팔계는 당황하여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결국 싸움에서 패해 도망치려는데, 하필 길이 고르지 못한 데다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덩굴에 발이 걸려 비틀거렸다. 겨우 일어나 다시 달리려는데, 이번에는 다른 작은 요괴가 땅에 누워 있다가 저팔계의 발뒤꿈치를 낚아채는 바람에 다시 개처럼 바닥에 처박히고 말았다. 요괴 무리가 달려들어 저팔계를 짓누르고는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귀를 잡아당기고, 다리와 꼬리를 붙잡아 짐짝처럼 메고 동굴로 끌고 들어갔다.

아, 참으로 이러하다.

온몸에 깃든 마성(魔性)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만 가지 재앙과 고통은 쉽게 물러나지 않는구나.

결국 저팔계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33회 — 사악한 도가 참된 성품을 미 혹하고, 원신이 본심을 돕다

外道迷真性 元神助本心

보물을 속여 빼앗다

한편, 그 요괴(둘째 대왕)는 저팔계를 동굴 안으로 끌고 들어가며 말했다. '형님, 한 놈 잡아 왔습니다!' 늙은 요괴(큰 대왕)가 기뻐하며 말했다. '어서 가져와 보아라.' 둘째 대왕이 말했다. '이놈 아니옵니까?' 늙은 요괴가 말했다. '아우야, 잘못 잡았구나. 이 중은 쓸모가 없겠다.' 그 말을 들은 저팔계가 얼른 끼어들며 말했다. '대왕님, 쓸모없는 종이라니 그냥 놓아주십시오. 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둘째 대왕이 말했다. '형님, 놓아주면 안 됩니다. 비록 쓸모는 없어도 당승과 한패인 놈으로, 저팔계라고 합니다. 우선 저 뒤편 정수지(淨水池)에 담가 털을 불려 벗긴 다음, 소금에 절여 말려 두었다가, 날 흐린 날 술안주로 쓰면 되겠습니다.' 저팔계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탄식했다. '아이고 재수도 없지, 절인 고기 장수 요괴를 만났구나!' 졸개 요괴들이 저팔계를 들어다 물속에 던져 넣은 일은 더 말하지 않겠다.

한편, 삼장은 언덕 앞에 앉아 있다가 귀가 뜨거워지고 눈이 떨리는 등 몸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소리쳤다. “오공아, 팔계가 산을 순찰하러 간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님께서는 아직 그 녀석 속을 모르시는군요.” 삼장이 물었다. “그 녀석 속이 어떠하단 말이나?” 손오공이 말했다. “스님, 만약 이 산에 요괴가 있다면, 그 녀석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분명 호들갑을 떨며 도망쳐 돌아와 저에게 알렸을 겁니다. 요괴가 없으니 길이 평탄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삼장이 걱정하며 말했다. “만약 정말로 멀리 가버렸다면 어디서 만나겠느냐? 이곳은 산과 들만 넓게 펼쳐진 외진 곳이라, 마을이나 성 안처럼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느냐.” 손오공이 달랬다. “스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말에 올라타세요. 그 어리석은 녀석이 좀 게으르다 보니 분명 늦게 가고 있을 겁니다. 말을 조금 빨리 몰면 금방 따라잡아서 다 함께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당승은 말에 올라타고, 사오정은 짐을 짊어졌으며, 손오공은 앞장서서 산길을 인도했다.

한편, 늙은 요괴(큰 대왕)가 다시 둘째 대왕을 불러 말했다. '아우야, 네가 이미 저팔계를 붙잡았으니 반드시 당승도 가까이 있을 것이다. 어서 산을 다시 한 번 순찰하거라. 절대로 그를 놓쳐서는 안 된다.' 둘째 대왕이 대답했다.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가지요.' 그는 급히 줄개 요괴 십 명을 점고하여 산으로 순찰을 나섰다. 한창 가던 중, 상서로운 구름이 아스라이 떠 있고 신령한 기운이 빙빙 도는 것이 보였다. 둘째 대왕이 말했다. '당승이 오고 있다!' 줄개 요괴들이 물었다. '당승이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대왕이 말했다. '착한 사람의 머리 위에는 상서로운

구름이 비치고, 악한 사람의 머리 위에는 검은 기운이 하늘로 치솟는 법이다. 저 당승은 원래 금선장로(金蟬長老)가 세상에 내려온 몸으로, 열 번의 생을 수행한 선한 사람이기에 저렇게 상서로운 구름이 감도는 것이다.' 졸개 요괴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러자 둘째 대왕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있지 않느냐!' 그 순간, 말을 타고 가던 삼장이 몸을 움찔 떨어졌다. 둘째 대왕이 다시 가리키자 삼장은 또 떨어졌다. 연달아 세 번을 가리키자 삼장도 연달아 세 번 떨어지며, 마음이 불안하여 말했다. '제자들아, 내가 왜 이렇게 몸이 떨리는 것이냐?' 사오정이 말했다. '몸을 떠는 걸 보니 아마 체기가 도진 모양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헛소리 마라! 스승님께서 이 깊고 험한 산길을 가시니 당연히 조심스러워 공연히 놀라신 것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걱정 마세요. 이 손오공이 여의봉으로 길을 따라 후려치며 스승님의 놀란 마음을 가라앉혀 드리겠습니다.'

손오공은 여의봉을 휘둘러 말 앞에서 몇 가지 초식을 펼쳤다. 위로 셋 아래로 넷, 왼쪽으로 다섯 오른쪽으로 여섯, 모두 육도삼략(六韜三略)의 병법에 맞추어 신통력을 부렸다. 말 위에서 지켜보던 노승은 과연 천하에 보기 드물고 세상에 다시없는 솜씨라 여겼다. 손오공이 길을 헤치며 곧장 나아가니, 하마터면 그 요괴를 놀라 자빠지게 할 뻔했다. 산꼭대기에서 이를 지켜보던 둘째 대왕은 혼비백산하여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몇 년간 손행자 소문을 들었지만, 오늘에야 그 말이 헛소문이 아니라 정말 사실임을 알겠구나!' 졸개 요괴들이 다가와 말했다. '대왕님, 어찌 남의 기세만 높여주고 우리 위엄을 깎으십니까? 대체 누구를 칭찬하십니까?' 둘째 대왕이 말했다. '손행자는 신통력이 워낙 광대하니, 저 당승을 잡아먹기는 어렵겠다.' 졸개들이 말했다. '대왕님께

수단이 없으시다면, 저희 몇이 가서 큰 대왕님께 보고하여 동굴의 크고 작은 병사를 모두 일으켜 진을 치고 한마음으로 힘을 합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놈이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둘째 대왕이 말했다. '너희는 저놈의 철봉을 못 봐서 하는 소리다. 만 명의 장사도 당해내지 못할 용맹이 있단 말이다. 우리 동굴엔 고작 사오백 병사뿐인데 저 철봉 한 방을 어찌 견디겠느냐?' 졸개들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승은 못 잡아먹을 텐데, 저팔계는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돌려보내시지요.' 둘째 대왕이 말했다. '잡은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나, 그렇다고 가벼이 돌려줄 것도 아니다. 당승은 끝내 잡아먹어야 하나, 다만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없을 뿐이다.' 졸개들이 물었다. '그럼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둘째 대왕이 말했다. '몇 년씩 걸릴 것도 없다. 내가 보기에 저 당승은 좋은 꾀로 도모해야지 모질게 빼앗아서는 안 된다. 위세로 몰아붙여 잡으려 하면 그 냄새조차 맡지 못할 것이다. 오직 선의로 그 마음을 움직여 내 마음과 통하게 만든 뒤, 그 선함 속에서 계책을 꾸며야 도모할 수 있다.' 졸개들이 물었다. '대왕님께서 계책을 정해 잡으실 때 저희를 쓰시겠습니까?' 둘째 대왕이 말했다. '너희는 모두 각자의 소굴로 돌아가되, 큰 대왕님께는 절대 알리지 마라. 그분이 놀라 소란이라도 일면 소문이 새어 내 계책이 틀어진다. 나에게 따로 신통한 변화술이 있으니 내가 알아서 잡겠다.' 졸개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는 홀로 산 아래로 뛰어 내려와 길가에 이르자, 몸을 한 번 흔들여 늙은 도사로 변신했다. 과연 그 차림새가 어땠었던가. 별 모양의 관(星冠)은 번쩍이고, 학처럼 흰 백발은 더부룩하게 흘날렸다. 깃털 옷(羽衣)에는 수놓은 띠를 두르고, 구름무늬 신발(雲履)에는 노랑고 갈색진술이 달렸다. 정신은 맑고 눈은 밝아 신선 같았고, 몸은 건실하고 가벼

위 장수하는 노인 같았다. 청우도사(靑牛道士)는 말할 것도 없고, 소권 선생(素券先生)보다도 한 수 위였다. 꾸며낸 가짜 모습이 진짜 같았고, 지어낸 거짓 정이 마치 진심 같았다. 그는 큰길가에서 다리가 부러진 도사인 양 분장하고, 발에는 피를 흥건히 흘리며 입으로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고 외쳐댔다.

한편, 삼장은 손오공과 사오정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안심하며 기쁜 마음으로 길을 나섰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스님, 사람 좀 살려주세요!"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삼장이 그 소리를 듣고 말했다. "아이고, 가엾어라! 이 넓고 거친 산중에 사방을 둘러봐도 마을 하나 없는데, 대체 누가 부르는 것인가? 필시 호랑이나 표범, 늑대 같은 짐승들이 덤벼드는 모양이로구나." 삼장은 말을 돌려 세우며 외쳤다. "어려움에 처한 이가 누구냐? 어서 나오너라!"

그러자 풀숲 사이에서 괴물이 기어 나와 삼장의 말 앞에 엎드려 쿵 광거리며 머리를 조아렸다. 삼장이 말 위에서 보니 그는 도사 차림을 하고 있었고, 체구도 건장하고 나이도 지긋해 보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삼장은 얼른 말에서 내려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어서 일어나 십시오, 어서요."

그러자 괴물이 "아이고, 아파라, 아파!" 하며 소리를 질렀다. 삼장이 손을 치워 살펴보니, 그의 발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삼장이 놀라 물었다. "선생님,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어찌하여 발을 다치셨습니까?"

괴물은 감언이설로 거짓을 늘어놓으며 가식적인 말투로 말했다. "스님, 이 산을 넘어 서쪽으로 가면 아주 고요하고 아늑한 도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곳의 도사입니다."

삼장이 물었다. "도관에서 향을 피우고 경전을 공부하며 정진해야 할 분이, 어찌하여 이런 곳을 헤매고 계십니까?"

괴물이 대답했다. "며칠 전, 산 남쪽 마을의 시주께서 도사들을 모셔 별의 복을 빌어달라고 청하셨는데, 저희 스승과 제자가 오는 길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길을 가던 중 갑자기 무시무시한 호랑이를 만나 제자가 그놈에게 물려갔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도망치다 그만 돌무더기 언덕에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를 다쳤고, 돌아갈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스님을 만난 것도 큰 인연인가 봅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구해주십시오. 도관에 도착하기만 하면, 제 몸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삼장은 그 말을 듣고 사실이라 믿으며 말했다. "선생님, 저나 선생님이나 다 똑같은 목숨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저는 승려이고 선생님은 도사라 비록 옷차림은 달라도 수행하는 이치는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구하지 않는다면 승려라고 할 수 없겠지요. 구해주기는 하겠으나, 지금은 건기가 힘드시겠군요."

괴물이 말했다. "도무지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어찌 길을 가겠습니까?"

삼장이 말했다. '에휴, 알겠네, 알겠어. 나는 그래도 걸어갈 수 있으니, 자네에게 말을 내주어 한동안 타고 가게 하겠네. 자네 도관에 이르

거든 말을 돌려주게.' 그러자 요괴가 말했다. '스님, 후한 정에 감사드립니다만, 허리와 다리를 다쳐 도무지 말을 탈 수가 없습니다.' 삼장이 말했다. '하긴 그렇겠군.' 그러고는 사화상을 불러 말했다. '네가 짐을 내 말에 실어 묶고, 이분을 한동안 업어 드려라.' 사오정이 말했다. '예, 제가 업겠습니다.' 그러자 요괴가 급히 고개를 돌려 사오정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스님, 제가 그 사나운 호랑이에게 어찌나 겁을 먹었던지, 이렇게 험상궂은 얼굴의 분을 뵈니 더욱 겁이 나서 차마 업혀 갈 수가 없습니다.' 삼장이 외쳤다. '오공아, 네가 업어 드려라.' 손오공이 연신 대답했다. '제가 업죠, 제가 업겠습니다.' 그러자 요괴는 손오공을 딱 점찍어 순순히 그에게 업히려 하고는 더 말이 없었다. 사오정이 웃으며 말했다. '눈치도 없는 늙은 도사 같으니. 내가 업으면 좋으려만 거꾸로 저 사람한테 업히려 하는구나. 저 사람(손오공)이 스승님 안 보이는 틈을 타 삼채석 위에 메다꽃으면 네 힘줄이 죄다 끊어질 텐데.'

손오공이 그 말을 듣고는 입가에 웃음을 띠며 말했다. “이 고약한 요괴 놈아, 네가 감히 누구를 건드리려 하느냐? 네가 나를 보고도 내가 대체 몇 년이나 수행한 몸인지 묻지 않는구나! 그런 허튼소리는 당승 스님께나 통할지 몰라도, 나를 속일 수는 없다. 네놈이 이 산에 사는 괴물이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다. 분명 우리 스님을 잡아먹으려는 속셈이겠지? 하지만 우리 스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니 네놈이 쉽게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만약 정말로 스님을 잡아먹었다면, 그 절반은 반드시 나하고 나뉘 가져야 할 것이다!”

요괴는 손오공이 쏘아붙이는 말을 듣고는, 마치 경전을 외우듯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저는 본래 선량한 집안의 자손으로 도사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불행히도 호랑이와 이리 같은 재앙을 만났을 뿐이지, 결코 요괴가 아닙니다.”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호랑이와 이리가 무섭다면 왜 북두경(北斗經, 북두칠성의 신령을 찬양하는 경전)을 외우지 않았느냐?”

말 위로 올라타려던 당승이 이 말을 듣고는 손오공을 꾸짖었다. “이 고약한 원숭이 녀석!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칠층탑을 세우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 저 사람의 짐을 대신 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늘, 어디서 북두경이니 남두경이니 하는 소리를 지껄이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보세요, 스님. 스님은 워낙 자비롭고 선한 분이려 성격이 좀 까다로우신 면이 있잖아요. 제가 짐을 안 져드리면 스님이 화를 내실 테니, 어쩔 수 없이 져드리는 겁니다. 대신 미리 말해두겠는데, 만약 등에 업힌 저분이 대소변이라도 지리면 꼭 저한테 먼저 말씀하셔야 합니다. 제 등에 그대로 지려버리면 냄새가 고약해서 견딜 수가 없을뿐더러, 제 옷까지 더러워지면 빨아줄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요괴가 대답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네 말을 모르겠느냐?”

그제야 손오공은 요괴를 등에 업고, 당승과 사오정과 함께 큰길을 따라 서쪽으로 달려갔다. 산길이 높고 낮아 험한 곳에서는 손오공이 주의를 기울여 천천히 걸으며 당승이 앞서갈 수 있게 배려했다.

길을 채 삼오 리도 가지 못해 스승님과 사오정이 산골짜기 아래로 내려갔을 때, 손오공은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속으로 투덜거렸다.

"스승님은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어찌면 저리도 철이 없으실까. 어떤 길을 빈몸으로 가도 손이 무거워 죽겠는데, 저 요괴 놈까지 내 등에 지고 가야 하다니! 저놈이 요괴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라 해도, 저 나이면 진작 죽었어야 할 나이야. 그냥 확 내팽개쳐 버릴까? 왜 내가 저걸 짊어지고 가야 한단 말인가?"

손오공이 막 내팽개칠 궁리를 하던 그때, 요괴는 이미 그 속셈을 알아차리고 산을 부리는 법술을 쓰기로 했다. 요괴가 '이산도해(산을 옮기고 바다를 뒤엎는 법술)'를 부리며 손오공의 등 뒤에서 주문을 외우자, 커다란 수미산 하나가 공중에서 나타나더니 손오공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손오공은 깜짝 놀라 머리를 옆으로 숙 비껴 산을 왼쪽 어깨와 팔에 걸쳤다. 그러고는 웃으며 말했다.

"이놈아, 감히 어떤 무거운 법술로 이 몸을 누르려 하느냐? 이 정도 짐이야 겁나지도 않는다. 다만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 버티기가 참 괴롭구나!"

요괴가 말했다. "산 하나로는 저놈을 누를 수 없겠구나!"

요괴는 다시 주문을 외워 아미산 하나를 공중에 띄워 내리놓았다. 손오공은 이번에도 머리를 반대편으로 비껴서 이번에는 오른쪽 어깨와 팔에 산을 걸쳤다. 손오공은 커다란 산 두 개를 짊어진 채, 마치 날

아오는 별처럼 스승님을 향해 달려갔다. 그 모습을 본 요괴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겁에 질려 말했다.

"저놈은 산을 짊어지는 재주가 있구나!"

요괴는 기세를 가다듬고 다시 주문을 외워 태산 하나를 공중에 띄워 손오공의 머리 위로 정면으로 내리눌렀다. 손오공은 힘이 빠져 정신이 아득해지던 차에, 태산이 머리 위를 짓누르는 법술을 정면으로 맞고 말았다. 그 무게에 눌려 몸속의 신령들이 요동치고 일곱 구멍에서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 요괴는 신통력을 부려 손오공을 눌러버린 뒤, 곧장 거센 바람을 타고 당승을 쫓아갔다. 구름 위에서 손을 뻗어 말 위의 사람을 낚아채려 하자, 당황한 사오정은 짐을 내팽개치고 급히 항요봉(降妖棒)을 뽑아 정면으로 막아섰다. 요괴는 칠성검(七星劍)을 높이 들어 맞섰다. 이 한바탕 싸움이 볼만했다. 칠성검과 항요봉이 맞부딪치니 / 만 갈래 금빛이 번개처럼 번쩍이네. / 이쪽 둥근 눈의 요괴는 흉악하기가 흑살신(黑殺神) 같고 / 저쪽 무쇠 얼굴의 사오정은 참으로 권렴대장(捲簾大將)이로다. / 요괴는 산 앞에서 큰 재주를 떨치며 / 오로지 당승을 사로잡으려 하고 / 이쪽은 힘을 다해 참된 스님을 지키며 / 한마음으로 죽어도 놓지 않으려 하네. / 두 편이 구름과 안개를 뿜어 천궁을 비추고 / 흙먼지를 날려 별자리를 가리니 / 붉은 해도 빛을 잃어 흐릿해지고 / 천지가 어둑하게 흔들리는구나. / 여덟아홉 차례 맞붙어 오갔으나 / 뜻밖에 사화상이 싸움에 패하고 말았네.

그 요괴는 매우 흥포하여 보검을 휘두르며 유성처럼 빠르게 몰아치니, 사오정은 도저히 막아낼 재간이 없어 뒤로 물러나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요괴는 이미 보장(寶杖)으로 사오정의 앞길을 막아세운 뒤, 커다란 손을 휘둘러 사오정을 쳐눕히고는 왼쪽 옆구리에 끼었다. 이어 오른손으로는 말 위에 있는 삼장을 낚아채고, 발끝으로는 짐을 낚아챈 채 입으로는 말갈기를 물었다. 그리고는 신통력을 부려 마치 한바탕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들을 모두 연화동으로 실어 날랐다. 요괴는 연화동에 도착하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다.

"형님! 스님을 잡아 왔습니다!"

늙은 요괴(큰 대왕)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어서 가져와 보아라.' 둘째 대왕이 말했다. '이것 아니옵니까?' 큰 대왕이 말했다. '아우야, 또 잘못 잡아 왔구나!' 둘째 대왕이 말했다. '형님께서 당승을 잡아 오라 하셨잖습니까.' 큰 대왕이 말했다. '당승은 맞다만, 아직 그 수단 좋은 손행자를 잡지 못했다. 반드시 그놈을 먼저 잡아 두어야 당승을 먹을 수 있다. 그놈을 못 잡았거든 절대 당승 일행에게 손대지 마라. 그 원숭이 왕은 신통력이 광대하고 변화가 무궁하니, 우리가 스승을 잡아먹었다간 그놈이 가만있겠느냐? 문 앞까지 와 소란을 피울 테니 도저히 편히 못 지낼 것이다.' 둘째 대왕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도 참, 사람을 너무 추켜세우시는군요. 형님 말씀대로면 그놈이 하늘에도 드물고 땅에도 없는 존재라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저 그뿐 별 수단도 없습니다.' 큰 대왕이 말했다. '네가 그놈을 잡았던 말이나?' 둘째 대왕이 답했다. '이미 큰 산 세 개를 부려 그놈을 산 아래 깔아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승과 사화상, 말과 짐까지 모조리

잡아 온 것입니다.' 큰 대왕은 기쁨에 겨워 말했다. '잘됐다, 잘됐어! 이 놈만 잡아 두면 당승은 이제 우리 입안의 음식이나 다름없구나.' 그러고는 졸개들에게 명했다. '어서 술을 내오너라! 둘째 대왕께 공을 세운 축하주 한 잔을 올려라.' 둘째 대왕이 말했다. '형님, 술은 나중에 드시고 우선 졸개들을 시켜 저팔계를 물에서 건져 올려 매답시다.' 그리하여 저팔계를 동쪽 행랑에, 사화상을 서쪽에, 당승을 가운데에 각각 매달고, 백마는 구유에 매어두고 짐은 안으로 거두어 들였다.

늑은 요괴(큰 대왕)가 웃으며 말했다. '아우님, 수단이 정말 대단하구먼. 두 번 만에 세 중을 잡아냈으니 말이야. 다만 손행자는 산으로 놀러 놓았다 해도, 어떻게 잡아다 함께 찌 먹을지 따로 법술을 써야겠네.' 둘째 대왕이 말했다. '형님, 우선 앉으십시오. 손행자를 잡는 건 우리가 직접 나설 것도 없습니다. 그저 졸개 둘에게 보물 두 개를 들려 보내 그놈을 담아 오게 하면 됩니다.' 큰 대왕이 물었다. '무슨 보물을 가져가게 하느냐?' 둘째 대왕이 대답했다. '제 자금홍호로(紫金紅葫蘆)와 형님의 양지옥정병(羊脂玉淨瓶)을 쓰면 됩니다.' 큰 대왕이 보물을 꺼내며 말했다. '그럼 누구를 보내겠느냐?' 둘째 대왕이 말했다. '정세귀(精細鬼)와 영리충(伶俐蟲) 두 놈을 보내겠습니다.' 그러고는 분부했다. '너희 둘은 이 보물을 가지고 곧장 높은 산꼭대기로 가거라. 보물의 밑바닥은 하늘을 향하게 하고 입구는 땅을 향하게 둔 다음 「손행자!」 하고 불러라. 그놈이 대답하면 곧 그 안에 담길 것이니, 즉시 「태상노군의 명을 받들어 급히 울령대로 행하라(太上老君急急如律令奉敕)」는 부적을 붙여라. 그러면 한 시진 세 시각 안에 고름으로 녹아버릴 것이다.' 두 졸개는 머리를 조아린 뒤 보물을 받아 들고 손행자를 잡으러 떠났다.

한편, 손오공은 요괴가 부리는 법술에 놀려 산기슭 아래에 깔린 채, 고통 속에서도 삼장을 걱정하고 재난을 당한 성스러운 스승을 그리워했다. 그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스승님! 예전에 스승님께서 양계산에 오셔서 압패를 떼어 주셨을 때, 이 손오공이 큰 난관을 벗어나 사문의 가르침을 받들 수 있었습니다. 보살님께서 내려주신 법지에 따라 스승님과 함께 머물고 함께 수행하며, 같은 인연으로 만나 서로를 알고 의지해 왔는데, 어찌하여 이곳에 이르자마자 요괴의 마장에 걸려 산에 깔리는 신세가 되었던 말입니까! 가련하도다, 참으로 가련해! 스승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사오정과 저팔계, 그리고 용이 변한 말만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나무가 크면 바람을 불러 산이 흔들리듯, 사람이 명성이 높으면 오히려 화를 입는 법이라더니, 정말 딱 맞는 말이로구나!"

손오공은 탄식하며 눈물을 비처럼 쏟아냈다.

산신과 토지, 그리고 오방계제 신령들이 깜짝 놀라며 금두계제가 물었다. "이 산은 누구의 것이냐?" 토지가 대답했다. "저희 것입니다." "그럼 산 아래에 깔려 있는 자는 누구냐?" 토지가 다시 답했다.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계제가 말했다. "너희들이 정작 모르고 있었구나! 저 아래 깔린 자는 오백 년 전 천계를 어지럽혔던 제천대성 손오공 행자다. 지금은 깨달음을 얻어 당승의 제자가 되었지.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요괴에게 산을 빌려주어 저자를 놀려 놓게 했단 말이냐? 너희는 죽고 싶은 게냐? 만약 저자가 어느 날 탈출하기라도 하면, 너희를 가만히 두겠느냐? 설령 죄를 가볍게 다스린다 해도, 토지는 문

초를 받고 산신은 군대에 끌려가야 할 판이니, 우리도 이 큰 잘못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그제야 산신과 토지는 겁에 질려 말했다. "정말로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마왕이 산을 움직이는 주문을 외우기에 저희도 모르게 산을 옮겨버렸을 뿐입니다. 저분이 손 대성인 줄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계제가 말했다. "너무 겁먹지 마라. 법도에 이르기를 '모르고 저지른 일은 죄를 묻지 않는다'고 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계책을 세울 테니, 일단 저자를 풀어주어라. 다만 저자가 우리를 때리지 못하게 조심해야 한다." 토지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풀어주면 오히려 우리를 때린다는 말씀인가요?" 계제가 대답했다.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저자에게는 여의금고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위력이 실로 대단하다. 맞으면 죽고, 휘두르면 상처를 입으며, 한 번 부딪치면 뼈가 부러지고 한 번 스치기만 해도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란다."

토지와 산신은 마음속으로 겁에 질려 오방계제와 상의를 마친 뒤, 세 산이 모인 문밖으로 달려가 외쳤다. "손오공님, 산신과 토지, 그리고 오방계제가 뵙기를 청합니다!"

손오공은 여전히 기세가 당당하고 기운이 넘쳐나서,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를 보자고? 무슨 일이나?"

토지가 말했다. "손오공님, 저희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산을 열어 드릴 테니 제발 밖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희의 불경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산을 열어라! 너희를 때리지 는 않으마.” 그러고는 호통을 쳤다. “어서 움직여라!”

마치 관아에서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여러 신령이 진언 주문을 외우자 산이 다시 원래 자리로 움직이며 손오공을 풀어주었다. 손오공은 꺾충 뛰어올라 몸에 묻은 흙을 털고 치맛자락을 매만지더니, 귀 뒤에서 여의봉을 획 꺼내 들며 산신과 토지에게 말했다. “이놈들아, 이리 가까이 다가오너라! 한 사람당 두 대씩 매를 맞아야겠다. 이 늙은 손손의 답답한 속을 좀 풀어줘야겠으니 말이다!”

신령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명령하시더니, 어찌 나오자마자 말이 바뀌어 매를 때리려 하십니까?”

손오공이 대꾸했다. “이보게 토지, 이보게 산신! 자네들은 이 손오공이 무섭지 않고 요괴가 무서운 게냐?”

토지가 대답했다. “그 요괴는 신통력이 대단하고 법술이 아주 높습니다. 진언 주문만 외우면 저희를 자기 동굴로 불러내어, 하루에 한 명씩 돌아가며 당번을 서게 만듭니다.”

손오공은 '당번을 서다'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천지가 처음 열리고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화과산이 나를 낳았고, 나 또한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불로장생의 비결을 배웠나이다. 내가 바람과 구름처럼 자유자재로 변신하고,

호랑이를 굴복시키며 용을 다스리고, 천계를 뒤흔들며 '제천대성'이라 불릴 때도 산신이나 토지신을 속여 부려먹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나이다. 그런데 오늘 저 무도한 요괴는 감히 어찌하여 산신과 토지를 종놈처럼 부리며 번갈아 가며 당번을 서게 한단 말입니까? 하늘이시여! 저를 이토록 태어나게 하셨거늘, 어찌 저런 괴물 같은 놈도 함께 태어나게 하셨나이까?"

손오공이 한창 감탄하며 탄식하고 있을 때, 산골짜기 너머에서 노을 같은 빛이 이글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손오공이 물었다.

"산신과 토지여, 그대들이 이 동굴을 지키고 있다면 저기 빛을 내며 오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그러자 토지가 대답했다.

"저것은 요괴의 보물이 빛을 내는 것입니다. 필시 요괴가 보물을 들고 당신을 제압하러 오는 모양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허, 이거 재미있게 됐구나! 내 하나 물어보자. 이 동굴에는 저 요괴와 왕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토지가 대답했다.

"저 요괴는 단약을 구워 약을 만드는 것을 즐기며, 전진교의 도사를 매우 좋아합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어쩐지! 그래서 늙은 도사로 변신해 내 스승님을 속였구나. 상황이 이렇다면 그대들은 그저 여기서 매만 맞고 돌아가 있거라. 나머지는 이 몸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말이 끝나자마자 신령들은 모두 허공으로 솟구쳐 흩어져 버렸다.

손오공은 몸을 획 움직여 둔갑술을 쓰더니, 곧바로 인자한 노도사로 변했다.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지 말해 주랴?

머리에는 두 갈래로 땀아 올린 상투를 틀고, 몸에는 여러 조각의 천을 기워 만든 백납의를 입었다. 손에는 나무로 만든 북인 어고를 들고, 허리에는 도사들이 매는 끈을 맸다. 그러고는 길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요괴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이윽고 요괴가 다가오자, 손오공은 몰래 피를 부릴 준비를 마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마리 요괴가 도착했다. 손오공이 여의봉을 길게 뻗어 놓은 탓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요괴들은 발이 걸려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다. 요괴는 허겁지겁 일어나 손오공을 보고는 입을 놀리며 소리쳤다.

"이 게으름뱅이 같으니라고! 우리 대왕께서 너희 일행을 존중해 주시지만 않으셨어도, 너 따위와는 상대도 안 됐을 것이다!"

손오공이 웃으며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무슨 비교를 하겠다는 건가? 도사가 도사를 만났으니, 우린 다 한 식구지."

요괴가 되물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잠을 자며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린 거냐?"

손오공이 말했다.

"어린 도동이 나 같은 노도사를 만났으니, 인사치레로 한 번 넘어지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그러자 요괴가 쏘아붙였다.

"우리 대왕께서 받으시는 인사치레는 은 몇 냥뿐인데, 네놈은 어째서 넘어지는 걸로 인사를 대신한단 말이냐? 말투를 보니 시골뜨기 같으니, 분명 이곳 도사가 아님에 틀림없구나!"

손오공이 대꾸했다.

"정말 아니다. 나는 봉래산에서 왔단 말이다."

"봉래산이라면 바다 위 섬에 사는 신선들이 사는 곳이 아닌가?"

"내가 신선이 아니면 누가 신선이겠느냐?"

그 말을 들은 요괴는 금세 태도를 바꾸어 기쁜 기색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아이고, 신선 어르신, 신선 어르신! 저희는 육신의 눈을 가진 범인이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실수를 해서 결례를 범했으니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손오공이 말했다.

"용서하마. 예부터 '신선은 속세의 땅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네가 그걸 어찌 알겠느냐? 내가 오늘 이 산에 온 것은 도를 깨쳐 신선이 될 좋은 사람을 한 명 데려가기 위해서다. 그중 누가 나를 따라가겠느냐?"

그러자 정세귀가 말했다.

"스승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영리충도 거들었다.

"스승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손오공은 속으로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물었다. "두 분은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요괴가 대답했다. "연화동에서 왔소." "어디로 가는 길인가요?" 요괴가 다시 말했다. "우리 대왕님의 명을 받들어 손행자를 잡으러 가는 길이라오." 손오공이 물었다. "누구를 잡으러 간다는 말입니까?" 요괴가 대답했다. "손행자를 잡으러 간다니까요." 손오공이 말했다. "혹시 당승을 모시고 불경을 구하러 가는 그 손행자를 말하는 건가요?" 요괴가 맞장구를 쳤다. "그렇소, 그렇소! 당신도 그를 알고 있소?" 손오공이 말했다. "그 원승이가 좀 무례한 구석이 있지요. 저도 그를 알지만, 한편으로는 좀 얄밋기도 합니다. 저도 당신들과 함께

그를 잡으러 가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요괴가 말했다. "스승님, 힘을 보태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 대왕님께서 법술을 부려 커다란 산 세 개를 보냈더니, 그놈이 산 아래 깔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 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에게 보물을 가져와서 그놈을 담으라고 시키셨 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그게 어떤 보물입니까?" 정세귀가 말했다. "제 것은 자금홍호루이고, 이 친구 것은 양지옥정병입니다."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그걸로 어떻게 그를 담는다는 거죠?" 작은 요괴가 설명 했다. "이 보물들의 밑바닥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입구를 땅으로 향하 게 한 뒤, 그놈을 한 번 부르는 겁니다. 만약 그놈이 대답을 하면 바로 그 안에 담겨버리지요. 그러고 나서 '태상노군께서 명하시니 급히 법령 을 집행하라'라고 적힌 부적을 딱 붙여버리면, 순식간에 형체도 없이 녹아버리고 맙니다." 손오공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깜짝 놀라며 생각 했다.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해! 아까 공조가 소식을 전해주길 보물이 다섯 개라고 했는데, 벌써 두 개나 나왔으니 나머지 세 개는 또 어떤 물 건일까?' 손오공은 웃으며 말했다. "두 분, 그 보물들을 저에게 좀 빌려 주어 구경시켜 주시겠습니까?" 요괴들은 그 속에 어떤 비결이 숨겨져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소매 속에서 보물 두 개를 꺼내 손오공에게 두 손 으로 건네주었다. 손오공은 보물을 보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좋은 물건이다, 정말 좋은 물건이야! 지금 당장 꼬리를 획 치켜들고 훌쩍 뛰 어 달아나 버리면, 이 손오공이 그냥 선물로 주는 셈 치면 되겠구나.' 하지만 곧이어 다시 생각했다. '아니지, 안 돼. 그냥 뺏어버리면 내 명 성에 금이 갈 거야. 대낮에 남의 물건을 뺏는 꼴이 되니 말이야.' 손오 공은 다시 보물을 돌려주며 말했다. "당신들은 아직 내 보물을 보지 못 했지 않소?" 요괴가 말했다. "스승님께서서는 어떤 보물을 가지고 계십니

까? 저 같은 범인에게도 구경시켜 주셔서 재앙을 막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손오공이 손을 뻗어 꼬리에 난 털을 한 가닥 뽑아 비비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털이 한 자 일곱 치 길이의 커다란 자금홍호로 변했다. 손오공은 허리춤에서 그것을 꺼내 들며 말했다. "내 호로를 좀 보겠느냐?" 영리충이 그것을 받아 들고 살펴보더니 말했다. "스승님, 이 호로는 크기도 크고 모양도 아주 근사해서 보기에는 좋으나, 쓸모가 없겠는데요." 손오공이 물었다. "어째서 쓸모가 없다는 말이나?" 요괴가 대답했다. "우리 보물은 하나하나가 천 명을 담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손오공이 맞받아쳤다. "사람이나 담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유세를 떠느냐? 내 호로는 하늘조차 통째로 담을 수 있다." 요괴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정말 하늘을 담을 수 있단 말이나?" "정말로 하늘을 담을 수 있다." 요괴가 말했다. "거짓말 같으니, 직접 담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겠다." 손오공이 큰소리쳤다. "하늘이 나를 노엽게 하면 한 달 사이에도 일곱여덟 번은 담을 것이요, 나를 노엽게 하지 않으면 반년 동안 한 번도 안 담을 것이다." 영리충이 형에게 말했다. "형님, 하늘을 담는 보물이라니, 저놈과 바꾸시지요." 정세귀가 망설이며 말했다. "저놈이 하늘을 담는 보물을 우리 같은 사람 담는 보물과 바꿔주겠느냐?" 영리충이 다시 말했다. "안 바꿔준다고 하면 저놈의 정병이라도 덤으로 얹어 달라고 해봅시다." 손오공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호로를 호로와 바꾸고 정병까지 덤으로 얹어준다니, 보물 하나로 두 개를 얻는 셈이니 아주 남는 장사로구나!' 손오공은 얼른 앞으로 나서서 영리충을 붙들고 말했다. "하늘을 담는 것과 바꿀 수 있겠느냐?" 요괴가 대답했다. "하늘을 담을 수만 있다면 당장 바꾸겠다. 만약

못 바꾼다면 내가 네 아들이 되겠다!" 손오공이 말했다. "좋다, 좋아. 그럼 내가 직접 보여주마."

"좋다, 대성!"

손오공은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으로 결인을 맺으며 주문을 외웠다. 그는 일유신과 야유신, 그리고 오방계제신을 불러내어 이렇게 말했다.

"당장 가서 옥황제께 아뢰어라. 이 손오공이 정과를 얻어 귀의하였고, 당승이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을 보좌하고 있는데, 높은 산이 길을 막고 온갖 고난이 닥쳐오고 있다고 말이다. 저 요괴들이 가진 보물을 내가 꾀를 내어 바꿔치기하려 하니, 만 번 절하며 간청하되, 딱 반 시진 동안만 하늘을 나에게 빌려주어 일을 성공시키게 해달라고 전해라. 만약 조금이라도 못 하겠다고 거절한다면, 즉시 영소전으로 올라가 칼과 창을 들고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전해라!"

그날 유신(遊神)들이 남천문에 이르러 영소전 아래에서 옥황제에게 모든 사정을 아뢰었다. 옥황제가 말했다. "저 망할 원숭이 녀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전에는 관음보살이 그를 풀어주어 당승을 보호하게 했다 하고, 내 쪽에서도 오방계제와 사치공조를 번갈아 보내 지키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하늘까지 담으려 하다니, 하늘을 어찌 담을 수 있겠느냐?"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선들 사이에서 나타 삼태자가 나타나 아뢰었다. "만세, 하늘이라도 담을 수 있습니다." 옥황제가 물었다. "하늘을 어떻게 담는단 말이냐?" 나타가 대답했다. "태초에 혼돈이 나뉘었을 때, 가볍고 맑은 기운은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땅이 되었습

니다. 하늘은 한 덩어리의 맑은 기운이 요천의 궁궐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니, 이치로 따지자면 실로 담기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손행자가 당승을 모시고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것은 참으로 태산 같은 큰 복이자 바다처럼 깊은 경사스러운 일이니, 오늘 마땅히 그가 성공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옥황제가 다시 물었다. "그대가 어떻게 도우려느냐?" 나타가 말했다. "부디 교지를 내려주시어, 북천문에 가서 진무 대제에게 검은 깃발을 빌리게 해주십시오. 그 깃발을 남천문 위에서 펼치면 해와 달, 별들이 모두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앞이 보이지 않아 요괴를 속이기 쉬우니, 하늘을 담았다고 속여 손행자가 성공하도록 돕겠습니다." 옥황제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경의 뜻대로 하라."

삼태자는 교지를 받들어 북천문으로 가서 진무를 만나 사정을 아뢰었다. 그러자 진무가 곧 깃발을 삼태자에게 건네주었다.

어느덧 떠돌던 신선 하나가 급히 내려와 손오공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타 태자가 도와주러 왔네!' 손오공이 고개를 들어 보니 과연 상서로운 구름이 휘감겨 도는 것이 신선이 맞았다. 손오공은 고개를 돌려 졸개 요괴들에게 말했다. '하늘을 담자!' 졸개가 말했다. '담으려면 담을 것이지, 어째서 자꾸 꾸물대는 거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방금 막 신력을 모아 주문을 외웠느니라.' 졸개들은 눈을 부릅뜨고 그가 어떻게 하늘을 담는지 지켜보았다. 손오공이 가짜 호로 하나를 위로 휙 던져 올렸다. 생각해 보라, 이것은 털 한 가닥이 변한 것이니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는가? 산꼭대기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팔랑팔랑 떠다니다가 반시진이나 지나서야 겨우 떨어졌다. 그사이 남천문에서는 나타 태자가

검은 깃발을 펄럭펄럭 펼치니 해와 달과 별이 모조리 가려졌다. 진실로 하늘과 땅이 먹으로 물든 듯, 온 우주가 쪽빛으로 물든 듯하였다. 두 줄개가 깜짝 놀라 말했다. '방금 이야기할 땐 한낮이었는데 어째서 벌써 황혼이 됐지?' 손오공이 말했다. '하늘을 담아 버렸으니 때를 분간할 수 없는데 어찌 황혼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캄캄한 거요?' 손오공이 말했다. '해와 달과 별이 모두 안에 담겼으니 밖에는 빛이 없는 데 어찌 어둡지 않겠느냐?' 줄개가 물었다. '스승님, 어디서 말씀하고 계세요?' 손오공이 말했다. '네 앞에 있지 않느냐?' 줄개가 손을 뻗어 더듬으며 말했다. '말소리만 들리고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스승님, 여기가 대체 어딘가요?' 손오공이 또 속였다. '발을 떼지 마라. 이곳은 발해(渤海) 바닷가라, 발을 헛디더 떨어지기라도 하면 칠팔 일이 지나도 바닥에 닿지 못할 게다.' 줄개가 겁에 질려 소리쳤다. '됐어요, 됐어, 그만! 하늘을 풀어 주세요. 이렇게 담는 줄 이제 알았으니까요. 자칫 더 하다가 바다에 빠져 집에도 못 돌아가겠어요.'

손오공은 요괴들이 진심으로 믿는 것을 확인하고는 주문을 외워 나타를 불러냈다. 나타가 깃발을 휘두르자 순식간에 정오의 햇살이 내리쬘었다. 요괴 중 하나가 웃으며 말했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렇게 귀한 보물을 바꾸지 않는다면 정말 집안을 일으킬 자식이라 할 수 없겠군."

정세귀가 자금홍호루를 건네자, 영리충도 양지옥정병을 꺼내 손오공에게 함께 건넸다. 손오공은 슬쩍 가짜 호로를 내밀어 요괴와 맞바꾸었다. 보물을 손에 넣은 손오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일을 더

꾸뚝다. 그는 배꼽 아래에서 털을 한 가닥 뽑아 입으로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더니 엽전 하나로 변하게 했다. 그리고는 요괴들에게 말했다.

"얘들아,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종이 한 장을 좀 사 오너라."

요괴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종이는 왜 필요합니까?"

"너희와 계약서를 쓰려고 한다. 너희가 사람을 가두는 보물 두 개를 나에게 주고, 대신 하늘을 담은 보물 하나를 나에게 넘겨준다는 내용을 적어두려는 것이다. 혹시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판소리를 하면 골치 아프니, 서로 증거로 남겨두자는 말이다."

요괴가 대꾸했다.

"여기에 붓과 먹도 없는데 무슨 계약서를 쓴단 말입니까? 차라리 저주를 걸어 내기를 합시다."

"내기라니, 어떻게 하자는 거냐?"

"우리의 보물 두 개를 당신의 보물 하나와 맞바꾸는 데 있어, 만약 누구든 약속을 어기면 일 년 내내 역병에 걸리게 합시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만약 내가 어긴다면, 너희 역시 일 년 내내 역병에 걸리게 될 것이다."

손오공은 요괴들에게 나중에 탄소리하지 못하도록 맹세를 한 뒤, 몸을 획 날려 꼬리를 한 번 쓱 털고는 남천문 앞으로 뛰어갔다. 그리고는 깃발로 도움을 준 나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나타는 궁으로 돌아가 명을 보고하고 깃발을 진무에게 돌려주었다. 손오공은 구름 사이 높은 하늘에 우뚝 서서, 저 멀리서 요괴들이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지켜보았다.

결국 일이 어떻게 풀릴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34회 — 마왕이 교묘한 계책으로 마음 의 원숭이를 가두고, 대성께서 날아오르 다

魔王巧算困心猿 大聖騰{{另}}

보물을 속여 빼앗다

사악한 길에 빠져 참된 성품을 잃지 말고, 원신(참된 정신)으로 본심을 도와야 하리.

한편, 두 소요는 가짜 호로를 손에 들고 서로 보려고 다투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손행자가 간데없었다. 영리충이 말했다. "형님, 신선도 거짓말을 하는 모양입니다. 보물을 바꿔주고 우리를 신선으로 만들어 주겠다더니, 어찌 인사도 없이 가버린 걸까요?" 정세귀가 말했다. "우리가 훨씬 이득을 봤는데, 그자가 감히 어디로 가겠느냐? 이리 호로를 내놔 봐라. 내가 하늘을 한번 담아 보고 시험도 해 보겠다." 정세귀가 정말로 호로를 위로 획 던지자, 호로는 툭 하고 그대로 떨어졌다. 깜짝 놀란 영리충이 외쳤다. "왜 안 담기는 겁니까? 왜요? 설마 손행자가

신선으로 변신해서 우리 진짜 호로를 가짜로 바꿔치기해 간 것 아닙니까?" 정세귀가 대답했다. "헛소리 마라. 손행자는 저 세 산에 눌러 간혀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이리 가져와 봐라. 내가 그놈이 외웠던 주문을 몇 마디 읊어서 담기는지 보겠다." 이 요괴도 호로를 허공으로 던지며 입으로 주문을 외웠다. "만약 반 마디라도 싫다는 소리를 내면, 영소전(靈霄殿)으로 올라가 칼과 창을 일으키리라!" 그러나 주문을 다 외우기도 전에 호로는 툭 하고 다시 떨어졌다. 두 요괴가 말했다. "안 담긴다, 안 담겨! 이건 분명히 가짜다!"

한창 소란스러운 와중에 공중에 떠서 상황을 지켜보던 손오공은 모든 것을 똑똑히 듣고 보고 있었다. 손오공은 혹시라도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 상황이 건잡을 수 없이 커질까 싶어, 몸을 한 번 크게 흔들며 가짜 호로를 만들었던 털을 소매 안으로 쪽 거두어들였다. 그러자 두 소요의 양손은 순식간에 빈손이 되고 말았다.

정세귀가 말했다. "형씨, 호로 좀 줘 봐요." 영리충이 대답했다. "자네가 들고 있잖아." "아니, 세상에! 이게 왜 없어졌지?"

두 요괴는 바닥을 살살이 뒤지고 풀숲을 헤집으며, 소매 안을 뒤지고 허리춤을 훑었지만 어디에도 보물은 없었다. 두 요괴는 겁에 질려 몸을 벌벌 떨며 말했다. "이걸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대왕께서 손행자를 잡아 오라고 보물을 맡기셨는데, 손행자는 잡기는커녕 보물까지 잃어버렸으니 이걸 어떻게 보고한단 말인가? 보고했다가는 정말 매 맞아 죽을 거야. 아이고, 이를 어쩌나!"

영리충이 말했다. "그냥 도망가자고." 정세귀가 물었다. "대체 어디로 도망가려고?" 영리충이 대답했다. "어디든 가야지! 보물을 잃어버렸다고 보고했다가는 분명 목숨을 잃을 게 뻔하잖아." 정세귀가 말했다. "도망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 평소에 두 대왕께서 자네를 아끼시니, 내가 한마디 거들어 보겠네. 대왕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목숨은 건질 것이고, 만약 말이 안 통하면 여기서 맞아 죽는 수밖에 없겠지. 어중간하게 도망치다 양쪽에서 버림받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 가세, 가세!"

두 요괴는 그렇게 상의를 마친 뒤, 발걸음을 돌려 산으로 돌아갔다.

손행자가 공중에서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는, 다시 몸을 흔들어 파리로 변신해 아래로 날아가 소요들을 뒤쫓았다. 그런데 파리로 변신했다면 그 보물은 어디에 두었겠는가? 만약 길가에 던져두거나 풀숲에 숨겨두었다가 누군가에게 들켜 가져가 버린다면, 애써 고생만 하고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는 보물을 몸에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파리는 콩알만큼이나 작는데 어떻게 보물을 품을 수 있단 말인가? 알고 보니 그 보물은 손오공의 여의봉과 마찬가지로 '여의불보'라 불리는 것이었다. 마음먹은 대로 모양을 바꿀 수 있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었기에,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잉 하는 소리를 내며 아래로 날아 내려가 요괴를 바짝 뒤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굴에 도착하니, 두 요괴가 앉아 술을 마시고 있고 소요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손행자는 문간 선반에 몸을 붙인 채 귀를 기울였다.

소요들이 "대왕님!" 하고 불렀다. 두 요괴가 술잔을 멈추며 물었다. "왔느냐?" "예, 왔습니다." "손행자는 잡아 왔느냐?"

소요들은 감히 입을 떼지 못한 채 머리를 조아리기만 했다. 요괴가 다시 물었으나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머리만 땅에 찼었다. 요괴가 몇 번이고 거듭 묻자, 소요들이 바닥에 엎드려 울며 말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대왕님!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보물을 챙겨서 산 중턱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봉래산에서 온 신선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어디 가느냐기에 저희가 '손행자를 잡으러 가는 길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선도 손행자라는 말을 듣더니 그놈이 몹시 미운 모양인지, 저희를 좀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도와달라고 한 적은 없지만, 보물로 사람을 가두게 된 사정을 그분께 말씀드리고 말았습니다. 그 신선에게도 하늘을 담을 수 있는 호로(호리병)가 있었기에, 저희가 욕심이 생겨서, 또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될까 싶어 '당신의 하늘을 담는 호로와 나의 사람을 담는 호로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원래는 호로와 호로를 바꾸기로 하고, 영리충이 양지옥정병까지 덤으로 얹어주기로 했지요. 그런데 그 신선의 물건이 어찌 범인의 손에 닿겠습니까? 막 시험해 보려는 찰나,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디 저희의 죽을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노마(첫째 대왕)는 그 말을 듣고 천둥이 치듯 버럭 화를 냈다. "됐어, 됐어! 이건 분명 손행자가 신선으로 변장해서 속여 가로챈 게로구나. 그 원숭이 녀석은 도술이 워낙 뛰어나고 어디든 아는 사람이 많으니, 대체 어떤 잡신이 그놈을 풀어주어 보물을 속여 가져가게 했단 말이

냐!" 둘째 대왕이 말했다. "형님, 노여움을 푸십시오. 껄껄하게도 그 원숭이 놈이 참으로 무례하군요. 수단이 있어 도망갔으면 그만이지, 어찌 보물까지 속여 가져간단 말입니까? 제가 만약 그놈을 잡을 능력이 없다면, 다시는 서천 길에서 요괴 노릇을 하지 않겠습니다." 노마가 물었다. "그럼 어떻게 그놈을 잡겠느냐?" 둘째 대왕이 대답했다. "우리에게는 다섯 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중 두 개를 잃었으니 아직 세 개가 남아 있습니다. 반드시 그놈을 잡아야 합니다." 노마가 다시 물었다. "남은 세 개가 무엇이냐?" 둘째 대왕이 말했다. "칠성검과 파초선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금밧줄 하나는 압룡산 압룡동에 계신 노모(어머니)께서 보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소요 두 명을 보내 어머니를 모셔 와 당승의 고기를 드시라고 청하고, 오시는 길에 황금밧줄을 가져오게 하여 손행자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노마가 물었다. "누구를 보내겠느냐?" 둘째 대왕이 대답했다. "이런 쓸모없는 놈들을 보낼 수는 없지요." 그러고는 정세귀와 영리충을 한소리로 꾸짖어 물러가게 했다. 두 사람이 말했다. "운도 좋지! 매를 맞지도, 욕을 먹지도 않고 그냥 풀려났구나." 둘째 대왕이 말했다. "늘 걸을 따르는 바산호와 의해룡을 불러오너라." 두 사람이 무릎을 꿇자, 둘째 대왕이 분부했다. "너희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조심하겠습니다." "또 꼼꼼히 살펴야 한다." "꼼꼼히 살펴겠습니다." 또 물었다. "노할머니 댁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어서 서둘러 노할머니 댁으로 가서 거둬 문안을 올리고, 당승의 고기를 드시러 오시라고 청해라. 그리고 황금밧줄을 가져오게 하여 손행자를 잡도록 하라."

두 요괴는 명을 받들고 급히 달려갔다. 하지만 손행자가 바로 옆에서 그들의 대화를 하나하나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손

행자는 날개를 펼쳐 날아오르더니, 바산호를 뒤쫓아 그 몸에 딱 달라붙었다. 이삼 리쯤 가다 보니 당장이라도 두 놈을 때려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손행자는 생각했다.

'이놈들을 때려죽이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느냐? 하지만 그 할멈 곁에 황금뱃줄이 있다는데,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구나. 일단 가서 물어본 다음에 때려죽여야겠다.'

손행자는 소리 없이 몸을 움직여 소요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그들이 앞서가도록 백 보쯤 거리를 두었다. 그러고는 몸을 흔들며 다시 소요의 모습으로 변신했다. 여우 가죽 모자를 쓰고 호랑이 가죽 치마를 거꾸로 꽂아 허리에 묶은 채, 손행자가 그들을 따라잡으며 외쳤다.

"이봐, 좀 기다려 봐!"

뒤따라오던 의해룡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디서 온 놈이냐?"

손행자가 대답했다.

"이보게 형씨, 가족도 못 알아보는 건가?"

소요가 말했다.

"우리 집엔 너 같은 놈은 없다."

손행자가 다시 말했다.

"아니, 내가 왜 없어? 다시 한번 잘 봐봐."

소요가 대꾸했다.

"낮설다, 아주 낮설어. 본 적도 없는 얼굴인데."

그러자 손행자가 말했다.

"맞아, 바로 그거야. 자네들이 나를 본 적이 없는 건 내가 다른 부서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이지."

소요가 물었다.

"다른 부서 상관이라니, 처음 뵈는 분이긴 하군. 그런데 어디로 가는 길인가?"

손행자가 말했다.

"대왕께서 너희 둘에게 노할머니를 모셔와 당승의 고기를 먹자고 하셨다. 그때 꼭 황금밧줄을 가져와서 손행자를 잡으라고 하셨지. 혹시라도 너희가 느릿느릿 움직이거나 게으름을 피우다가 일을 그르칠까 봐, 빨리 가라고 나를 보내 재촉하신 것이다."

소요는 손행자가 속사정까지 흰히 꿰뚫어 말하는 것을 보고는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그를 자기네 식구로 굳게 믿어버렸다. 그들은 서둘러 앞을 향해 날 듯이 달려갔고, 한참을 쉬지 않고 달려 8~9리는 족히 갔다. 손행자가 물었다.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구나. 집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소요가 대답했다. "15~16리는 왔습니다." 손행자가 다시

물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하느냐?" 의해룡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우림자 안에 바로 있습니다." 손행자가 고개를 들어보니 멀지 않은 곳에 검은 숲이 펼쳐져 있었다. 요괴가 저 숲 안팎에 있을 것이라 짐작한 손행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소요들이 앞서가게 했다. 그러고는 곧 철봉을 꺼내 앞질러 달려가더니 두 소요의 발 뒤꿈치를 한 번 후려쳤다. 가엾게도 저항할 틈도 없이 두 소요는 순식간에 고깃덩어리로 뭉개지고 말았다. 손행자는 그 시체를 발로 끌어 길가 깊은 풀숲에 숨겼다. 이어 손행자는 털을 한 가닥 뽑아 입으로 신선한 기운을 불어 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한 가닥은 바산호로 변했고, 손행자 자신은 의해룡으로 변했다. 그는 마치 두 소요인 양 꾸며서 곧장 압룡동으로 노할머니를 모시러 갔다. 이것이 바로 일흔두 가지 변신술의 큰 신통력이요, 만물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높은 수단이었다.

서너 걸음 만에 숲속으로 뛰어 들어간 손오공이 주위를 살피다 보니, 반쯤 열리고 반쯤 닫힌 돌문 두 짝이 보였다. 손오공은 감히 함부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 우선 큰 소리로 외쳤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그러자 문을 지키던 여자 요괴가 깜짝 놀라 반쪽 문을 열며 물었다. "너는 어디서 온 놈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평정산 연화동에서 노할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여자 요괴가 말했다. "들어오너라." 이층 문 아래에 다다른 손오공이 고개를 들이밀어 안을 살피니, 한가운데에 한 노파가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어땤했는가. 다음과 같았다. 눈처럼 흰 귀밑머리는 부수수하고, 눈빛은 별처럼 반짝였다. 얼굴은 붉은 윤기가 돌면서도 주름이 가득했고, 이빨은 드문드문했으나 기색은 정정했다. 모습은 서리 속에 시든 꽃 같고, 형상은 비를 맞은 늙은 소나

무 같았다. 머리에는 흰 비단실로 짠 수건을 둘렀고, 귀에는 보석을 박은 황금 고리를 늘어뜨렸다.

손오공은 그 모습을 보고는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이문 밖에서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가 왜 우는지 아는가? 설마 겁이 나서 그러겠는가? 겁이 났다면 울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물며 이미 보물을 가로챘고 소요들까지 때려눕혔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울겠는가? 그는 예전에 아홉 개의 술에 든 뜨거운 기름에 빠져 칠팔 일을 데이고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몸이다. 다만 당승이 불경을 구하느라 겪는 고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고 애가 타서, 눈앞이 흐려지며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다.

손오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나 손오공이 수단을 부려 소요로 변신해 이 요괴를 모셔 오려는데, 대뜸 서서 말을 건넬 수는 없는 노릇이지. 분명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해야 할 게다. 나는 대장부로서 평생 딱 세 사람에게만 절을 했다. 서천에서 부처님께 절했고, 남해에서 관음보살님께 절했으며, 양계산에서 스승님이 나를 구해주셨기에 스승님께는 네 번 절을 했다. 스승님을 위해 간과 폐를 다 내어주고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는데, 그 경전 한 권이 대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오늘 나더러 이 요괴에게 절을 하러 가라는 말인가. 만약 무릎을 꿇지 않으면 분명 큰 화를 당하겠지. 아, 슬프도다! 결국 스승님이 곤경에 처하신 탓에 내가 남들에게 이런 수모를 당하는구나.'

이때 손행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자, 그대로 밀고 들어가 위를 향해 무릎을 꿇고 절하며 말했다. “할머니, 절 올립니다.” 그러자 노마가 말했다. “내 아들이, 일어나거라.” 손행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좋아, 좋

아, 아주 싹싹하게도 구는구나!’ 노마가 물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손행자가 대답했다. “평정산 연화동에서 왔습니다. 두 대왕님의 명을 받들어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당승의 고기를 드시라고 모셔왔습니다. 황금빗줄을 가져가서 손행자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노마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참으로 효성 지극한 아들이로구나!” 그러고는 곧바로 가마를 내오라고 명했다. 손행자가 말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요괴가 가마까지 타고 다닌단 말이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뒤편에서 여자 요괴 둘이 향등가마 하나를 메고 나와 문밖에 세워두고는 푸른 비단 휘장을 둘렀다. 노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굴 밖으로 나가 가마 안에 앉았다. 그 뒤를 따라 어린 여자 요괴 몇 명이 화장 도구와 거울 받침, 손수건, 향합 등을 받쳐 들고 좌우에서 따랐다. 노마가 말했다. “너희는 왜 따라오느냐? 내 아들이 있는 곳에 가는데, 거기 모실 사람이 없을까 봐 걱정되어 너희까지 가서 수고를 더하려는 것이냐? 모두 물러가서 문이나 지키고 있거라.” 그러자 소요들은 모두 물러갔고, 오직 가마를 멘 두 명만 남았다. 노마가 물었다. “심부름 온 녀석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손행자가 얼른 대답했다. “제 이름은 의해룡이고, 저 친구는 바산호라고 합니다.” 노마가 말했다. “너희 둘은 앞장서서 길을 터라.” 손행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운도 지지리 없지, 보물을 가져오지는 못할망정 저놈들의 종노릇을 하게 생겼구나.’ 하지만 감히 맞설 엄두가 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앞장서서 길을 안내하며 크게 네 번을 호통쳤다.

다섯여섯 리쯤 갔을까, 손행자는 가마를 메고 가는 이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바위 절벽 위에 걸터앉았다. 손행자가 말했다. "잠시 쉬어가는 게 어떨겠나? 어깨가 너무 아프구나." 소요들이 그 비결을 알 리 없

으니, 얼른 가마를 내려놓았다. 손행자는 가마 뒤편에 서서 가슴팍에서 털 한 가닥을 뽑아더니, 커다란 구운 떡으로 변하게 하여 품에 안고 뜯어 먹기 시작했다. 가마꾼이 물었다. "나리, 드시는 게 무엇입니까?" 손행자가 대답했다. "말하기 좀 곤란하네. 먼 길을 와서 할머니를 모시러 가는 길이라 상을 좀 챙겨야 하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말이야. 원래 가져온 마른 식량이 좀 있으니, 이것 좀 먹고 다시 출발하겠네." 가마꾼이 말했다. "저희도 조금만 나눠 주십시오." 손행자가 웃으며 말했다. "오게나, 다 한 식구인데 무엇을 따지겠나?"

그 소요들은 사태 파악도 못한 채 손행자 주변을 에워싸고는 제 마른 식량을 나누어 주려 했다. 그러자 손행자가 여의봉을 휘 뽑아 들더니, 정면으로 치는 놈은 머리가 으깨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 옆으로 치는 놈은 죽지는 않더라도 신음 소리를 내며 쓰러지게 만들었다. 요괴가 신음 소리를 내자 가마 안에서 머리를 내밀고 살펴보려 했는데, 그 순간 손행자가 가마 앞으로 꺾충 뛰어올라 머리통을 몽둥이로 내리쳤다. 가마에는 구멍이 뚫렸고, 뇌수가 터져 나오며 선혈이 낭자했다. 가마 밖으로 끌어내어 살펴보니, 알고 보니 구미호였다. 손행자가 웃으며 말했다. "죄 많은 짐승 같으니라고, 누가 할머니라는 말이냐? 네가 할머니라고 부르려면, 나를 태조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이다!"

"좋아, 잘했다!" 손오공이 기뻐하며 외쳤다. "그 요괴 놈이 아무리 대단한 재주가 있다 한들, 이미 보물 세 개를 다 손오공에게 뺏겼으니 이제 끝장이다!"

그리고는 손오공이 자신의 털을 두 가닥 뽑아 바산호와 의해룡으로 변신시켰다. 또 두 가닥을 뽑아 가마를 메는 하인 두 명으로 변신시키더니, 자신은 노할머니의 모습으로 변해 가마 안에 올라탔다. 가마가 들려 올라가자, 손오공은 곧장 원래 있던 곳으로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화동 입구에 도착하자, 털로 변신한 소요들이 앞장서서 외쳤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안에서 문을 지키던 소요가 문을 열며 물었다. "바산호와 의해룡이 왔느냐?" 털을 가진 소요가 대답했다. "왔다." "너희가 모셔온 할머니는 어디 계시냐?" 털을 가진 소요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가마 안에 계신 분이 아니냐?" 그러자 문지기 소요가 말했다. "잠깐 기다려라. 내가 먼저 들어가서 보고하겠다." 그가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다. "대왕님, 할머니께서 오셨습니다!" 두 요괴 대왕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향안을 차려 맞이할 준비를 시켰다.

손오공은 이 소리를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운수도 좋지, 나도 이제 남 대접을 좀 받아보는구나! 처음에는 소요로 변신해서 저 요괴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려 주었으니, 이번에는 내가 요괴의 어머니로 변신해 돌아갈 테니 정중히 네 번 절을 받아내야겠다. 대단한 일은 아니더라도, 요괴 놈 머리 두 번은 제대로 까먹겠군!'

위대한 손오공은 가마에서 내려 옷을 한 번 털고는, 몸에 붙었던 네 가닥의 털을 갈무리했다. 문지기 소요가 빈 가마를 들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 손오공도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마치 노할머니처럼 몸을 배배 꼬고 조신하게 움직이며 요괴의 걸음걸이를 똑같이 흉내 내며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을 보니 수많은 요괴가 모두 나와 무릎을 꿇고 맞이하고 있었다. 북과 징, 피리와 통소가 울려 퍼지며 음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보산로에서는 향연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손오공은 정청 중앙의 남쪽 자리에 앉았다. 두 요괴 대왕은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며 외쳤다. "어머니, 자식들이 문안 올립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오냐, 내 자식들아, 일어나거라."

한편, 대들보에 매달려 있던 저팔계가 하하하 하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사오정이 말했다. "둘째 형님, 참 대단하십니다. 매달려 있으면서 웃음까지 나오시다니요." 저팔계가 대답했다. "동생아, 내가 그냥 웃는 게 아니란다." 사오정이 물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저팔계가 말했다. "우리는 저 할머니가 오기라도 하면 아주 찌서 잡아먹힐까 봐 겁이 났는데, 알고 보니 할머니가 아니라 옛날이야기가 찾아온 것이었어." 사오정이 다시 물었다. "그게 무슨 옛날이야기 말입니까?"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바로 '필마온'이 왔다는 이야기지!" 사오정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 사람이 필마온인 줄 어떻게 아십니까?" 저팔계가 설명했다. "허리를 굽히고 '얘야, 일어나라' 하고 부르면서, 뒤에서 원숭이 꼬리를 덤석 움켜쥐지 않느냐. 내가 너보다 더 높이 매달려 있어서 아주 잘 보인단다." 사오정이 말했다. "그만 말씀하시고,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일단 들어봅시다." 저팔계가 맞장구를 쳤다. "그래, 그래. 네 말이 맞다."

손오공이 가운데 앉아 물었다. "내 아들이, 나를 부른 이유가 무엇이야?"

요괴가 대답했다. "어머니, 그동안 소홀히 지내느라 효도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형제가 동토의 당승을 붙잡아 왔는데, 감히 함부로 먹지는 못하고 어머니를 모셔와 제물로 바치려 합니다. 이 고기를 찌서 어머니께 대접하면 수명이 늘어나실 것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얘야, 당승의 고기는 내가 먹지 않겠다. 듣자하니 저팔계의 귀가 아주 맛있단데, 그걸 잘라서 요리해 오너라. 내 술안주로 삼으리라."

이 말을 들은 저팔계가 혼비백산하여 외쳤다. "이런 망할 놈! 내 귀를 자르겠다고? 그러면 내가 소리를 지를 때 아주 듣기 싫어질 것 아니냐!"

아아! 저팔계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속내 말 때문에, 손오공이 변신한 술법의 정체가 새어 나가고 말았다. 마침 산을 순찰하던 소요 몇과 문을 지키던 요괴들이 우르르 달려 들어와 보고했다. "대왕님, 큰일 났습니다! 손행자가 노할머니를 때려죽이고, 그 모습으로 변장해 들어왔습니다!" 요괴 대왕은 이 말을 듣자 앞뒤 사정을 따질 겨를도 없이, 칠성보검을 뽑아 들고 손행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다. 그러나 대단한 손오공이 몸을 한 번 번쩍 흔드니, 동굴 안에는 붉은 빛만 가득할 뿐 그는 이미 먼저 빠져나간 뒤였다. 이런 숨씨야말로 참으로 볼만한 재주였다. 이야말로 "모이면 형체를 이루고, 흩어지면 기운이 된다"는 것이었다.

늙은 요괴의 혼이 쏙 빠져나간 것을 본 요괴들이 손가락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노마가 말했다. "형제여, 차라리 당승과 사오정, 저팔

계, 그리고 백마와 짐까지 모두 저 손오공에게 돌려보내 버리세. 그래야 이 번거로운 시비가 끝나지 않겠나."

그러자 다른 요괴가 말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이 계책을 짜서 저 스님을 잡아오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말입니다. 지금처럼 손오공의 변덕스러운 재주가 두려워 전부 돌려보내다니요. 칼과 창이 무서워 피하기만 하는 것이 어찌 대장부의 도리라 하겠습니까? 그러니 형님께서서는 겁내지 마시고 일단 앞으십시오. 손오공의 신통력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제가 비록 그와 한 차례 마주치긴 했어도 아직 제대로 겨뤄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서 무기를 가져오너라. 내가 직접 손오공을 찾아가 세 합 정도 겨뤄보겠다. 만약 그가 세 번의 싸움에서 나를 이기지 못한다면 당승은 여전히 우리의 먹잇감으로 남겨둘 것이나, 만약 내가 세 번을 싸워도 그를 이기지 못한다면 그때 가서 당승을 돌려보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노마가 말했다. "그대 말이 옳네." 그러고는 요괴에게 무기를 챙겨오라고 일렀다.

요괴들이 갑옷과 투구를 들고 나오자, 둘째 대왕이 차림을 갖추고 보검을 움켜쥔 채 문밖으로 나서며 외쳤다. "손행자, 네 이놈,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때 손오공은 이미 구름 위에 있다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급히 고개를 돌려 살펴보니, 바로 그 둘째 대왕이었다. 그 차림새를 보니 이러하였다. 머리에는 선달 눈보다 흰 봉황 투구를 쓰고, 몸에는 번쩍이는 강철 갑옷을 걸쳤다. 허리에는 이무기와 용의 힘줄로 만든 띠를 둘렀고, 분 칠한 가죽 장화에는 매화 무늬 주름이 잡혔다. 얼굴은 관구(灌口)의 살아 있는 진군(이랑신)과 같고, 용모는

거령신과 전주어도 다를 바 없었다. 손에는 칠성보검을 높이 치켜들고, 노기가 하늘을 찌를 듯 위풍이 늠름하였다.

두 요괴가 크게 소리쳤다. “손행자, 어서 우리 보물과 우리 어머니를 돌려다오! 그러면 네 스승인 당승이 불경을 구하러 가는 것을 봐주마.”

손오공이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었다. “이 망할 괴물 놈들아, 네놈이 누구를 보고 감히 손외할아버지를 찾는 것이냐! 당장 우리 스승님과 사제, 백마와 짐 보따리를 돌려놓고, 나 서쪽으로 가는 길에 쓸 여비까지 좀 챙겨주거라. 만약 입술 끝에 ‘아니요’라는 말이라도 한 글자 붙었다가는, 네놈들 스스로 줄을 꼬아 목을 매는 게 좋을 것이다. 그래야 이 할아버지가 직접 손을 쓰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테니!”

두 요괴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보검을 휘두르며 찢러왔다. 손오공 역시 여의봉을 뽑아 들어 정면으로 맞서 싸웠다. 두 사람은 공중에서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

시로 이르되, “상대는 상대를 만나고, 장수는 재능 있는 이를 만나니, 상대를 만나니 흥겨움을 감출 길 없고, 재능 있는 이를 만나니 공력을 다하게 되네. 두 신장이 맞붙으니, 마치 남산의 호랑이가 싸우고 북해의 용이 다투는 듯하구나. 용이 다투는 곳에는 비늘이 번쩍이며 빛나고, 호랑이가 싸우는 곳에는 발톱과 이빨이 어지러이 떨어지네. 발톱과 이빨은 은갈고리처럼 훑날리고, 비늘은 철잎처럼 번뜩이는구나. 한 명은 공중에서 수없이 뒤집히며 천 가지 초식을 펼치고, 다른 한 명은 끊임없이 오가며 한순간도 빈틈을 보이지 않네. 여의봉은 정수리에서 불과 한 뼀 거리에 있고, 칠성검은 심장 근처를 아슬아슬하게 파고드

네. 한 명의 위세는 북두칠성과 견우성을 떨게 하고, 다른 한 명의 노기는 벼락보다 더 험악하구나.”

두 요괴는 서른 합을 싸웠으나 여전히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손오공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 요괴 녀석, 제법 내 여의봉을 막아내는구나. 이미 보물 세 개를 손에 넣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싸우느라 힘을 빼는 건 시간 낭비지. 차라리 호로(호리병)나 정병에 담아가버리면 훨씬 수월할 텐데." 그러다 문득 손오공은 생각이 바뀌었다. "아니지, 아니야. 흔히들 '물건은 주인 마음대로 쓰기 마련'이라고 하잖아. 만약 내가 호로를 써서 불러내도 저놈이 대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럼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도 있겠어. 그러니 차라리 황금밧줄로 묶어버리는 게 낫겠다." 말을 마친 손오공은 한 손으로는 여의봉을 휘둘러 요괴의 공격을 막아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황금밧줄을 휩 낚아채 요괴의 몸을 단숨에 꼬꽂 묶어버렸다.

알고 보니 그 요괴에게는 밧줄을 짝 조이는 주문과 느슨하게 푸는 주문이 있었다. 다른 사람을 묶을 때는 조이는 주문을 외우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고, 자기 식구를 묶을 때는 푸는 주문을 외워 몸이 상하지 않게 조절할 수 있었다. 요괴는 그것이 자기 보물임을 알아보고 즉시 푸는 주문을 외워 밧줄을 느슨하게 만들었다. 그러자 밧줄은 손오공을 놓아주는 대신 오히려 손오공을 짝 낚아챘다.

손오공은 급히 몸을 줄이는 도술을 부려 빠져나가려 했으나, 요괴가 조이는 주문을 외우는 바람에 밧줄에 꼬꽂 묶여 버리니 어찌 빠져나갈 수 있었겠는가? 밧줄이 목 아래까지 내려가 보니, 원래 금색 고리 모양

으로 되어 있었다. 요괴가 밧줄을 확 잡아당기자 고리가 내려오며 손오공의 머리를 향해 보검을 일곱 여덟 번이나 내리쳤다. 하지만 손오공은 머리 가죽 하나 붙어지지 않았다.

요괴가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 머리가 이리도 단단하니 차마 베지는 못하겠다. 일단 데려가서 다시 매질을 해 주마. 내 보물 두 개를 어서 내놓아라!"

손오공이 말했다. "내가 네 보물을 가져갔다고 왜 나한테 난리냐?"

요괴는 손오공의 몸을 살살이 뒤져 호로(호리병)와 정병을 모두 찾아냈다. 그리고 밧줄로 손오공을 끌고 동굴로 들어가며 말했다. "형님, 데려왔습니다!"

우두머리 요괴가 물었다. "누구를 데려왔느냐?"

두 부하 요괴가 대답했다. "손오공입니다. 이리 와서 좀 보세요, 좀 보세요!"

우두머리 요괴가 살펴보니 정말 손오공이었다. 그는 얼굴 가득 기쁜 웃음을 띠며 말했다. "그놈이구나, 바로 그놈이야! 그놈의 긴 밧줄을 기둥에 묶어 놓고 가지고 놀아라."

그렇게 정말로 손오공을 기둥에 묶어 놓은 뒤, 두 요괴는 뒤편 대당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손오공이 기둥 밑에서 몸을 움직이자, 대들보에 매달려 있던 저팔계가 깜짝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형님! 귀는커녕 입도 못 놀리게 생겼네요."

손오공이 말했다. "이 멍청아, 거기 매달려 있으니 좀 살만하냐? 내가 지금 당장 나가서 너희를 구해줄 테니 기다려라."

저팔계가 대꾸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시네. 제 코가 석 자라 빠져 나가기도 힘든 판에 사람을 구하겠다고니요. 에휴, 관둡시다. 그냥 스승님과 우리 모두 여기서 다 죽고, 저승에 가서 길이나 같이 물어봅시다."

손오공이 말했다. "헛소리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나가는지 잘 봐."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어떻게 나가시려고요?"

손오공은 저팔계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눈은 두 요괴를 예리하게 살피고 있었다. 요괴들이 안에서 술을 마시는 사이, 몇몇 소요들이 술잔과 접시를 나르고 주전자로 술을 따르며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덕분에 경계가 조금 느슨해진 것을 발견했다.

앞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손오공은 즉시 도술을 부렸다. 먼저 여의봉을 쑥 뽑아낸 뒤, 입으로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여의봉이 순식간에 단단한 강철로 된 톱으로 변했다. 손오공은 기둥에 묶인 밧줄을 톱으로 서너 번 쓱쓱 쳐서 두 토막을 낸 뒤, 틈을 벌려 몸을 쑥 빼냈다. 그러고는 자신의 털 하나를 뽑아 가짜 몸을

만든 뒤 그 자리에 묶어두고, 진짜 몸은 순식간에 소요로 변신하여 옆에 나란히 섰다.

그때 대들보 위의 저팔계가 다시 소리쳤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저기 묶인 건 가짜고, 매달려 있는 게 진짜다!"

요괴 대왕이 술잔을 멈추고 물었다. "저 저팔계라는 놈이 뭐라고 떠드는 것이냐?"

이미 소요로 변신한 손오공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팔계가 말하기를, 손행자가 변신술을 써서 도망갔다고 하는데도 도무지 가지 않고 저러고 떠드네요."

두 요괴가 말했다. "저팔계가 아주 정직한 놈인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구나. 매를 좀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어."

손행자가 몽둥이를 가져와 때려주려 하자, 저팔계가 말했다. "살살 좀 때려요. 너무 세게 때리면 내가 또 소리 지를 거니까. 당신인 거 다 알아요." 손행자가 대꾸했다. "이 몸이 변신술을 부린 게 다 너희를 위해서인데, 어째서 너만 눈치를 채는 거냐? 이 동굴 안에 요괴들이 널렸는데 왜 하필 너만 알아보는 거야?" 저팔계가 말했다. "얼굴은 바꿨을지 몰라도 엉덩이까지는 못 바꿨잖아요. 엉덩이에 그 붉은 자국 두 개가 딱 보이는걸요? 그래서 당신인 줄 알았죠." 손행자는 얼른 뒤쪽 부엌으로 달려가 솔 밑바닥의 검은 그을음을 한 움큼 집어 들더니, 두 엉덩이에 문질러 까맣게 칠하고 다시 앞으로 걸어 나왔다. 저팔계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웃으며 말했다. "저 원숭이 녀석, 어디서 한참을 꿈지락거리더니 결국 엉덩이를 시커멓게 칠해서 나타났네!"

손행자는 여전히 그들 앞에 서서 보물을 훔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과연 대성다운 예리한 숨씨였다. 그는 대청으로 성큼 걸어가 요괴를 향해 던지시 말을 건넸다.

"대왕님, 저기 기둥에 묶인 손행자가 몸을 이리저리 비틀며 날뛰고 있으니, 저 황금밧줄이 금방이라도 닳아 끊어지겠습니다. 차라리 좀 더 튼튼한 밧줄로 바꿔 매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마가 대답했다.

"그 말이 맞다."

그러더니 노마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사자 가죽띠를 풀어 손행자에게 건네주었다. 손행자는 그 띠를 받아 가짜 몸을 기둥에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원래 있던 황금밧줄을 풀어 소매 안으로 몽땅 챙겨 넣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털 하나를 뽑아 입으로 신선한 기운을 훔 붙더니, 가짜 황금밧줄로 변신시켜 두 손으로 요괴에게 바쳤다. 요괴는 술에 잔뜩 취해 있었기에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받아 챙겼다. 이것이야말로 손행자가 도술을 부려 털 하나로 황금밧줄을 바꿔치기한 대단한 숨씨였다.

보물을 손에 넣은 손오공은 급히 몸을 돌려 문밖으로 뛰어 나간 뒤, 본래 모습으로 돌아와 크게 외쳤다. "요괴 놈들아!" 문을 지키던 소요가 물었다. "너는 누구길래 여기서 소란이냐?" 손오공이 말했다. "어서 들어가서 네놈들의 그 못된 우두머리에게 전해라. 자행손(者行孫)이 왔다고!" 소요가 말한 대로 보고하자, 노마가 깜짝 놀라 말했다. "손행자(孫行者)는 이미 잡아 두었는데, 어떻게 또 자행손(者行孫)이라는

자가 있단 말이냐?" 둘째 대왕이 말했다. "형님, 그놈이 무서울 게 무엇
 입니까? 보물은 다 제 손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 호로를 들고 나가서
 저놈을 빨아들여 버리겠습니다." 노마가 말했다. "아우님, 조심하게."
 둘째 대왕은 호로를 들고 산문을 나서다가, 갑자기 손오공과 생김새가
 똑같지만 키만 조금 작은 자를 발견하고 물었다. "너는 어디서 온 놈이
 냐?" 손오공이 말했다. "나는 손행자의 동생이다. 듣자하니 너희가 우
 리 형님을 잡아갔다가에, 따지러 왔다!" 둘째 대왕이 말했다. "내가 잡
 아서 동굴에 가두어 두었다. 네가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한판 붙어야겠
 구나. 하지만 너와 직접 싸우지는 않겠다. 내가 네 이름을 한 번 부를
 테니, 네가 감히 대답할 수 있겠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네가 천 번을
 불러도 나는 만 번이라도 대답해 주마!" 요괴는 보물을 움켜쥐고 공중
 으로 뛰어올라, 호로 밑바닥을 하늘로, 입구를 땅으로 향하게 한 채 외
 쳤다. "자행손아!" 손오공은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속으로 생각했다.
 '대답하는 순간 빨려 들어가겠구나.' 요괴가 물었다. "왜 대답이 없느
 냐?" 손오공이 말했다. "귀가 좀 먹어서 듣지 못했다. 더 크게 불러 보
 아라!" 요괴가 다시 외쳤다. "자행손아!" 밑에 있던 손오공은 손가락을
 꼬아 섬을 해보고 말했다. '내 진짜 이름은 손행자(孫行者)이고, 장난
 으로 거꾸로 붙인 이름이 자행손(者行孫)이다. 진짜 이름이면 빨려 들
 어갈지 몰라도, 거꾸로 붙인 이름으로는 빨려 들어가지 않겠지.' 그러
 면서도 끝내 참지 못하고 한 번 대답하고 말았다. "예!" 그러자 썩 하고
 요괴의 호로 속으로 빨려 들어가, 그 위에 부적이 딱 붙어버렸다. 알고
 보니 그 보물은 이름이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이, 그저 대답하는 기운만
 닿으면 무엇이든 빨아들이는 것이었다.

손오공이 그 호로 속으로 들어가 보니, 사방이 온통 칙흑같이 어두웠다. 머리를 위로 밀어 올려 보았으나 딱 막혀 꿈쩍도 하지 않자, 그는 마음이 초조해져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까 산에서 그 두 소요를 만났을 때, 호로나 정병에 사람을 가두면 채 한 시진도 안 되어 몸이 녹아내린다고 했었지. 설마 나까지 녹여버리려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시 이렇게 생각했다.

'아니야, 나를 녹일 순 없을 거야. 이 손오공이 오백 년 전 천계를 뒤엎었을 때, 태상노군이 팔괘로에 넣어 마흔아홉 날 동안 달구었을 때를 잊었던 말인가? 그때 나는 심장과 폐는 금과 은이 되고, 머리와 등은 구리와 철처럼 단단해졌으며, 눈은 불꽃을 보는 금정안이 되었는데, 고작 이 정도 시간에 나를 녹일 수 있겠어? 일단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둘째 대왕이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형님, 가져왔습니다." 노마가 물었다. "누구를 가져왔느냐?" 둘째 대왕이 대답했다. "자행손(者行孫)을 제가 호로 안에 가두었습니다." 노마가 기뻐하며 말했다. "현재, 어서 앉게나.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흔들어서 소리가 나면 그때 부적을 떼어 보세."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내 몸이 이대로 멀쩡한데 어떻게 흔들다고 소리가 나겠어? 완전히 묶은 물처럼 녹아야 소리가 나겠지. 일단 오줌이나 한 번 누고 나서, 호로에서 소리가 나면 그때 분명 부적을 떼고 뚜껑을 열 테니, 그 틈을 타서 확 도망가 버려야지.' 그러다 문득 생각했다. '아니, 안 되겠다. 오줌으로 소리

는 낼 수 있겠지만 이 도포가 다 더러워지겠는걸. 흔들 때쯤 입안에 침을 잔뜩 모아 가글하듯 짹짹 소리를 내서, 요괴를 속여 뚜껑을 열게 만들고 그때 도망가야겠다.' 손오공이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나, 요괴는 술에 빠져 호로를 흔들지 않았다. 손오공은 요괴를 속여 흔들게 하려고 피를 부려 갑자기 외쳤다. "아이고, 세상에! 복사빠가 다 녹았다!" 그래도 요괴는 흔들지 않았다. 손오공이 다시 외쳤다. "어머니! 허리빠까지 다 녹아버렸어요!" 그러자 노마가 말했다. "허리까지 녹았다면 이미 다 녹아 없어진 것이겠구나. 부적을 떼고 살펴보자!"

손오공이 그 말을 듣고는 곧바로 자신의 털 한 가닥을 뽑아 들더니 "변해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털이 호리병 바닥에 달라붙어 몸통이 반쯤 잘린 형상으로 변했다. 정작 손오공의 본체는 작은 벌레로 변신하여 호리병 입구 쪽에 딱 붙어 있었다. 두 요괴가 쪽지를 떼어 확인하려 할 때, 손오공은 이미 벌레가 되어 껌싸게 빠져나온 뒤였다. 손오공은 한 바퀴 구르더니 곧바로 의해룡으로 변신했다. 의해룡은 원래 노할머니를 모시러 갔던 바로 그 소요였는데, 손오공이 그 모습으로 변해 옆에서 있었다. 노마가 호리병 입구를 붙잡고 안을 들여다보니, 반쯤 잘린 몸뚱이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노마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살필 겨를도 없이 당황하며 외쳤다. "형제여, 어서 뚜껑을 덮게! 아직 다 녹지 않았단 말이야!" 두 요괴는 서둘러 다시 뚜껑을 덮었다. 손오공은 곁에서 이를 지켜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이 멍청한 놈들, 손오공이 이미 여기 와 있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 요괴는 호로를 가져와 술을 가득 채운 뒤, 두 부하 앞으로 다가가 두 손으로 술잔을 건네며 말했다. "아우님, 내가 자네에게 술 한 잔을

권하겠네.” 두 요괴가 대답했다. “형님, 저희가 벌써 이만큼이나 술을 마셨는데 또 술을 권하시다니요?” 그러자 요괴가 다시 말했다. “자네가 당승과 저팔계, 사오정을 잡아온 것도 모자라 손행자까지 잡아 이 호로에 넣어버렸으니, 이 정도 공로라면 자네에게 술을 몇 잔이나 더 권해도 마땅하지 않겠나.” 두 요괴는 형님이 이토록 공손하게 대하니 어찌 감히 거절하겠는가. 다만 한 손으로는 호로를 받쳐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차마 술잔을 받지 못해 호로를 의해룡에게 건네준 뒤에야 두 손으로 잔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의해룡이 손오공이 변신한 모습이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다. 손오공은 호로를 받쳐 든 채 지극 정성으로 술을 따르며 시중을 들었다. 두 요괴는 술을 받아 마신 뒤 다시 잔을 올리려 했다. 그러자 요괴가 말했다. “술을 되돌려줄 것 없네. 내가 자네와 함께 한잔 마심세.” 두 요괴가 서로 사양하며 점손을 떨었다. 그사이 손오공은 호로를 머리에 이고 눈을 떴지 않은 채, 두 요괴가 서로 잔을 주고받는 것을 지켜보며 틈을 엿보다가 슬그머니 호로를 소매 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털 한 올을 뽑아 진짜와 똑같이 생긴 가짜 호로를 만들어 손에 받쳐 들었다. 요괴는 술을 주고받느라 정신이 팔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 채 보물을 덥석 받아 들었다. 요괴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평온하게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손오공은 슬그머니 몸을 빼내어 보물을 챙기며 속으로 기뻐하며 말했다. ‘이 요괴 놈, 제법 수단이 좋구나. 하지만 결국 이 호로의 주인은 나 손오공이다!’

결국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여 스승을 구하고 요괴를 물리치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35회 — 사악한 무리가 위세를 떨쳐 바른 성품을 속이고, 마음의 원숭이가 보 물을 얻어 요마를 굴복시키다

外道施威欺正性 心猿獲寶伏邪魔

보물을 속여 빼앗다

마음의 원숭이가 온갖 번뇌를 굴복시키니 겉길을 깨뜨리고 달빛을
마주하도다

시로 이르되,

본성이 둥글고 밝으니 도(道)가 절로 통하고, 몸을 돌려 뛰어오르니
그물과 망을 벗어나는구나. 변화를 익히는 것이 어찌 쉽다 하랴, 장생
을 이루었으니 어찌 속된 이와 같으랴. 맑고 탁함이 운수에 따라 몇 번
이나 돌고 돌아, 수많은 겁난을 헤치며 동서로 누비네. 만억 년을 유유
자적하며 헤아릴 길 없으니, 한 줄기 신령한 빛이 영원히 허공에 머무
는구나.

이 시는 손오공이 지닌 도술의 오묘함을 암시한다. 손오공은 마법의 보물을 손에 넣어 소매 속에 감추고는 기뻐하며 말했다.

"저 요괴 놈이 나를 잡으려고 애를 써봤자 물속의 달을 건지려는 헛수고일 뿐이다. 내가 저놈을 잡으려 한다면 불 위에서 얼음을 다루는 것만큼이나 식은 죽 먹기지!"

손오공은 호로를 숨긴 채 살금살금 동굴 밖으로 빠져나와 본모습을 드러내고는, 엄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요괴들은 문을 열어라!"

그러자 곁에 있던 작은 요괴가 물었다.

"네놈은 대체 누구길래 감히 여기서 소란을 피우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네놈의 주인인 그 늙은 요괴에게 어서 전해라. 나 손행자가 왔다!"

작은 요괴가 급히 안으로 뛰어 들어가 보고했다. "대왕님, 문밖에 손행자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금각대왕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이런, 큰일 났다! 그놈이 아주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구나. 금줄에는 손오공이 묶여 있고, 호로 안에는 손오공이 갇혀 있는데, 이제는 또 무슨 손행자라는 놈이 나타났단 말이냐? 아무래도 그놈 형제들이 죄다 몰려온 모양이다."

그러자 은각대왕이 말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이 호로는 사람 천 명도 거뜰히 담을 수 있습니다. 방금 손오공 한 명을 넣었을 뿐인데, 그놈이 뭐라고 겁을 내겠습니까? 제가 나가서 확인해 보고, 한꺼번에 몽땅 잡아넣겠습니다."

금각대왕이 신중하게 일렀다. "동생아, 조심해서 행동하거라."

저 두 요괴가 가짜 호로를 들고는 지난번처럼 기세등등하게 문밖으로 걸어 나와 큰 소리로 외쳤다. "너는 어디서 온 놈이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떠드는 것이냐!"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나를 몰라보는구나. 나는 화과산에 살고 수렴동을 근거지로 삼는다. 한때 천궁을 어지럽히며 소란을 피웠으나, 이제는 다행히 재앙을 벗어나 도를 버리고 스님이 되었노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뇌음사에 가고, 경전을 구해 깨달음을 얻으려 한다. 그런데 길에서 이런 무도한 요괴를 만나 도술을 부리려 하다니. 우리 당승 스님을 어서 돌려보내 서천으로 가서 부처님을 뵈게 하라. 서로 싸우지 말고 각자 평안히 지내자꾸나. 괜히 나를 성가시게 해서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말란 말이다."

요괴가 대답했다. "이리 좀 와 보아라. 너와 싸우지는 않겠다. 다만 내가 너를 한번 불러볼 터인데, 네가 감히 대답할 수 있겠느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대답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부르면 너는 대답하겠느냐?"

요괴가 말했다.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사람을 가둘 수 있는 보물 호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네가 나를 부른다면 무엇이 있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나에게도 호로가 하나 있다.”

요괴가 말했다. “있다면 어디 한번 꺼내 보아라.”

손오공은 소매 속에서 호로를 꺼내며 말했다. “이놈아, 이것 좀 보아라!” 그러고는 요괴가 뺏으려 할까 봐 호로를 흔들어 보인 뒤 다시 소매 속으로 접싸게 감추었다.

요괴가 그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외쳤다. “저놈의 호로(박)는 대체 어디서 난 것이냐? 어째서 내 것과 똑같이 생겼단 말이나! 설령 한 줄기 덩굴에서 열린 것이라 해도 크기가 다르거나 모양이 조금은 차이가 나야 하거늘, 어찌 이토록 판박이란 말이나?” 요괴는 정색하며 소리쳤다. “손행자! 네놈의 호로는 어디서 난 것이냐?”

손오공은 사실 그 호로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기에, 그저 요괴의 말을 그대로 받아쳐 되물었다. “네놈의 호로는 어디서 난 것이냐?”

요괴는 손오공이 그저 사실대로 묻는 것이라 생각하고는, 자신이 아는 근본을 처음부터 줄줄이 늘어놓았다. “이 호로는 혼돈이 갈라지고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릴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그때 태상노조께서 여와신의 이름을 빌려 돌을 정제해 하늘의 틈을 메우고 중생을 구제하셨지. 하늘의 궁궐에 빈틈이 생겨 메우러 가시다가 곤륜산 기슭에서 한 줄기 신선의 덩굴(선등仙藤)을 발견하셨는데, 그 덩굴 끝에 이 자금홍호로

가 열려 있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노군께서 지금까지 남겨두신 보물이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짐짓 능청스럽게 맞받아쳤다. “내 호로도 바로 거기서 온 것이다.” 요괴가 물었다. “어떻게 그리 단언하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세상이 처음 열릴 때 하늘은 서북쪽이 모자라고 땅은 동남쪽이 모자랐다. 그때 태상도조께서 여와 신의 뜻을 받들어 하늘의 빈틈을 메우러 가시다가 곤륜산 아래에서 신선의 덩굴을 발견하셨는데, 그 덩굴에 호로가 두 개 열려 있었지. 내가 가진 것은 수컷이고, 네놈이 가진 것은 암컷이다.”

요괴가 쏘아붙였다. “암수고 나발이고, 사람을 빨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보물이지!” 손오공이 말했다. “네 말이 맞다. 그럼 네놈이 먼저 빨아보거라!”

요괴는 매우 기뻐하며 급히 몸을 날려 공중으로 뛰어올랐다. 그러고는 호로를 움켜쥐고는 “손행자!” 하고 크게 외쳤다. 손오공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숨을 몰아쉬며 연달려 여덟아홉 번을 대답했지만, 도무지 호로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는 않았다. 요괴는 아래로 뚝 떨어지며 가슴을 쿵쿵 치고 통곡했다. “아이구, 세상에! 세상 이치가 변하지 않는다더니, 이런 보물조차 이 늙은이를 무서워하다니! 암컷이 수컷을 보면 겁을 먹는 법이라더니, 정말이지 감히 나를 삼키려 들지 않는구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건 일단 넣어두거라. 이제 내 차례가 되어서 너를 불러줄 테니!” 손오공은 재빨리 여의봉을 타고 솟구쳐 올라, 호로의 밑바닥을 하늘로 향하고 입구를 땅으로 향하게 한 뒤 요괴를 겨냥하며 외쳤다. “은각대왕!” 요괴는 입을 다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겨우 한

번 대답하고 말았다. 그 순간 요괴는 순식간에 호로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손오공은 그 위에 '태상노군의 명을 받들어 급히 시행하라'는 부적을 딱 붙여버렸다. 손오공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생각했다. '아이야, 너도 오늘 새로운 맛을 좀 봐야겠다.'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내려와 호로를 손에 쥐었다. 오로지 스승을 구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연화동 입구를 향해 나아갔다. 산길은 울퉁불퉁하고 험해서, 다리를 꼬고 앉아 구르듯 걷는 그의 움직임에 따라 호로 안에서 무언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어째서 호로에서 소리가 나는 것일까? 원래 손오공은 온갖 고난을 겪으며 단련된 몸이라 급하게 녹여낼 수 없지만, 저 요괴는 구름을 타고 안개를 부리는 법술을 부릴 수는 있어도 근본은 아직 범인의 몸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보물 안에 갇히자마자 녹아버린 것이다.

손오공은 요괴가 벌써 녹아버린 것을 보고는 오히려 웃으며 말했다. "이놈아, 소변을 보는 거냐, 아니면 입을 행구는 거냐? 이걸 내가 이미 겪어본 일이다. 한 7~8일 지나서 형체도 없이 녹아버릴 때까지는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으려나. 뭐 그리 서두른다고? 내가 이렇게 쉽게 나온 줄 알면, 천 년 동안은 구경도 못 할 줄 알아라!"

그는 호로를 흔들며 혼잣말을 하다 보니 어느덧 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손오공이 호로를 흔들자 다시 달그락 소리가 났다. "이 소리는 마치 점을 칠 때 쓰는 산통(점통) 소리 같구나. 점치기에 딱 좋겠어. 어디

이 몸이 점이나 한 번 쳐서, 스승님이 언제쯤 문밖으로 나오실 수 있을 지 봐야겠다."

그는 손으로는 호로를 계속 흔들면서 입으로는 끊임없이 주문을 외듯 중얼거렸다. "주역의 문왕님, 공자 성인님, 도화녀 선생님, 귀곡자 선생님..."

동굴 안의 작은 요괴가 달려와 외쳤다. "대왕님, 큰일 났습니다! 손행자가 은각대왕님을 호로(박)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금각대왕은 혼비백산하여 났이 나갔고,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 뼈마디가 마비되는 것 같았다. 그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목을 놓아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아아, 아우야! 우리가 함께 천계에서 내려와 속세로 몸을 바꿔 태어난 것이, 함께 영화를 누리며 영원히 이 동굴의 주인이 되기를 바랐건만! 어찌하여 고작 저 스님 때문에 네 목숨을 잃고 우리의 형제간 우애마저 끊어지게 된단 말이냐!"

동굴 안의 모든 요괴가 일제히 슬피 울었다.

저팔계는 대들보에 매달린 채 요괴 가족들이 일제히 울어대는 소리를 듣고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놈들 요괴들아, 그만 울어라! 이 몸이 말해 줄 테니 잘 들어라. 먼저 온 건 손행자, 그다음은 자행손, 나중에는 행자손이라니, 이 세 글자를 앞뒤로 바꾼 건 다 우리 사형 한 사람이다! 그놈이 일흔두 가지 변

화술을 부려 몸을 날려 획 들어오더니, 보물을 훔쳐서 네 동생을 집어 넣었던 말이다. 네 동생은 이미 죽었으니 그렇게 상례 치르듯 울어댈 필요 없다. 얼른 술이나 깨끗이 닦고 표고버섯, 송이버섯, 찻잎, 죽순, 두부, 밀단백(면근), 목이버섯, 채소 같은 것 좀 준비해라. 그래야 우리 스승님과 제자들이 내려가서 네 동생을 위해 《수생경》이라도 한 권 읽어줄 것 아니냐!"

그 말을 들은 요괴 대왕은 속으로 크게 화가 나 생각했다. '저팔계 저놈이 순한 줄 알았더니, 전혀 순하지 않구나! 감히 나를 비웃다니!'

요괴 대왕이 외쳤다. "작은 요괴들아, 슬퍼하지 마라! 당장 저팔계를 내려놓고 폭 삶아서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라. 내가 배불리 먹고 나서 손행자를 잡으러 복수하러 갈 것이다!"

사오정이 저팔계를 원망하며 말했다. "거 봐요, 내가 말 좀 아끼라고 했잖아요. 말 많으면 먼저 삶아 먹힌다니까요." 저팔계도 겁이 났는지 멍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옆에 있던 작은 요괴 하나가 말했다. "대왕님, 저팔계는 삶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자 저팔계가 울먹이며 말했다. "아미타불! 대체 어느 형님이 음덕을 쌓으려고 그런 말을 해주셨나? 정말 삶기가 쉽지 않을 거요."

또 다른 요괴가 말했다. "가죽을 벗겨버리면 삶기 편할 겁니다."

저팔계는 깜짝 놀라 소리쳤다. "아, 삶기 좋지요! 삶기 좋고말고요! 겁질과 뼈가 좀 거칠긴 해도, 국물이 끓으면 금방 흐물흐물해질 겁니다!"

한창 소란을 피우던 그때, 앞문 밖에서 작은 요괴 하나가 달려와 보고했다. "손행자가 또 욕을 하며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금각대왕이 깜짝 놀라며 외쳤다. "이놈이 감히 나를 우습게 보다니!" 그는 곧바로 명령을 내렸다. "얘들아, 저팔계는 예전처럼 그대로 매달아 두고, 아직 남은 보물이 몇 개나 있는지 당장 조사해라!" 동굴을 관리하던 요괴가 대답했다. "동굴 안에 보물이 세 개 더 남아 있습니다." 금각대왕이 물었다. "그게 무엇이냐?" 관리하던 요괴가 말했다. "칠성검과 파초선, 그리고 정병입니다." 금각대왕이 말했다. "그 정병은 쓸모가 없구나. 원래는 사람을 불러 응답하게 만든 뒤에 빨아들이는 물건인데, 손행자에게 주문을 알려주는 바람에 도리어 내 형제를 가두는 데 써버리지 않았느냐. 그건 필요 없으니 그냥 집에 뒤라. 어서 검과 부채를 가져오너라!" 관리하던 요괴가 즉시 두 가지 보물을 금각대왕에게 바쳤다. 금각대왕은 파초선을 뒷덜미 옷깃에 꽂고, 손에는 칠성검을 쥐었다. 그러고는 삼백여 명에 달하는 요괴들을 불러 모아, 하나같이 창과 몽둥이를 들고 칼을 휘두르며 무장하게 했다. 금각대왕 자신도 투구를 쓰고 갑옷을 갖추어 입은 뒤, 붉은 불꽃처럼 이글거리는 비단 도포를 걸쳤다. 요괴들은 손오공을 잡기 위해 진을 치고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손오공은 이미 두 요괴가 호로 안에 갇혔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호로를 허리춤에 단단히 매달아 고정시킨 뒤, 여의금고봉을

손에 쥐고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때 저 멀리서 요괴가 붉은 깃발을 휘날리며 문밖으로 튀어나왔다.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가.

머리에는 빛나는 투구를 쓰고, 허리에는 채색 비단띠를 두르고 있었다. 몸에는 용의 비늘 같은 갑옷을 입고, 그 위로 타오르는 불꽃 같은 붉은 도포를 걸쳤다. 번개처럼 번뜩이는 눈을 부릅뜨고, 강철 같은 수염을 휘날리며 기세를 떨쳤다. 한 손에는 칠성검을 가볍게 들고, 어깨에는 파초선을 반쯤 걸친 모습이었다. 움직임은 구름이 바다와 산을 벗어나듯 유려했으나, 그 목소리는 벼락이 쳐 산천을 뒤흔드는 듯했다. 위풍당당한 기세로 천계의 장수들을 위협하며, 분노에 찬 모습으로 요괴 무리를 이끌고 동굴 앞으로 나타났다.

요괴가 급히 부하들을 불러 진을 치게 하고는 욕설을 퍼부었다. "이 원숭이 놈아, 정말 무례하구나! 내 형제를 해치고 내 혈육을 상하게 하다니, 참으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그러자 손오공이 맞받아쳤다. "이 죽고 싶어 환장한 괴물 놈아! 네놈 목숨 아까운 줄은 알면서, 우리 스승님과 사제들, 그리고 말까지 포함해서 이 네 생명을 아무 죄도 없이 동굴에 매달아 놓다니, 내 마음이 어찌 편하겠느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어서 당장 내놓고, 보상금까지 넉넉히 챙겨서 기분 좋게 나를 보내준다면, 네놈의 비루한 목숨만은 살려주마."

요괴는 말로 따질 겨를도 없이 보검을 휘둘러 머리부터 내리쳤고, 손오공은 철봉을 들어 맞서 싸웠다. 동굴 입구에서는 한바탕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아! 금고봉과 칠성검이 맞부딪칠 때마다 번개 같은 빛이 번쩍였고, 서늘한 기운은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어둑한 구름은 산등성이를 뒤덮었다. 한쪽은 형제간의 정 때문에 악행을 멈추지 않고, 다른 한쪽은 경전을 구하러 가는 스님을 구하러 한 치의 망설임도 없다. 두 편 모두 서로를 향한 원한이 깊으니, 양쪽 모두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다.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고 귀신조차 놀랄 만큼 싸움이 격렬하니, 해는 흐릿하고 연기는 자욱한 가운데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듯하다. 한쪽은 이를 갈며 옥을 깨는 듯한 기세를 내뿜고, 다른 한쪽은 눈을 부릅떠 금빛 불꽃을 튀긴다. 서로 영웅임을 증명하러 한 차례 주고받을 때마다, 봉과 검이 쉴 새 없이 뒤영겨 휘둘러진다.

이 요괴와 손오공이 스무 합을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요괴가 칠성검 끝으로 한 곳을 가리키며 외쳤다. “소요(小妖)들아, 모두 달려들어라!” 그러자 삼백여 마리의 요괴가 일제히 달려들어 손오공을 포위하고 중심부를 꼭 조여 왔다. 하지만 손오공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여의봉을 휘두르며 왼쪽과 오른쪽을 찌르고, 앞과 뒤를 막아내며 거칠게 맞서 싸웠다. 요괴들도 보통내기가 아니어서 싸움이 진행될수록 점점 더 거세게 몰아붙였다. 마치 솜뭉치가 몸을 휘감듯 허리를 붙잡고 다리를 잡아끌며 좀처럼 물러나지 않았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손오공은 몸 밖의 분신을 만드는 신통법을 부리기로 했다. 그는 옆구리 밑의 털을 한 움큼 뽑아 입에 넣고 잘게 씹어 뱉으며 크게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털 하나하나가 모두 손오공의 모습으로 변했다. 어떤 분신은 여의봉을 휘두르고, 어떤 분신은 주먹을 날렸으며, 아주 작은 분신들은 요괴의 다리를 붙잡고 뼈를 깨물어뜯

을 정도로 사정없이 달려들었다. 요괴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질렀다. “대왕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끝장입니다! 땅 위며 산 전체가 온통 손오공뿐입니다!”

손오공의 분신술에 요괴들이 속수무책으로 밀려났다. 결국 요괴 대장인 금각대왕만 포위망 한가운데 덩그러니 남겨진 채, 동서남북으로 정신없이 도망치느라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

요괴는 당황하여 왼손으로는 보검을 치켜들고, 오른손은 뒷덜미로 뺨어 파초선을 꺼냈다. 그리고는 동남방의 병정(丙丁) 화기를 향해 이궁(離宮)을 마주 보듯 겨누더니, 휘익 소리를 내며 힘차게 부채질을 해 내려갔다. 그러자 바닥에서 불길의 활활 타올랐다. 이 보물은 가만히 부채질만 해도 저절로 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요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연달아 일곱여덟 번을 부채질했고, 하늘과 땅이 맞닿을 듯 격렬한 불길이 치솟으며 불꽃이 사방으로 튀어 올랐다. 그 불길은 참으로 대단했다.

시로 이르되,

그 불은 하늘에서 내린 불도 아니요, 화로 속의 불도 아니며, 산에서 일어난 산불도 아니요, 아궁이 밑의 불도 아니라네. 오행의 이치 속에서 자연히 길어 올린 한 줄기 신령한 불꽃이라. 이 부채 또한 세상에 흔한 물건도 아니요, 사람이 만든 인공의 물건도 아니라네. 천지가 개벽하고 혼돈이 갈라질 때부터 생겨난 진귀한 보물이라네. 이 부채로 불을 일으키니, 번쩍이는 빛은 붉은 비단이 번개처럼 스치는 듯하고, 눈부신 광채는 붉은 노을이 화려한 옷자락처럼 날아오르는 듯하구나. 푸른

연기 한 줄기조차 보이지 않고, 온 산이 온통 붉은 불꽃뿐이라. 산등성이의 소나무는 불타는 나무가 되고, 절벽 앞의 측백나무는 등불처럼 변하였구나. 굴속의 짐승들은 목숨을 구하려 동서로 부딪히며 도망치고, 숲속의 새들은 깃털을 아끼려 높이높이 날아 달아나네. 이 신령한 불길이 허공을 휘저으며 타오르니, 돌은 삭고 시냇물은 말라 온 땅이 붉게 물들었구나.

손오공은 몰아치는 불길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큰일이로구나! 내 본체가 어떻게든 건디겠지만, 분신한 털들은 버티지 못하겠어. 저 불 속에 떨어지면 정말 털을 그슬리듯 순식간에 타버리지 않겠는가?” 손오공은 몸을 한 번 크게 떨더니, 훅날리던 털들을 모두 몸으로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털 하나를 가짜 몸으로 만들어 불길을 피하게 하고, 본체는 불을 피하는 주문을 외우며 근두운을 타고 솟구쳐 올라 불길을 벗어났다. 그는 곧장 스승을 구하기 위해 연화동으로 달려갔다.

다급히 동굴 앞에 도착해 구름을 낮게 내리깔자, 동굴 입구에 백여명의 작은 요괴들이 머리가 깨지고 다리가 부러진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알고 보니 모두 손오공이 분신술을 써서 다치게 한 요괴들이었는데, 그들은 고통을 참으며 신음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본 손오공은 흥포한 성질을 참지 못하고 여의봉을 휘두르며 기세 좋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가엾게도 그 요괴들이 애써 사람의 몸으로 수련해 쌓은 공과(功果)도 끝나버려, 다시 옛 짐승의 가죽과 털 덩어리로 돌아가고 말았다.

손오공은 요괴를 때려눕히고 동굴 안으로 뛰어 들어가 스승을 구하려 했다. 그런데 안쪽에서 불길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자, 그는 당황하여 허둥지둥하며 말했다.

"이런, 이런! 뒷문 쪽에서 불이 나고 있으니, 이대로라면 스승님을 구하기 어렵겠구나."

겉에 질려 자세히 살펴보니, 아! 알고 보니 불길이 아니라 찬란한 금빛이었다. 손오공이 정신을 가다듬고 안을 들여다보니, 양지옥정병이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생각했다.

'아니, 이 귀한 보물 같으니라고! 저 요괴가 산 위에서 빛을 내뿜던 그 병을 내가 겨우 얻었는데, 요괴가 다시 찾아가 버렸었지. 그런데 오 늘 여기 숨겨두었더니 이렇게 빛을 내고 있구나!'

그는 정병을 훔치느라 정신이 팔려 스승을 구하는 것도 잊은 채, 얼른 몸을 빼내어 동굴 밖으로 달아나려 했다. 그런데 막 문을 나서자마자, 요괴가 보검을 치켜들고 부채를 손에 쥔 채 남쪽에서 달려오는 것이 아닌가. 손오공은 미처 피할 겨를도 없이 요괴가 휘두른 칼에 머리부터 얻어맞고 말았다. 손오공은 급히 근두운을 타고 솟구쳐 올라, 흔적도 없이 멀리 달아나 버렸다.

한편, 요괴가 문 앞까지 다다르니 바닥에 시체가 가득 널브러져 있었다. 그것은 바로 그를 따르던 수하 정령들이었다. 요괴는 당황하여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하며, 울음을 참지 못하고 목놓아 울부짖었다. "아아, 이 어찌 된 일인가! 참으로 비참하구나!"

이 상황을 시로 이르되,

원숭이와 말은 어찌 이리 어리석고 미련한가, 신령한 기운을 품고도
속세로 떨어졌구나. 그저 잘못된 생각 하나에 천계를 떠났으니, 본래
의 모습을 잃고 이 산에 떨어졌도다. 기러기 떼는 흩어져 마음은 애타
는데, 요괴 군사들은 전멸하여 눈물만 흐르네. 업보가 언제쯤 다하여
죄의 사슬이 풀리고, 근본으로 돌아가 다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요괴는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 한 걸음 한 걸음
울며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살펴보니 물건과 가구들은 그대로였으나,
사람의 흔적은커녕 정적만이 가득하여 슬프고도 처참한 분위기가 더
욱 깊어졌다. 요괴는 홀로 동굴에 앉아 돌책상 위에 엮드린 채, 보검을
책상 옆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고 부채는 어깨 뒤에 꽂아둔 채 정신없이
잠이 들어버렸다.

시로 이르되, 기쁜 일 있을 때는 정신이 맑아 활기가 넘치건만, 마음
답답한 일 생기면 잠만 쏟아지는 법이라.

이야기는 이러하다. 손오공은 근두운을 몰아 산 앞에 멈춰 섰다. 스
승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인 그는 양지옥정병을 허리춤에 단단히 매
고 동굴 입구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동굴 문은 양쪽으로 활짝 열려 있
었고,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손오공은
곧바로 발걸음을 옮겨 조심스럽게 안으로 잠입했다.

안을 들여다보니 요괴가 석상 위에 비스듬히 기대어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다. 파초선은 어깨에 걸친 옷가지와 함께 머리 뒤를 반쯤
덮고 있었고, 칠성검은 탁자 옆에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손오공은 살

금살금 다가가 파초선을 낚아채더니, 재빨리 뒤를 돌아 휙 하고 밖으로 도망쳤다. 사실 부채 자루가 요괴의 머리카락을 스치는 바람에 요괴가 잠에서 깬 것이었다. 요괴가 고개를 들어 보니 손오공이 보물을 훔쳐 달아나고 있었기에, 급히 검을 움켜쥐고 뒤쫓아 나왔다.

하지만 손오공은 이미 문밖으로 뛰어 나가 허리춤에 부채를 꽂고, 두 손으로 여의봉을 휘두르며 요괴와 맞섰다. 두 존재의 싸움은 그야말로 치열했다.

시로 이르되,

심술궂은 요괴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고, 자신의 보물을 훔친 원숭이를 삼켜버리고 싶은 마음뿐이라네. 요괴가 악을 쓰며 손오공을 꾸짖으니, "네 이놈, 감히 사람을 놀리고 내 수하들을 죽여놓고도 보물까지 훔치다니! 이번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손오공이 요괴를 호통치며 맞받아쳤다네. "눈치 없이 굴지 마라! 네 제자도 나를 상대하지 못하는데, 어찌 달걀 같은 놈이 돌덩이를 깨뜨리겠느냐?" 보검과 철봉이 맞부딪치며 자비 없는 싸움이 이어졌고, 한 번 두 번 승부를 겨루며 무예를 펼치니, 이 싸움은 경전을 구하러 가는 스님을 지키고 영산에서 부처의 자리에 오르게 하려는 것이라네. 금과 불이 서로 어우러지지 못하고 오행의 조화가 깨지는 가운데, 신통력을 뽐내며 돌을 던지고 모래를 날리며 싸우니, 싸움은 해가 저물 무렵까지 이어졌고, 결국 기력이 다한 요괴가 먼저 몸을 피했더라.

그 요괴는 손오공과 서른 혹은 마흔 합가량 맞붙어 싸웠으나, 어느덧 날이 저물고 적의 기세를 당해낼 재간이 없자 결국 패하여 물러났

다. 그는 곧장 서남쪽으로 달려가 압룡동으로 몸을 피했으니, 그 뒤의 일은 차치하기로 한다.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 연화동 안으로 들이닥치더니, 당승과 저팔계, 사오정을 구해냈다. 세 사람이 위기에서 벗어나 손오공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건네며 물었다.

"요괴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 두 요괴는 이미 호로 속에 가두어 두었으니, 아마 지금쯤 녹아 없어졌을 거다. 큰 요괴 놈은 방금 한바탕 싸우다 패해서 서남쪽 압룡산 쪽으로 도망쳤다. 동굴에 있던 잔챙이 요괴들은 내 분신술에 절반이나 맞아 죽었고, 겨우 도망치려던 놈들도 내가 모조리 다 죽여버렸다. 그래서 이제야 이곳에 들어와 너희를 구해낼 수 있었던 거야."

당승이 감사의 뜻을 표하며 말했다.

"제자야, 네가 고생이 참 많았구나."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스님과 두 형제는 그저 매달려 고통을 참기만 하셨지만, 저는 한시도 발을 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급한 소식을 전하는 파수꾼보다 더 바쁘게 안팎으로 뛰어다녀야 했으니깐요. 요괴의 보물을 훔친 덕분에 겨우 상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그 호로 좀 우리한테 보여줘 봐요. 혹시 그 두 요괴가 이미 녹아 없어졌을지도 모르잖아요."

손오공은 먼저 양지옥정병을 내려놓고 금줄과 파초선을 꺼낸 뒤, 호로를 손에 들고 말했다.

"보지 마라, 절대 보지 마! 이 호로가 먼저 나를 잡아 가두었을 때, 내가 입안을 행구는 척하며 속여서 뚜껑을 열게 만든 뒤에야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던 말이다. 절대 뚜껑을 열지 마라. 자칫하면 저놈들이 소란을 피우며 도망가 버릴지도 모르니까."

스승과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동굴 안에 있던 쌀과 밀가루, 채소 등을 찾아냈다. 불을 지펴 솥을 씻고 닭은 뒤 소박한 채소 음식으로 식사를 차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나서 동굴 안에서 편히 쉬며 하룻밤을 보내니, 어느덧 다시 날이 밝았다.

한편, 그 요괴는 압룡산으로 달려가 크고 작은 여자 요괴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그러고는 어머니를 죽이고, 형제들을 잡아 가두고, 요괴 군대를 몰살시킨 뒤, 보물까지 훔쳐 가며 속여 넘긴 일을 낱알이 고했다. 여자 요괴들은 모두 한데 어우러져 한참 동안 통곡하며 슬퍼했다.

"이제 그만 슬퍼하십시오. 제 곁에는 아직 이 칠성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여자 병사들을 모두 불러 모아 압룡산으로 간 뒤, 친척들을 불러 모아 반드시 손오공을 붙잡아 복수하고 말겠습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밖에서 작은 요괴 하나가 달려와 보고했다.

"대왕님, 산 뒤에서 외삼촌께서 병사들을 거느리고 오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들은 요괴는 급히 흰 상복으로 갈아입고 몸을 굽혀 맞이하러 나갔다. 알고 보니 그 외삼촌은 그의 어머니가 남긴 동생으로, 이름은 호아칠대왕이었다. 그는 초소의 요괴로부터 누나가 손오공에게 죽임을 당하고, 누나의 모습으로 변신해 조카의 보물을 훔쳐 간 뒤, 며칠째 평정산에서 적들을 막아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그는 자기 동굴의 요괴 이백여 명을 거느리고 지원하러 온 것이었다. 우선 누나의 안부를 묻기 위해 달려온 참이었다.

동굴 안으로 들어온 호아칠대왕은 요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은 함께 크게 울었다. 한참을 울다가 요괴가 절을 올리며 그간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호아칠대왕은 크게 분노하며 즉시 요괴에게 상복을 벗고 보검을 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여자 요괴들을 모두 불러 모아 하나로 합친 뒤, 구름과 바람을 일으켜 곤장 동북쪽을 향해 달려갔다.

손오공은 사오정에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게 한 뒤, 식사를 마치고 길을 나섰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 소리가 들려와 문밖을 나가보니, 요괴 병사 무리가 서남쪽에서 몰려오고 있었다. 손오공은 깜짝 놀라 급히 몸을 돌리며 저팔계에게 외쳤다.

"형제여, 요괴들이 또 구원병을 불러왔네!"

그 소리를 들은 당승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다.

"제자야, 이를 어찌면 좋으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걱정 마세요. 걱정 마시라니까요. 저놈들이 가진 보물을 내가 모조리 뺏어오겠습니다."

손오공은 호로와 정병을 허리춤에 매고, 금색 밧줄은 소매 안에 넣은 뒤 파초선을 어깨 뒤에 꽂았다. 그리고 양손에는 철봉을 휘두르며 나섰다. 손오공은 사오정에게 스승님을 잘 보살피며 동굴 안에서 꼼짝 말고 앉아 있으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저팔계에게는 쇠갈퀴를 들고 함께 동굴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하자고 말했다.

요괴들이 진을 치고 달려드니, 그 선두에는 호아철대왕이 서 있었다. 그는 옥처럼 매끄러운 얼굴에 긴 수염을 가졌으며, 강철 같은 눈썹에 칼날 같은 귀를 지닌 기세등등한 모습이었다.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며, 손에는 방천극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 간 큰 원숭이 놈아! 네가 감히 어디라고 여기까지 와서 행패냐! 보물을 훔치고 우리 일족을 다치게 하더니, 요괴 병사들까지 죽이고 우리 동굴까지 차지하다니! 어서 목을 내놓고 죽어서 우리 누님네 집안의 원수를 갚아라!"

그러자 손오공이 맞서 싸우며 소리쳤다.

"이 죽고 싶어 환장한 털몽치 놈아! 네놈이 내 수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구나! 도망갈 생각 말고 내 몽둥이나 받아라!"

호아칠대왕이 몸을 옆으로 비켜 피하며 방천극을 휘둘러 손오공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다. 두 괴물이 산봉우리 위에서 한 차례 공방을 주고받으며 서너 합을 싸웠으나, 호아칠대왕의 힘이 손오공에게 미치지 못해 패하며 물러났다. 손오공이 뒤쫓아 가자 호아칠대왕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받아쳤고, 다시 세 합을 더 싸우는 듯하더니 호아칠대왕이 다시 공격을 퍼부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저팔계가 급히 아홉 이빨 달린 갈퀴를 뽑아 들어 막아섰다. 두 사람이 서로 맞붙어 한참을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할 때쯤, 호아칠대왕이 크게 호통을 치자 요괴 병사들이 일제히 몰려들어 손오공 일행을 에워싸기 시작했다.

한편, 당승은 연화동 안에 앉아 있다가 땅이 울릴 듯한 외침 소리를 듣고는 이렇게 말했다. "사오정아, 나가서 네 사형의 승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고 오너라!" 사오정이 즉시 항요장(요괴를 물리치는 지팡이)을 들고 밖으로 나가 크게 호통을 치며 달려 나가니, 몰려들던 요괴들이 뒤로 물러났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본 호아칠대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저팔계가 그를 따라잡아 갈퀴로 등 뒤를 후려치니, 등 위로 선혈이 점점이 튀어 올랐다. 한낱 여우 요괴의 영험한 기운이 허망하게 스러지는 가련한 꼴이었다. 급히 달려가 옷을 벗겨 확인해 보니, 과연 그놈은 여우 요괴였다.

요괴는 외삼촌이 죽고 손오공마저 놓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보검을 휘두르며 저팔계를 내리쳤다. 저팔계는 얼른 갈고리를 들어 막아냈다. 두 존재가 한창 격렬하게 맞붙고 있을 때, 사오정이 가까이 다가오더니 지팡이를 휘둘러 요괴를 때렸다. 요괴는 밀려오는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바람과 구름을 일으켜 남쪽으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저팔계와 사오정이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이 광경을 본 손오공은 급히 구름을 타고 공중으로 뛰어올라, 양지 옥정병을 풀어 요괴를 향해 쏘우며 외쳤다. "금각대왕!"

요괴는 그 소리가 패하여 도망치던 부하 요괴가 부르는 소리인 줄로만 알고, 무심코 뒤를 돌아보며 대답했다. 그 순간, 요괴는 썩 하는 소리와 함께 정병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손오공이 미리 정병에 '태상노군, 급급여울령 봉칙'이라 적힌 부적을 붙여두었기 때문이다. 이어 요괴가 휘두르던 칠성검마저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손오공이 그것을 챙겼다.

저팔계가 다가와 물었다. "형님, 보검은 얻으셨는데 요괴는 어디로 갔습니까?"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라, 이미 이 병 안에 다 가두어 두었느니라."

그 말을 들은 사오정과 저팔계는 매우 기뻐했다.

사오정이 요괴들을 모두 소탕하고 동굴로 돌아와 당승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산은 깨끗해졌고 요괴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스승님,

이제 말에 올라 길을 떠나시지요." 당승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스승과 제자들은 아침 공양을 마친 뒤, 짐과 말을 챙겨 서천을 향해 다시 길을 나섰다.

길을 가던 중, 길가에서 눈먼 노인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당승의 말 앞을 가로막고 늘어지며 말했다. “스님, 어디를 가는 거요? 내 보물을 어서 돌려주소!” 저팔계가 깜짝 놀라 외쳤다. “아이고, 큰일 났네! 요괴가 보물을 되찾으러 왔나 봐요.” 손오공이 자세히 살펴보니, 그는 바로 태상노군이었다. 손오공은 당황하여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추며 물었다. “어르신,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태상노군은 급히 자신의 옥국보좌(玉局寶座)에 올라 구만리 높은 하늘 위에 우뚝 서더니 소리쳤다. “손행자, 내 보물을 어서 돌려다오!” 손오공이 공중으로 뛰어올라 물었다. “무슨 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상노군이 말했다. “호로는 내가 금단을 담는 데 쓰는 것이요, 정병은 물을 담는 것이며, 보검은 마물을 다스릴 때 쓰고, 부채는 불을 피울 때 쓰는 것이요, 밧줄은 내가 도포를 묶는 띠로 쓰는 것이다. 그 요괴 둘은 각각 금로를 지키던 동자와 은로를 지키던 동자였느니라. 그놈들이 내 보물을 훔쳐 하계로 달아나 어디 있는지 찾을 길이 없었는데, 마침 네가 그것들을 잡았으니 공을 세운 셈이지.” 손오공이 말했다. “이보시오, 어르신! 정말 무례하시군요. 설령 수하들이 악한 짓을 저질렀다 해도, 그것은 어르신께서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 아닙니까?” 태상노군이 대답했다. “내 잘못이 아니니 사람을 잘못 탓하지 마라. 이것은 관음보살께서 내게 세 번이나 빌려 가시더니, 이곳에 보물을 두어 요괴로 변하게 함으로써 너희 사제들이 진심으로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지 시험해 보라고 하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 보살님도 참으로 게으르고 얄밟구나. 예전에 나를 구해 당승이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게 도와주실 때는, 길이 험하고 어려우면 급한 상황에 직접 와서 구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이제 와서 오히려 요괴들을 보내 괴롭히다니! 하시는 말씀이 미답지 못하니, 평생 남편 없이 지내야 마땅하지. 만약 어르신이 직접 오신 게 아니었다면 절대로 돌려주지 않았을 텐데, 정 그렇게 말씀하시니 가져가시구려.’

태상노군이 다섯 가지 보물을 거두어들인 뒤, 호로와 양지옥정병의 입구를 열자 두 줄기 신선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태상노군이 손가락으로 이를 가리키자, 기운은 다시 금동자와 은동자의 모습으로 변하여 그의 좌우를 따랐다. 이때 만 갈래의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오니,

시로 이르되,

아득한 빛줄기 되어 도솔천으로 돌아가니, 유유자적 구름 타고 대라천으로 솟아오르네.

결국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손오공이 어떻게 당승을 보호하며 언제쯤 서천에 도착하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36회 — 마음의 원숭이가 제자리를 찾아 온갖 인연이 굴복하고, 결길을 깨뜨리니 밝은 달이 드러나다

心猿正處諸緣伏 劈破傍門見月明

한편,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내려와 스승님에게 관음보살이 동자를 빌려 간 일과 태상노군이 보물을 거두어 간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삼장은 거듭 감사의 뜻을 표하며, 오로지 경전을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목숨을 걸고 서천으로 향하는 길에 정성을 다했다. 일행은 말에 올라 길을 떠났다. 저팔계는 짐을 짊어지고, 사오정은 말머리를 잡았으며, 손오공은 쇠몽둥이를 들고 앞장서서 길을 헤치며 높은 산을 향해 나아갔다. 그 길 위에서 겪은 수많은 밤샘과 거친 비바람, 이슬과 서리를 맞으며 고생한 일들은 차마 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스승과 제자들이 한참을 길을 가다 보니, 다시 산 하나가 앞길을 가로막았다. 삼장이 말 위에서 크게 외쳤다. “제자들아, 저 산세가 아주 험하니 조심해야겠다. 혹시라도 또 요괴가 나타나 우리를 괴롭힐까 걱

정이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괜한 걱정 마십시오. 마음을 굳게 먹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자연히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삼장이 탄식하며 말했다. “애야, 서천으로 가는 길이 어찌 이리도 험난하냐? 장안을 떠나 길 위에서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기를 벌써 네다섯 해는 지났는데, 어찌 아직도 경전에 닿지 못하는 것이냐?”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허허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우리는 아직 대문 밖에도 채 나가지 못했는걸요.” 저팔계가 끼어들었다. “형님, 거짓말 좀 마세요. 세상에 대문이 그렇게 크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이놈아, 우리는 아직 집 안 거실을 뱅뱅 돌고 있는 셈이지.” 사오정이 웃으며 말했다. “사형, 큰소리쳐서 저 겁주지 마세요. 저렇게 큰 거실이 있다 한들, 저런 거대한 대들보를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손오공이 으스스대며 말했다. “애들아, 내 생각에는 푸른 하늘을 기와로 삼고, 해와 달을 창살로 삼으며, 사방의 산과 오악을 대들보와 기둥으로 삼는다면, 천지 전체가 마치 커다란 거실 하나와 같단다.” 그 말을 들은 저팔계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됐습니다, 됐어요. 그냥 대충 좀 건다가 돌아가기나 합시다.” 손오공이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저 나만 믿고 따라오거나 해라.”

"좋아, 대성!"

손오공은 쇠몽둥이를 어깨에 짊어지고 당삼장을 앞장서서 인도하며, 험한 산길을 헤치고 거침없이 나아갔다. 말 위에 앉아 멀리 풍경을 바라보던 당삼장은 눈앞에 펼쳐진 산세에 감탄했다. 참으로 장관이었다.

시로 이르되,

산봉우리 깎아지른 듯 높아 북두칠성의 자루에 닿을 듯하고, 나무 끝은 구름 위 하늘에 닿을 듯하구나. 푸른 안개 자욱한 곳에선 골짜기 원숭이 울음소리 들려오고, 푸른 숲 그늘 속엔 소나무 사이 학 울음소리 울려 퍼지네. 바람 부는 산에는 산귀신이 시냇가에 서서 나무꾼을 골탕 먹이고, 영악한 여우들은 절벽 끝에 앉아 사냥꾼을 놀라게 하네. 사방이 험준한 절벽으로 둘러싸인 이 멋진 산을 보라! 기이하게 뒤틀린 소나무는 초록빛 지붕처럼 덮여 있고, 쓰러진 고목에는 덩굴식물이 어지럽게 엉켜 있구나. 솟구치는 샘물은 차가운 기운이 뿔속까지 스며들게 하고, 우뚝 솟은 봉우리 위로 부는 맑은 바람은 눈을 찌를 듯 매섭구나. 때때로 맹수의 포효가 들리고 산새들의 울음소리 끊이지 않으니, 노루와 사슴 떼는 가시덤불 사이를 뛰어다니고, 산짐승들은 무리 지어 풀을 찾아 앞뒤로 분주히 뛰노네. 풀밭에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니 지나가는 나그네 하나 없고,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면 사방에 굶주린 이리 늑대뿐이니, 여기가 어찌 부처님이 수행하시는 곳이겠는가, 그저 짐승들이 제멋대로 뛰노는 들판일 뿐이로다.

당승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서며 마음이 몹시 불안하고 처량해졌다. 그는 말 고삐를 붙잡고 울먹이며 외쳤다.

"오공아! 어찌 이리 된단 말이냐!"

시로 이르되,

"지혜로운 벗과 산에 오르기로 맹세하고 임금님은 떠나보내어 성 밖을 나섰네. 길 위에서는 뽕족한 가시덤불을 만나고 가는 길마다 말 방

울 소리만 요란하구나. 고개 넘어 시냇가에서 약초를 찾으려 애쓰고 험한 산을 넘어 복령을 구하며 절을 하네. 내 몸 하나 지켜낼 방제약이라도 있다면 좋으련만 회향의 향기로운 시절은 언제쯤 다시 오려나?"

손오공이 그 말을 듣고 허허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 졸이실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음 편히 앞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공덕이 쌓여 자연히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산세의 아름다움을 즐기며 발걸음을 옮겼고, 어느덧 붉은 해가 서쪽으로 저무는 줄도 몰랐다.

시로 이르되,

"십 리 길 정자에는 지나가는 나그네 없고 아홉 하늘 위로 별들이 나타나네. 여덟 강에 떠 있던 배들은 모두 항구로 돌아가고 칠천 주현의 문들은 모두 닫혔구나. 궁궐의 관리들은 관청으로 돌아가고 사해 삼강의 어부들도 낚시를 멈추었네. 두 곳의 누각에서 종과 북소리 울려 퍼지니 밝은 달 하나가 온 세상에 가득하구나."

장로는 말 위에서 멀리 바라보았다. 산골짜기 안으로 누각들이 겹겹이 쌓여 있고, 전각들이 층층이 늘어서 있는 것이 보였다.

삼장이 말했다. "제자들아, 어느덧 날이 저물었구나. 다행히 저 근처에 누각들이 보이니 아마 암자나 절일 것이다. 우리 모두 저곳에 가서 하룻밤 묵고 내일 다시 길을 떠나자꾸나."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말씀이 옳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가서 어떤 곳인지 잘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손오공은 공중으로 훌쩍 뛰어올라 자세히 살펴보았다. 과연 그곳은 사찰의 산문이었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붉은 벽돌로 쌓은 여덟 자 모양의 담장에는 양옆 문마다 금못이 박혀 있고, 겹겹이 쌓인 누각들은 산기슭에 숨어 있으며, 층층이 이어진 궁궐 같은 전각들은 산속에 은밀히 자리 잡았구나. 만불각은 여래전과 마주 보고, 조양루는 대웅문과 이어지며, 칠층탑은 구름과 안개를 머금고 있고, 세 분의 불신은 광채를 발하며 위엄을 드러낸다. 문수대는 가람사와 마주하고, 미륵전은 대자청 곁에 자리하며, 관전루 밖에는 푸른 빛이 춤추듯 감돌고, 보허각 위에는 자줏빛 구름이 피어오른다. 소나무 관문과 대나무 뜰은 푸르름을 머금었고, 방장과 선당은 곳곳이 맑고 깨끗하다. 아늑하고 그윽한 분위기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길게 이어진 길목마다 반가운 손님을 맞이한다. 참선하는 곳에는 스님들의 강론 소리가 들리고, 연악방에는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진다. 묘고대 위에는 꽃잎이 떨어지고, 설법단 앞에는 경전이 놓여 있구나. 숲이 삼보의 땅을 가리고 산이 범왕의 궁궐을 감싸 안은 듯하니, 산비탈에는 등불 연기가 번쩍이고, 향 연기는 안개처럼 몽롱하게 피어오른다.

손오공이 구름을 누르며 내려와 당삼장에게 보고했다. "스승님, 정말로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하룻밤 묵어가기에 딱 좋아 보이니, 어서 가시지요."

장로는 말을 풀어 계속 걸어와 산문 바로 앞까지 다다랐다. 손오공이 물었다. “스승님, 이곳은 무슨 절입니까?” 삼장이 대답했다. “내 말 발굽이 막 멈춰 서서 발끝이 아직 등자에서 빠지기도 전인데, 벌써 무슨 절인지 묻다니 참으로 무심하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어르신께서는 어려서부터 승려로 지내며 유교 경전도 읽으셨을 테고, 법문을 설하기도 하셨으니 문리에 밝으실 텐데, 당나라 임금님의 은혜를 입어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문 앞에 저렇게 큰 글자가 써 있는데 어찌 알아보지 못하십니까?” 장로가 꾸짖었다. “이 망할 원숭이 녀석! 말하는 꼴 좀 보게. 내가 방금 서쪽을 향해 말을 몰았는데, 햇빛이 정면으로 비치는 데다 문에 써진 글자가 먼지와 때에 가려져 있어서 못 본 것이란 말이다.”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은 허리를 굽혀 몸을 두 장(丈) 남짓 높이로 쭉 늘리더니, 손으로 먼지를 숙 털어내며 말했다. “스승님, 이제 보십시오.” 문 위에는 ‘칙건보림사’라는 다섯 글자가 커다랗게 적혀 있었다. 손오공이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며 물었다. “스승님, 이 절에는 누가 들어가서 하룻밤 묵어야 할까요?” 삼장이 말했다. “내가 들어가야지. 너희는 얼굴도 못생기고 말도 거칠고 성격도 드세니, 혹여 이곳 승려들과 부딪히기라도 해서 숙박은커녕 오히려 미움을 사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스승님께서 들어가십시오. 더 말씀하실 것 없습니다.”

한편, 장로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망토를 벗은 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합장하며 곧장 산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양옆의 붉은 철을 한 난간 안쪽에 금강역사 한 쌍이 높이 앉아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 형상이 무섭고 흉측하여 마치 살아 있는 듯했다.

시로 이르되,

한 명은 철가면을 쓰고 강철 수염을 기른 모습이 마치 살아 있는 사람 같고, 한 명은 치켜 올라간 눈썹에 동그란 눈이 영롱하게 빛나더라. 왼쪽의 주먹은 뼈마디가 돌출되어 마치 무쇠 같고, 오른쪽의 손바닥은 꺾이지른 듯하여 붉은 구리와 같구나. 금빛 갑옷은 고리마다 찬란하게 빛나고, 밝은 투구와 수놓은 띠는 바람에 휘날리네. 서방에는 참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곳이 많으니, 석정 가운데 향불이 붉게 타오르는구나.

삼장이 이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살던 동토에서도 누군가 진흙으로 이토록 훌륭한 보살상을 만들어 향을 피우며 공양한다면, 내 제자도 굳이 서천까지 갈 필요가 없겠구나.”

삼장이 한탄하는 사이, 일행은 어느덧 이층 산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사대천왕상이 있었는데, 동·서·남·북 사방의 바람과 비를 다 스린다는 의미를 담아 지국천왕, 증장천왕, 광목천왕, 다문천왕이 각각 서 있는 모습이었다. 이층 문 안으로 더 들어가니 우뚝 솟은 소나무 네 그루가 보였는데, 나무마다 푸른 잎이 무성하게 펼쳐진 것이 마치 커다란 우산 같았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이 바로 대웅보전이였다. 장로는 합장하며 불교의 가르침에 귀의하며 몸을 굽혀 절을 올렸다.

절을 마치고 일어난 장로는 불단을 돌아 뒷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남해를 구제하는 관음보살상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벽면은 숙련된 장인들이 정교하게 그려 넣은 새우, 물고기, 게, 자라 같은 생

물들로 가득했는데, 머리와 꼬리를 내밀고 파도치는 바닷속을 노니는 모습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장로는 고개를 몇 번이고 끄덕이며 깊은 감탄과 함께 탄식하듯 말했다. “가엽도다! 비늘 달린 미물들조차 저토록 불교를 받드는데, 어찌 사람은 도를 닦으려 하지 않는단 말인가?”

한창 찬탄을 이어가던 중, 세 개의 문 사이로 도인 한 명이 걸어 나왔다. 그 도인은 삼장의 생김새가 예사롭지 않고 풍채가 범상치 않은 것을 보고는, 급히 걸음을 재촉해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추며 물었다.

"스님께서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삼장이 대답했다.

"제자는 동토 대당의 명을 받들어, 서천으로 가서 부처님을 뵈고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이제 막 이 근처에 도착했는데 날이 저물어가니,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지 여쭙고자 합니다."

그러자 도인이 말했다.

"스님, 부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그저 이곳에서 마당을 쓸고 종을 치며 잡일을 맡은 도인일 뿐입니다. 안에는 관리직을 맡은 스님이 계시니, 제가 들어가서 여쭙어보겠습니다. 만약 그분이 머물러도 좋다고 하시면 제가 나와서 정중히 모시겠지만, 만약 거절하신다면 저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삼장이 말했다.

"그대에게 폐를 끼치는구려."

도인은 마음이 급해져 방장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어르신, 밖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승관은 즉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비로모(승려가 쓰는 모자)를 매만진 뒤 가사를 걸쳤다. 그리고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가며 도인에게 물었다. "어떤 사람이 왔느냐?"

도인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정전 뒤편에 저기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삼장은 머리를 드러낸 채 스물다섯 폭짜리 달마포를 입고, 진흙이 묻어 질척거리는 신발을 신은 채 뒷문 근처에 비스듬히 기대어 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승관은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이놈, 도인아! 내가 승관이라는 것을 모르느냐? 성에서 올라온 선비들이 향을 올리러 올 때 나 내가 나가서 맞이하는 법이다. 저런 스님을 가지고 어찌 실속도 없는 소리로 나를 불러내느냐? 저 꼴을 좀 보아라. 정직한 사람 같지도 않고, 분명 떠돌아다니는 승려일 게다. 날도 저무는 것을 보니 하룻밤 묵어 가려는 모양인데, 우리 방장님 계신 곳에 저런 자가 들어와 어지럽히게 둘 수 있겠느냐? 그냥 앞쪽 복도에 머물게 하라고 전하거라. 알겠느냐?"

승관은 말을 마치자마자 몸을 돌려 가버렸다.

장로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가없기도 하지, 참으로 가없구나! 이래서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면 천대를 받는 것이라네. 내 제자가 어릴 때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으나, 참회 의식을 행하면서 고기를 먹거나 나쁜 마음을 품은 적도 없고, 경전을 읽으면서 화를 내어 참선하는 마음을 망친 적도 없으며, 기와를 던지고 벽돌을 내던져 부처님 전을 훼손하거나 아라한의 얼굴에서 금박을 벗겨낸 적도 없단 말일세. 아! 가없구나! 도대체 전생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 천지를 거슬렀기에 이번 생에는 이토록 못된 사람들을 자주 만난단 말인가.

스님, 차라리 우리를 재워주지 않는다면 말지, 어찌 그런 껄스러운 말을 하여 우리더러 앞쪽 복도에서 쪼그려 자라고 하는가? 그 말을 행자에게 하지 않았으면 망정이지, 만약 그 원승이가 들어와서 쇠몽둥이로 한바탕 휘두르기라도 하면 자네 다리뼈가 부러지고 말 것이야.”

장로가 말했다.

“그만하게, 그만해. 옛말에 ‘사람은 예의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고 했네. 내가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께 여쭙어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인해 봄세.”

당승은 발자국을 따라 손오공을 따라 방장 문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승관이 옷을 벗어 던진 채 싹싹거리며 앉아 있었는데, 경전을 읽는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법사를 지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탁자 위에는 종이 뭉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당승은 감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에 서서 허리를 굽히며 크게 외쳤다.

"방장 스님, 제자가 문안 올립니다."

승관은 당승이 안으로 들어온 것이 못마땅한 듯, 대답할 듯 말 듯 건성으로 예를 갖추며 물었다.

"어디서 온 누구인가?"

당승이 대답했다.

"제자는 동토 대당에서 온 사람으로, 서천의 살아있는 부처님을 뵙고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보방을 지나다 보니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하고자 합니다. 내일 해가 뜨기 전에는 바로 떠날 터이니, 부디 방장 스님께서 편의를 봐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제야 승관은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그대가 그 당삼장인가?"

"감히 그러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바로 그 당삼장입니다."

승관이 말했다.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길이라면, 길 찾는 법도 모른단 말인가?"

당승이 답했다.

"제자가 이곳의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승관이 말을 이었다.

"정서쪽으로 사오 리 정도만 가면 삼십 리쯤 되는 곳에 객주가 하나 있다네. 그곳은 밥도 팔고 잠자리도 편하니 머물기 좋을 것이야. 우리 사찰은 형편이 여의치 않아, 멀리서 온 승려들을 머물게 하기 어렵다네."

당승이 합장하며 말했다.

"스님,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암자나 절, 관은 모두 나그네를 위한 숙소이니, 산문만 보이면 쌀 세 되와 밀가루 한 되라도 나누어준다'고 했습니다. 어찌하여 저를 머물게 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무슨 사정이라도 있으신지요?"

승관이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 떠돌이 승려 놈이 말재주가 아주 능수능란하구나!"

당승이 되물었다.

"말재주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승관이 말했다.

"옛말에 이르기를, '호랑이가 성안으로 들어오면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근다'고 했다. 비록 호랑이가 사람을 물지는 않더라도, 예전에 명성을 더럽힌 적이 있기 때문이지."

당승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어떻게 명성을 더럽혔다는 말씀입니까?"

승관이 대답했다.

"지난해에 떠돌이 승려 몇 명이 산문 앞에 찾아온 적이 있었네. 그들이 춥고 배고파 보이는 데다, 옷은 다 해지고 신발도 없이 맨발에 대머리인 것을 보고 내가 측은한 마음에 방장 안으로 모셔 앉혀 정성껏 공양을 대접했지. 게다가 헌 옷도 한 벌씩 빌려주고 며칠간 머물게도 해주었네. 그런데 이놈들이 먹고 자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지, 떠날 생각은커녕 칠팔 년이나 눌러앉아 버렸지 뭐냐! 머무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동안 저지른 못된 짓들이 한둘이 아니었네."

당승이 물었다.

"어떤 못된 짓을 했단 말입니까?"

승관이 말했다.

"내 말을 들어보게.

심심하면 담벼락에 기와를 던지고, 답답하면 벽에 못을 박아대며, 추운 날엔 화로를 가져다 창살을 녹이고, 더운 날엔 문을 끌어당겨 길을 막는다네. 번(幡) 천을 뜯어 신발 끈으로 쓰고, 귀한 향은 몰래 가져가 채소와 바꿔 먹으며, 유리 그릇에 기름을 부어 쏟아버리고, 밥그릇과 술을 뺏으며 내기를 벌이지 않던가!"

그 말을 들은 당승은 속으로 생각했다. '가련하기도 하지! 내 제자들이 설마 저렇게 쫓대 없는 승려들이란 말인가?' 당승은 울컥 눈물이 났

지만, 사찰의 스님들이 비웃을까 두려워 옷소매로 몰래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참았다.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와 세 제자를 만났다.

손오공은 스승의 얼굴에 분노가 서린 것을 보고 다가가 물었다.

"스승님, 사찰 승려가 스승님을 때렸습니까?"

당승이 말했다.

"때리지는 않았다."

저팔계가 거들었다.

"분명 때렸을 겁니다. 아니면 왜 저렇게 울먹거리는 소리가 납니까?"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욕이라도 들었습니까?"

당승이 답했다.

"욕을 들은 것도 아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때린 것도 아니고 욕을 들은 것도 아닌데, 왜 이리 괴로워하십니까? 혹시 고향 생각이 나시는 겁니까?"

당승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얘들아, 이곳은 머물기가 영 불편하구나."

손오공이 웃으며 물었다.

"이곳이 도사들이 사는 곳입니까?"

당승이 화를 내며 말했다.

"도사는 도관에나 있는 것이지, 절에는 스님들만 있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이 참 대책이 없으시군요. 스님들이라면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부처님 법회에 모였다면 모두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까. 스승님은 일단 앉아 계십시오. 제가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손행자는 머리 위의 금고아를 한 번 매만지고 허리춤의 옷자락을 여민 뒤, 철봉을 손에 짊 쥐고 대웅보전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러고는 불상 세 분을 가리키며 호통을 쳤다.

"너희는 본래 진흙으로 빚어 금칠을 해놓은 가짜 형상일 뿐인데, 그 속마음까지 반응이 없단 말이나? 나 손오공은 대당의 성스러운 스님을 모시고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길이다. 오늘 밤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가려 하니, 어서 우리 이름을 명부에 올려라. 만약 우리를 재워주지 않는다면, 이 몽둥이로 금칠한 몸뚱이를 단숨에 때려 부수어 너희의 본모습인 진흙덩어리로 되돌려 놓겠다!"

손오공은 앞서서 험악한 기세로 몽둥이를 휘두르며 온갖 험한 말을 내뱉고 있었다. 이때 마침 저녁 예불을 올리려던 한 도인이 향 몇 대를 집어 들고 불단 앞 향로에 꽂으려 했다. 그런데 손오공이 "튀!" 하고 침을 뱉으며 위협하자, 도인은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고 말았다. 도인이 정신을 차리고 얼굴을 확인하려다 다시 한번 자빠질 정도로 겁에 질려, 허둥지둥 방장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어르신, 밖에 어떤 승려가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승관이 말했다.

"이놈의 도인 놈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운 게냐! 손행자에게는 저기 앞 복도에 가서 웅크리고 앉아 있으라고 전해라. 또 뭐라고 했느냐? 다시 한번 떠들면 매를 스무 대나 때릴 줄 알아라!"

도인이 다시 말했다.

"어르신, 그런데 이 승려가 아까 그 승려와는 다릅니다. 성미가 아주 사납고 기세가 보통이 아닙니다."

승관이 물었다.

"그게 어떤 모습이기에 그러느냐?"

도인이 대답했다.

"눈은 둥글고 귀는 쫓긋하며, 얼굴에는 털이 수북하고 입술은 툭 튀어나온 뇌공 같은 상입입니다. 손에는 몽둥이를 짝 쥐고 이를 악문 채, 당장이라도 누군가를 찾아내 때려눕힐 기세로 서 있습니다."

승관이 말했다.

"잠깐 기다려라, 내가 직접 나가서 보겠다."

그가 문을 열자마자 손행자가 들이닥쳤다. 그 몰골이 정말이지 가관이었다. 얼굴은 툭 튀어나온 턱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기형적이었으며, 두 눈은 누런 빛을 띠고 이마는 폭 꺼져 있었다. 게다가 송곳니는 입 밖으로 삐죽하게 솟아 있었으니, 마치 게처럼 살은 안으로 들어가고 뼈만 밖으로 드러난 형상이었다.

갑에 질린 노승은 황급히 방장 스님의 방 문을 닫아걸었다. 하지만 손행자가 뒤쫓아와 문짝을 단번에 부숴버리며 외쳤다.

"어서 깨끗한 방을 천 칸이나 끌어 놓아라! 이 몸이 잠을 좀 자야겠다!"

방 안에 숨은 승관은 도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놈이 못생긴 게 문제가 아니라, 허풍을 떨다 보니 저런 해괴한 꼴이 된 모양이구먼. 우리 절에 방장실과 법당, 종루, 복도를 다 합쳐도 삼백 칸이 안 되는데, 대체 어디서 저런 천 칸짜리 방을 가져오겠다는 건가?"

도인이 대답했다.

"스님, 저도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어떻게든 저놈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승관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소리쳤다.

"아이고, 숙박하러 오신 큰스님! 이 척박한 산골이라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 부디 다른 곳으로 가서 묵으십시오!"

손오공이 여의봉을 대야만큼 굵게 만들어 마당 한가운데에 수직으로 꽂꽂이 세우며 말했다. "스님, 여기가 불편하면 그냥 밖으로 옮기시오."

그러자 승관이 대답했다. "우리 사찰은 대대로 전해 내려온 곳이라, 사조(師公)께서 스승님께, 스승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곳ियो. 대를 이어 후손에게 길이 전해야 할 터인데, 저 자가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앞뒤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옮기라니 말이오!"

곁에 있던 도인이 거들었다. "어르신,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냥 밖으로 옮기든가 해야지요, 저 몽둥이가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승관이 꾸짖었다. "허튼소리 마라! 우리 사찰에는 노소 불문하고 승려가 사오백 명이나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을 다 어디로 옮긴단 말이냐? 옮긴다 해도 머물 곳도 없단 말이다."

그때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스님, 옮길 곳이 없다면 딱 한 명만 나와서 이 몽둥이 맛을 좀 보시오."

그러자 노승이 도인을 불러 명령했다. “너는 나가서 저 몽둥이로 매 좀 한 대 맞아 보거라.”

도인이 당황하며 외쳤다. “아이고, 어르신! 저렇게 커다란 몽둥이를 들고 가서 매를 맞으라니요?”

노승이 다그쳤다. “군사를 천 일 동안 길러야 단 하루를 쓸 수 있는 법’이다. 어서 나가지 않고 무엇 하느냐?”

도인이 대답했다. “저 몽둥이는 맞기는커녕, 혹시라도 쓰러지기라도 하면 저를 짓눌러 고기떡으로 만들 겁니다.”

노승이 다시 말했다. “짓눌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저게 마당에 세워져 있는데, 밤중에 걷다가 모르고 부딪히기라도 하면 머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릴 게다.”

도인이 투덜거렸다. “스님, 저렇게 무거운 걸 아시면서 어찌 저더러 나가서 매를 맞으라고 하십니까?” 도인은 속으로 투덜대며 안에서 소란을 피웠다.

손오공이 말했다. “맞아요, 함부로 하면 안 되지요. 만약 몽둥이로 사람 하나를 때려죽이기라도 하면, 우리 스승님이 또 제가 흉악한 짓을 했다고 꾸짖으실 테니까요. 그러니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다른 걸로 대신 때려 드릴 테니 구경이나 하라고요.”

그리고는 고개를 번쩍 들더니, 방장 문밖에 놓인 돌사자 하나를 발견했다. 손오공은 곧장 몽둥이를 치켜들어 '챙그랑!' 하고 내리쳤다. 돌사자는 순식간에 가루가 되어 사방으로 흩어졌다.

창문 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승관은 혼비백산하여 다리에 힘이 풀린 채 허둥지둥 침대 밑으로 몸을 숨겼다. 도인 역시 솔뚜껑 근처로 기어들어가며 연신 비명을 질러댔다. "아이구, 나 죽네! 몽둥이가 너무 무거워요! 못 버티겠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손오공이 말했다. "이보시오, 스님. 나는 당신을 때리려는 게 아니요. 그저 묻는 것이니 대답이나 하시오. 이 절에는 스님이 몇 명이나 있소?"

승관이 벌벌 떨며 대답했다. "앞뒤로 이백여 팔십다섯 방이 있고, 승려 자격증을 가진 스님은 모두 오백 명이나 됩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럼 어서 가서 그 오백 명의 스님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불러 모으시오. 모두 깨끗한 승복을 갖춰 입고 나와서 우리 당나라 스승님을 모셔 오시오. 그러면 당신을 때리지 않겠소."

승관이 말했다. "아이고, 어르신! 때리지 않으신다면 그냥 모셔 오겠습니다."

손오공이 재촉했다. "어서 빨리 다녀오시오!"

승관은 도인을 향해 소리쳤다. "너는 겁에 질려 정신이 나갈 것 같아도 상관없으니, 어서 가서 저 사람들을 다 불러오너라! 어서 당승 어르신을 모셔 오라고 해!"

도인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목숨을 걸고 문을 들이받을 엄두가 나지 않아, 뒤편에 있는 개구멍으로 기어 나가 정전으로 곧장 달려갔다. 그러고는 동쪽에서는 북을 치고 서쪽에서는 종을 울려댔다. 종과 북소리가 한꺼번에 울려 퍼지자, 복도에 있던 크고 작은 승려들이 깜짝 놀라 대전으로 올라와 물었다.

"이게 지금 이른 시간도 아닌데, 왜 종을 치고 북을 울려 대는 것이오?"

도인이 대답했다.

"어서 옷을 갈아입고 스승님을 따라 차례를 맞추시오! 산문 밖으로 나가 대당에서 오신 나리들을 맞이해야 하오!"

그러자 스님들이 정말로 줄을 맞춰 정중하게 문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어떤 이는 가사를 걸쳤고, 어떤 이는 편안한 옷을 입었으며, 또 어떤 이는 종 모양처럼 통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 형편이 아주 어려운 이는 제대로 된 겹옷조차 없어, 허리띠에 매달린 천 두 가닥을 끌어 올려 몸에 걸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손오공이 물었다.

"이보시오, 스님! 대체 그 옷은 무엇입니까?"

스님은 손오공의 험상궂은 얼굴을 보고 겁에 질려 말했다.

"아이고, 나으리! 때리지 마시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긴 우리 성 안에서 얻은 천으로 만든 겁니다. 이곳에는 재봉사도 없어서, 그냥 우리끼리 대충 걸치려고 만든 옷이에요."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며, 승려들을 거느리고 산문 밖으로 나가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승관이 머리를 조아리며 크게 외쳤다. "당 어르신, 방장실 안으로 드시지요!"

이 모습을 본 저팔계가 말했다. "스승님은 나이도 드셔서 기운도 없으신 분이, 아까 들어가실 때는 눈물만 글썽거리며 찢찢매시더니, 형님은 어쩌면 저리 피가 좋으셔서 저들이 머리를 조아리게 만드셨을까?"

삼장이 말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예의를 모르는구나. 예부터 '악한 자는 귀신도 무서워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삼장은 승려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미안하고 민망하여,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모두 일어나시오."

그러자 승려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어르신, 제발 제자에게 말 한마디만 잘 해주십시오. 몽둥이를 휘두르지만 앓는다면, 저희는 한 달 동안이라도 계속 무릎을 꿇고 있겠습니다."

삼장이 말했다. "오공아, 저들을 때리지 마라."

손오공이 대답했다. "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때렸다면 벌써 뿌리까지 다 부러뜨렸을 겁니다."

그제야 스님들이 몸을 일으켰다. 말 관리하는 이는 말을 끌고, 짐꾼은 짐을 짊어지며, 어떤 이는 삼장을 업고, 어떤 이는 저팔계를 등에 태우고, 또 어떤 이는 사오정을 부축하여 모두 함께 산문 안으로 들어갔다. 일행은 뒤이어 방장실에 도착하여 차례대로 자리에 앉았다.

승려들이 다시 예를 갖추어 절을 올리자, 삼장이 말했다. “방장님,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더는 예를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빈승을 너무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저나 방장님이나 모두 부처님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자 승관이 대답했다. “스님께서는 나라의 명을 받든 귀한 분이신데, 소승이 미처 알아 모시지 못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있다 보니 속세의 눈이 어두워 스님의 귀한 신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여쭙어볼 것이 있습니다만, 길을 오시는 동안 채식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고기를 드셨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바로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삼장이 말했다. “채식을 합니다.”

승관이 제자에게 말했다. “얘야, 이 어르신은 틀림없이 고기를 드실 겁니다.”

그러자 손오공이 끼어들었다. “우리도 채식을 하오. 그것도 태중에서부터 고기를 입에 대지 않은 순수한 채식이오!”

그 말을 들은 승려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어르신! 저렇게 험악하게 생긴 분이 채식을 하신단 말입니까?”

그중 담력이 큰 승려 하나가 슬쩍 다가와 다시 물었다. “어르신께서 채식을 하신다면, 쌀을 얼마나 삶아야 충분하겠습니까?”

저팔계가 투명스럽게 쏘아붙였다. “좀스러운 스님이 대체 뭘 그리 묻느냐? 집집마다 쌀 한 섬은 족히 삶아야 할 것이다!”

그 소리에 승려들은 혼비백산하여 서둘러 솔과 아궁이를 닦고, 각 방에 차와 음식을 준비하라고 분주히 움직였다. 사찰 곳곳에 등불을 밝게 켜고 탁자와 의자를 정돈하여 삼장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기 시작했다.”

스승과 제자들은 저녁 공양을 모두 마쳤고, 다른 승려들도 일과를 정리하며 주변을 정돈했다. 삼장이 감사의 뜻을 표하며 말했다.

"방장 스님, 귀한 사찰에 폐를 끼쳤습니다."

승관이 황급히 대답했다.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대접이 소홀했습니다."

삼장이 다시 물었다.

"저희 일행은 어디에서 묵으면 되겠습니까?"

승관이 대답했다.

"어르신,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그러고는 곁에 있던 도인을 불러 물었다.

"도인, 저쪽 방에 명령을 따를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도인이 대답했다.

"스님, 몇 명 있습니다."

승관이 이어서 명령을 내렸다.

"너희 둘은 가서 말 먹이를 준비하고, 당 어르신의 말에게 먹이를 주도록 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앞쪽에 있는 선당 세 칸을 깨끗이 청소하고 잠자리를 마련해서, 어서 어르신을 모셔 오너라."

명을 받은 도인들이 각자 물품을 정돈하고 준비를 마친 뒤, 당승을 모시고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안내했다. 당승의 제자들도 말과 짐을 챙겨 방장(사찰의 우두머리)의 처소를 나와 곧장 선당 문 앞으로 향했다. 선당 안을 살펴보니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양옆으로는 등나무로 만든 침상 네 개가 놓여 있었다.

손오공은 그 모습을 보고 말 먹이를 관리하는 도인을 불러다가, 말 먹이를 선당 안으로 옮겨 놓게 한 뒤 백마를 매어두고 도인들에게 모두 나가라고 일렀다. 당승은 침상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등불 아래에는 오백 명의 승려가 두 줄로 늘어서서 감히 자리를 뜨지 못한 채 시중을 들고 있었다.

당승이 몸을 굽혀 정중히 말했다. "여러분은 이제 그만 돌아가십시오. 빈승은 혼자서도 편히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려들은 감히 물러나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승관이 앞으로 나서서 대중에게 분부했다. "어르신께서 편히 쉬시는 것을 다 지켜본 뒤에 돌아가도록 하시오."

당승이 다시 말했다. "지금 이대로그가 이미 편히 쉬는 것이니, 모두 그만 돌아가십시오."

그제야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 물러갔다.

당승이 불일을 보러 문밖으로 나서니, 밝은 달이 하늘 한가운데 떠 있었다. 당승이 “제자들아!” 하고 부르자,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모두 나와 곁을 지켰다. 달빛은 더없이 맑고 깨끗했으며, 끝없이 깊고 고요한 우주의 기운이 온 땅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달을 바라보며 고향을 그리워하던 당승은 입을 열어 긴 시 한 수를 읊었다.

시로 이르되,

“밝은 달은 하늘에 걸린 보배로운 거울 같고, 산과 강에 비친 그림자는 온전하기 그지없네. 옥으로 만든 누각에도 맑은 빛 가득하고, 은쟁반 같은 달은 서늘한 기운을 휘감도다. 만 리 밖까지 이토록 깨끗하니, 일 년 중 오늘 밤이 가장 밝고 선명하구나. 바다를 떠난 서리 맞은 땃갈기도 하고, 푸른 하늘에 걸린 얼음 바퀴 같기도 하네. 화려한 저택의 창가에선 외로운 나그네 근심 깊고, 산골 마을 주막에선 노인이 잠들었구나. 한나라 정원에 문득 다다르니 가을빛 머리칼이 놀랍고, 진나라

누각에 닿으니 저무는 화장함이 서두르는구나. 유량은 시를 남겨 진나라 역사에 전하고, 원홍은 잠 못 이루며 강물 위 배를 띄웠네. 달빛은 술잔 위에 떠서 차갑고 힘이 없는데, 뜰에 비친 빛은 신선처럼 맑고 نرم하구나. 곳곳의 창가에선 흰 눈 같은 시를 읊고, 집집마다 마당에선 얼음 현악기를 타는 듯하네. 오늘 밤 이 산사에서 고요히 즐기노니, 어느 날에야 고향 땅으로 함께 돌아가리?”

그 말을 들은 손오공이 가까이 다가와 대답했다. “스승님, 스승님께 서는 달빛이 아름다운 것만 아시고 고향을 그리워하실 뿐, 달이 품은 이치는 모르시는군요. 달의 운행은 곧 선천(先天)의 법상(法象)이 따르는 법칙입니다. 달이 서른 날에 이르면 양혼(陽魂)의 금(金)은 다 흠어지고 음백(陰魄)의 수(水)가 달을 가득 채우니, 순전히 검어 빛이 없어지는데 이를 ‘그믐(晦)’이라 합니다. 이때 해와 달이 교차하여 그믐과 초하루 사이에 양광(陽光)을 받아 잉태합니다. 초사흘이 되면 양기가 하나 나타나고, 초여드레가 되면 양기가 둘이 되어, 백(魄) 속에 혼(魂)이 절반이 되어 그 모양이 줄처럼 평평해지니 이를 ‘상현(上弦)’이라 합니다. 그러다 보름이 되면 세 개의 양기가 모두 갖추져 둥글게 차오르니 이를 ‘망(望, 보름)’이라 하고, 열엿새날에 음기가 하나 생기고 스무이튿날에 음기가 둘이 되어 혼 속에 백이 절반이 되어 다시 줄처럼 평평해지니 이를 ‘하현(下弦)’이라 합니다. 서른 날이 되어 세 개의 음기가 모두 차면 다시 ‘그믐’이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천(先天)의 채련(採煉, 약을 채취해 단련함)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팔(二八)을 잘 온양(溫養)하고 구구(九九)의 공을 이룰 수 있다면, 그때는 부처님을 뵈는 것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것입니다.”

손오공이 이어 시로 이르되,

“상현 뒤와 하현 앞, 약 기운이 평온하니 기상이 온전하도다. 그 기운을 얻어 돌아와 화로 속에 단련하면, 지극한 정성으로 이룬 공덕이 곧 서천이라네.”

곁에서 듣고 있던 장로는 순간 깨달음을 얻어 진언(眞言)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그는 마음속 깊이 기뻐하며 손오공에게 감사를 표했다. 옆에 있던 사오정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 말씀이 옳기는 합니다만, 상현 전은 양이고 하현 후는 음이라서 음 속에 양이 절반 섞여 물에서 금의 기운을 얻는다는 것까지만 말씀하셨군요. 이런 말씀도 빠뜨리셨습니다.

물과 불이 서로 어우러짐에 다 인연이 있으니, 모두 토모(土母)가 조화롭게 맞추어 주는 것이라네. 세 가지 기운이 다 모여 다툼이 없으니, 장강에는 물이 흐르고 하늘에는 달이 떠 있도다.”

장로가 이 말을 듣자 막혔던 가슴이 탁 트이는 듯했다. 정말로,

“이치 하나를 깨치면 천 가지 이치가 통하고, 무생(無生)을 깨달으면 곧 신선이 된다네.”

이때 저팔계가 앞으로 나서며 장로를 붙잡고 말했다. “스승님, 저놈의 헛소리는 듣지 마시고 얼른 주무세요. 저 달을 좀 보세요. 모자란 듯 하다가도 금방 다시 차오르니, 마치 제 인생처럼 온전한 구석이 없군요. 밥을 먹을 땐 배가 부르다고 타박하고, 그릇을 들면 침이 묻었다고 구박하니 말입니다. 남들은 다 영리하게 복을 닦았다는데, 저는 어리

석기만 해서 업연(業緣)만 쌓은 모양입니다. 스승님은 경전 가지러 가시면 삼도(三塗)의 업을 다 채우고, 꼬리 흔들고 머리 저으며 곤장 하늘로 오르시겠지요!”

당승이 말했다. “됐다, 애들아. 길을 걷느라 고생했으니 먼저 가서 자거라. 나는 이 경전을 좀 읽어보마.” 손오공이 대꾸했다. “스승님, 틀리셨습니다. 스승님은 어려서부터 출가하여 승려가 되셨으니, 어릴 때 배운 경문은 이미 다 익히지 않으셨습니까? 게다가 당나라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서천으로 부처님을 뵙고 대승의 진전(眞典)을 구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아직 공덕을 다 쌓지도 못했고, 부처님을 뵙지도 못했으며, 경전도 가져오지 못하셨는데 지금 무슨 경전을 읽으신다는 말씀입니까?” 당승이 답했다. “장안을 떠난 뒤로 날마다 걷고 뛰느라, 어릴 때 배운 경문이 가물가물할까 걱정이다. 마침 오늘 밤은 한가하니, 예전에 배운 것들을 복습해 보려 한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희도 먼저 가서 자겠습니다.”

세 제자는 각자 등나무 침상에 가서 누웠다. 장로는 선당의 문을 닫고 은등잔의 심지를 높이 돋운 뒤, 경전을 펼쳐 들고 묵묵히 읽어 내려갔다.

시로 이르되,

“누각 위 초경(初更)의 북소리에 인가엔 정적이 흐르고, 들판 포구의 고기잡이 배도 불빛이 꺼져갈 때로다.”

결국 그 장로가 사찰을 떠나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37회 — 귀왕이 밤에 당삼장을 알현하 고, 손오공이 신통력을 발휘하여 영아를 인도하다

鬼王夜謁唐三藏 悟空神化引嬰兒

한편, 삼장은 보림사 선당 안에서 등불을 켜둔 채 한참 동안 《양황수참》을 읽다가 다시 《공작진경》을 살피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삼경(밤 11시~새벽 1시 사이)이 되어서야 겨우 경전을 가방에 넣었다. 이제 막 일어나 잠자리에 들려는데, 갑자기 문밖에서 파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거센 바람이 몰아치며 비바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삼장은 등불이 꺼질까 겁이 나 서둘러 옷소매로 등불을 가렸다. 등불이 밝았다 어두웠다를 반복하자 가슴이 두근거리고 겁이 났다. 설상가상으로 줄음까지 몰려와 삼장은 경전 탁자에 얹드려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눈은 가물가물 감겨 있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또렷했다. 창밖에서는 음산한 바람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바람이었다.

시로 이르되,

사락사락 흩날리며 두둥실 떠다니네. 사락사락 낙엽은 떨어지고, 두둥실 구름은 흩어지네. 밤하늘의 별들은 빛을 잃어 어둡고, 땅 위의 먼지와 모래는 사방으로 흩날리네. 바람이 잔잔할 때는 소나무와 대나무가 맑은 소리를 내지만, 바람이 거세지면 강과 호수의 물결이 거칠게 요동치네. 산새들은 바람에 밀려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바다의 물고기들은 갈피를 잡지 못해 펄떡이며 튀어 오르네. 동서로 세워진 누각과 문창살은 떨어져 나가고, 앞뒤 복도와 방들은 귀신이 노한 듯 요동치네. 불전의 꽃병은 바람에 넘어지고, 유리 등잔은 흔들리다 꺼져 가네. 향로가 쓰러져 향 재가 튀고, 촛대는 기울어 촛불이 흔들리네. 번쩍이는 깃발과 보물 덮개는 모두 찢겨 흔들리고, 종과 북이 있는 누각과 높은 건물들은 뿌리째 흔들리네.

삼장이 꿈속에서 바람 소리를 듣고 있는데, 잠시 후 선당 밖에서 "스승님!" 하고 나지막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꿈속을 살펴보니, 문밖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사내는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채 눈물을 흘리며 끊임없이 "스승님, 스승님" 하고 부르고 있었다.

삼장이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너는 혹시 도깨비나 요괴, 혹은 신선이나 마귀가 되어 깊은 밤에 이곳에 와서 나를 희롱하려는 것이냐? 나는 탐욕과 분노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본래 광명정대하게 도를 닦는 승려로서, 동토 대당의 명을 받들어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몸이다. 내 수하에는 용을 굴복시키고 호랑이를 잠재울 만큼 용맹한 세 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들은 요괴를 쓸어버리고 마귀를 물리

치는 장사들이다. 만약 그들이 너를 본다면 네 몸을 가루로 만들어 먼지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것이 나의 큰 자비이자 방편이니, 너는 어서 빨리 몸을 숨겨 멀리 달아나거라. 감히 나의 선문에 발을 들이지 마라."

그러자 그 사내가 선당 벽에 기대어 서서 말했다. "스승님, 저는 요괴나 귀신도 아니고, 도깨비나 사악한 신도 아닙니다."

삼장이 물었다. "네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어찌하여 이 깊은 밤에 이곳까지 찾아왔느냐?"

사내가 대답했다. "스승님, 제발 눈을 크게 뜨고 저를 한 번만 자세히 봐 주십시오."

삼장이 정말로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니, 아! 그 모습이 이러하였다.

머리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관을 쓰고, 허리에는 푸른 옥띠를 둘렀으며, 몸에는 용과 봉황이 춤추는 듯한 황색 도포를 입고 있었다. 발에는 구름무늬가 수놓아진 근심 없는 신발을 신었고, 손에는 별자리를 다스리는 백옥 규를 들고 있었다. 얼굴은 동약의 장생제와 같고, 풍채는 문창개화군을 닮아 있었다.

삼장이 그 모습을 보고는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크게 놀라, 급히 몸을 굽히며 엄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때 그 폐하십니까? 어서 앉으십시오.' 삼장이 손을 뻗어 부축하려 했으나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다시 몸을 돌려 앉은 자를 보니 여전히 그 사람이었다. 삼장이 물었다. '폐하,

어느 나라의 황제이십니까? 어느 나라의 임금이신가요? 필시 나라가
 어지럽고 간신들이 괴롭히는 바람에 한밤중에 이곳으로 도망쳐 오신
 모양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사
 람은 뺨에 눈물을 흘리며 옛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미간을 찌푸리
 며 그간의 사정을 호소했다. '스님, 제 고향은 정서쪽이며 이곳에서 사
 십 리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성곽이 하나 있는데, 바
 로 제가 나라를 세운 곳입니다.' 삼장이 물었다. '그곳의 지명이 무엇입
 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스님께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당
 시 나라를 세우고 이름을 오계국(烏雞國)이라 하였습니다.' 삼장이 다
 시 물었다. '폐하께서 이토록 당황하신 것은 무슨 일 때문입니까?' 그
 사람이 답했다. '스님, 5년 전 우리 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풀과
 나무가 자라지 않고 백성들은 굶어 죽으니 참으로 비참한 상황이었습
 니다.' 삼장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며 말했다. '폐하, 옛
 말에 「나라가 바르면 하늘의 마음도 순응한다」 고 했습니다. 필시 폐
 하께서 만백성을 자애롭게 살피지 않으셨기에 가뭄이 든 것일 터인데,
 어찌 성을 버리고 이곳까지 도망쳐 오셨습니까? 어서 창고를 열어 백
 성들을 구제하고, 지난 잘못을 뉘우치며 선한 일을 다시 일으키십시
 오. 또한 억울하게 법을 어긴 이들을 사면한다면, 자연히 하늘의 마음
 이 화합하여 비와 바람이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우
 리 나라의 창고는 비어 있고 돈과 식량은 바닥이 났습니다. 문무백관은
 녹봉을 받지 못하고, 과인의 식탁에도 고기 한 점 올라오지 않았습니
 다. 저는 우왕이 물을 다스린 법을 본받아 만백성과 고락을 함께하며,
 몸을 깨끗이 하고 재계하며 밤낮으로 향을 피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도록 강물은 마르고 우물은 바닥이 날 정도로 가물었습니
 다. 나라가 위급한 처지에 놓였을 때, 갑자기 종남산에서 전진이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비바람을 부르고 돌을 금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문무 관료들을 만났고, 나중에 저를 만나자 즉
 시 제단에 올라 기도하게 했습니다. 과연 응답이 있어, 명령이 떨어지
 자마자 순식간에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겨우 석 자(三尺)의 비
 만 내려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가뭄이 오래되어 땅이 굳었으
 니 더 내려야 한다며 두 치를 더 내리게 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토록 의
 로운 줄 알고 그와 형제의 의를 맺고 지냈습니다.' 삼장이 말했다. '그
 것 참 폐하께 큰 경사였겠습니다.' 그 사람이 되물었다. '경사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삼장이 말했다. '전진이라는 자가 그런 능력이 있다면,
 비가 필요할 때는 비를 내리게 하고 금이 필요할 때는 금을 만들게 하
 면 되지 않습니까? 그 외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성을 버리고 여기
 까지 오셨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그와 함께 먹고 자며 지낸 것은
 겨우 2년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따뜻한 봄날이 되어 살구꽃과 복숭
 아꽃이 만발했습니다. 집집마다 여인들과 귀한 자제들이 봄놀이를 나
 가던 때였습니다. 문무 관료들은 관청으로 돌아가고 후궁들은 처소로
 물러갔을 때, 저와 전진은 손을 잡고 천천히 어여쁜 꽃들을 구경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팔각 유리 우물가에 이르렀는데, 그가 갑
 자기 무엇인가를 우물 속에 던지더니 우물 안에서 만 갈래의 금빛이 뿜
 어져 나왔습니다. 저를 우물가로 불러 무엇인가 보물이 있는지 보라고
 유인하더니, 갑자기 흥측한 마음을 품고는 저를 우물 속으로 퍽 밀쳐버
 렸습니다. 그러고는 우물 입구를 돌판으로 덮고 그 위에 흙을 덮은 뒤,
 파초(芭蕉) 한 그루를 심어 가려버렸습니다. 가련하게도 저는 죽은 지
 3년이 되었으니, 우물에 빠져 억울하게 죽은 원혼일 뿐입니다.'

삼장은 눈앞의 존재가 귀신임을 알아차리고는, 온몸의 힘이 쭉 빠져 나가고 털끝이 주뻗 서는 공포를 느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폐하, 말씀하신 것이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나 되었는데, 문무백관과 삼궁의 왕후들이 아침 조회 때마다 대전에서 폐하를 뵈러 터인데 어찌 폐하를 찾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스승님, 그자의 재주를 말하자면 참으로 세상에 보기 드문 것입니다. 저를 해친 직후, 그자는 화원에서 몸을 한 번 흔들더니 순식간에 저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정말 조금의 차이도 없었지요. 이제는 제 강산을 차지하고 제 나라 땅을 몰래 침범하고 있습니다. 저의 문무백관과 사백 명의 조정 관리들, 삼궁의 왕후와 육원(六院)의 후궁들까지 모두 그자의 수하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장이 말했다. '폐하, 너무 나약하십니다.' 그가 되물었다. '나약하다니요?' 삼장이 말했다. '폐하, 그 요괴가 신통력이 대단하여 폐하의 모습으로 변해 천하를 차지하니, 관리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후궁들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폐하만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이니, 차라리 저승의 염라대왕에게 가서 이 억울한 사정을 낱알이 고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가 탄식하며 말했다. '그자의 신통력이 워낙 광대하고 저승 관리들과도 아주 친밀합니다. 도성의 성황신은 늘 그와 술을 나누고, 바다의 용왕은 그와 친척 관계이며, 동악천제(東嶽齊天, 동악대제)는 그의 절친한 친구이고, 십대 염라대왕은 그와 의형제를 맺은 사이입니다. 그러니 제가 호소할 길도 없는 것입니다.'

삼장이 말했다. "폐하, 저승에서 그놈을 처단할 능력이 없으시다면, 어찌하여 이 양세(陽世)까지 찾아오셨나이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다. "스승님, 이 미친한 원혼이 어찌 감히 스승님의 문턱을 넘겠나이까? 산문 앞에는 호법천왕과 육정육갑, 오방계제, 사치공조, 그리고 열여덟 위 호교가람 신장들이 말과 안장을 갖추고 엄격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야유신이 신령한 바람을 일으켜 저를 이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야유신이 말하기를, 저의 수해(水災)가 3년 만에 가득 찼으니 스승님을 뵈러 가야 한다더군요. 또한 스승님 수하에 제천대성이라 불리는 큰 제자가 있는데, 요괴를 베고 마를 굴복시키는 데 아주 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청하오니, 부디 저희 나라로 오셔서 요괴를 붙잡고 선과 악을 가려 주십시오. 그리해 주신다면 제가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삼장이 물었다. "폐하, 저의 제자를 보내 그 요괴를 물리쳐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삼장이 말했다. "제자가 다른 일은 서툴러도 요괴를 잡고 물리치는 일만큼은 제격입니다. 하지만 폐하, 비록 요괴를 잡으라 명하신다 해도 일이 뜻대로 풀리기 어려울까 걱정됩니다."

"어찌하여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삼장이 답했다. "그 요괴가神通력이 광대하여 폐하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해 있지 않습니까? 조정의 문무백관들은 하나같이 요괴의 말에 순종하고, 궁궐의 후궁들도 모두 요괴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자가 아무리 수단이 좋다 한들, 함부로 칼을 휘둘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요괴의 꾀에 빠져 여러 관리에게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저희가 나라를 속이고 망치려 한다며 대역죄로 몰릴 것입니다. 그렇게 성안에 갇히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헛된 수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다. "우리 조정에는 아직 다른 이들도 남아 있습니다."

삼장이 말했다. "다행입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혹시 대를 이을 친왕께서 어디로 파견되어 나라를 지키고 계신 것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내게는 친아들인 태자가 하나 있으니, 바로 나라를 이을 후계자입니다."

삼장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태자는 요괴에게 붙잡혀 쫓겨난 것입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태자는 그저 금란전이나 오봉루에 머물며, 학사들과 함께 책을 읽거나 전진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태자는 황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고, 왕후와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삼장이 이유를 묻자 그가 대답했다. "그것은 요괴가 꾸민 계략입니다. 혹여나 모자가 만나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괴의 정체가 탄로 날까 두려워한 것이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요괴가 이 나라를 영원히 차지하려는 것입니다."

삼장이 탄식하며 말했다. "당신이 겪은 재앙은 하늘이 내린 것 같으나, 저의 처지와도 참으로 비슷하군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는 수적들에게 해를 입어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수적들에게 유린당한 채 석달을 견디다 저를 낳으셨습니다. 저는 물속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는데, 다행히 금산사의 스승님께서 거두어 키워주셨지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었던 저의 처지를 생각하니, 이곳에서 부모를 잃은 태자가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습니다!"

삼장이 다시 물었다. "태자가 조정에 있다 한들, 제가 어떻게 그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했다. "어찌 못 만난단 말씀입니까?"

삼장이 말했다. "태자는 요괴에게 붙들려 친어머니조차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일개 중인 제가 어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태자가 내일 아침이면 궁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삼장이 물었다. "무엇을 하려고 나오니까?"

"내일 아침 조회 때 삼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매와 사냥개를 데리고 성 밖으로 사냥을 나갈 것입니다. 스님께서서는 그때를 노려 태자를 만나십시오. 만나게 되면 제가 드린 말씀을 꼭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 래야 태자가 믿을 것입니다."

삼장이 말했다. "태자는 본래 평범한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 요괴에게 속아 궁전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요괴가 부르는 대로 아바님이라 부르며 지냈을 텐데, 어찌 제 말을 믿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혹여 믿지 않을까 걱정되니, 제가 증표가 될 물건을 하나 남겨 드리겠습니다."

삼장이 물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있던 금상백옥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 물건을 증표로 삼으십시오."

삼장이 물었다. "이 물건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전진이 제 모습으로 변신했을 때, 오직 이 보물 하나만은 변신하지 못했습니다. 전진은 궁궐에 들어와 비를 내려달라던 전진이 이 규를 훔쳐 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이 물건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태자가 이것을 보게 된다면, 물건을 보고 아버지를 떠올리며 반드시 원수를 갚으려 할 것입니다."

삼장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머물 테니 제 제자들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기다려야 합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저도 감히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가면서 야유신에게 부탁하여 신령한 바람을 일으켜 저를 황궁 안뜰로 보

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궁 황후의 꿈에 나타나 모자(母子)가 마음을 합치고, 스님 일행도 뜻을 같이할 수 있도록 일러두겠습니다."

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어서 가보십시오."

그 원혼은 머리를 조아려 작별 인사를 하고는 발걸음을 옮겨 배웅하려다, 어찌 된 영문인지 발을 헛디터 크게 넘어졌다. 그 순간 삼장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보니, 알고 보니 모두 한바탕 꿈(남가일몽)이었다. 삼장은 당황하여 희미하게 켜진 등불을 향해 다급히 외쳤다. '제자들이(徒弟), 제자들이!' 잠에서 깬 저팔계가 「제자(徒弟)」를 「토지신(土地)」으로 잘못 알아듣고 투덜대며 말했다. '무슨 「토지신, 토지신」 하고 부르십니까? 예전에 제가 한량 노릇을 할 때는 오로지 고기나 먹으며 즐겁게 지냈는데, 하필 스승님을 따라 출가하는 바람에 스승님 모시고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지 뭐니까. 원래는 스님 노릇만 하면 된 다더니, 이제는 종놈이나 다름없군요. 낮에는 짐을 지고 말을 끌고, 밤에는 소변통을 들고 발을 닦아주어야 하니 말입니다! 밤낮없이 잠도 못 자게 하시면서 대체 왜 부르시는 겁니까?' 삼장이 말했다. '제자야, 방금 책상에 엎드려 잠깐 졸았는데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던단다.' 손오공이 펄쩍 뛰어오르며 말했다. '스승님, 꿈이란 원래 생각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아직 산에 오르기도 전부터 요괴를 걱정하시고, 또 뇌음사로 가는 길이 멀어 불경을 얻지 못할까 근심하시며, 장안이 그리워 언제 돌아갈지 몰라 애타우시니, 생각이 많으니 꿈도 많은 것이지요. 저처럼 오로지 서방으로 가서 부처님을 뵙겠다는 일념 하나로 마음을 다스린다면, 꿈 따위는 저를 찾아오지도 못할 것입니다.' 삼장이 대답했다. '제자야, 이번 꿈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꿈이 아니란다. 눈을 감자마

자 광풍이 한차례 몰아치더니, 선방 문밖에 한 황제가 나타나더구나. 스스로 오계국(烏雞國)의 왕이라고 말하는데, 온몸은 물에 젖어 있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단다.' 삼장은 꿈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손오공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말 안 해도 알겠습니다. 그분이 꿈에 나타나 스승님께 말씀을 전한 것은 분명 저희에게 일거리를 주려는 것입니다. 필시 요괴 하나가 왕위를 찬탈하고 나라를 도모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가서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겠습니다. 그 요괴 놈이 어디를 가든 제 몽둥이가 닿는 곳마다 공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삼장이 다시 말했다. '제자야,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 요괴의 신통력이 아주 대단하다고 하더구나.' 손오공이 호기롭게 대꾸했다. '그 신통력이 대단한 게 뭐가 무섭습니까? 제가 온 줄 알았다면 감히 꿈 짝도 못 하고 도망갔을 겁니다.' 삼장이 덧붙였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증표로 남길 보물을 하나 남겨두었다는 것이란다.' 저팔계가 말을 가로챘다. '스승님, 쓸데없는 소리 마십시오. 꿈은 꿈일 뿐인데 왜 자꾸 사실처럼 말씀하십니까?' 사오정이 거들었다. '「곧은 것 가운데서도 곧음을 함부로 믿지 말고, 어진 듯한 가운데서도 어질지 않음을 경계하라」 고 했습니다. 우선 불을 밝히고 문을 열어 밖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손오공이 정말로 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니, 달빛과 별빛이 은은하게 내리쬐는 처마 끝에 금칠을 한 백옥규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저팔계가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집어 들며 물었다.

"형님, 이게 대체 뭐예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건 나라의 왕이 손에 쥐고 있던 보물로, 이름은 옥규라고 한다. 스승님, 이 물건이 여기 있는 걸 보니 꿈속의 일이 분명한 모양입니다. 내일 요괴를 잡는 일은 전부 이 손오공이 책임지겠습니다. 다만, 스승님께는 세 가지 큰 고생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자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아이고, 그래 봤자 꿈일 뿐인데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저놈이 사람을 놀리려고 하는 소리 아니겠어? 고생은 무슨 고생이야."

삼장이 방 안으로 들어가며 물었다.

"그 세 가지 고생이 대체 무엇이냐?"

손오공이 말했다.

"내일 스승님께서는 남의 허물을 뒤집어쓰고, 욕을 먹고, 온갖 재난을 겪게 되실 겁니다."

저팔계가 웃으며 거들었다.

"한 가지만 해도 힘든데, 세 가지나 어떻게 견디겠어요?"

삼장은 총명한 승려였기에 곧바로 물었다.

"제자야, 그 세 가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손오공이 말했다.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먼저 겪게 해 드리지요."

'좋습니다, 대성님!' 손오공은 털 한 가닥을 뽑아 입으로 신령한 기운을 불어넣으며 외쳤다. '변해라!' 그러자 털이 붉은빛이 도는 금칠을 한 작은 상자로 변했다. 손오공은 백옥규를 그 안에 담아 넣으며 말했다. '스승님, 이 물건을 손에 받쳐 들고 계십시오. 그러다 날이 밝으면 금란 가사를 입고 정전으로 가 앉아서 경전을 읽으세요. 그동안 제가 저 성 안을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분명 요괴일 테니, 그놈을 때려잡아 여기서 공을 세우면 됩니다. 만약 요괴가 아니라면, 괜한 화를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고요.' 삼장이 대답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손오공이 덧붙였다. '태자가 성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만약 꿈이 이루어져 정말 성 밖으로 나온다면 제가 반드시 그를 스승님께 데려오겠습니다.' 삼장이 걱정스레 물었다. '그가 오면 내가 어떻게 대접해야 하느냐?' 손오공이 말했다. '그가 오면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때 상자 뚜껑을 살짝 열어두세요. 제가 두 치 정도 되는 작은 스님으로 변해서 상자 안에 들어가 있을 테니, 스승님은 저를 상자째 손에 받쳐 들고 계시면 됩니다. 태자가 절에 들어오면 분명 불공을 드리려 할 겁니다. 그때 태자가 어떻게 절을 하든 스승님은 그냥 모른 척 가만히 계세요. 태자가 스승님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고는 분명 스승님을 잡아가두려 할 겁니다. 그때는 그냥 잡혀가세요. 때리든 묶든, 죽이든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라는 말입니다.' 삼장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니, 그들의 군령이 엄한데 정말 나를 죽이기라도 하면 어찌하느냐?' 손오공이 안심시키듯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제가 반드시 스승님을 지켜드릴게요. 만약 태자가 이유를 묻거든, 동토에서 온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

는 스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태자가 「무슨 보물이 있느냐?」 하고 물을 겁니다. 그때 금란가사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세 번째로 귀한 보물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귀한 보물도 따로 있지요.」 라고요. 그러면 태자가 궁금해서 물어볼 텐데, 그때 「이 상자 안에는 아주 귀한 보물이 들어있어서, 과거 오백 년, 현재 오백 년, 미래 오백 년, 즉 천오백 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다. 그러니 나를 꺼내 주시오」 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밖으로 나가 꿈속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태자에게 전하는 겁니다. 태자가 믿는다면 요괴를 잡아 아버님의 원수를 갚고 우리도 명성을 떨칠 수 있겠지만, 만약 믿지 않는다면 그때 백옥규를 보여주면 됩니다. 다만 태자가 아직 어려서 보물을 알아보지 못할까 봐 그게 걱정이네요.' 삼장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제자야, 참으로 기막힌 계책이로구나! 그런데 보물 이름이 하나는 금란가사이고 하나는 백옥규라니, 네가 변신할 보물의 이름은 무엇이랴 하겠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냥 「입제화(立帝貨)」 라고 하시지요.' 삼장은 손오공의 말대로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스승과 제자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저 날이 밝기만을, 해가 떠올라 밤하늘의 별들을 순식간에 흩뿌려 버리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동쪽 하늘이 밝아왔다. 손오공은 저팔계와 사오정을 불러 두 사람에게 당부했다. '승려를 방해하거나 함부로 밖으로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 내가 일을 성공시킨 뒤에 너희와 함께 길을 떠날 것이니 기다려라.' 말을 마친 손오공은 휘파람을 한 번 불더니, 공중제비를 한 번 넘어 근두운을 타고 공중으로 훌쩍 뛰어올랐다. 그는 화안 금정(불꽃 같은 눈)을 부릅뜨고 서쪽을 바라보았는데, 과연 멀리 성곽

하나가 보였다. 어찌 그리 잘 보였냐 하면, 그 성이 절에서 겨우 마흔 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눈에 훤히 들어온 것이다. 손오공이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성 위로 괴이한 안개와 슬픈 구름이 자욱하게 깔려 있고, 요괴의 사악한 바람과 원망 섞인 기운이 어지럽게 흩날리고 있었다. 손오공은 공중에서 이를 보고 탄식하며 시로 이르되, '진정한 왕이 보좌에 올랐다면 / 당연히 상서로운 빛과 오색 구름이 감돌았을 것을. / 요괴가 용의 자리를 찬탈하였으니 / 검은 기운이 기세등등하게 금빛 문을 가로막고 있구나.'

손오공이 한창 감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포성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동문이 열리더니 한 무리의 군사들이 쏜살같이 달려나왔는데, 알고 보니 사냥을 나온 군대였다. 그 기세가 정말로 용맹스러웠다.

시로 이르되,

금지된 성의 동문이 열리니 얇은 풀숲 사이로 군사들이 흩어지네.
오색 깃발은 햇빛을 받아 찬란히 빛나고 백마들은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구나. 북소리는 둥둥 울려 퍼지고 창끝은 앞다투어 솟구치네. 매를 어깨에 얹은 병사들은 사납고 사냥개를 부리는 장수들은 용맹하구나.
하늘을 울리는 대포 소리는 끝없이 이어지고 붉은 깃발은 햇빛 아래 번뜩이네. 사람마다 쇠뇌를 들고 너나 할 것 없이 활을 메었구나. 산비탈 아래에는 그물을 펼쳐 두고 좁은 길목에는 밧줄을 깔아 놓았네. 천둥소리 같은 포성에 짐승들은 놀라 자빠지고 기세 등등한 기병들은 맹수들을 에워싸네. 교활한 토끼도 몸을 보전하기 어렵고 영리한 노루도 꺾여 보려 해도 소용없네. 여우는 명줄이 다한 것이요 사슴은 그 한복판

에서 목숨을 잃으리라. 산뿔은 날아오르기도 전에 잡히고 들닭은 어찌 흉포한 무리를 피하겠는가.

그들은 모두 산자락을 차지하고 자리를 잡은 뒤 맹수를 사로잡고, 숲을 헤집으며 날아다니는 새들을 쏘아 맞히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나와 동쪽 교외로 산책을 나갔다. 이십 리쯤 가니 높고 넓은 들판이 나타났는데, 그곳 중군 진영 가운데 아주 작은 체구의 장군 한 명이 보였다. 그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으며, 가슴에는 화려한 꽃무늬가 수놓아진 갑옷을 덧대어 입고 있었다. 열여덟 장의 갑옷 조각을 정교하게 맞춘 그는 푸른 빛이 도는 보검을 손에 쥐고, 황갈색 말에 올라타 허리에는 시위를 가득 먹인 활을 차고 있었다. 참으로 그 모습이 이러하였다.

시로 이르되, 은은히 나타난 모습은 군왕의 형상이며, 당당한 기세는 제왕의 용모로다. 그 위엄은 결코 범상한 자가 아니니, 움직임 하나 하나가 진정한 용의 기상을 드러내도다.

손오공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생각했다. “말할 것도 없군, 저자가 바로 황제의 태자임이 틀림없어. 내가 한번 골려줘야겠다.” 위대한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내려가 군사들 사이를 뚫고 태자의 말 앞으로 달려 들었다. 그러고는 몸을 흔들며 순식간에 하얀 토끼로 변신하여 태자의 말 앞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태자는 그 모습을 보고 무척 즐거워하며 화살을 집어 들고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기더니, 단번에 그 토끼를 명중시켰다.

알고 보니 손오공이 일부러 화살에 맞은 척 속인 것이었다. 손오공은 눈치가 빠르고 몸놀림이 날쌔기에, 화살촉을 쥔 채 낚아채 화살 부분만 문지방 앞에 툭 떨어뜨려 놓고는 쥔 채 달아났다. 태자는 화살에 맞은 흰 토끼를 보고는 말머리를 돌려 홀로 앞질러 달려왔다. 하지만 말의 속도는 손오공을 따라잡기에 역부족이었다. 손오공은 바람처럼 빠르게 달리고, 태자의 말이 늦어지면 천천히 걸으며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렇게 한참을 태자를 놀리며 끌고 온 끝에, 손오공은 태자를 보림사 산문 앞까지 유인한 뒤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태자가 보니 토끼는 간데없고 문지방에 화살 하나가 꽂혀 있을 뿐이었다. 손오공은 곧장 안으로 뛰어 들어가 당승에게 "스승님, 저 왔어요, 저 왔어요!"라고 외치더니, 다시 몸을 획 바꾸어 두 치 정도 되는 작은 어린 스님으로 변신해 붉은 상자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한편, 태자가 산문 앞까지 달려갔으나 옥토끼는 간데없고 문턱에 꽂힌 화살 한 대만 보였다. 태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깜짝 놀라며 말했다.

“괴이하구나, 정말 괴이해! 분명 내 화살이 옥토끼를 맞혔는데, 어째서 토끼는 사라지고 화살만 여기 남아 있는 것이냐? 아마도 시간이 오래 흘러 요괴가 된 모양이로군.”

태자가 화살을 뽑아 들고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산문에는 ‘칙건보림사’라는 다섯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태자가 말했다.

“이제 알겠구나. 예전에 내 아버님께서 금란전에서 관리들에게 명하여 금과 비단을 내려 이 스님들이 불전과 불상을 수리하도록 하셨던 것이 기억나는구나. 뜻밖에 오늘 이곳에 오게 될 줄이야.

시로 이르되, 길 가다 절을 만나 스님과 담소를 나누니, 덧없는 인생에 반나절의 한가로움을 얻었구나.

우선 안으로 들어가 좀 둘러보아야겠다.”

태자가 말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마침 호위하던 관원들과 삼천 명의 군사들이 떼를 지어 산문 안으로 몰려 들어왔다. 보림사의 승려들은 당황하여 모두 달려 나와 머리를 조아리며 태자를 맞이했고, 태자는 정전 중앙으로 안내받아 불상을 향해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태자가 주변 경치를 구경하며 거닐려는데, 문득 정전 한가운데에 한 승려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태자는 크게 화가 나 외쳤다. "이 승려가 무례하구나! 내가 비록 미리 알리지 않고 반차례의 행차를 이끌고 산에 들어왔으나, 군사가 문 앞에 가득하니 마땅히 일어나 맞이해야 할 것 아니냐? 어찌하여 저리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나! 저놈을 잡아라!"

태자가 '잡아라!' 하고 소리치자, 양옆에 서 있던 교위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당승을 붙잡아 내리고 서둘러 밧줄로 묶으려 했다. 그때 손오공이 상자 안에서 남몰래 주문을 외우며 말했다. "호법신들과 육정육갑신들이여, 내가 지금 요괴를 물리치려 하니 이 태자가 사정을 알지 못하고 내 스승을 밧줄로 묶으려 한다. 너희는 어서 스승님을 보살피라. 만약 정말로 묶게 된다면 너희 모두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대성인 손오공이 남몰래 명령하니 누가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신령들이 당승을 든든히 보호하자, 군사들은 당승의 매끄러운 머리조차 만질 수 없었다. 마치 단단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듯하여 도저히 그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

태자가 말했다.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기에 이런 은신술로 나를 속이는 것이오?"

삼장이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추며 말했다. "빈승은 은신술 따위는 모릅니다. 저는 동토(東土)에서 온 당승이라 합니다. 뇌음사에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경전과 보물을 구하러 가는 승려입니다."

태자가 말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동토라는 곳이 중원이라지만, 형편이 몹시 궁핍하다고 들었소. 대체 어떤 보물이 있기에 그러는 것이오? 어디 한번 말해 보시오."

삼장이 대답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가사가 세 번째 보물입니다. 아직 첫 번째와 두 번째, 훨씬 더 좋은 보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태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그 옷은 한쪽 어깨는 덮고 한쪽은 드러난 모양인데, 그게 대체 무슨 가치가 있다고 감히 보물이라 부른단 말이오?"

삼장이 말했다. "이 가사가 비록 온전한 형태는 아니나, 이에 관한 시가 몇 구 있으니 들어보시오."

시로 이르되,

"부처님의 옷이 어깨를 비스듬히 덮은 것은 따질 것 없으나, 그 안에
는 참된 성품이 숨어 있어 세상의 먼지를 벗어던졌네. 만 갈래 천 갈래
실로 엮어 정과를 이루었으니, 아홉 개의 구슬과 여덟 가지 보물이 원
신(참된 정신)과 하나로 어우러졌구나. 선녀와 성녀들이 정성을 다해
지어 만든 것이니, 선승의 몸을 맑고 깨끗하게 지켜주네. 귀한 분을 뵈
고도 맞이하지 못함은 차치하더라도, 그대의 아버지가 당한 원한을 갚
지 못했으니 헛되이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태자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외쳤다. "이 망할 승려가 헛소리를
하는구나! 내가 가진 그 낡은 옷자락 하나를 내세워 말재주로 사람을
현혹하려 들다니, 참으로 뻔뻔하도다. 내 아버님이 겪으신 억울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단 말이냐? 어서 말해 보아라!"

삼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합장하고 물었다. "전하, 사람이 천지
사이에 태어나 입은 은혜가 대체 몇이나 되겠습니까?"

태자가 대답했다. "네 가지 은혜가 있다."

삼장이 다시 물었다. "그 네 가지 은혜란 무엇입니까?"

태자가 말했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품어주는 은혜, 해와 달이 세상
을 비추는 은혜, 나라와 땅이 보살펴주는 은혜, 그리고 부모님이 길러
주신 은혜이다."

삼장이 웃으며 말했다. "전하, 말씀이 틀렸습니다. 사람이 하늘과 땅
의 품에 있고 해와 달의 비침을 받으며 나라와 땅의 보살핌을 받는다고
는 하나, 부모님이 길러주시는 은혜는 어디서 얻는단 말씀입니까?"

태자가 노하여 소리쳤다. “이 승려는 그저 빈둥거리며 먹고살며 머리나 깎고 임금을 거스르는 무리구나!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면, 사람의 몸이 어디서 온단 말이냐?”

삼장이 말했다. “전하, 빈승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붉은 상자 안에 ‘입제화’라는 보물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 보물은 위로 오백 년, 중간으로 오백 년, 아래로 오백 년을 꿰뚫어 보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일 천오백 년을 모두 안다고 합니다. 이 보물이 부모님의 은혜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었기에, 빈승이 이곳에서 이토록 오랜 시간 머물게 된 것입니다.”

태자가 그 말을 듣고는 "가져와 보라"고 명령했다. 삼장이 상자의 덮개를 열자, 손오공이 경충 뛰어 나오더니 양옆으로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태자가 말했다. "이 작은 요정 같은 놈이 대체 무엇을 안다는 말이냐?"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작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곧바로 신통력을 부려 허리를 쭉 늘리더니 순식간에 세 척 하고도 네다섯 치나 되는 키로 자라났다. 군사들이 깜짝 놀라며 외쳤다. "저렇게 빨리 자라난다면 며칠 지나지 않아 하늘을 뚫고 올라가겠구나!" 손오공은 원래 몸 크기로 돌아온 뒤에야 더 자라지 않았다.

태자가 다시 물었다. "이보게, 저 노승의 말로는 네가 과거와 미래의 길흉화복을 다 안다는데, 너에게 거북 껍데기를 이용한 복술이나 시초(蓍草)를 이용한 점술이 있느냐? 아니면 글귀에 의지해 사람의 화복을 점치는 것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그런 건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 치밖에 안 되는 혀 하나만 있으면 만사를 다 알 수 있습니다."

태자가 말했다. "이놈이 또 허튼소리를 하는구나. 예로부터 《주역》이라는 책은 지극히 현묘하여 천하의 길흉을 다 판단하고 사람이 나아갈 길과 피할 길을 알려주었기에, 거북 껍데기로 점을 치고 시초로 산통을 치는 것이다. 네 말을 듣자하니 대체 어떤 이치에 근거한 것이냐? 근거도 없이 화복을 떠들며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려 드는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태자 전하, 서두르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 보십시오. 전하께서는 본래 오계국(烏雞國) 왕의 태자이십니다. 5년 전, 오계국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고통에 시달리자, 전하의 부왕과 신하들이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마침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던 그때, 종남산에서 도사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바람과 비를 부르고 돌을 금으로 만드는 신통력을 지녔더군요. 왕께서는 그를 몹시 아낀 나머지 형제의 의를 맺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태자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맞아요. 계속 말씀해 보세요.' 손오공이 이어서 말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전진이 보이지 않게 된 후로,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는 대체 누구입니까?' 태자가 말했다. '정말로 전진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부왕께서는 그와 형제의 의를 맺어 음식을 함께 먹고 잠자리도 같이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셨지요. 그런데 3년 전, 부왕께서 어화원에서 경치를 구경하고 계실 때, 그자가 신비로운 바람을 일으켜 부왕의 손에 있던 금상백옥규를 낚아채 종남산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부왕께서는 지금까지도 그를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그가 보이지 않으니 부왕께서도 무언가를 즐길 마음이 사라

저 화원을 굳게 닫아버린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황제의 자리에 있는 이가 부왕이 아니라면 대체 누구겠습니까?

손오공이 그 말을 듣고는 연신 낄낄거리며 웃어댔다. 태자가 다시 물어도 대답은커녕 그저 비웃기만 하니, 태자가 화가 나서 외쳤다. "이 놈이 말할 때는 안 하고 어찌하여 자꾸 비웃기만 하느냐?"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할 말이 아직 아주 많습니다만,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 마땅히 말할 자리가 아니군요." 태자는 손오공의 말에 나름의 이유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소매를 휘저어 군사들을 물리나게 했다. 그러자 수레에 타고 있던 관원이 급히 명령을 내려, 삼천 명의 군사들을 모두 성문 밖으로 나가 진을 치게 했다.

이제 전각 안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태자는 자리에 앉았고, 삼장법사가 그 앞에 섰으며, 손오공은 태자의 왼편에 나란히 섰다. 절의 스님들도 모두 물러갔다. 그제야 손오공이 정색을 하며 앞으로 나서서 말했다. "태자 전하, 아까 바람을 일으켜 떠난 자는 전하의 친부모이시고,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 저 자가 바로 비를 빌어주겠다던 그 전진입니다." 태자가 말했다. "헛소리 마라, 헛소리! 전진이 떠난 뒤로 우리나라는 비도 제때 내리고 풍족하여 백성들이 평안히 살고 있다. 네 말대로라면 우리 아버님은 어디 계신단 말이냐? 네가 아직 어려서 내가 받아주는 것이지, 만약 내 아버님께서 이 망언을 들으셨다면 너를 잡아다 갈가리 찢어 죽였을 것이다!" 태자는 손오공을 호통치며 꾸짖었다.

손오공이 삼장법사에게 돌아가 말했다. "스님, 보십시오. 안 믿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 말이 맞지요? 이제 그 보물을 저자에게 보여주어 사실을 알린 뒤, 어서 서방으로 떠납시다." 삼장법사가 붉은 상자를 손

오공에게 건네주었다. 손오공이 상자를 받아 몸을 한 번 흔들자 상자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원래 손오공의 털로 만든 것이라 다시 몸 안으로 거두어들인 것이었다. 그리고는 손에 백옥구를 받쳐 들고 태자에게 바쳤다.

태자가 보고 꾸짖었다. '이 가짜 스님 같으니라고! 너희 전진이라는 자들이 5년 전에 우리 집 보물을 속여 빼앗더니, 이제는 아예 스님 행세를 하며 나타났구나. 여봐라, 저놈을 잡아라!' 태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당황한 장로가 손오공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필마온(弼馬溫) 놈아! 괜한 화만 불러들여 우리까지 망하게 할 셈이냐!' 손오공이 성큼 다가와 장로를 가로막으며 말했다. '시끄럽게 떠들지 마세요, 비밀이 새 나가면 안 됩니다! 제 이름은 「입제화」가 아니라 진짜 이름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태자가 화를 내며 말했다. '이리 올라오너라! 네 진짜 이름을 말해 보아라. 그래야 법사에 넘겨 죄를 물을 것 아니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저는 저 장로님의 큰 제자이자, 손오공이라 불리는 손행자입니다. 스승님을 모시고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던 길에 어젯밤 이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스승님께서 밤에 경전을 읽으시다가 새벽 세 시쯤 꿈을 꾸셨는데, 거기서 태자님의 아버님을 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5년 전 전진이라는 자에게 속아 어화원에 있는 팔각 유리 우물에 밀쳐져 돌아가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놈이 아버님의 모습으로 변해 왕위를 찬탈했기에 조정 관리들도 알지 못했고, 태자님께서도 너무 어렸기에 궁궐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소문이 새 나가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오늘 밤 저를 보내 요괴를 물리치라고 특별히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요괴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워 하늘 위에서 살펴보았는데, 역시나 요괴가 맞더군요. 막 손을 쓰

려던 참에 태자님께서 성 밖으로 사냥을 나오시는 바람에, 태자님의 화살에 맞은 저 흰 토끼가 바로 저였습니다. 제가 태자님을 이 절로 유인하여 스승님을 뵈게 하고 이 모든 사정을 말씀드린 것은 한 마디도 거짓이 없습니다. 태자님께서 이미 백옥규를 알아보셨으니, 어찌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하여 부모님의 원수를 갚아주려 하지 않으십니까?’

태자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참담해져 속으로 슬픔을 삼키며 생각했다. '이 말을 믿지 않자니 그가 말한 내용에 구체적인 사실이 담겨 있고, 그렇다고 믿자니 지금 전각 위에 앉아 있는 분이 어찌 내 부왕이실 수 있단 말인가?' 태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져, 몇 번이고 되뇌며 깊은 고민에 잠겼다.

손오공은 태자가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을 보고 다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저하, 의심하실 것 없습니다. 우선 나라로 돌아가셔서 국모 마마께 여쭙어보십시오. 부부 사이의 정이 3년 전과 비교해 어떠한지 말입니다. 딱 이 한 가지만 물어보시면 진실인지 가짜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태자는 마음을 고쳐먹으며 말했다. "그렇군요. 우선 어머니께 가서 사실을 여쭙어보고 오겠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백옥규를 챙겨 들고 곧장 떠나려 했다.

그러자 손오공이 그를 붙잡으며 말했다. "당신의 군사들을 모두 물려보내고 소문이 나지 않게 해야 내가 일을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반드시 혼자서만 성안으로 들어가야 하며, 절대 함부로 명성을 떨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정양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후재

문을 통해 들어가십시오. 궁궐에서 어머니를 만나더라도 큰 소리로 떠들지 말고 반드시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그 요괴가神通력이 뛰어나 소식이 새 나가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의 어머니와 여인들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태자는 손오공의 가르침을 엄격히 따르기로 했다. 그는 산문을 나서며 장수들에게 명령했다. "여기 진을 치고 굳건히 지키고 있거라. 절대 움직이지 마라. 내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 다녀오는 대로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 다 함께 성안으로 들어가자."

태자가 명령을 내리자,

시로 이르되,

군사들에게 호령하여 진영을 정비하게 하니, 말을 타고 날 듯이 달려 곧장 성을 향해 나아가더라.

이렇게 떠난 태자가 왕후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결국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38회 — 아이가 어머니에게 물어 사악 함과 바름을 알고, 금목이 현묘함을 참구 하여 가짜와 진짜를 보다

嬰兒問母知邪正 金木參玄見假真

그대 만난 건 오직 생명을 얻은 인연 덕분이니,
곧바로 부처님 회상에 모인 이가 되었네.
한 마음 정갈히 하여 속세의 부처를 바라보니,
온 세상이 함께 위엄 있는 신통력을 보도다.
오늘의 참된 밝은 주인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옛날 적통 어머니의 몸을 물어야 하리.
세상에 없던 특별한 모습은 본 적이 없으나,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꽃이 새로 피어나네.

한편, 오계국 태자는 손오공과 헤어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성안으로 돌아왔다. 태자는 감히 조정의 정문을 통해 소식을 알리지 못하고,

곧장 후재문 앞으로 가서 그곳을 지키던 내관들을 만났다. 내관들은 태자가 오는 것을 보고는 감히 막아서지 못하고 길을 열어주었다. 태자는 말을 몰아 안으로 급히 달려가 금향정 아래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정궁 마마가 금향정에 앉아 있었는데, 양옆에는 수십 명의 후궁이 부채질을 해드리고 있었고, 마마는 조각된 난간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마마가 왜 눈물을 흘리고 있었겠는가? 원래 마마는 사경(四更) 무렵에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내용이 절반은 기억나고 절반은 가물가물 하여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태자가 말에서 내려 정자 아래에 무릎을 꿇고 외쳤다. “어머니!”

정궁 마마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대답했다. “아이야, 반갑구나! 정말 반가워! 지난 2, 3년 동안 전각에서 네 아버지와 함께 지내느라 너를 만나지 못해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오늘 어찌 시간을 내어 나를 보러 왔느냐? 참으로 기쁘고 또 기쁘구나! 그런데 아이야, 어찌 목소리가 이토록 슬프냐? 네 아버지는 연세가 높으시니, 언젠가 용이 푸른 바다로 돌아가고 봉황이 붉은 하늘로 돌아가는 날(임금이 승하하는 날) 네가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으면 될 것을, 무엇이 그리 불행하단 말이냐?”

태자가 머리를 조아리며 물었다. “어머니, 여쭙어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황제의 자리에 올라 스스로를 고(孤)라 칭하며 다스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말을 들은 마마가 되물었다. “아이야, 네가 미친 것이냐? 황제는 네 아버님이신데 무엇을 묻는단 말이냐?”

태자가 다시 머리를 땅에 꿇으며 말했다. “어머니, 부디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신다면 감히 여쭙겠으나,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차마 여쭙지 못하겠습니다.”

마마가 말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 무슨 죄가 있겠느냐? 용서하마, 용서할 테니 어서 말해보거라.”

태자가 말했다. “어머니, 묻겠습니다. 3년 전 부부궁에서의 일이 지난 3년 동안의 다정한 모습과 같았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이 말을 듣자 마마는 혼이 나간 듯 뺨을 잃고 급히 정자 아래로 내려와 태자를 품에 꼭 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 이야, 너와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는데 어찌 오늘 와서 이런 것을 묻느냐?”

태자가 화를 내며 말했다. “어머니,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진작 하셔야지요. 말씀하지 않으시면 큰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제야 마마는 좌우의 시종들을 물러가게 한 뒤, 눈물 젖은 목소리로 낮게 속삭였다. “이 일은 네가 묻지 않았다면 내가 저승에 가서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물었으니 내 말 잘 듣거라.”

3년 전에는 온기가 넘치고 따뜻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은 얼음처럼 차갑구나. 잠자리에서 속삭이며 나누던 말은, 몸이 쇠약해져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었지.”

태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의 품에서 벗어나 말에 올라탔다. 마마가 급히 태자를 붙들며 말했다. “아이야, 무슨 급한 일이기에 말을 다 마치지도 않고 가느냐?”

태자가 다시 마마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어머니, 차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 조회 때, 제가 왕명을 받들어 매를 받쳐 들고 개를 몰며 성 밖으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토에서 오신 성스러운 승려를 만났는데, 그에게는 요괴를 아주 잘 다스리는 손오공이라는 큰 제자가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저희 아버님은 어화원의 팔각 유리(八角琉璃) 우물 속에서 돌아가셨고, 지금의 가짜 황제가 용의 자리를 찬탈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 삼경에 아버님께서 꿈에 나타나 그 승려를 불러 성안의 괴물을 잡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저는 감히 다 믿을 수 없어 어머니께 확인하러 온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방금 하신 말씀도 분명 요괴의 짓이 분명합니다.”

마마가 말했다. “아이야, 남의 말을 어찌 곧이곧대로 믿느냐?”

태자가 대답했다. “저도 아직 확실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남기신 증표를 그분께 전해 드렸습니다.”

마마가 그것이 무엇인지 묻자, 태자는 소매 안에서 금상백옥규를 꺼내 마마에게 건넸다. 그것이 당시 국왕의 보물임을 알아본 마마는 건잡을 수 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주군, 어찌 돌아가신 지 3년이나 되어 나를 보러 오지 않으시고, 성스러운 승려를 먼저 보시고 태자인 저를 나중에 보셨나이까!”

태자가 물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마가 말했다. “아이야, 나도 오늘 새벽 사경 무렵에 꿈을 꾸었던
다. 꿈속에서 네 아버지가 물에 젖은 모습으로 내 앞에 서서, 자신이 죽
었다고 말씀하시며 귀신이 되어 당승에게 부탁해 가짜 황제를 쫓아내
고 자신의 몸을 구하게 해달라고 하셨지. 그 말이 어렴풋이 기억나 의
아하던 참이었는데, 네가 오늘 와서 그 이야기를 하고 보물까지 내놓으
니 참으로 기가 막히는구나. 일단 이 보물을 내가 거두어둘 테니, 너는
어서 그 성스러운 승려를 모셔 오너라. 부디 요괴를 쫓아버리고 선과
악을 밝혀, 네 아버지의 은혜에 보답하거라.”

태자는 급히 말에 올라 후재문을 통해 성 밖으로 빠져나왔다. 눈물
을 머금고 국모에게 절하며 작별을 고하고, 슬픔을 가슴에 품은 채 머
리를 조아리며 당승에게 인사를 올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문을 벗어
난 태자는 곧장 보림사 일주문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 태자를 마
중 나온 군사들 사이로 붉은 노을이 지며 해가 저물어가는 것이 보였
다. 태자는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절대 소란을 피우지 못하게 했다. 그
리고는 홀로 산문 안으로 들어가 옷매무새를 정돈한 뒤 손오공에게 간
절히 청했다.

그때 원숭이 왕 손오공이 정전에서 비틀비틀 걸어 나오고 있었다.
태자는 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스승님, 제가 왔습니다." 손오공이
다가와 태자를 부축하며 말했다. "일어나게. 성안에 들어가서 누구에
게 물어보기라도 했는가?" 태자가 대답했다. "어머니를 찾아가 여쭙었
습니다." 태자는 앞서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털어놓았다. 손
오공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만약 그렇게 차갑다면, 분명 얼음처럼
차가운 무언가가 변해서 된 것이겠군. 괜찮네, 괜찮아. 이 손오공이 자

네를 위해 싹 쓸어버려 줄 테니 걱정 말게. 다만 오늘은 이미 늦었으니 일을 도모하기가 좋지 않네. 자네는 먼저 돌아가게나. 내일 아침에 내가 가겠네."

태자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스승님, 저는 그저 이곳에서 내일까지 기다리며 스승님과 함께 길을 떠나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안 되네, 안 돼. 만약 자네와 함께 성안에 들어갔다가 괴물이 의심이라도 하면, 내가 자네와 마주친 게 아니라 자네가 나를 불러들였다고 생각하여 자네를 원망하지 않겠나?" 태자가 말했다. "지금 성으로 돌아가도 그놈은 저를 원망할 것입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자네를 무엇 때문에 원망한단 말인가?" 태자가 대답했다. "제가 아침 조례 때 임무를 받고 군사와 사냥개들을 거느리고 성을 나섰는데, 오늘 하루 종일 야생 동물 한 마리 잡지 못했으니 어찌 임금님을 뵈겠습니까? 만약 제 무능함을 물어 저를 감옥에 가둔다 해도, 내일 제가 성에 들어가면 대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물며 조정에 저를 아는 사람도 한 명 없는데 말입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런가? 진작 말해줬으면 자네를 기다릴 다른 방도를 찾아봤을 것을."

"자, 대성! 태자 앞에 신통력을 한번 보여주시오."

그 말에 손오공은 몸을 솟구쳐 구름 위로 뛰어올랐다. 그러고는 주문을 읊조리며 "옴 람 정 법계"라는 진언을 외었다. 그러자 공중에 떠 있던 산신과 토지가 나타나 공손히 예를 갖추며 말했다.

"대성님, 저희를 부르셨으니 어떤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내가 당승을 보호하며 이곳까지 왔는데, 요괴를 잡으려 하니 태자가 사냥할 짐승이 없어 감히 조정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에게 부탁 하나 하려 하니, 노루와 토끼, 사슴과 꿩 같은 산짐승과 날짐승들을 잔뜩 구해다 주어라. 그래야 태자가 기분 좋게 성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산신과 토지는 그 말을 어찌 거역하겠는가. 그들은 각각 얼마나 필요한지 물었다. 손오공이 대답했다.

"양은 상관없으니 그저 넉넉히 가져오너라."

신들은 즉시 각자의 구역에 있는 저승 군사들을 불러 모아, 짐승들을 몰아오는 음산한 바람을 일으켰다. 그러자 꿩과 들닭, 사슴과 노루, 여우와 오소리, 토끼, 그리고 호랑이와 표범, 늑대와 벌레들까지 수천 마리의 짐승이 몰려와 손오공 앞에 놓였다.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짐승들은 필요 없다. 대신 그 짐승들을 모두 마법으로 묶어 놓은 뒤, 태자가 돌아가는 사십 리 길 양옆에 쭉 늘어놓아라. 사람들이 매와 사냥개를 풀어 그 짐승들을 잡아 성으로 가져가게 하면, 그것으로 너희의 공로를 치겠다."

신들은 손오공의 말대로 음산한 바람을 거두고, 짐승들을 길 양옆에 가지런히 늘어놓았다.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내려왔으며 태자에게 말했다. "전하, 돌아가는 길에 이미 먹을 것이 충분하니 직접 챙겨 가십시오." 태자는 손오공이 공중에서 신통력을 부리는 것을 보고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저 머리를 조아려 작별 인사를 올릴 뿐이었다. 태자가 산문을 나서며 군사들에게 성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길가에 정말로 수많은 야생 동물이 가득했다. 군사들은 매나 사냥개를 풀지도 않았는데, 저마다 손을 써서 짐승들을 잡으며 환호성을 질러댔다. 군사들은 모두 태자의 큰 복 덕분이라며 기뻐했으나, 그것이 손오공의 신통력 때문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승전가를 부르는 듯한 함성 속에 군사들은 한데 어우러져 성으로 돌아갔다.

손오공이 당승을 보살핀 덕분에, 보림사의 스님들은 태자와 이들이 이토록 가깝게 지내는 것을 보고 어찌 공경하지 않겠는가? 스님들은 정성껏 공양을 준비해 당승을 대접하고, 당승은 여전히 선방에서 쉬고 있었다.

한 시진쯤 지났을 때, 손오공은 마음속에 걸리는 일이 있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몸을 일으켜 당승의 침상 앞으로 다가가 불렀다. "스승님." 이때 당승은 아직 잠들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손오공이 또 무슨 괴상한 일을 저지를까 싶어, 잠든 척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손오공은 당승의 매끈한 머리를 만지작거리며 흔들며대며 말했다. "스승님, 어찌하여 아직 안 주무십니까?" 당승이 화가 나서 말했다. "이 장난꾸러기 녀석아, 이 밤중에 잠도 안 자고 왜 자꾸 소란이냐?"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 상의 좀 드리려고요." 당승이 물었다. "무슨 일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낮에 제가 태자에게 제 수

단이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으며, 요괴를 잡는 일은 주머니 속 물건을 꺼내는 것처럼 손만 뻗으면 금방 잡을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잖아요. 그런데 막상 잠을 자려니 생각이 나서요, 이게 좀 어렵겠더라고요." 당승이 말했다. "어렵다고 하면, 그냥 잡지 말거라." 손오공이 말했다. "잡아야죠, 잡아야 합니다. 다만 앞뒤 이치에 맞지가 않아서요." 당승이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이 헛소리를 하는구나. 요괴가 임금의 자리를 뺏었는데, 그게 어찌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냐?"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은 그저 불경만 읽고 부처님께 절하며 참선만 하시니, 한나라 소하(蕭何)가 만든 율법을 어디 보신 적이나 있겠습니까? 흔히 말하기를 '도둑을 잡으려면 장물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괴물은 3년 동안이나 황제 노릇을 하면서도 아무런 허점을 보이지 않았고 소문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세 명의 비와 후궁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문무백관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렸으니, 제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 그를 잡아온들 무슨 죄목을 씌워야 할지 난감합니다." 당승이 물었다. "죄를 정하는 게 무엇이 어렵단 말이냐?" 손오공이 말했다. "그놈은 입이 없는 호리병처럼 말대꾸를 잘할 겁니다. '내가 바로 오계국의 국왕인데, 내가 무슨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짓을 했다고 나를 잡아 가느냐?'라고 당당하게 나올 텐데, 대체 어떤 증거를 들이밀며 그놈을 설득 하겠습니까?"

당삼장이 물었다. “네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제 계획은 이미 다 세워두었습니다. 다만 스승님께서 자꾸 제 편을 드시느라 일을 그르치실까 봐 걱정될 뿐입니다.”

당삼장이 되물었다. “내가 어째서 네 편을 든다는 말이냐?”

“저팔계가 워낙 미련한 구석이 있다 보니, 스승님께서 자꾸 그 녀석을 감싸고 도시는 것 같아서 그렇지요.”

“내가 언제 그 녀석을 감싸준단 말이냐?”

손오공이 말을 이었다. “만약 스승님께서 정말로 감싸주지 않으실 거라면, 이제 마음을 좀 더 단단히 먹고 사오정과 이곳에 남아 계십시오. 저와 저팔계가 이 틈을 타서 먼저 오계국 성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어화원을 찾아내어 유리 우물을 열고, 그곳에 있는 황제의 시신을 건져 올려 우리 짐보따리에 싸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성안으로 들어갈 때, 통행증 같은 건 신경 쓰지 말고 그 괴물을 보는 즉시 몽둥이를 휘둘러 때려눕히는 겁니다. 괴물이 뭐라고 변명을 늘어놓든, 시신을 들이밀며 ‘네놈이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뼈아픈 일침을 가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태자가 달려 나와 통곡하고, 황후가 나와 남편을 알아볼 것이며, 문무백관들도 주인을 보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 때 저와 형제들이 본격적으로 손을 쓰면 됩니다. 그래야만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법이지요.”

당삼장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말했다. “다만 저팔계가 가겠다고 나서지 않을까 걱정이구나.”

손오공이 웃으며 대꾸했다. “보십시오, 제가 스승님께서 감싸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팔계가 안 가겠다고 하실 줄을 어떻게 아십니까? 스승님께서 제가 부를 때 대답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시킨도 안 되어 따라올 겁니다. 제 말솜씨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팔계는커녕, 설령 저팔계가 열 마리가 있더라도 제 허끝만 놀리면 모두 저를 따라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삼장이 말했다. “알았다, 네가 가서 그 녀석을 데려오너라.”

손오공은 스승을 떠나 곧장 저팔계의 침상 곁으로 가서 불렀다. “팔계야, 팔계야!” 하지만 저팔계는 평소 걷는 일을 고된 노동으로 여기는 게으름뱅이라, 머리를 대자마자 코를 골며 깊이 잠든 터라 도무지 깨어나질 않았다. 손오공은 저팔계의 귀를 잡아당기고 털을 움켜쥐어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다시 외쳤다. “팔계야!” 저팔계는 몸을 뒤척이며 버둥거렸다. 손오공이 한 번 더 부르자 그제야 저팔계가 잠결에 말했다. “그만 좀 자게나, 장난치지 말고. 내일 또 걸어야 하잖아.” 손오공이 말했다. “장난치는 게 아니야. 너랑 같이 할 장사가 하나 있어서 그래.” 저팔계가 물었다. “무슨 장사?” “아까 태자가 한 말 들었어?” “난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 들었던 말이야.” 손오공이 말을 이었다. “태자 말이, 저 요괴에게 만 명의 군사도 당해내지 못할 엄청난 보물이 있대. 내일 우리가 성에 들어가면 저 요괴와 싸우게 될 텐데, 만약 저 괴물이 보물을 써서 우리를 굴복시키면 어찌겠어? 그건 너무 골치 아픈 일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차라리 우리가 먼저 손을 쓰는 게 어때? 내가 너랑 같이 가서 그 보물을 몰래 가져오는 거지. 어때, 괜찮지?”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지금 나를 꼬드겨서 도둑질을 시키려는 거구먼! 뭐, 그 장사라면 나도 할 수 있지. 하지만 정말로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면 나도 분명히 말해주겠는데, 보물을 훔쳐서 요괴를 굴복시킨다 해도, 그 보물을 나누는 일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눈치 보게 된다면 난 절대 못 해. 보물은 내가 다 가질 거야.” 손오공이

물었다. “보물은 가지고 또 뭐 하려고?” 저팔계가 대답했다. “난 너희처럼 말쑥씨가 좋아서 사람들 앞에서 공양을 얻어낼 재주가 없잖아. 이 늙은 돼지는 몸집만 뚱뚱하고 말도 거칠고, 불경도 못 읽으니 말이야. 만약 나중에 먹고살 길이 막막해지면, 보물로 맛있는 음식이라도 바뀔 먹어야 하지 않겠어?” 손오공이 말했다. “이 몸은 명성을 얻으려는 거지, 보물 따위엔 관심 없어. 가져가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 저팔계는 보물을 다 가져도 좋다는 말을 듣자마자 기분이 좋아져서,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벌떡 일어나 옷을 챙겨 입고는 손오공을 따라 나섰다. 참으로 술기운에 얼굴이 붉어지듯, 황금빛 이익 앞에서 마음이 요동치는 법이었다.

두 사람은 구름을 타고 당승을 피해 멀리 날아가, 상서로운 빛을 뿜으며 곧장 성안으로 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에 도착해 구름을 내려앉히니, 마침 누각에서 두 번째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손오공이 말했다. “형님, 벌써 이경(二更, 밤 9시~11시 사이)이네.”

그러자 저팔계가 대답했다. “딱 좋구먼, 딱 좋아! 지금쯤이면 다들 꿈나라에서 깊이 잠들었을 거야.”

두 사람은 정문인 정양문으로 가지 않고 곧장 후사재문 입구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나무를 두드려 시간을 알리는 방령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손오공이 물었다. “형님, 앞문과 뒷문이 모두 굳게 잠겨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저팔계가 말했다. “도둑놈이 무슨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겠어? 그냥 담을 넘어가는 게 제일이지.”

손오공은 그 말대로 몸을 휙 날려 성벽 위로 뛰어올랐다. 저팔계도 뒤따라 뛰어올랐다. 두 사람은 성안으로 몰래 잠입하여 길을 찾다가 곧장 어화원으로 향했다.

길을 가다 보니 세 겹의 흰 지붕이 얹힌 문루가 나타났다. 그 위에는 별빛과 달빛을 받아 번쩍이는 커다란 글자 세 개가 적혀 있었는데, 바로 '어화원'이었다. 손오공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문은 여러 겹의 빗장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자물쇠에는 녹까지 슬어 있었다. 손오공이 저팔계에게 손을 쓰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저팔계는 쇠 갈퀴를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 문을 내리쳤고, 문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다.

손오공이 먼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으나, 눈앞의 광경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펄쩍 뛰어오르며 소리를 질러댔다. 저팔계가 얼른 달려와 손오공을 붙들며 말했다.

"형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도둑놈이 어쩔 이렇게 요란하게 소리를 지릅니까? 사람이라도 깨워서 우리를 붙잡아 관가로 넘기면, 죽을 죄는 면하더라도 고향으로 압송되어 군대에 끌려가게 될 거라고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 사람아, 내가 왜 이렇게 급하게 구는지 몰라서 그래? 이것 좀 보라고!"

"채색된 난간과 조각된 기둥은 엉망진창이 되었고, 보석으로 장식된 정자와 누각은 비뚤게 기울었구나. 모래 물가와 여뀌 독은 먼지에 뒤덮였고, 작약과 도미(茶藨)는 모두 시들어 버렸네. 말리꽃과 장미는 향기가 사라졌고, 모란과 백합은 헛되이 꽃만 피었구나. 연꽃과 무궁화는 잡풀에 뒤엉켜 묻히고, 온갖 기이한 꽃들은 다 썩어 문드러졌네. 정교하게 다듬은 바위산은 무너져 내리고, 연못은 물이 말라 물고기들은 기력을 잃었구나. 푸른 소나무와 자줏빛 대나무는 마른 장작 같고, 길가에는 쭉과 잡풀만 무성하네. 붉은 계수나무와 푸른 복숭아나무 가지는 상했고, 석류와 산앵두나무 뿌리는 뒤틀렸구나. 다리 옆 굽이진 길에는 이끼만 끼어 있으니, 화원의 풍경이 참으로 쓸쓸하기 그지없구나."

저팔계가 말했다. "그분을 위해 한탄해서 무엇 합니까? 어서 우리 할 일이나 빨리 끝냅시다."

손오공은 마음 한구석이 울컥했지만, 문득 당삼장이 꿈에서 파초나무 아래에 우물이 있다고 했던 말을 떠올리며 주의 깊게 살폈다. 길을 가다 보니 정말로 파초나무 한 그루가 보였는데, 그 모습이 무성하여 다른 꽃이나 나무들과는 확연히 달랐다. 참으로 다음과 같았다.

영험한 싹이 뻗어나게 자라니, 하늘이 내린 본성이 공허하구나. 가지마다 종이 같은 잎을 틔우고, 잎사귀마다 향기로운 무리를 이루네. 푸른 실 같은 줄기는 천 갈래로 가늘고, 붉은 마음은 한 점 꽃처럼 붉구나. 쓸쓸한 밤비에 젖어 있고, 초췌하게 가을바람을 견디네. 원기를 길러 힘을 키우며, 자연의 섭리로 스스로를 가꾸는구나. 글을 품듯 잎을 말아 묘한 쓰임이 있으니, 펼쳐 놓으면 기이한 공력이 있도다. 봉황의 깃털과 비길 수 있을까, 난새의 꼬리와 비슷하구나. 이슬은 맺혀서 똑

뚝 떨어지고, 옅은 안개가 은은하게 감싸네. 푸른 그늘은 문과 창을 가리고, 푸른 그림자는 발과 창살에 드리우네. 기러기조차 깃들기를 허락지 않으니, 어찌 옥총마(玉驄) 같은 명마를 매어둘 수 있으랴. 서리 내린 하늘 아래 모습은 초췌하고, 달밤의 색채는 몽롱하구나. 더위를 식히기에는 적당하고,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에는 좋으나, 복숭아와 오얏꽃 같은 화사함이 없어, 하얀 담장 동쪽은 쓸쓸하기만 하구나.

손오공이 말했다. “팔계야, 시작할까? 보물이 저 파초나무 아래 묻혀 있단다.”

그 어수룩한 녀석은 양손으로 갈퀴를 치켜들고는 파초나무를 쓰러뜨렸다. 그러고는 입으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서너 자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니 돌판 하나가 덮여 있는 것이 보였다. 저팔계가 기뻐하며 말했다. “형님, 대박입니다! 정말 보물이 있나 봐요. 돌판으로 덮여 있네요. 항아리에 들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상자에 담겨 있는 걸까요?”

손오공이 말했다. “어서 들어 올려서 확인해 봐.”

저팔계가 다시 입으로 돌판을 밀어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눈부신 노을빛 같은 광채가 번쩍이고 하얀 기운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이 아닌가.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대박, 대박입니다! 보물에서 빛이 나요!”

그가 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살펴보니, 아! 알고 보니 그것은 달빛과 별빛이 비쳐 우물 속 물이 반짝이는 것이었다. 저팔계가 말했다. “형님, 일을 벌이시려면 뒷수습도 하셔야죠.”

손오공이 물었다. “뒤틀수습이라니, 내가 뭘 어떻게 해?”

저팔계가 대답했다. “이건 우물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거잖아요. 형님이 아까 절 안에서 우물에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짐을 묶을 밧줄 두 가닥을 챙겨 왔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래야 이 저팔계를 밑으로 내려보낼 것 아닙니까? 지금은 빈손인데, 저 안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꺼내 올린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네가 직접 내려가겠다고?”

저팔계가 말했다. “당연히 내려가야죠. 다만 밧줄이 없을 뿐입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네 옷을 벗어라. 내가 방법을 써 주마.”

저팔계가 말했다. “좋은 옷이라 게 뭐 있습니까? 이 겹옷만 벗으면 그만이지요.”

"자, 대성(大聖)님! 여의봉을 꺼내서 양끝을 잡고 '길어져라!' 하고 외쳐 보세요!"

손오공은 여의봉을 꺼내 양쪽을 잡고는 "길어져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여의봉이 순식간에 7~8장(丈)이나 되는 길이로 길어졌다. 손오공이 저팔계에게 말했다.

"팔계야, 네가 봉의 한쪽 끝을 붙잡고 있어라. 내가 너를 우물 속으로 내려보내 주마."

저팔계가 대답했다.

"형님, 편한 대로 내려보내 주세요. 다만 물가에 닿으면 그때 바로 멈춰주셔야 해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알았다."

저팔계가 쇠몽둥이를 붙잡자, 손오공은 그를 가볍게 들어 올려 우물 아래로 내려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팔계가 물가에 닿았다.

"물에 닿았어요!"

저팔계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손오공은 봉을 아래로 꼭 눌러버렸다. 저팔계는 머리부터 '퐁당' 하고 처박히며 쇠몽둥이를 놓치고 말았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이 천벌 받을 양반아! 물에 닿으면 멈춰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냇다 눌러버리면 어떡해!"

손오공은 여의봉을 다시 거두어 올리며 웃으며 물었다.

"동생아, 거기 보물 좀 있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보물은 무슨 보물이에요, 그냥 우물물뿐인걸요."

손오공이 말했다.

"보물이 물 밑바닥에 잠겨 있으니, 네가 직접 내려가서 한번 찾아보아라."

물놀이에 도가 튼 저팔계는 정말로 물속 깊이 몸을 던져 들어갔다. 그런데 아뿔싸, 우물 바닥이 어찌나 깊은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저팔계가 다시 한번 힘껏 잠수하며 내려가다 문득 눈을 뜨고 보니, 눈앞에 커다란 누각이 하나 서 있고 그 위에는 '수정궁'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저팔계는 깜짝 놀라 외쳤다.

"아이구, 망했다! 길을 잘못 들었네! 바다로 잘못 들어온 모양이야. 바다에나 수정궁이 있지, 우물 안에 어떻게 수정궁이 있단 말인가!"

알고 보니 저팔계는 이곳이 우물 속 룡왕이 다스리는 수정궁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저팔계가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물속을 순찰하던 야차가 서둘러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야차는 저팔계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급히 안으로 들어가 보고했다.

“대왕님, 큰일 났습니다! 우물 속에 입이 크고 귀가 커다란 스님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옷도 하나 걸치지 않았는데, 죽지도 않고는 당장 대답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우물 용왕(井龍王)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깜짝 놀라 외쳤다.

“그건 분명 천봉원수께서 오신 것이로구나! 어젯밤 야유신이 칙령을 받들어, 오계국 국왕의 혼을 데려가 당승을 배알하고 제천대성을 청하라는 명을 내렸다. 아마 제천대성과 천봉원수가 함께 오신 모양이니, 결코 소홀히 대접해서는 안 된다. 어서 그를 모셔 오너라!”

용왕은 의복과 관을 정돈하고 수중 신하들을 거느린 채 밖으로 나와 엄숙하고 높은 목소리로 외쳤다. “천봉원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앉으십시오!” 그제야 저팔계는 기뻐하며 말했다. “아이고, 알고 보니 옛 친구였구먼!” 저팔계는 앞뒤 사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수정궁 안으로 들어갔다. 몸이 온통 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채로 자리에 털썩 앉았다. 용왕이 물었다. “원수님, 근래에 목숨을 건지고 불교에 귀의하여 당승을 모시고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저팔계가 대답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왔소. 내 사형인 손오공이 인사를 전하라며,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라고 나를 보냈소.” 용왕이 탄식하며 말했다. “가엾게도, 제게 무슨 보물이 있겠습니까? 강이나 하천, 회수나 제수의 용왕들처럼 마음껏 날아다니며 변화무쌍하게 움직일 수도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곳에 갇혀 지내느라 해와 달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는데, 보물이 대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저팔계가 말했다. “사양 말고 있으면 그냥 내놓으시오.” 용왕이 말했다. “보물이 딱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꺼내기가 쉽지 않군요. 원수께서 직접

와서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팔계가 맞장구를 쳤다. “좋소, 아주 좋소! 반드시 직접 봐야겠구려.”

용왕이 앞장서서 걸어가자 저팔계가 그 뒤를 따랐다. 수정궁 전각을 돌아 들어가니 회랑 아래에 키가 여섯 자쯤 되는 몸뚱이 하나가 가로누워 있는 것이 보였다. 용왕이 손가락으로 그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원수님, 저쪽에 있는 것이 바로 보물입니다."

저팔계가 앞으로 다가가 살펴보니, 아뿔싸! 알고 보니 죽은 황제였다. 하늘 높이 솟은 관을 쓰고, 황갈색 도포를 입었으며, 무우리 신발을 신고 남전대띠를 맸는데, 그 모습 그대로 꼳꼳하게 누워 있는 게 아닌가.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에이, 어렵네, 어려워. 저게 무슨 보물이라고요? 이 몸이 산에서 요괴 노릇 할 때 저런 건 밥처럼 자주 먹었습니다. 본 게 얼마나 많은지는 둘째치고, 먹은 것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으니 저게 대체 무슨 보물이라는 말입니까?"

그러자 용왕이 말했다.

"원수님께서 정녕 모르시는구려. 저것은 본래 우계국 국왕의 시신이 라오. 우물 속에 들어온 뒤로 내가 정안주(얼굴을 변하지 않게 하는 구슬)로 보존해 두었기에 썩지 않은 것이오. 만약 원수께서 저것을 등에 업고 나가서 제천대성 손오공을 만나게 해준다면, 죽은 사람도 살려낼 신통력이 있을 터이니, 보물은커녕 원수께서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내어주겠소."

저팔계가 물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제가 업어다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만, 대신 저에게 매장할 때 쓰는 돈을 얼마나 주실 겁니까?"

용왕이 대답했다.

"사실 돈은 없소."

저팔계가 쏘아붙였다.

"사람을 아주 공짜로 부려 먹으려 드시는군요? 정말 돈이 없다면 안 업어다 드립니다!"

용왕이 말했다.

"안 업어다 준다면 그냥 가시오."

저팔계는 곧바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자 용왕이 힘센 야차 둘을 시켜 시신을 메어 나가 수정궁 문 밖 한쪽에 내려놓게 했다. 그리고 벽수주(물을 가르는 구슬)를 거두어 가니, 다시 물소리가 철썩이며 들려왔다.

저팔계가 급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수정궁 문은 간데없고 손에는 국왕의 시신만이 만져질 뿐이었다. 겁에 질린 저팔계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정신이 아득해져, 겨우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우물 벽을 붙잡은 채 외쳤다.

"사형, 여의봉을 좀 내려줘요! 나 좀 살려줘요!"

손오공이 물었다.

"거기 보물은 없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보물은 무슨요! 물밑에 우물 용왕이 있어서 죽은 사람을 등에 업고 올라오라고 했는데, 제가 안 업었더니 저를 문밖으로 획 밀어내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 수정궁은 안 보이고 이 시신만 만져지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손발에 힘이 다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형님, 제발 나 좀 살려줘요!"

손오공이 말했다.

"그 시신이 바로 보물인데, 왜 안 업고 올라오느냐?"

저팔계가 항변했다.

"이 사람이 죽은 지 얼마나 됐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업고 올라가요?"

손오공이 으름장을 놓았다.

"네가 안 업고 올라오면, 나는 그냥 돌아가겠다."

저팔계가 물었다.

"어디로 가시게요?"

손오공이 말했다.

"절로 돌아가서 스승님과 같이 자야겠다."

저팔계가 다급히 말했다.

"그럼 저만 여기 남으라는 거예요?"

손오공이 덧붙였다.

"네가 기어 올라올 수 있으면 데려가 줄 것이고, 못 올라오면 거기 그냥 있어라."

저팔계는 완전히 겁에 질려 소리쳤다.

"이걸 어떻게 올라가요! 생각 좀 해보세요. 성벽을 넘는 것도 힘든 데, 이 우물은 속은 넓고 입구는 좁은 데다 벽은 또 얼마나 가파른데요. 게다가 물을 안 쓴 지 몇 년이나 된 우물이라 벽 전체가 이끼로 뒤덮여서 엄청 미끄럽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기어 올라가라고요? 형님, 우리 사이에 이르기 없기예요. 제가 얼른 업고 올라갈 테니까 기다려 주세요!"

손오공이 말했다.

"그래, 어서 얼른 업고 올라와라. 그럼 같이 가서 자자꾸나."

그 미련한 저팔계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물속으로 쑥 뛰어들었다. 그는 시신을 더듬어 찾아낸 뒤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등에 업고는, 다시 물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우물 벽을 짚으며 외쳤다.

"형님, 다 업었어요!"

손오공이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 정말로 시신을 등에 업고 있었다. 그제야 손오공은 여의봉을 우물 밑바닥으로 내려보냈다. 그러자 저팔계는 짜증이 난 듯 입을 크게 벌려 여의봉을 덥석 물었고, 손오공은 그를 가볍게 들어 올려 밖으로 끌어올렸다.

저팔계는 시신을 내려놓고 자기 옷을 가져와 챙겨 입었다. 손오공이 살펴보니, 황제의 얼굴은 살아있을 때와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그대로였다. 손오공이 말했다. “이보게, 이 사람은 죽은 지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어찌 얼굴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단 말인가?” 저팔계가 대답했다. “자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군. 이 우물 용왕이 말해주길, 정안주(얼굴을 고정하는 구슬)를 사용해서 시신이 상하지 않게 붙잡아 두었다더군.” 손오공이 감탄하며 말했다. “허어,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첫째는 이 사람이 억울함을 풀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에게 큰 공을 세울 기회가 왔기 때문이로다. 어서 어깨에 메고 가세나.” 저팔계가 물었다. “어디로 메고 가라는 말인가?” “스승님께 모셔 가야지!” 저팔계는 입으로 투덜거렸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아주 잘 자고 있었는데, 저 원숭이 녀석이 달콤한 말로 꼬드겨서 무슨 대단한 장사라도 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 죽은 사람이나 메고 다니게 만들다니! 이 시신을 메고 가다가 더러운 물이라도 쏟아져서 옷이 젖으면, 누가 빨아준단 말인가? 게다가 내 옷은 여기저기 기운 데도 많은데, 날씨까지 흐리고 습하니 이걸 어떻게 입고 다녀?” 손오공이 말했다. “잔말 말고 일단 메고 가게. 절에 도착하면 내가 옷을 바꿔 입게 해주마.” 저팔계가 대꾸했다. “부끄럽지도 않나? 자네 입을 옷도 없으면서 내 옷까지 바꿔 입겠

다고?” 손오공이 쏘아붙였다. “그렇게 입만 살아서 나불댈 거면, 안 메고 말겠느냐?” 저팔계가 버럭 했다. “안 메!” 손오공이 말했다. “그럼 다리 쪽 뺀고 누워 있어라. 내가 몽둥이로 스무 대를 때려줄 테니.” 저팔계가 겁에 질려 외쳤다. “형님, 그 몽둥이는 아주 무겁단 말이요! 스무 대나 맞았다가는 나도 저 황제 꼴이 되고 말 거요!” 손오공이 말했다. “맞기 싫으면 얼른 메고 길을 떠나든가!” 저팔계는 정말로 매 맞는 것이 두려웠는지, 투덜거리면서도 시신을 끌어당겨 등에 업고는 어화원을 빠져나와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좋아, 대성!"

손오공이 주문을 외우며 손을 획 저었다. 그러고는 동남쪽 땅을 향해 숨을 크게 한 번 들이마신 뒤 힘껏 내뿜었다. 그러자 갑자기 거센 광풍이 몰아치더니, 저팔계를 황궁 안뜰에서 낚아채 성 밖으로 날려버렸다. 바람이 잦아들고 두 사람이 땅에 내려앉자, 손오공은 천천히 걸어 오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저팔계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손오공에게 복수할 궁리를 했다. '이 원숭이 녀석이 나를 골탕 먹이다니, 나도 절에 가면 똑같이 되잖아 주리라. 스승님께 가서 저놈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해야지. 만약 못 살린다면, 스승님께서 긴고주를 외우게 해서 저 원숭이의 뇌가 튀어나올 정도로 머리를 짹 조여버리게 할 테다. 그래야 내 속이 풀리지!'

저팔계는 길을 걸으며 다시 머리를 굴렸다. '아차, 안 되겠다. 만약 저놈이 정말로 사람을 살려버리면 어찌지? 저놈이 염라대왕에게 가서

죽은 혼을 빌려오기라도 하면 살려낼 수 있을 텐데. 스승님께는 절대로 저승에는 가지 말고, 이 세상 안에서만 사람을 살려내야 한다고 미리 말씀드려야겠다. 그래야 내 계획대로 될 거야.'

말을 마칠 새도 없이 산문 앞에 도착한 저팔계는 곧장 안으로 들어가 선당 문 앞에 시신을 툇 던져 놓았다. 그리고는 외쳤다.

“스승님, 일어나서 이것 좀 보세요!”

잠을 이루지 못하던 당삼장은 사오정에게 손오공이 저팔계를 꼬드겨서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는 상황을 설명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저팔계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당삼장은 황급히 몸을 일으키며 물었다.

“제자야, 무엇을 보라는 말이냐?”

그러자 저팔계가 대답했다.

“손오공의 외할아버지를 이 돼지가 등에 업고 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손오공이 쏘아붙였다.

“이 멍청한 녀석아, 나한테 무슨 외할아버지가 있다는 말이냐?”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형님, 외할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왜 이걸 등에 업고 오겠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당삼장과 사오정이 문을 열고 살펴보니, 국왕의 용모는 변하지 않아 마치 살아 있는 사람 같았다. 당삼장은 갑자기 처량한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 세상의 악한 자들을 어찌 모르셨습니까. 이번 생에 그들을 만나 몸을 망치고 처자식과 헤어지게 되었으니, 문무백관은 물론 조정의 관리들조차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가련한 왕비는 아무것도 모른 채, 누가 향을 피우고 차를 올리며 폐하를 모시겠습니까?” 당삼장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눈물을 비 오듯 흘렸다.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죽은 사람이 스승님과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십니까? 스승님 조상님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우시는 겁니까?” 당삼장이 말했다. “제자야, 출가한 사람은 자비심을 근본으로 삼고 방편을 문으로 삼아야 하거늘, 어찌 그리 마음이 모질단 말이나?” 저팔계가 대꾸했다. “마음이 모진 게 아니라,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분을 살려낼 수 있는 재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살려내지 못할 거였다면 제가 이 무거운 시신을 등에 업고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사실 당삼장은 마음이 약해져 있었는데, 저팔계의 녀석 좋은 말에 마음이 움직여 이렇게 외쳤다. “손오공, 만약 네가 정말 수단이 좋아 이 황제를 살려낼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목숨 하나를 구하는 것이 칠층탑을 세우는 것보다 낫다’는 말처럼 큰 공덕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영산에 가서 부처님께 절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야.”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저 녀석이 함부로 떠드는 말을 어찌 믿으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삼칠일(21일)이나 오칠일(35일), 또는 칠칠일(49일)과 백일(百日)을 지나 이승의 죄업을 다 받아내고 나서야 다시

태어나는 법입니다. 이미 죽은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살린단 말입니까?” 당삼장은 그 말을 듣고 “그만두자”라고 했다.

저팔계는 억울하다는 듯 멈추지 않고 말했다. “스승님, 저 녀석에게 속지 마십시오. 저놈은 머리가 좀 어떻게 된 놈입니다. 그저 스승님께 서 그 주문만 외우십시오. 그러면 저놈이 반드시 살아있는 사람을 데려올 겁니다.”

그러자 당삼장이 정말로 긴고주(머리테 조이는 주문)를 외웠고, 그 바람에 손오공은 눈이 어지럽고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느꼈다.

결국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이야기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39회 — 한 알의 단사가 하늘에서 얻 어지고, 삼 년 전의 주인이 세상에 태어 나다

一粒丹砂天上得 三年故主世間生

죄송합니다. 입력하신 내용인 `木母空]] | notes = }}`은 번역할 한문 본문이 아닌, 문서 편집용 코드나 메모로 보입니다.

번역할 **『서유기』의 한문 본문**을 한 단락씩 입력해 주시면, 설정된 번역 원칙과 [회 사실 시트], [등장 사전]에 따라 즉시 번역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손오공이 머리가 너무 아파 견디지 못하고 애원하며 말했다. “스승님, 제발 주문을 외우지 마세요. 제발요! 제가 고칠 테니까요.” 삼장이 물었다. “어떻게 고치겠다는 말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네 집에 그 사람의 혼령이 있는지 찾아본 다음, 혼령을 데려와서 살려내면 됩니다.” 그러자 저팔계가 끼어들었다. “스승님, 저놈 말 믿지 마세요. 아까는 저승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 세상에서 바로 살려낼 수 있다더니, 이제 와서 탄소리잖아요. 저게 실력이 없어서 저러는 겁니다.” 삼장은 손오공의 엉뚱한 소리에 속아 넘어가 다시 긴고주(머리테 조이는 주문)를 외우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손오공이 입을 놀리며 다급히 자백했다. “이 세상에서 고칠게요! 이 세상에서 고치겠습니다!” 저팔계가 옆에서 거들었다. “멈추지 마세요, 스승님! 계속 외우세요, 계속!” 손오공이 저팔계를 향해 욕을 퍼부었다. “이 미련한 짐승 같은 놈아! 네가 스승님을 부추겨서 나를 저주하게 만들다니!” 저팔계는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다. “형님, 형님! 형님은 나만 골라 놀리려고 하시고, 내가 형님을 골려주는 건 모르시나 보네!” 손오공이 다시 삼장에게 애원했다. “스승님, 제발 주문을 멈춰주세요. 제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삼장이 물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린다는 말이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제가 지금 당장 구름을 타고 남천문으로 날아가겠습니다. 투우궁이나 영소전에 들를 필요도 없습니다. 곧장 저 높은 삼십삼천 위, 이한천의 도솔궁으로 가서 태상노군을 만나 구전환혼단 한 알만 얻어오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분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삼장이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어서 가거라, 어서 돌아오너라.”

손오공이 말했다. “지금은 벌써 삼경(한밤중)이니, 다녀오면 곧 날이 밝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 누워 있는 모습이 너무나 차갑고 생기가 없어 보여서 영 아니랍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붙여서 울게 만들어야 제대로 된 모양새가 날 것 같습니다.”

저팔계가 말했다. "말 안 해도 뻔하네. 저 원숭이 녀석이 분명 나더러 울라고 시킬 게야."

손오공이 대꾸했다. "네가 안 울까 봐 겁나느냐? 네가 울지 않으면 나도 병을 고칠 수가 없단 말이다."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형님, 형님이 알아서 가세요. 나는 그냥 울고 있을 테니까요."

손오공이 가르치듯 말했다. "우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는 법이다. 입만 벌려 소리를 지르면 '호(嚎)'라고 하고, 눈물만 겨우 짜내면 '도(陶)'라고 하지. 눈물도 쏟아내고 마음속 깊은 슬픔까지 담아 울어야 비로소 '호도(嚎陶, 통곡)'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저팔계가 말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우는지 한번 보라!"

그러더니 저팔계는 어디서 종이 조각을 가져왔는지 돌돌 말아서 콧구멍에 쑥쑥 집어넣더니, 콧물을 퐁퐁 풀며 눈물을 똑똑 흘리기 시작했다. 눈은 눈물로 그렁그렁하고 입가에는 침이 줄줄 흐르는 것이, 정말로 울기 시작한 것이다. 입으로는 끊임없이 중얼중얼 이러쿵저러쿵 뉘두리를 늘어놓으니, 정말로 사람이 죽은 것 마냥 보였다. 그 슬픈 모습에 삼장법사조차 가슴이 미어지는 듯 눈물을 흘렸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바로 그렇게 슬프게 울어야지! 소리를 멈추면 안 된다. 이 어리석은 녀석아, 나를 속여 보내놓고는 안 울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다 듣고 있다. 만약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소리를 멈추면, 반드시 다리를 스무 대 때려줄 테다!"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가라, 얼른 가! 내 울음소리가 한 번 터지면 이들은 죽히 울 수 있으니까."

사오정은 저팔계가 구박받는 것을 보고는 향 몇 가지를 구해와 정성껏 불을 피워 올렸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좋아, 좋아! 모두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야 나도 힘을 내서 일할 맛이 나지."

손 대성, 때는 한밤중이었다. 손오공은 스승과 두 제자를 뒤로하고 구름을 타고 날아올라 남천문 안으로 들어갔다. 과연 그는 영소보전을 알현하거나 두우천궁에 들르지 않고, 구름을 타고 곧장 삼십삼천 이한 천의 도술궁으로 향했다.

궁문에 막 들어서니, 태상노군이 단방에 앉아 선동들과 함께 파초선을 들고 불을 지피며 금단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태상노군은 손오공이 오는 것을 보고 단약을 지키던 동자들에게 즉시 명령했다. "모두 주의를 기울여라! 단약을 훔치려는 도둑놈이 또 나타났다!"

손오공이 예를 갖추며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를 왜 그렇게 경계하시나요? 저는 이제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태상노군이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아, 오백 년 전 네가 천계에서 난동을 부릴 때 내 영단을 수없이 훔쳐 먹지 않았느냐. 그때 소성(小聖) 이랑진군에게 붙잡혀 상계로 끌려온 뒤 내 단로 안에서 마흔아홉 날 동안이나 단련되었고, 그동안 쓴 숫값도 얼마인지 모른다. 이제야 겨우 몸을 빼내어 불법에 귀의하고, 당승을 도와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

러 간다더니, 지난번 평정산에서는 마물을 항복시키며 까다롭게 굴어 내 보물을 내놓지도 않더니,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지난번 일이라면 저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어르신의 보물 다섯 가지를 그때 바로 돌려드렸는데, 어찌 도리어 저를 의심하고 탓하십니까?"

태상노군이 말했다. "네가 제 발로 걸어오지 않고, 어찌하여 내 궁에 몰래 잠입하였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을 뵙고 서쪽으로 가던 중 오계국이라는 나라를 만났습니다. 그 나라 왕이 도사로 변장한 요괴에게 당했습니다. 그 요괴는 비바람을 부리는 술법으로 왕을 해치고는, 왕의 모습으로 변해 금란전에 앉아 있습니다. 저희 스승님께서 밤에 보림사에서 경전을 읽고 계실 때, 죽은 왕의 혼령이 나타나 스승님께 절을 올리며 저와 함께 요괴를 물리쳐 선악을 밝혀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생 저팔계와 함께 밤중에 정원으로 들어가 꽃밭을 헤치며 찾아보니, 팔각 모양의 유리 우물 속에 왕의 시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신을 건져 올려 보니 얼굴이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찰에서 스승님을 뵙고 말씀드리니, 스승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에게 왕을 살려보라고 하셨습니다. 저승으로 가서 영혼을 구걸하지 말고, 이승에서 직접 구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도저히 되살릴 방법이 없어 이렇게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부디 도조(道祖)께서 가엽게 여기시어, 구전환혼단 천 알만 빌려주십시오. 제가 그것으로 왕을 구하고자 합니다."

태상노군이 말했다. "이 원숭이 녀석이 허튼소리를 하는구나! 천 알이니 이천 알이니, 그게 밥이냐? 그게 어디 흙덩이처럼 쉽게 굴러다니는 것인 줄 아느냐? 이놈! 어서 가거라! 없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백 알 정도만 주셔도 됩니다."

태상노군이 말했다. "없다니까!"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그럼 열 알이라도 좋습니다."

태상노군이 화를 내며 말했다. "이 고약한 원숭이 녀석이 끝까지 끈덕지게 구는구나! 없다, 없다고! 어서 나가라, 나가!"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로 없으시다면, 다른 곳에 가서 구해보겠습니다."

태상노군이 호통을 쳤다. "가라, 가!"

손오공은 몸을 돌려 곧장 앞으로 걸어 나갔다.

태상노군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원숭이 놈이 워낙 게으르고 제멋대로라, 가라고 해서 보냈다가 나중에 몰래 들어와 물건을 훔쳐 달아나면 어쩌나.' 그래서 즉시 선동을 불러 명령했다. "이 원숭이 녀석아, 네놈은 손버릇이 나쁘니 내가 이 구전환혼단 한 알을 따로 주마."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영감님, 제 수완을 그렇게 잘 아시면서 말씀은 참 길게 하시네요. 어서 금단을 꺼내서 저랑 반반씩 나눕시다. 그

리면 영감님께도 좋은 일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영감님 재산이란 게 통째로 털려버릴지도 모른다고요!"

태상노군은 호리병을 가져와 밑부분을 거꾸로 들어 올리더니, 금단 한 알을 툇 털어 손오공에게 건네며 말했다. "딱 이것뿐이다. 자, 가져가라. 이 한 알로 황제를 살려낸다면 그 공은 모두 네 것으로 해주마."

손오공은 그것을 받으며 말했다. "에이, 급할 거 없어요. 일단 가짜인지 아닌지 맛부터 좀 봐야겠으니, 속아서 헛수고하면 안 되잖아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손오공은 금단을 입안으로 획 던져 넣었다.

깜짝 놀란 태상노군이 급히 달려들어 손오공의 입을 붙잡으려 했으나, 손오공은 머리 윗부분을 짹 쥐고 주먹을 휘두르며 꾸짖는 노군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영감님도 참 속이 좁으시네. 누가 영감님 걸 뺏어 먹는다고 그래요?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알맹이는 적고 껍데기만 많은 거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알고 보니 손오공은 턱 아래에 음식을 잠시 머금어둘 수 있는 주머니가 있었다. 그는 금단을 그 주머니 속에 쑥 숨겨두었다. 태상노군은 손오공의 입안을 더듬으며 말했다. "어서 가라, 어서 가! 다시는 여기 와서 귀찮게 굴지 말고!"

그제야 손오공은 태상노군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도술천궁을 떠났다.

수천 갈래의 상서로운 빛이 요술 궁궐을 떠나고, 만 갈래의 상서로운 구름이 세상 속으로 내려앉았다. 순식간에 남천문을 지나 동관을 거

쳐 태양성 근처까지 내려온 손오공은 구름을 타고 곧장 보림사 산문 밖으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니 저팔계가 여전히 울어대고 있었다. 손오공이 가까이 다가가 "스승님!" 하고 외쳤다. 삼장법사가 기뻐하며 물었다. "오공아, 왔느냐? 단약은 가져왔느냐?" 손오공이 "예, 가져왔습니다"라고 답하자, 저팔계가 거들었다. "아니, 어떻게 안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저놈이 남의 것을 몰래 훔쳐 온 게 분명해요!"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보게 형제, 이제 저리 좀 가 있게. 자네는 필요 없으니까 눈물이나 닦고 다른 데 가서 울게나." 그러고는 사오정에게 "물 좀 가져오너라" 하고 시켰다. 사오정이 급히 뒤편 우물로 가서 바가지를 가져와 손오공에게 건넸다. 손오공은 물을 받아 입안에 머금고 있던 금단을 뱉어 우기국 왕의 입술에 갖다 댔다. 이어 두 손으로 왕의 이를 벌리고 깨끗한 물을 부어 금단을 목구멍 안으로 밀어 넣었다.

반 시간 정도 지나자 왕의 배 속에서 꾸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으나,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제 금단으로도 살릴 수 없다면 저를 잡아 죽이실 작정입니까?" 삼장이 말했다. "어찌 살아나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오랫동안 죽어 있던 시신이 어떻게 물을 삼킬 수 있었겠느냐? 이것이 바로 금단의 신령한 힘이다. 금단이 배 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창자가 울리는 것은 혈액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다만 기가 끊겼으니 몸을 움직이지 못할 뿐이다. 사람이 우물에 삼 년 동안 잠겨 있었다면 무쇠조차 녹이슬 텐데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다만 원기가 다했을 뿐이니, 누군가 숨을 불어넣어 기를 살려주기만 하면 된다."

저팔계가 얼른 나서서 숨을 불어넣으려 하자, 삼장이 급히 그를 붙잡으며 말했다. "안 된다, 오공이가 하게 두어라." 스승의 판단이 매우 정확했다. 본래 저팔계는 어릴 때부터 생명을 해치고 사람을 잡아먹으며 살아왔기에 탁한 기운을 품고 있었고, 손오공은 어려서부터 수행하며 소나무와 잣을 씹고 복숭아 열매를 먹으며 살아왔기에 맑은 기운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오공이 앞으로 나서서 입을 크게 벌려 왕의 입술에 대고 숨을 크게 훅 불어넣었다. 그 숨결은 식도를 지나 명당을 거쳐 단전에 이르렀고, 용천혈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 뇌원궁까지 닿았다.

손오공이 크게 한 번 숨을 내뿜자, 왕의 기운이 모이고 정신이 돌아오더니 몸을 뒤척이며 주먹을 쥐고 발을 구르며 외쳤다. "스승님!" 그는 흙먼지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말했다. "어젯밤 귀신이 찾아왔던 것은 기억나는데, 오늘 아침에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장이 당황하며 그를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다. "폐하,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제 제자에게 고마움을 표하십시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부터 '한 집에 주인이 둘일 수는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폐하께서 제게 절을 하셔도 전혀 손해 볼 것 없습니다."

삼장은 그저 기이하게 여길 뿐, 황제를 부축해 일으켜 선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저팔계, 손오공, 사오정과 함께 인사를 나눈 뒤에야 자리에 앉았다. 마침 보림사의 스님들이 아침 공양을 준비하여 올리려던 참이었는데, 갑자기 물에 흠뻑 젖은 옷차림의 황제가 나타나자 모두가 깜짝 놀라며 의아해했다.

손오공이 꺾충 뛰어 나오며 말했다. "스님들은 너무 놀라거나 의심 하지 마십시오. 이분은 원래 오계국의 왕으로 여러분의 진정한 주군이 십니다. 3년 전 요괴에게 목숨을 잃으셨는데, 바로 제가 오늘 밤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이제 성안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려낼 참이니, 만약 공양물이 준비되었다면 우리에게 내어주십시오. 얼른 먹고 길을 떠나야겠습니다."

스님들은 즉시 탕과 물을 올려 황제의 세수를 돕고 옷을 갈아입혔다. 황제가 입고 있던 자황색 도포를 벗긴 뒤, 사찰의 승려가 무명으로 만든 옷 두 벌을 가져와 입혔다. 푸른 옥띠를 풀어낸 자리에는 노란 비단 띠를 둘러 매어 주었고, 무우리(無憂履) 신을 벗긴 자리에는 남은 승려의 신발 한 켤레를 신겼다. 그리고 나서야 모두 아침 공양을 마친 뒤 말의 안장을 조였다.

손오공이 물었다. "팔계야, 네 짐이 얼마나 무겁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형님, 이 짐을 매일같이 짊어지고 다니느라 저도 정확히 얼마나 무거운지는 모르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그 짐을 두 덩이로 나누어라. 한 덩이는 네가 짊어지고, 나머지 한 덩이는 저 황제에게 맡겨라. 서둘러 성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저팔계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운수 대통이구나, 운수 대통이야! 아까 저놈을 데려올 때는 힘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른다. 이제 사람을 살려 놓으니 알고 보니 짐꾼 노릇을 할 놈이었구나!'

그 어리숙한 저팔계는 짐짓 엄숙한 척하며 짐을 나누었다. 그리고는 절에서 평평한 지계를 가져와서, 가벼운 쪽은 자기가 짊어지고 무거운 쪽은 황제가 짊어지게 했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폐하, 그렇게 차려입으신 모습으로 지계까지 짊어지고 저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괜찮으시겠어요?"

그러자 왕이 황급히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스님, 스님은 저에게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과 같습니다. 짐을 지는 것쯤이야 말씀 마십시오. 차라리 말채찍을 잡고 등자를 쥐며 스님을 모시고 서천으로 가는 길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서천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일단 성안까지 마흔 리 정도만 짊어지고 가십시오. 요괴를 잡고 나면 당신은 다시 황제가 될 것이고, 저희는 저희 갈 길을 가면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저팔계가 투덜거렸다. "그 말인즉슨, 저 사람은 고작 마흔 리만 가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못난 돼지는 계속 머슴 노릇이나 하라는 건가요?"

손오공이 꾸짖었다. "이 사람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앞장서서 길이나 안내해라."

저팔계가 황제를 앞장서서 인도하고, 사오정은 스승을 말에 태운 뒤 뒤를 따랐다. 보림사의 스님 오백 명이 모두 모여 악기를 연주하며 일제히 산문 밖까지 배웅을 나왔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님들, 멀리까지 배웅할 것 없습니다. 혹시 관가 사람들이 이 일을 알아차리고 우리의 비밀이 새어 나가면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어서 돌아가십시오. 어서요. 다만 황제의 의복과 관대를 깨끗이 정리해 두었다가,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쯤 성안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사례로 선물을 좀 챙겨 드리겠습니다."

스님들은 명을 받들어 모두 돌아갔다. 손오공은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스승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시로 이르되,

서방의 비결을 알면 참된 도를 찾기 쉬우나, 금과 목을 조화시켜야 신령한 기운을 단련하네. 단약의 어머니는 허망한 꿈만 품고 있고, 아이 같은 영혼은 육신의 굴레에 갇혀 한탄하네. 반드시 우물 밑에서 밝은 임금을 찾아야 하며, 또한 하늘나라에 올라 노군을 뵈어야 하리라. 색과 공의 이치를 깨달아 본성을 되찾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부처님이 인연 있는 자를 제도하는 것이로다.

스승과 제자들이 길을 가며 반나절쯤 지났을 때, 멀리 성곽이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다. 삼장이 말했다. "오공아, 저 앞이 아마 오계국일 것이다." 손오공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어서 성안으로 들어가 일을 처리해야겠습니다." 스승과 제자들이 성안으로 들어서니, 거리에는 사람들이 질서 정연하게 오가고 풍경은 북적이며 활기가 넘쳤다. 또한 화려한 궁궐과 누각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모습이 매우 웅장하고 장려했다. 이에 시로 이르되,

바다 건너 궁궐처럼 화려한 저 성곽은 인간 세상의 가무가 옛 당나라를 닮았구나. 보배로운 부채가 꽃을 맞이하니 붉은 구름이 감돌고 햇살은 고운 옷을 비추며 푸른 안개 빛을 내뿜네. 공작의 깃털 병풍이 펼쳐지니 향기로운 안개가 피어나고 진주 발은 걸히고 채색 깃발이 펄럭이네. 태평성대의 풍경은 참으로 경하할 만하니 관원들은 조용히 늘어서 있을 뿐 올릴 상소조차 없구나.

삼장이 말에서 내리며 말했다. "제자들아, 여기서 바로 조정에 들어가 통관문서를 바꾸자꾸나. 그래야 관아에 번거로운 일을 만들지 않을 게다."

손오공이 대답했다. "스승님 말씀이 옳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함께 들어가야 사람이 많으니 말하기도 수월할 겁니다."

삼장이 덧붙였다. "모두 들어가되,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먼저 군신 간의 예법을 갖춘 뒤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자."

손오공이 말했다. "예법을 갖추려면 절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삼장이 말했다. "그렇다. 다섯 번 절하고 세 번 머리를 조아리는 큰 예법을 행해야 한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스승님도 참 못 말리십니다. 만약 그자에게 절을 올린다면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일단 저를 먼저 안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자가 무슨 말을 하면 제가 대답할 테니, 제가 절을 하면 여러분도 절을 하고, 제가 굽히고 있으면 여러분도 굽히십시오."

사건을 일으키는 저 원숭이 왕을 보아라. 손오공은 조정 문에 이르러 각문대사에게 말했다. "우리는 동토 대당에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가는 사절단입니다. 지금 통관문서를 바꾸러 왔으니, 대인께서 전해주시면 선한 결과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환관이 단문으로 들어가 붉은 계단 아래 무릎을 꿇고 보고했다. "조정 문 밖에 다섯 명의 승려가 있습니다. 동토 대당에서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온 임금의 사절이라 하며, 통관문서를 바꾸러 왔는데 감히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그러자 요괴는 즉시 소식을 전하라 명했다.

한편, 삼장법사가 궁궐 안으로 들어가자 되살아난 오계국 왕이 그 뒤를 따랐다. 궁궐로 향하던 왕은 참지 못하고 뺨 위로 눈물을 흘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가엾기도 해라! 나의 소중한 강산과 굳건한 사직이 저 요괴에게 가로채이다니, 이를 어찌할꼬.' 그때 손오공이 말했다. "폐하,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혹여 소문이라도 날까 걱정됩니다. 제 여의봉이 지금 귀 근처에서 쿵쾅거리며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공을 세워 요괴를 때려잡고 사악한 것들을 쓸어버릴 테니, 이 강산은 머지않아 다시 폐하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왕은 손오공의 말을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며 죽기를 각오한 마음으로 그를 따랐다. 두 사람은 곧장 금란전 아래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문무백관과 사백 명의 조정 관리가 위엄 있고 엄숙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있었다.

손오공은 삼장법사를 이끌고 백옥 계단 앞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버텼다. 계단 아래에 있던 관리들은 모두 겁에 질려 수군거렸다.

"저 스님은 어찌 저리 어리석고 무지한가? 우리 왕을 뵙고도 어찌 절을 올리지 않는단 말인가? 인사 한마디 건네거나 축원하는 노래라도 불러야 할 것 아닌가? 참으로 대답하고 무례하구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요괴가 입을 열어 물었다.

"저 스님은 어느 나라에서 왔는가?"

손오공이 당당하게 대답했다.

"나는 남섬부주 동토 대당국에서 흠차(임무를 띠고 파견된 관리)의 명을 받들어, 서역 천축국의 대뢰음사에 가서 살아있는 부처님을 뵙고 참된 경전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다. 이제 이곳에 이르렀으니, 시간을 허비할 수 없어 통관문서를 교체하러 왔다."

그 말을 들은 요괴는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네놈이 동토에서 왔으면 다인가? 나는 네 나라에 조공을 바치지도 않고 교류도 하지 않는데, 어찌 감히 나를 대등하게 대하며 절을 올리지 않는단 말이냐?"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동토는 예부터 천하의 중심인 상국으로 일컬어져 왔고, 너희는 변방의 하국일 뿐이다. 예부터 이르기를, '상국의 황제는 아버지이

자 군주이며, 하국의 황제는 신하이자 아들이다'라고 하였다. 너는 아직 나를 맞이하지도 않았으면서, 어찌 감히 내가 절을 하지 않는다고 따지는 것이냐?"

요괴는 크게 분노하여 문무백관에게 명령했다.

"저 무례한 스님을 당장 잡아라!"

"잡아라!"라는 외침이 떨어지기 무섭게 관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그때 손오공이 호통을 치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꼼짝 마라!"

손오공이 손가락을 휘두르며 정신을 묶어버리는 정신법(定身法)을 쓰자, 관리들은 모두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정말이지 교위 앞의 병사들은 나무 인형 같았고, 장군 전의 장수들은 진흙 인형처럼 굳어버렸다.

요괴는 문무백관이 꼼짝 못 하고 굳어 있는 것을 보고는, 급히 몸을 날려 용상에서 뛰어내려 그들을 잡아 가려 했다. 손오공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생각했다. '좋아, 바로 내가 바라던 바다. 이참에 쇠로 만든 머리라 해도 몽둥이로 푹 삶아버리듯 구멍을 뺑 뚫어주마.'

손오공이 막 움직이려던 찰나, 뜻밖에도 곁에서 구원군이 나타났다. 그가 누구겠는가? 바로 오계국 태자였다. 태자는 급히 달려가 요괴의 관복을 붙잡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아바님,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요괴가 물었다. "얘야, 무슨 말이냐?"

태자가 대답했다. "아바님께 아뢰입니다. 삼 년 전, 동토 대당의 임금
을 모시는 성스러운 승려가 서천으로 불경을 구하러 간다는 소문을 들
었는데, 뜻밖에도 오늘 그분들이 우리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아바님은
성품이 위엄 있고 강직하시나, 만약 저 승려를 잡아 목을 베신다면 훗
날 대당에서 이 소식을 듣고 반드시 크게 노할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
오. 이세민은 스스로 왕위에 올라 천하를 통일하고도 만족하지 못해 바
다를 건너 정벌까지 나선 인물입니다. 만약 우리 왕께서 그분의 친척인
성승을 해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 군사를 일으켜 우리를 치러
올 것입니다. 그때 가서 병력이 적어 대항하지 못한다면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선 저 네 명의 승려를 불러
그 내력을 분명히 물으시고, 왕을 알현하지 않은 죄를 먼저 물으신 뒤
에 죄를 따지셔도 늦지 않습니다."

한편, 오계국 태자는 매우 신중한 인물이었다. 혹시라도 요괴가 삼
장법사를 해칠까 염려되어 일부러 요괴를 붙잡아 둔 것이었는데, 손오
공이 곧 싸움을 벌일 계획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요괴는 손오공
의 말을 믿고 용상 앞에 우뚝 서서 크게 외쳤다.

"그 스님은 언제 동토를 떠났느냐? 당나라 왕이 무슨 일 때문에 너희
에게 경전을 구하라고 명했던 말이냐?"

손오공이 당당하게 대답했다.

"우리 스승님은 당나라 왕의 친동생이신 삼장법사님이시다. 당나라
왕의 어전에 위징이라는 승상이 있었는데, 그가 천조(天條)를 받들어

꿈속에서 경하의 노룡을 베었다. 그 후 대당의 왕이 저승을 유람하고 다시 살아난 뒤에 수륙도량(물과 땅의 모든 영혼을 구제하는 법회)을 크게 열어 원혼과 악귀들을 널리 구제하셨다. 우리 스승님께서 경전을 널리 펼치며 자비로운 마음을 베푸시니, 문득 남해 관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받아 이곳 서쪽으로 오게 되신 것이다. 스승님께서 큰 원력을 세우고 기쁜 마음으로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였고, 이에 당나라 왕께서 직접 공문서인 문첩을 내려주셨다. 때는 대당 정관 13년 9월 보름 사흘 전, 동토를 떠나셨다. 이후 양계산에 이르러 나를 첫째 제자로 거두셨으니 성은 손이요 이름은 오공이라 하는 행자다. 또 오사국(烏斯國) 경계의 고가장에 이르러 둘째 제자 오능, 즉 저팔계를 거두었고, 유사하 경계에서 셋째 제자 오정 스님을 거두었으며, 엇그제 칙명으로 세운 보림사에서 집을 지는 어린 수행자 한 명을 새로 거두었다."

요괴는 이 말을 듣고도 삼장법사를 조사할 방법이 없자, 손오공을 말재주로 골탕 먹이려 눈을 부릅뜨고 물었다.

"그 스님 말이다! 처음에는 혼자 동토를 떠났다고 하더니, 나중에 네 제자 넷을 거두었다고? 그 세 스님은 그렇다 쳐도, 저 아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구나. 저 어린 수행자는 분명히 유괴해 온 것이 틀림없다! 이름이 무엇이며, 승려임을 증명하는 도첩(승려 신분증)이 있느냐? 당장 데려와서 심문하겠다!"

그 말에 오계국 왕은 겁에 질려 벌벌 떨며 말했다.

"스승님, 제가 대체 어떻게 증언을 한단 말입니까?"

손오공이 왕을 슬쩍 꼬집으며 말했다.

"겁내지 마세요.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릴 테니까요."

손오공은 성큼성큼 앞으로 나서며 요괴를 향해 엄한 목소리로 외쳤다.

"폐하, 이 스님은 말도 못 하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어릴 적에 서천을 다녀온 적이 있어 길을 아주 잘 알 뿐이지요. 이 스님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제가 낱알이 알고 있으니, 부디 폐하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제가 대신 죄를 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괴가 말했다. "어서 사실대로 죄를 고하도록 해라. 괜히 죄를 덮으려다 벌을 받지 말고."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시로 이르되,

어린 시절 철없이 살다 보니, 말 못 하고 귀도 먹어 집안을 망쳤네.
본래 이곳 태생인 사람이었으나, 오 년 전 큰 화를 당하고 말았도다. 하늘에 비는 내리지 않고 땅은 갈라지니, 임금과 백성 모두 정성을 다해 기도했네. 향을 피우고 몸을 씻으며 하늘에 빌었으나, 만 리 하늘엔 구름 한 점 없었도다. 백성들은 굶주림에 거꾸로 매달린 듯 괴로워할 때, 종남산에서 갑자기 요괴가 나타났네. 바람과 비를 부리는 신통력을 부리더니, 몰래 임금의 목숨을 해치고 말았도다. 정원을 지나 우물 속으로 밀쳐버리니, 임금의 자리를 찬탈하고 정체를 숨겼구나. 다행히 내가 와서 큰 공을 세웠으니, 죽은 이를 살려내어 근심을 없앴도다. 이제

스님의 수행을 돕고자 하니, 스님과 함께 서천으로 길을 떠나리라. 임금으로 변한 자는 요괴요, 요괴가 변한 자가 바로 진짜 임금이로다."

요괴는 금란전 위에서 이 말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급히 몸을 빼서 달아나려 했으나, 손에 쥔 무기가 하나도 없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마침 전각을 지키던 장군 하나가 허리에 보도를 차고 서 있었는데, 손오공이 정신을 잃게 만드는 정신법을 걸어놓은 탓에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요괴는 그에게 다가가 보도를 빼앗아 들고는 곧장 구름을 타고 하늘로 달아나 버렸다.

그 모습에 사오정은 천둥이 치듯 화를 냈고, 저팔계는 큰 소리로 외치며 손오공을 원망했다. "이 급한 원숭이 같으니라고! 좀 천천히 말하면서 저자를 붙잡아 두었어야지, 이제 구름을 타고 도망쳐 버렸으니 대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쫓아간단 말이야?"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형제들, 너무 소란 피우지 마라. 우선 태자가 내려와 아버님께 절을 올리게 하고, 왕비가 나와 남편에게 절을 하게 한 뒤, 내가 주문을 외워 정신을 잃은 관리들을 깨워 왕께 절을 올리게 해야 한다. 그래야 진짜 황제임을 알게 될 것이고, 앞서 일어난 일을 모두 밝히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터이니, 그 후에 내가 다시 저놈을 찾아 나서겠다."

그러고는 손오공이 저팔계와 사오정에게 당부했다. "너희는 여기서 우리 스승님과 왕과 신하들, 그리고 부자지간과 왕비가 무사하도록 잘 보살펴라."

말을 마친 손오공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요괴는 이미 구만리 상공 구름 위로 뛰어올라 눈을 부라리며 사방을 살피더니, 목숨만은 건졌다는 듯 곧장 동북쪽을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손오공이 뒤쫓아 거의 다 따라잡았을 때, 손오공이 크게 꾸짖으며 외쳤다. “이 괴물 녀석, 어디를 가느냐! 이 몸이 왔다!” 요괴가 급히 뒤를 돌아보며 보도(寶刀)를 뽑아 들고는 소리쳤다. “손오공, 이 지독한 놈! 내가 남의 왕 자리를 차지하겠다는데 너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왜 나타나서 참견하며 내 비밀을 폭로하는 것이냐!” 손오공이 허허 웃으며 대꾸했다. “이 간덩이 부은 괴물 놈을 보게! 황제가 너더러 왕을 하라고 허락이라도 했더냐? 내가 손오공인 줄 알면서도 도망치기는커녕, 어찌 우리 스승님을 괴롭히며 증거 서류 따위를 요구한단 말이냐? 방금 그 서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해 보아라! 도망가지 마라, 진정한 대장부라면 이 손오공의 몽둥이를 받아내 보아라!” 요괴는 몸을 옆으로 틀어 공격을 피하더니, 보도를 휘둘러 손오공의 얼굴을 향해 맞아쳤다. 두 존재가 격렬하게 맞붙으니 그 싸움이 실로 대단했다.

시로 이르되, 원숭이 왕은 용맹하고 요괴 왕은 강하니, 칼과 몽둥이가 맞부딪쳐 기세가 팽팽하구나. 구름과 안개가 온 세상을 뒤덮으니, 한 나라의 왕을 세우려 싸움이 끊이지 않네.

두 사람이 몇 합을 주고받던 중, 요괴가 손오공의 기세를 이기지 못하자 급히 몸을 돌려 왔던 길을 따라 성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요괴는 백옥 계단 앞 문무백관들 사이로 뛰어들어 몸을 흔들더니, 순식간에 삼장법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변신하여 계단 앞에 공손히 서 있었다. 손오공이 뒤쫓아와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휘두르려 하자, 요괴가 다급히 말했다. “제자야, 때리지 마라! 나다!” 손오공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삼장

법사를 때리려다가도, 또 다른 삼장법사가 말하자 다시 멈칫하며 말했다. “제자야, 때리지 마라! 나다!” 똑같이 생긴 삼장법사가 둘이나 있으니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었다. 손오공은 생각했다. ‘만약 요괴가 변신한 삼장법사를 때려죽인다면 공을 세우는 것이겠지만, 만약 진짜 우리 스승님을 때려죽인다면 이를 어찌 감당한단 말인가?’ 결국 손오공은 손을 멈추고 저팔계와 사오정을 불러 물었다. “정말로 누가 요괴이고 누가 내 스승님이냐? 너희가 가리켜 보아라, 그래야 내가 저놈을 칠 것 아니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공중에서 서로 싸우고 소리 지르며 싸우시길래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았습니다만, 스승님이 두 분이나 계시니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손오공이 그 말을 듣고는 주문을 외우며 결인을 맺었다. 그는 호법 천신과 육정육갑, 오방계제, 사치공조, 그리고 열여덟 위 호가가람과 그 땅을 지키는 토지신, 본향의 산신들에게 간절히 청했다.

"이 몸이 요괴를 잡으러 왔는데, 요괴가 스승님으로 변했으니 기운이 똑같아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구나. 너희는 몰래 신호를 보내 스승님을 대전 위로 모셔라. 그래야 내가 저 요괴를 잡을 수 있겠다!"

알고 보니 그 요괴는 구름과 안개를 타고 움직이는 데 능했다. 손오공의 말을 들은 요괴는 재빨리 손을 뿌리치고는 금란보전 위로 훌쩍 뛰어 올라갔다. 그러자 손오공은 여의봉을 치켜들고 당승을 향해 내리쳤다. 가련하게도, 만약 손오공이 신들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이 일격에 당승이 스무 명이라 해도 모두 고깃덩어리가 되었을 것이다! 다행히 신들이 나타나 철봉을 붙들며 말했다.

"대성, 저 요괴가 구름을 타고 먼저 대전 위로 올라갔습니다!"

손오공이 급히 대전으로 쫓아갔으나, 요괴는 다시 아래로 뛰어 내려와 당승을 붙들고는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헤집고 다녔다. 여전히 요괴를 알아보기란 쉽지 않았다.

손오공은 마음이 불편한데, 옆에서 저팔계가 비죽비죽 웃는 것을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이 멍청한 녀석이 왜 이래? 이제 스승님이 두 분이냐 계시니, 너는 부르면 대답도 하고 모실 사람도 생겨서 아주 신이 났구나!"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저를 멍청하다고 하시는데 형님이 저보다 더 멍청하세요. 스승님이 누군지 알아보지도 못할 텐데 힘써서 뭐 하겠어요? 그냥 머리 아픈 걸 좀 참으면서 스승님께 그 주문을 외워달라고 하세요. 저랑 사오정이 양쪽에서 붙잡고 잘 듣고 있을게요. 만약 주문을 제대로 못 외운다면 그건 분명 요괴일 테니, 뭐가 어렵겠어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 녀석, 참 기발하기도 하구나. 맞아, 그 주문은 딱 세 사람만 알고 있지. 원래 여래 부처님의 마음에서 싹튼 것이 관음보살님께 전해졌고, 보살님이 다시 우리 스승님께 전해주신 것이라 그 뒤로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됐어, 스승님, 어서 주문을 외워주세요."

그러자 정말로 당승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요괴가 그 주문을 어찌 알겠는가. 요괴는 입으로 웅얼웅얼 엉뚱한 소리만 내뱉었다.

저팔계가 외쳤다.

"저 웅얼거리는 소리를 보니 딱 요괴네!"

저팔계는 손을 놓음과 동시에 쇠갈퀴를 치켜들고 내리쳤다. 요괴는 몸을 뒹 날려 구름을 타고 도망쳐 버렸다.

"좋아, 팔계야! 소리 한번 크게 지르고 구름을 타고 얼른 따라잡자!"

저팔계가 소리를 지르며 구름을 타고 쫓아갔다. 사오정은 갑자기 삼장법사를 놓치자 당황하여 보장(寶杖)을 뽑아 들고 공격했다. 그제야 삼장법사가 주문을 멈추었다. 손오공은 머리가 깨질 듯한 통증을 참으며 여의봉을 움켜쥐고 공중을 가로질러 달려갔다.

아! 이 싸움은 가히 장관이었다. 세 명의 용맹한 승려가 한 마리 악랄한 요괴를 에워싸고 몰아붙이는 형국이었다. 요괴는 저팔계의 갈퀴와 사오정의 보장 사이에 끼어 좌우로 몰매를 맞으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본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가서 놈과 정면으로 맞붙어야겠구나. 놈이 나를 보고 겁을 먹긴 했지만, 또 도망칠까 걱정이야. 내가 좀 더 높이 뛰어올라 놈을 마늘 까듯 사정없이 두들겨 패서, 이번 기회에 아주 끝장을 내버리겠다!"

손오공이 상서로운 빛을 뿜으며 구만리 상공으로 솟구쳐 올라, 막 요괴를 내려치려던 참이었다. 그때 동북쪽 채운 속에서 누군가 매서운 목소리로 외쳤다.

“손오공, 그만 멈추어라!”

손오공이 고개를 돌려 보니, 바로 문수보살이었다. 손오공은 급히 여의봉을 거두고 앞으로 나아가 예를 갖추며 물었다.

“보살님, 어찌 오셨습니까?”

문수보살이 대답했다.

“내가 너를 대신해 이 요괴를 거두러 왔다.”

손오공이 감사를 표했다.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보살이 소매 안에서 조요경(요괴를 비추는 거울)을 꺼내자, 요괴의 본모습이 거울 속에 그대로 드러났다. 손오공은 저팔계와 사오정을 불러 함께 보살을 뵈게 했다. 거울 속에 비친 요괴의 형상은 참으로 흉악하기 그지없었다.

시로 이르되,

눈은 유리잔처럼 번뜩이고 머리는 가마솥처럼 둥그스름하네 온몸은 짙은 남색 빛깔인데 네 발톱은 서리 맞은 듯 차갑구나 길게 늘어진 두 귀에 꼬리는 빗자루처럼 길고 푸른 털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서렸으며

붉은 눈에서는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네 가지런한 이빨은 옥판 같고
뾰뾰한 수염은 창끝 같으니 거울 속에 비친 참모습을 보니 본래 문수보살의 사자 왕이었구나.

손오공이 물었다. "보살님, 이놈은 보살님 곁을 지키던 푸른 털 사자 아납니까? 어찌하여 도망가서 요괴가 되었는데, 보살님께서 직접 거두지 않으셨단 말입니까?"

문수보살이 대답했다. "손오공, 이놈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명을 받고 이곳에 온 것이란다."

손오공이 다시 말했다. "짐승 같은 놈이 요괴가 되어 왕의 자리까지 빼앗았는데, 부처님의 명을 받들고 왔다고요? 저와 삼장법사가 고생하는 것도 부처님의 명이라면, 저에게도 칙령을 몇 장 내려주셔야겠습니까."

문수보살이 설명했다.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구나. 예전에 우기국 왕은 수행을 즐기던 선량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나를 보내 그를 제도하여 극락으로 인도하고, 금신나한(金身羅漢, 황금빛 몸을 가진 나한)의 경지에 이르게 하려 하셨지. 그런데 본래의 모습 그대로 나타날 수는 없기에, 평범한 승려로 변신하여 그에게 공양물을 청했단다. 하지만 그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내 말을 비웃으며 나를 밧줄로 꼬꼬 묶어 어수하에 던져버렸지. 거기서 사흘 밤낮을 물속에 잠겨 있었다. 다행히 육갑금신(六甲金身, 신령한 힘)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가 여래께 이 사실을 고할 수 있었지. 그러자 여래께서 이 괴물에게 명령을 내려, 이곳 우물에 빠뜨려 사

흘 동안 물고생을 했던 내 원한을 갚도록 3년 동안 물속에 잠기게 하라고 하셨느니라. '한 모금 마시고 한 번 쪼는 것조차 모두 정해진 운명이라'더니, 오늘 너희가 이곳에 와서 이 일을 해결했으니 큰 공을 세운 셈이다."

손오공이 말했다. "보살님께서 '운명'이라며 사적인 원한을 갚으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저 괴물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쳤겠습니까?"

문수보살이 말했다.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단다. 이놈이 온 뒤로 지난 3년 동안 날씨는 화창하고 나라는 평안했으니, 해를 끼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손오공이 대꾸했다. "그렇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세 명의 왕비가 요괴와 한 침대에서 자고 일어났으니, 이미 몸을 더럽히고 인륜을 무너뜨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실 겁니까?"

문수보살이 말했다. "몸을 더럽힐 염려도 없다. 저놈은 거세된 사자니까 말이다."

그 말을 들은 저팔계가 가까이 다가가 슬쩍 만져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이 요괴 놈, 정말 이름값도 못 하는군요. 술도 못 마시는 코쟁이이니 말이에요!"

손오공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데려가십시오. 보살님께서 직접 오신 게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로 저놈의 목숨을 살려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보살이 주문을 외우더니 호통을 쳤다. “이 짐승 같은 놈아, 어서 죄를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오지 않고 무엇을 더 기다리느냐!”

그러자 요괴는 그제야 본모습을 드러냈다. 보살은 연꽃으로 요괴를 덮어 꼼짝 못 하게 가둔 뒤, 그 위에 올라타 상서로운 빛을 밝으며 손오공과 작별을 고했다.

어라! 보살은 곧장 오대산으로 올라가 보련좌 아래에 앉아 경전을 듣기 시작했다.

결국 당승 일행이 어떻게 성을 빠져나가게 될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40회 — 아기가 노닐며 선심을 어지럽히고, 원숭이와 말의 싸움이 칼날이 되다

嬰兒戲化禪心亂 猿馬刀{{另}}

나무의 어머니(木母)는 허망하고, 한 알의 단사(丹砂)가 하늘에서 내려와, 삼 년 전 주인은 세상에 태어났도다.

마음의 원숭이(心猿)는 불길에 패하고, 나무의 어머니(木母)는 마귀에게 붙잡히는구나.

한편, 손오공 형제 세 사람은 구름을 타고 곧장 오계국의 궁궐로 향했다. 궁궐에 도착하니 국왕과 신하들, 그리고 왕후가 모여 앉아 은혜에 감사하며 예를 올리고 있었다. 손오공은 문수보살이 마를 굴복시키고 요괴를 물리쳤던 일을 국왕과 신하들에게 상세히 들려주었고, 그들은 모두 감격하여 머리 숙여 절을 올렸다.

모두가 축하를 나누며 즐거워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내관이 달려와 보고했다. “주상 전하, 밖에 스님 네 분이 찾아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저팔계가 겁에 질려 말했다. “형님, 혹시 요괴가 도술을 부려 문수보살로 변신해 우리를 속이더니, 이번에는 스님으로 변해서 우리와 머리싸움을 하려는 것 아닙니까?”

손오공이 대꾸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그리고는 즉시 내관에게 사람을 들여보내 상황을 살피게 했다.

문무백관이 명령을 내려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게 했다. 손오공이 보니, 바로 보림사의 승려가 충천관과 벽옥띠, 적황포와 무우리(근심 없는 신발)를 받들어 들고 들어오고 있었다. 손오공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잘 왔네, 아주 잘 왔어!” 그리고는 도인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여 머리에 쓴 수건을 벗기고 충천관을 씌워주었다. 베로 된 옷은 벗기고 적황포를 입혀주었으며, 끈은 풀어 벽옥띠를 매어주고 승려의 신발은 벗긴 뒤 무우리를 신겨주었다. 이어 태자에게 백옥 규를 꺼내어 손에 쥐여주게 한 뒤, 어서 대전에 올라 스스로를 '고(孤, 임금이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라 칭하라고 일렀다.

옛말에 "조정에는 하루라도 임금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하지만 국왕은 차마 앉아 있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계단 아래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제가 죽은 지 이미 3년이나 되었는데, 이제야 스승님의 도움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찌 감히 함부로 임금 행세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스승님을 임금으로 모시겠습니까. 저는 그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가 평범한 백성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삼장법사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부처님께 절하며 경전을 구하는 데만 마음이 가 있었다. 이에 국왕은 다시 손오공에게 청했다. 손오공은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께 숨김 없이 말씀드리자면, 이 손오공이 마음만 먹으면 천하 만국과 구주의 황제 자리를 다 돌아가며 맡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스님 노릇에 너무 익숙해져서 몸이 게을러졌을 뿐이지요. 만약 황제가 된다면 머리도 길게 기르고 다녀야 하고, 해 저물어도 잠들지 못하며 새벽녘까지 눈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변방에서 소식이라도 들려오면 마음이 불안할 것이고, 재앙이나 흉년이라도 닥치면 근심에 잠겨 어찌할 바를 모르겠지요. 저희가 어찌 그런 삶을 견디겠습니까? 임금님은 계속 임금을 하시고, 저는 제 갈 길을 가며 스님으로서 공덕을 쌓겠습니다."

국왕은 간곡히 권했으나 뜻을 돌릴 수 없었기에, 결국 보전에 올라 남쪽을 향해 스스로를 '고'라 칭하며 천하에 사면령을 내렸다. 그리고 보림사의 승려에게는 봉작을 내려 돌려보냈다. 그제야 동쪽 전각을 열어 삼장법사 일행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한편, 궁궐에서는 화공을 불러 삼장법사 일행 네 사람의 기쁜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 금란전에 모시도록 명했다.

스승과 제자들은 나라를 편안히 다스려 놓은 뒤, 오래 머물지 않고 서천을 향해 떠나려 했다. 오계국 국왕은 세 명의 왕비와 태자, 그리고 여러 신하와 함께 나라를 지키는 보물과 금은보화, 비단 등을 삼장법사에게 바치며 은혜에 보답하려 했다. 하지만 삼장법사는 이를 조금도 받지 않고, 그저 통행 문서(관문)에 도장을 받아 바꾸게 한 뒤 손오공 일행에게 서둘러 말을 챙겨 길을 떠나자고 재촉했다.

국왕은 그 모습에 못내 아쉬워하며, 정중히 어좌를 마련해 삼장법사를 모시게 했다. 문무백관이 앞뒤로 길을 안내하는 가운데, 국왕은 세 왕비와 태자 일행과 함께 수레를 밀고 길을 닦으며 성 밖까지 배웅했다. 성문을 나서서야 비로소 국왕은 수레에서 내려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국왕이 말했다.

“스승님, 서천에서 경전을 가져오시는 날에는 반드시 저희 나라에 다시 들러 주셔야 합니다.”

삼장법사가 대답했다.

“제자가 명을 받들겠습니다.”

국왕은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을 글썽였고, 이윽고 신하들과 함께 궁으로 돌아갔다.

한편, 당삼법사 일행 네 사람은 좁고 험한 산길에 올라 오로지 영산을 향해 예배할 생각뿐이었다. 마침 가을이 저물고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는데, 풍경은 이러했다.

서리 내려 붉은 잎 떨어진 숲은 앙상하고, 비 내려 익은 곡식은 곳곳에 가득하구나. 따스한 햇살에 고개 너머 매화는 새벽빛 속에 피어나고, 바람에 흔들리는 산죽은 차가운 소리를 내는구나.

스승과 제자들이 오계국을 떠나 밤에는 쉬고 낮에는 길을 재촉하며 반 달 남짓을 나아갔다. 그러다 문득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해를

가릴 만큼 거대한 산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다. 삼장법사는 말 위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급히 고삐를 돌리며 손오공을 불렀다.

“손오공아!”

손오공이 물었다.

“스승님, 무슨 분부십니까?”

삼장법사가 말했다.

“앞을 보아라. 또다시 험준한 산맥이 나타났구나. 혹시라도 사악한 요괴가 나타나 나를 해칠까 두려우니 부디 주의를 기울여야겠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그저 길을 가기만 하세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이 손오공이 알아서 잘 지켜낼 테니까요.”

그제야 노승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채찍질을 하며 말을 몰아 산 기슭에 다다르니, 과연 산세가 매우 험준했다. 그 모습이 이러하였다.

시로 이르되,

높기는 어찌나 높은지 산꼭대기가 푸른 하늘에 맞닿았고, 깊기는 어찌나 깊은지 계곡은 마치 저승과 같구나. 산 앞에는 하얀 뼈처럼 구름이 흩날리고, 검은 안개가 소용돌이치네. 붉은 매화와 푸른 대나무, 초록빛 측백과 청송이 어우러져 있으나, 산 뒤에는 영혼을 가두는 만장 높이의 절벽이 솟아 있고, 절벽 뒤에는 괴이한 마귀가 숨어 있는 동굴

이 있네. 동굴 안에는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샘이 흐르고, 샘 아래로는 굽이굽이 물길이 이어지네. 하늘을 뛰어넘고 땅을 뚫는 원숭이들이 과일을 따고, 빨 달린 사슴들이 숲 사이를 누비며, 멍하니 사람을 바라보는 노루들도 보이네. 밤이면 바위산에서 굴을 찾는 호랑이가 나타나고, 새벽이면 물결을 일으키며 솟구치는 용이 꿈틀대네. 동굴 문에 다 다르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놀란 새들은 푸드덕거리며 날아 오르네. 숲속 짐승들은 급히 발걸음을 옮기는데, 이 짐승과 새들의 무리를 마주하면 사람의 간담이 서늘해지리라. 동굴은 웅장하고도 신비로우며, 푸른 돌은 천 개의 옥처럼 빛나고, 푸른 비단 같은 안개가 만 개의 구름처럼 감싸 안았구나.

스승과 제자들이 한창 겁에 질려 있을 때, 산골짜기 사이에서 붉은 구름 한 덩이가 솟구쳐 오르더니 하늘 높이 치솟으며 거대한 불덩이처럼 뭉쳐지는 것이 보였다. 손오공이 깜짝 놀라 급히 다가가 삼장법사의 발을 붙잡고 말에서 내려오게 하며 외쳤다. "형제들아, 더는 가면 안 돼! 요괴가 나타났다!" 그 소리에 놀란 저팔계는 급히 갈고리창을 움켜쥐었고, 사오정은 서둘러 보석 지팡이를 휘두르며 삼장법사를 가운데 두고 둥글게 에워싸 보호했다.

이야기는 두 갈래로 나뉜다. 한편, 붉은 빛 속에서 나타난 존재는 참으로 무시무시한 요괴였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동토의 당승이 서천으로 경전을 구하러 가는 것은 금선장로가 환생한 것이라, 열 번의 생을 거쳐 수행한 덕망 높은 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 고기 한 점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수명이 늘어나 천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이다. 그는 매일같이 산속에서 그들을 기다려 왔는데, 마침 오늘 그들이 나타난 것이다.

공중에 떠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요괴는 세 제자가 삼장법사를 말 위에 태우고 겹겹이 에워싸며 경계하는 모습을 보았다. 요괴는 속으로 감탄을 금치 못하며 중얼거렸다.

"종구나, 저 스님! 얼굴이 하얗고 통통한 스님이 말을 타고 가는 걸 보니 정말로 당나라의 성스런 스님이 맞군. 그런데 어찌 저렇게 못생긴 스님 셋이 호위하고 있는 거지? 하나같이 주먹을 쥐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무기까지 들고 있으니, 금방이라도 싸울 기세로구나. 에이, 저놈들 중에 눈치 빠른 놈이 있어서 나를 알아채면 어쩌나. 저런 모양새라면 당승의 고기를 먹기는 쉽지 않겠어."

요괴는 한참을 생각에 잠기더니,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며 꾀를 내었다.

"기세에 눌려 억지로 잡으려 하면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겠지. 차라리 착한 모습으로 속여서 넘어오게 만드는 게 낫겠다. 스님의 마음을 홀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든 뒤, 선한 모습으로 기회를 엿보다가 단번에 낚아채는 거야. 좋아, 일단 내려가서 한번 골려줘야겠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

요괴는 이 소리가 들리자마자 붉은 빛을 뿜어내며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 그러고는 산비탈로 내려가 몸을 흔들며 둔갑하더니,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일곱 살짜리 어린아이로 변했다. 요괴는 아이의 손과 발을

삼베 밧줄로 뽕뽕 묶은 채 소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입만 열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연극을 시작했다.

한편, 손오공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다시 살펴보니 붉은 구름은 이미 흩어지고 불기운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어서 말에 올라타서 길을 떠나시지요.” 삼장법사가 물었다. “네가 요괴가 나타났다고 하더니, 어찌하여 다시 길을 가자고 하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붉은 구름이 땅에서 솟구쳐 하늘에서 한 덩어리의 불기운으로 뭉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분명 요괴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붉은 구름이 사라진 것을 보니, 아마도 지나가던 요괴라 사람을 해칠 마음은 없는 모양입니다. 이제 어서 가시지요.” 그러자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은 말씀도 참 잘 하시네요. 지나가는 요괴가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손오공이 대꾸했다. “네가 뭘 알겠느냐. 만약 어떤 산이나 동굴의 마왕이 잔치를 열어 여러 산과 동굴의 요괴들을 초대했다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온 요괴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러니 그저 잔치에 참석하느라 마음이 급할 뿐, 사람을 해칠 생각은 없겠지. 그런 요괴를 바로 지나가는 요괴라고 하는 것이다.”

삼장법사는 그 말을 듣고도 믿는 듯 마는 듯한 표정으로, 그저 말안장에 올라타 길을 따라 산을 넘어 앞으로 나아갔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람 살려!"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삼장법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제자야, 저 산 중턱에서 들리는 저 소리는 대체 누구의 목소리냐?" 손오공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스승님, 그저 앞만 보고 걸으십시오. 가마니든 노새 가마든, 화려한 가마든 잠자리 가마든, 누

구를 태우러 온 것이 아니니 신경 쓰실 것 없습니다. 이 근처에는 가마가 있어도 그것을 메고 올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삼장법사가 말했다. "가마를 메고 오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냐." 손오공이 웃으며 대답했다. "알고 있으니 쓸데없는 참견 마시고 어서 가거나 하시지요."

삼장법사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말을 채찍질하며 나아갔다. 그러나 채 1리도 가지 못해 또다시 “사람 살려!” 하는 외침이 들려왔다. 삼장법사가 말했다.

“제자야, 저 외침은 귀신이나 요괴의 소리가 아니란다. 만약 귀신이나 요괴라면 소리는 나도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는 법이지. 그런데 저 소리를 들어보렴. 한 번 부르고 또 한 번 부르는 것을 보니, 분명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임이 틀림없구나. 우리가 가서 구해주어야겠다.”

그러자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오늘은 그 자비로운 마음을 잠시만 접어두세요. 이 산을 무사히 넘고 나서 다시 자비를 베푸시라고요. 이곳은 운수가 사나워 흉한 일이 생길 곳입니다. 풀이나 나무에 의지해 요괴가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다른 건 몰라도 구렁이나 뱀 같은 것들은 수행을 오래 하고 깊게 하면 요괴가 되어 사람의 이름을 꿰뚫어 보기도 합니다. 만약 저 요괴가 풀숲이나 산골짜기에 숨어 있다가 사람을 불러냈을 때, 사람이 대답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만약 대답이라도 하는 날에는 저놈이 사람의 원신(참된 정신)을 낚아채서 그날 밤 바로 뒤쫓아와 사람 목숨을 해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어서 피해야 합니다, 어서요!”

손오공이 덧붙였다.

“옛말에 ‘위기를 벗어나면 신령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저 소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삼장법사는 어쩔 수 없이 손오공의 말을 따르며, 다시 채찍을 휘둘러 말을 재촉해 떠났다.

손오공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 요괴 녀석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나를 불러대니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특별한 법술을 하나 써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어 주마.'

그러더니 손오공은 큰 소리로 외치며 사오정을 불러 세웠다. "사오정, 말들을 묶어 놓고 천천히 가자꾸나. 나 좀 볼일 좀 보고 오마."

그러고는 삼장법사에게 몇 걸음 앞서 가라고 말한 뒤, 주문을 외우며 산을 옮기고 땅을 줄이는 신통력을 부렸다. 손오공이 여의봉을 뒤로 휩 가리키자, 스승과 제자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봉우리를 넘어 저만치 앞서 나갔고, 요괴는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지고 말았다.

손오공은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여 삼장법사의 뒤를 따라 산을 향해 달렸다. 그런데 삼장법사의 귀에 산 너머에서 들려오는 비명 소리가 다시 들렸다. "사람 살려!"

삼장법사가 말했다. "제자야, 저렇게 곤경에 처한 사람은 우리와 인연이 닿지 않는 모양이구나. 우리가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았어. 저 소리 좀 들어보렴, 산 뒤편에서 울부짖고 있구나."

저팔계가 말했다.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아직 산 앞쪽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손오공이 말했다.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든 무슨 상관입니까, 일단 걷거나 합시다."

그리하여 일행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 걸음이라도 빨리 이 산을 넘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춘다.

한편, 요괴는 산비탈에서 서너 번이나 소리를 질렀으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요괴는 속으로 생각했다. '당승 일행이 여기 있으니, 여기서 멀어야 3리 안쪽일 텐데 어째서 이토록 한참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는 거지? 아마 뒷길로 돌아가고 있는 모양이구나.' 요괴는 몸을 한 번 흔들어서 밧줄을 풀어낸 뒤, 붉은 빛을 내뿜으며 공중으로 솟구쳐 올라 위에서 다시 살폈다.

그때 마침 하늘을 올려다보던 손오공이 요괴임을 알아채고, 당승의 발을 붙잡아 말에서 내려놓으며 외쳤다. "형제들아, 조심해라, 조심해! 요괴가 또 온다!" 그 소리에 당황한 저팔계와 사오정이 각각 갈퀴와 곤봉을 움켜쥐고 당승을 가운데에 세워 호위했다.

그 요괴는 이 광경을 보고 공중에서 감탄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좋아, 저 스님이다! 방금 전까지 백면 스님이 말 위에 앉아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 어찌하여 저 세 사람에게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일까? 직접 가서 만나봐야 알겠구나. 우선 저 눈치 빠른 놈부터 쓰러뜨

려야 당승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애써 마음을 쓰고 공을 들여도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헛수고만 하게 될 테니까."

요괴는 다시 구름을 타고 내려와, 지난번처럼 소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기다리기로 했다. 요괴가 움직인 거리는 채 반 리도 되지 않았다.

한편, 손오공이 고개를 들어 다시 살펴보니 붉은 구름이 이미 흩어진 뒤였다. 손오공은 다시 스승에게 말을 타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청했다.

삼장법사가 물었다. "요괴가 나타났다고 하더니, 어찌하여 다시 길을 떠나자고 하느냐?"

손오공이 대답했다. "이번에는 그저 지나가는 요괴일 뿐이라, 감히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삼장법사가 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고약한 원숭이 녀석이 나를 아주 놀리는구나! 정말 요괴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 일도 없더니,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 와서는 자꾸만 요괴가 있다며 나를 겁주는 것이냐.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어 실없는 소리로 나를 자꾸만 놀라게 하고, 말에서 떨어지게 만들더니, 이제는 또 지나가는 요괴라고 하느냐? 만약 내가 넘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것이냐? 이놈이 정말……!"

손오공이 말했다. "스승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다리를 다치신다면 치료라도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요괴에게 붙잡혀 가기라도 한다면 대체 어디서 스승님을 찾겠습니까?"

삼장법사는 크게 화가 나서 이를 갈며 긴고주(머리테 조이는 주문)를 외우려 했다. 다행히 사오정이 간곡히 만류한 덕분에, 삼장법사는 겨우 화를 가라앉히고 다시 말에 올라 길을 떠날 수 있었다.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어디선가 다시 비명이 들려왔다. “스승님, 사람 좀 살려주세요!”

삼장법사가 고개를 들어보니, 실은 어린아이 하나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나무에 매달려 있었다. 삼장법사가 고삐를 붙잡으며 손오공을 향해 꾸짖었다. “이 게으른 원숭이 녀석 좀 보게! 어찌 이리도 인정머리가 없고, 마음속엔 그저 때를 쓰며 행패를 부릴 생각뿐이란 말인가! 내가 사람 목소리로 애타게 부르짖는다고 했는데도, 자네는 입만 열면 요괴라고 떠들어대니 원. 저 나무 위에 매달려 있는 게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손오공은 스승이 화를 내시는 것을 보고, 또 눈앞에서 아이의 모습을 마주하고 보니, 한편으로는 (스승이 지켜보는 앞이라) 함부로 손을 쓸 수가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긴고주(머리테 조이는 주문)를 외울까 두려워, 고개를 푹 숙인 채 감히 대꾸도 못 하고 삼장법사가 나무 아래로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삼장법사가 채찍 끝으로 아이를 가리키며 물었다. “너는 어느 집 아냐? 무슨 사정이 있기에 이곳에 매달려 있는 것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내가 너를 구해 주마.”

아이고! 저 아이는 분명 정령이 변신한 것인데, 스승님은 그저 평범한 육신의 눈을 가진 범인이라 알아보지 못하고 계셨다.

요괴는 그가 묻자 더욱 거짓 수작을 부리며, 눈에 눈물을 가득 머금고 외쳤다.

“스님, 스님! 산 서쪽으로 가면 고송간(枯松澗)이라는 계곡이 있고, 그 건너편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제가 바로 그곳 사람입니다. 저희 조부님 성함은 홍 씨인데, 금은보화를 워낙 많이 쌓아두셔서 별명이 ‘홍백만’이셨지요. 조부님이 돌아가신 후 그 재산은 저희 아버지께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사람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느라 재산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는 이름이 ‘홍십만’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방의 호걸들과 교류하며 금은보화를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려 하셨지요. 그런데 어떤 신분도 불분명한 도둑놈들이 나타나 돈을 모두 속여 가로채는 바람에,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맹세하며 단 한 푼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셨지요. 그러자 돈을 빌리려던 자들이 가난에 못 이겨 흉악한 무리를 결성했고, 대낮에 횡불을 들고 병장기를 쥐고서 떼로 몰려와 저희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저희 집 재물을 모조리 약탈하고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를 보니 제법 얼굴이 반반하다며, 어디론가 납치해 가서 산적 두목의 부인(압채부인)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저를 차마 두고 갈 수 없어 품에 꼭 안은 채, 울고 떨며 도둑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산속까지 들어오더니 저까지 죽이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어머니가 간곡히 애원한 덕분에 칼에 맞아 죽는 목숨은 건졌지만, 저를 나무에 밧줄로 매달아 굶겨 죽이거나 열려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끌려갔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사흘 밤낮을 매달려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어느 생에 닮은 인연인지 모르나 이번 생에 노스님을

만나게 되었군요. 부디 큰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구해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제 몸을 팔아서라도 스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설령 죽어 황사가 얼굴을 덮는 한이 있어도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삼장법사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사실이라고 믿어버렸다. 그래서 저 팔계에게 밧줄을 풀어 아이를 구해 내려주라고 일렀다. 어리숙한 저팔계는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저 앞으로 나서서 손을 쓰려 했다.

겉에 있던 손오공이 참다못해 크게 꾸짖었다. “이 요망한 놈! 네 정체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데, 어디서 허튼수작을 부리며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려 드느냐! 집안 재산은 다 빼앗기고, 아버지는 도둑에게 다쳤으며, 어머니는 납치당했다고? 너를 구해준들 누구에게 데려다준단 말이냐? 그리고 나에게 무엇으로 보답하겠다는 것이냐? 네 거짓말이 아주 앞뒤가 안 맞는구나!”

요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오공이 보통내기가 아님을 직감하고 속으로 경계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면서도 겉에 질린 채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다. “스승님, 비록 부모님을 잃고 집안 재산은 다 사라졌지만, 아직 건드리지 않은 전답이 좀 남아 있고 친척들도 다 살아 있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네 친척이 누구냐?”

요괴가 대답했다. “외할아버지는 산 남쪽에 사시고, 고모는 고개 북쪽에 사십니다. 간두에 사는 이사(李四)는 제 이모부이시고, 숲속에 사는 홍삼(紅三)은 제 집안 큰아버지뻘 되십니다. 그 외에도 당숙과 사촌

형들이 모두 저희 마을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저를 구해주신다면, 마을에 도착해 친척들을 만났을 때 스승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은혜를 일일이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답을 좀 팔아서 큰 보답을 올리겠습니다.”

저팔계가 그 말을 듣고는 손오공에게 말했다. "형님, 저렇게 어린아이가 같은 녀석을 왜 굳이 억지로 묶어두려 하십니까? 자기가 강도에게 당했다고는 하지만, 그저 재물 좀 뺏긴 것뿐이지 설마 집이며 땅까지 다 뺏겼겠습니까? 만약 저 아이 친척들에게 이 일을 알린다면, 우리가 아무리 배가 커도 저 아이가 가진 열 마지기 땅값만큼은 먹어치우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그냥 구해줍시다."

저팔계는 그저 먹을 생각뿐이라 일이 잘되고 잘못되고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래서 저팔계가 칼로 밧줄을 끊어 괴물을 내려놓았다. 그러자 괴물은 삼장법사의 말밑으로 달려가 눈물을 글썽이며 머리를 조아렸다. 자비로운 삼장법사가 말했다. "얘야, 내 말에 올라타거라. 내가 데려다주마."

괴물이 대답했다. "스승님, 손발이 매달려 있어서 저리고 허리와 골반이 너무 아픕니다. 게다가 저는 시골뜨기라 말 타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요." 삼장법사가 저팔계에게 업으라고 시켰다. 그러자 괴물이 눈치를 슬쩍 살피며 말했다. "스승님, 피부가 얼어서 감각이 없는데, 저 스승님에게 업히기는 무서워요. 입은 툭 튀어나오고 귀는 커다란 데다 뒷머리까지 뺏뺏해서, 저한테 닿기만 해도 겁이 납니다."

삼장법사가 다시 말했다. "그럼 사오정에게 업히거라." 괴물이 또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스승님, 강도들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을 때, 놈들이 하나같이 얼굴에 분칠을 하고 가짜 수염을 붙인 채 칼과 몽둥이를 휘둘렀거든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스님의 험상궂은 얼굴을 보니 혼이 쏙 빠질 것 같아서, 저분에게 업히는 건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삼장법사가 이번에는 손오공에게 업으라고 했다. 손오공이 허허 웃으며 말했다. "내가 업으마, 내가 업을게." 괴물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아주 순순히 손오공의 등에 업혔다.

손오공이 아이를 길가로 끌고 가 슬쩍 들어보니, 무게가 겨우 석 근 열 냥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 말쑥꾸러기 녀석, 오늘은 네 제삿날이다! 감히 이 손오공 앞에서 수작을 부려? 네가 보통 놈이 아니라는 걸 내가 딱 알아보았다."

요괴가 대답했다.

"저는 부모님 밑에서 곱게 자란 아이인데, 불행하게도 이런 큰 재난을 만난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째서 보통 놈이 아니라는 말씀이십니까?"

손오공이 말했다.

"네가 부모 밑에서 곱게 자란 아이라면, 어찌 이리 몸이 가볍단 말이냐?"

요괴가 말했다.

"제 골격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그래, 올해 몇 살이냐?"

요괴가 말했다.

"일곱 살입니다."

손오공이 비웃으며 말했다.

"보통 한 살에 한 근씩은 나야 하니 일곱 근은 되어야 할 터인데, 너는 어찌 네 근도 채 안 되는 것이냐?"

요괴가 말했다.

"어릴 때 젖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알았다. 내가 업어는 주마. 혹시라도 오줌이 마려우면 꼭 나에게 말하거라."

삼장법사가 저팔계, 사오정과 함께 앞장서서 걷고, 손오공은 아이를 등에 업은 채 그 뒤를 따르며 일행은 서천을 향해 길을 재촉했다. 이 상황을 시로 읊으면 다음과 같다.

시로 이르되,

덕이 높으면 마장도 높게 나타나고 고요한 선의 기운 속에 요괴가 생겨나네. 마음이 곧아 중도를 행한다 하나 어리석은 이의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기 쉽구나. 생각의 말은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욕망을 품고 근심은 말없이 스스로를 태워버리네. 사악한 자가 뜻을 얻어 헛된 기쁨을 누려도 결국에는 바른 도리에 의해 사라지리라.

손오공은 요괴를 등에 업고 가며, 고생을 몰라주는 삼장법사가 못내 원망스러웠다. "이 험하고 가파른 산길을 맨몸으로 걷기도 힘든데, 나 더러 사람까지 업고 가라니! 이놈은 요괴라서가 아니라, 설령 좋은 사람이라 해도 부모도 없는 처지에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알 수 없으니, 차라리 확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하지만 요괴는 이미 손오공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요괴는神通력을 부려 사방의 공기를 네 번이나 크게 들이마신 뒤, 손오공의 등에 한꺼번에 내뿜었다. 그러자 손오공이 업은 몸이 순식간에 천 근이나 되는 것처럼 무거워졌다.

손오공이 웃으며 말했다. "이놈아, 네가 몸을 무겁게 만드는 법술을 써서 이 할아버지를 누르려 하는구나!"

요괴는 그 말을 듣고 손오공이 자신을 해칠까 겁이 났다. 요괴는 얼른 가짜 몸을 벗어 던지고 원신(참된 정신) 상태로 튀어나와 구만리 높은 하늘 위로 훌쩍 뛰어올라 버렸다.

그사이 손오공의 등에 업힌 무게는 더욱 무거워졌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손오공은 요괴를 낚아채 길가에 있는 매끄러운 바위 위로 세계 내동댕이쳤다. 그 충격에 요괴의 가짜 몸은 고기떡처럼 으깨지고 말았다. 손오공은 요괴가 또 무례하게 굴까 봐 아예 사지를 뜯어내 길 양옆으로 던져버렸고, 요괴의 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났다.

공중에 떠 있는 요괴는 그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고는, 참지 못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쳤다. "이 원숭이 중놈이 아주 게으름뱅이로구나! 나를 요괴로 몰아 스승을 해치려 한다면서, 아직 손 하나 까딱하는 것도 못 봤는데 어찌 나를 이리 상하게 한단 말이냐? 내가 미리 수를 써서 정신을 빼놓은 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지금 당장 당승을 잡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더 영악해져서 골치를 썩일 게 뻔하다!"

말을 마친 요괴는 공중에서 회오리바람을 일으켰다. 휘익 하는 소리와 함께 돌풍이 몰아치며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어 오르니, 그 기세가 실로 흉악하기 그지없었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니, 시로 이르되, "거친 바람 분노하며 물과 구름을 뒤섞고, 검은 기운 솟구쳐 해를 가려 어둡도다. 고개 너머 나무들은 뿌리째 뽑혀 나가고, 들판의 매화나무는 줄기째 쓰러졌네. 황사로 눈이 가려 길을 잃고 헤매며, 기괴한 돌들이 튀어 길은 엉망이 되었구나. 땅은 구르고 뒤섞여 어둠에 잠기고, 산속의 짐승들은 울부짖으며 날뛰네."

바람이 너무 거세 삼장법사는 말 위에서 제대로 버티기조차 힘들었다. 저팔계는 겁에 질려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고, 사오정은 고개를 숙여 얼굴을 가렸다. 손오공은 이것이 요괴가 부리는 바람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급히 몸을 날려 쫓으려 했으나, 요괴는 이미 바람을 타고 당승을 낚아채 사라져 버렸다. 흔적도 그림자도 없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길이 없어 도무지 뒤를 쫓을 수가 없었다.

한동안 거세게 몰아치던 바람이 잦아들고 햇살이 다시 밝게 비치기 시작했다. 손오공이 앞으로 나아가 살펴보니, 백룡마는 겁에 질려 울부짖고 있었고, 짐 꾸러미들은 길 아래로 내팽개쳐져 있었다. 저팔계는 절벽 아래에 엎드려 신음하고 있었으며, 사오정은 언덕 앞에서 울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손오공이 "저팔계!" 하고 불렀다. 멍청한 저팔계는 그 소리가 손오공인 줄 알고 고개를 들었으나, 이미 광풍은 가라앉은 뒤였다. 저팔계는 몸을 일으켜 손오공을 붙잡으며 말했다. "형님, 바람이 어찌나 무섭게 불던지!" 사오정도 다가와 거들었다. "형님, 이건 그냥 바람이 아니라 회오리바람이었어요." 그러더니 사오정이 물었다. "스승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팔계가 대답했다. "바람이 워낙 거세게 몰아쳐서 우리 모두 머리를 가리고 각자 몸을 숨기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스승님도 말 위에 엎드려 계셨을 거예요." 손오공이 물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로 가셨느냐?" 사오정이 말했다. "스승님은 마치 등불의 심지처럼 가냘프셔서, 바람 한 번에 휩쓸려 가버릴 것만 같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형제들아, 우리 이제 그만 헤어지는 게 좋겠다."

저팔계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 얼른 흠어져서 각자 갈 길을 찾는 게 차라리 나아. 저 끝도 없는 서천 길을 언제까지 가고 있겠어?"

그 말을 들은 사오정은 깜짝 놀라 몸이 굳어버린 듯하며 말했다. "사형,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전생의 죄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받아 머리에 계율을 받고 법명을 새로 받아 부처님께 귀의한 사람들이잖아요. 죄를 씻기 위해 삼장법사님을 모시고 서천으로 가서 불경을 구하겠다고 맹세했는데, 여기서 다 그만두고 각자 갈 길을 찾겠다니요. 그러면 보살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스스로 쌓은 덕을 망쳐 남들에게 끝까지 책임도 못 지는 사람이라고 비웃음을 사게 될 거예요!"

손오공이 말했다. "동생 말이 맞긴 해. 하지만 스승님은 도통 남의 말을 안 들으시니 어찌겠나. 내 화안금정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보았던 말이다. 방금 그 회오리바람은 나무에 매달려 있던 아이가 일으킨 것이야. 나는 그놈이 요괴라는 걸 알아봤지만, 너희는 몰랐고 스승님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착한 집 아이인 줄로만 알고 나더러 엎고 가라고 하셨지. 그래서 내가 그놈을 골탕 먹이려고 속임수를 좀 썼더니, 그놈이 몸을 무겁게 만드는 술법을 써서 나를 누르더구나. 그래서 내가 그놈을 땅에 내동댕이쳐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지. 그런데 그놈이 아마시체를 해체하는 술법이라도 부렸는지, 회오리바람을 일으켜서 스승님을 낚아채 가버린 거야. 스승님이 매번 내 말을 안 들으시니 속이 상하고 마음이 꺾여서, 차라리 다 같이 흠어지자고 한 것이었어. 하지만 네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보이니 내가 갈팡질팡하게 되는구나. 팔계야, 너는 정말 어떻게 할 작정이냐?"

저팔계가 말했다. "아이고, 내가 입이 방정이라 실언을 했네. 사실 우리도 흠어지면 안 되지. 형님, 어쩔 수 없지만 사오정의 말이 맞으니,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요괴를 찾아 스승님을 구하러 가요."

그러자 손오공은 화난 기색을 거두고 기쁘게 웃으며 말했다. "좋아, 형제들아!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으자꾸나. 어서 짐과 말들을 챙겨서 산으로 올라가 요괴를 잡고 스승님을 구해내자!"

세 사람은 념쿨을 헤치고 산비탈과 골짜기를 돌며 50~70리쯤 나아갔으나,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 산에는 날짐승이나 길짐승의 흔적조차 전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오래된 측백나무와 소나무만 가득했다. 손오공은 마음이 몹시 초조해져 몸을 획 날려 험준한 산봉우리 꼭대기로 뛰어올랐다. 그러고는 크게 외쳤다.

"변해라!"

손오공은 마치 천계를 어지럽히던 시절의 모습처럼 머리 셋에 팔 여섯 개를 가진 형상으로 변했다. 그는 여의금고봉을 휘둘러 세 개의 금고봉으로 만든 뒤, 동쪽과 서쪽을 번갈아 가며 사정없이 내리치며 난폭하게 휘둘렀다. 이를 본 저팔계가 말했다.

"사오정, 큰일 났네. 형님이 스승님을 못 찾으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화풀이를 하고 있구먼."

손오공이 한바탕 몰아붙이자, 요괴 무리 사이에서 쫓겨난 가난한 신들이 줄줄이 나타났다. 이들은 옷이 여기저기 찢겨 있고 가랑이와 입구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꼴로 산 앞에 무릎을 꿇으며 외쳤다.

“대성님, 산신과 토지신들이 뵈기를 청합니다.”

손오공이 물었다.

“산신과 토지신이 왜 이렇게나 많으냐?”

신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대성님께 아뢰니다. 이 산의 이름은 육백 리에 이르는 찬두호산(鑽頭號山)입니다. 저희는 십 리마다 산신 한 명과 토지신 한 명이 배정되어, 총 서른 명의 산신과 서른 명의 토지신이 모여 있습니다. 어제 대성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미처 인원이 다 모이지 못해 마중이 늦었습니다. 대성님의 노여움을 샀으니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손오공이 말했다.

“이번 한 번은 죄를 묻지 않겠다. 대신 묻겠다. 이 산에는 요괴가 얼마나 있느냐?”

신들이 울먹이며 대답했다.

“아이고, 대성님! 요괴라고 해봐야 딱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그놈 하나가 저희를 아주 탈탈 털어놓았습니다. 향도 없고 종이도 없어서 머리가 다 벗겨질 지경이고, 제물로 올릴 음식도 없어 다들 옷 한 벌 제대로 못 걸치고 배를 곯고 있습니다. 요괴가 많기는커녕 요괴 하나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손오공이 다시 물었다.

“그 요괴는 산 앞에 사느냐, 아니면 산 뒤에 사느냐?”

신들이 말했다.

“산 앞뒤 어디에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산 중에는 고송간이라 불리는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 옆에 화운동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 안에 신통력이 엄청난 마왕이 하나 살고 있는데, 수시로 저희 산신과 토지신들을 잡아다가 불을 때게 하고 밤마다 방울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게다가 어린 요괴들까지 찾아와 상납금을 내놓으라며 괴롭힙니다.”

손오공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너희는 음계의 귀신 신령인데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느냐?”

신들이 대답했다.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산노루나 들사슴 몇 마리를 잡아 아침 저녁으로 정성을 들여 바칠 뿐입니다. 만약 바칠 것이 없으면 저희 사당을 부수고 옷을 벗겨가며, 도저히 편히 살 수 없게 만듭니다. 부디 대성님께서 이 괴물을 물리쳐 주셔서 산의 생명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손오공이 말했다.

“그놈의 통제를 받으며 동굴 근처에 늘 머물렀으니, 그놈이 대체 어디서 온 요괴이며 이름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신들이 말했다.

“그놈 이야기를 들으시면 대성님께서도 아실지 모릅니다. 그놈은 우마왕의 아들이자 나찰녀가 낳은 아이입니다. 화염산에서 삼백 년 동안 수행하며 삼매진화(三昧眞火)를 단련했는데,神通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우마왕이 이 호산을 지키라고 보낸 것입니다. 어릴 적 이름은 홍해아이고, 별호는 성영대왕이라 불립니다.”

손오공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토지와 산신을 물러가게 한 뒤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나 봉우리 아래로 뛰어내리며 저 팔계와 사오정에게 말했다.

"형제들아, 안심해라. 더는 걱정할 것 없다. 스승님께 절대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저 요괴는 나랑 친척 관계거든."

저팔계가 웃으며 말했다.

"형님, 거짓말 마세요. 형님은 동승신주에 계셨고 여기는 서우하주잖아요. 거리가 얼마나 먼데, 만수천산이 가로막고 바다도 두 개나 건너야 하는데 어떻게 친척이라는 거예요?"

손오공이 대답했다.

"방금 만난 이들은 모두 이 지역의 토지와 산신들이었다. 요괴가 왜 나타났는지 물었더니, 우마왕의 아들이자 나찰녀가 키운 아이인데 이름은 홍해아라고 하며 성영대왕이라 불린다더구나. 생각해보니 내가 오백 년 전 천계에서 대소동을 일으켰을 때, 천하의 명산을 두루 다니며 대지의 호걸들을 찾아다녔지 않느냐. 그때 우마왕과 내가 의형제를 맺었던 말이다. 대여섯 명의 마왕 중 내가 가장 체구가 작았기에 우마

왕을 형님이라 불렀지. 저 요괴는 우마왕의 아들이니, 내가 그 아버지와 아는 사이라면 따지고 봤을 때 나에게는 숙부뻘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그가 어찌 감히 내 스승님을 해치겠느냐? 어서 서두르자구나."

사오정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 예부터 '삼 년 동안 문안도 안 가면 친해도 남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형님과 그분은 오륙백 년 동안 떨어져 지내셨고, 술 한 잔 나누는 적도 없으며 명절에 인사를 간 적도 없는데, 그분이 형님을 무슨 친척으로 알겠어요?"

손오공이 말했다.

"너는 어찌 사람을 그렇게 좁게 보느냐? 예부터 '부평초 한 잎이 바다로 돌아가면, 사람이 어찌 서로 만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설령 그가 친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우리 스승님을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가 우리를 대접해 술상을 차려주길 바라지는 않지만, 적어도 우리 스승님만은 온전하게 돌려보내 줄 게 분명하다."

세 형제는 각자 정성을 다해 마음을 가다듬고, 백마를 끌며 말 등에 짐을 실은 채 큰길을 따라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백 리 남짓을 걸었을까, 문득 소나무 숲이 나타났다. 숲 안에는 굽이치는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시냇물 아래로는 맑고 푸른 물줄기가 세 차게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다. 시냇가 끝자락에는 돌다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다리는 저편 동굴로 이어져 있었다.

손오공이 말했다. "동생들아, 저쪽을 봐라. 저기 바위 절벽이 번쩍거리는 걸 보니 필시 요괴가 사는 곳임이 틀림없다. 우리 의논을 좀 하자. 누가 짐과 말을 지키고, 누가 나와 함께 가서 요괴를 잡겠느냐?"

저팔계가 대답했다. "형님, 이 못난 돼지는 참을성이 별로 없으니, 그냥 형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손오공이 말했다. "좋다, 좋아. 사오정, 너는 말과 짐을 숲 깊은 곳에 잘 숨겨두고 조심히 지키고 있거라. 우리 둘이 가서 스승님을 찾아뵙고 오마."

사오정이 명을 받들자, 저팔계는 손오공을 따라 각자 무기를 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시로 이르되, "아직 다스려지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사악한 불길이 성하여, 마음의 원숭이와 나무의 어머니가 서로 돕고 있구나."

결국 이번 여정이 길흉화복 중 어느 쪽으로 흐를지는 알 수 없으니,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